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의 자생적 근대성 비교 연구

— 천관(天觀)·지관(地觀)·인간관(人間觀)을 중심으로 —

Comparative Study on Indigenous Modernity
of Donghak Thought and Daesoon Thought

Focusing on the Trinity of Heaven, Earth and Man

指導教授 高南植

大眞大學校 大學院 大巡宗學科

崔原赫 | 2024년 7월

目次 | Table of Contents

- I. 서론**
Introduction
- II. 자생적(自生的) 근대성과 리미널리티**
Indigenous Modernity and Liminality
- III. 동학사상의 자생적 근대성과 작란(作亂)의 리미널리티**
Donghak: Modernity and Liminality of Disorder
- IV. 대순사상의 자생적 근대성과 치란(治亂)의 재활성화**
Daesoon: Modernity and Revitalization of Order
- V.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의 자생적 근대성 비교**
A Comparison of the Two Thoughts
- VI. 결론**
Conclusion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학술적 과제

- 동학사상은 주로 종교사상으로만 연구되어 왔으며 "동학(東學)"이란 명칭에 내포된 동양의 자생적 근대성과 철학적 사유 방법론으로서는 아직 충분히 조명되지 못함
- 대순사상 또한 "참동학"을 주장했음에도 동양의 철학적 사유 방법론으로서 연구가 부족함

시대적 배경

- 서구적 근대성이 마테오 리치가 서양으로 전파한 동양문명에서 기원했다는 사실이 최근 재조명됨
- 동양에서 근대화 장애요인으로 지목된 유교가 서구에서는 근대성의 기원이었음이 밝혀짐

현대적 의의

- 서구적 근대문명이 초래한 핵무기·환경문제 등 인류 절멸의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자생적 근대성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음
- 서구의 탈근대성(post-modernism) 논의가 뜻밖에서 대안을 찾는 상황에서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의 재주명 필요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의 현대적 재평가

서양 근대성의 동양적 기원 재발견

- 베버는 근대성의 기원을 칼빈의 구원예정설이라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마테오 리치가 전파한 중국의 유교문명에서 시작됨
- 주경지, 프랑크, 홉슨 등 동서양 학자들이 서구 계몽주의의 동양적 기원을 재조명하는 연구 진행 중

온라인 자료 개방과 학술적 재평가

- IT 기술 발달로 구글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서구 근대성의 여명기 자료 무료 개방
- 은폐되었던 서양 근대성의 동양적 기원이 기록물을 통해 실증적으로 밝혀짐

동학·대순사상의 새로운 위상

- 프랑수아 줄리앙 등 탈근대성 이론가들이 서구 근대성의 대안을 동양에서 찾는 연구 진행
- 근대 문명의 위기와 대안적 근대성으로서 일찍이 종교적 회귀를 강조한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의 현대적 가치 부각

연구 목적



천관(天觀)

하늘에 대한 인식



지관(地觀)

땅에 대한 인식



인간관(人間觀)

인간에 대한 인식

주요 연구 목적

- 동학 관련 사상이 동양의 철학적 사유 방법 을 통해 동서양을 융합한 세계관을 구축했음을 규명
- 상관적 사유와 리미널리티 관점에서 천관지관인간관 의 자생적 근대성 특징 분석
-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의 비교를 통해 참동학이 가지는 철학적 사유 방법론으로서의 완성도 검증

기대효과

- 동양의 자생적 근대성이 근대 과학철학과 대등 한 철학적 사유방법으로서 가치 재발견
- 현대 사회의 위기에 대한 대안적 근대성 으로서의 가능성 탐색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 범위

-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의 천관(天觀), 지관(地觀), 인간관(人間觀)을 중심으로 자생적 근대성 고찰
- 초기 동학(수운의 4년간 활동기)을 중심으로, 대순사상의 참동학과 비교 연구

이론적 틀

- 리미널리티(Liminality) : 종교적 변화를 통과의례의 중간지대로 설명하는 이론 적용
- 재활성화(Revitalization) : 외부 위협에 대응한 전통의 활성화 과정 분석
- 상관적 사유(correlative thought) : 동양의 철학적 사유방식으로서 접근

연구 방법

- 세부 연구 순서: 근대성 관련 선행연구 분석 → 자생적 근대성의 조건 규명 → 천관지관인간관 중심의 비교 분석 → 결론
- 문헌 자료: 『동경대전』, 『용담유사』 (동학), 『전경』 (대순사상)을 중심으로 분석

연구의 이론적 기반



상관적 사유(相關的 思惟, Correlative Thinking)

- ◆ 만물의 전체를 먼저 보고 그 맥락과 관계에서 부분을 이해하는 동양의 사유체계
- ◆ 서양의 분석적 사유(Analytic Thought)와 달리 전식적(全息的)이고 홀리스틱(Holistic)한 사유체계
- ◆ 주소를 쓸 때 가장 먼 국가명부터 쓰는 것처럼 전체에서 부분으로 사고하는 방식



리미널리티(Liminality) - 변화기제

- ◆ 터너(Victor Turner)가 제시한 통과의례의 중간지대 개념
- ◆ 변화이전과 이후 사이의 경계 공간에서 일어나는 변형의 과정을 설명 이분
- ◆ 법적 서양사고와 달리 제3의 중간지대를 통해 개인적, 사회적 변화 이해



재활성화 이론(Revitalization Movements) - 지속 기제

- ◆ 월라스(Anthony F. C. Wallace)가 제시한 외부 위협에 대한 문화적 대응 이론
- ◆ 정체성 위기 시 전통의 장점을 활용해 신념체계를 재정비하는 과정 리미널리티

결론 및 전망

연구의 학술적 의의

- 동양철학의 현대적 위상강화 및 서구 근대성에 대한 대안 제시
- 자생적 근대성 을 통한 동양사상의 독자성과 보편성 재발견

문명의 융합 가능성

- 동서양 사유체계의 상호보완적 결합 모델 제시
- 대안적 합리성과 윤리성의 조화 를 통한 새로운 문명 방향 모색

현대사회 적용 가치

- 천관지관인간관의 통합을 통한 환경위기 극복 방안 제시
- 동양의 상관적 사유 와 서양의 분석적 사유의 통합 가능성

후속 연구 방향

- 동학대순사상의 실천철학적 측면 탐구 확대
- 현대 과학기술 문명과 동양사유방법론 의 창조적 융합 연구

"동양의 자생적 근대성은 현대 문명의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사유와 실천의 체계를 제공합니다"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Research Background and Necessity

목차

- 1 동학시상과 대순시상 소개
- 2 동양의 자생적 근대성 개념
- 3 서양 근대성의 동양기원
- 4 대안적 근대성의 중요성
- 5 동학시상의 철학적 사유 방법론
- 6 대순시상의 철학적 사유 방법론
- 7 연구의 의의 및 기대효과
- 8 결론

동학사상과 대순사상 소개

동학사상(東學思想)

- 최제우(수운)에 의해 1860년에 창시된 한국 자생 종교사상
- "동학(東學)"이란 명칭은 서양의 "서학(西學)"에 대응하는 동양의 자생적 근
- 대성 추구물질 중심 서양 근대성에 대응하는 윤리적 성찰과 종교적 철학을 제
- 시

철학적 사유 방법론으로서 동서양의 사상적 융합 모색



대순사상(大巡思想)

강증산(1871-1909)에 의해 체계화된 "참동학(參東學)"으로서의 사상체계

- "작란(作亂)한 사람은 수운(水雲)이요, 치란(治亂)하는 사람은 증산(甞山)"이라는 관점에서 동학의 계승 및 발전
- 동학이 제기한 문제의식을 해결하고 완성하려는 철학적 시도
- 자생적 근대성의 철학적 사유 방법론을 더욱 체계화
-

동양의 자생적 근대성 개념

자생적 근대성의 정의

서구의 외래 사상에 기반하지 않고, 동양 내부의 문화적 철학적 기반에서 자체적으로 발전한 근대적 사유구조와 세계관

동학과 대순사상에서의 자생적 근대성

- 동학의 '서학(西學)'과 대비되는 '동학(東學)' 개념
- 유교적 전통에서 확장된 새로운 사유체계
- 철학적 사유 방법론으로서의 '학(學)' 재정의 대순
- 사상의 '참동학'으로서 자생적 근대성 체계화

서구적 근대성	동양적 자생적 근대성
물질 중심 문명	인본주의와 윤리적 성찰 중심
도구적 이성 중시	인간과 자연의 조화 추구
자연과 인간의 분리	천·지·인(天地人) 합일사상
개인중심적 합리성	공동체적 상생과 후천개벽

“자생적 근대성의 현대적 의의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이 자생적 근대성으로 여러 방면에서 연구됐지만, 기존의 연구에서는 '동학'이란 이름에 전제된 동양의 철학적 사유 방법론, 곧 동양적·한국적 철학 사유 방법론에 관한 연구는 부족했다."

서양 근대성의 동양 기원

서구 근대성의 재발견

마테오 리치(1552-1610)가 동양문명을 서양에 전파



유교적 윤리체계와 사유방식이 서구 계몽주의에 영향



IT 기술 발달로 서구 근대성의 동양 기원이 재조명됨

주요 연구자들

동양권 학자

- 주검지(朱謙之) - 『중국이 만든 유럽의 근대』
- 황태연 - 『유교적 근대의 일반이론』
- 조혜인, 전홍석, 이영재, 이동희 등

서양권 학자

- 프랑크(Andre Gunder Frank) - 『리오리엔트』
- 홉슨(John Hobson) - 『서구 문명은 동양에서 시작되었다』
- 크릴(Herlee G. Creel), 라이히바인(Adolf Reichwein) 등

"동양에서는 근대화의 장애요인으로 지목된 유교가
오히려 서구에서는 근대성의 기원이었다"

대안적 근대성의 중요성

서구 근대문명의 위기

- ⚠️ 핵무기 개발과 확산으로 인한 인류 절멸 위기
- 🌍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적 위기물
- 🏠 질 중심 근대성과 기술 발전의 불균형 공동체
- 👥 의식 약화와 윤리적 성찰 부재

"현대 사상가들은 대안적 근대성을 윤리적 성찰과 종교적 회귀에서 찾고 있다"

동학대순사상의 대안적 근대성

- ⚖️ 물질과 정신의 조화로운 세계관 제시인
- ♥️ 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윤리적 가치관동
- 🔄 서양 사상의 융합과 상호보완적 접근종
- 👤 교적 성찰에 기반한 근대성의 재구성

"탈근대성 논의로 대안적 근대성을 준비해 온 포스트모더니즘 사상가들 또한 근대성의 대안을 자생적 근대성과 같이 윤리적 성찰과 종교적 회귀에서 찾고 있다"

동학대순사상의 철학적 사유 방법론

동서융합적 사유

- 동도서기론(東道西器論): 동양의 도와 서양의 기술 조화중
- 체서용론(中體西用論): 동양 가치 중심에 서양 방법 활용
- 서학에 대응하는 자생적 근대성으로서의 '동학(東學)'

동아시아적 논리체계

- 음양오행(陰陽五行) 기반 사유체계
- 상관적 사유(correlative thinking)의 특성
- 서양 과학의 선형적 인과관계와 다른 다중 인과관계 체계

학(學)의 의미 확장

- 종교를 '학(學)'으로 이해하는 동아시아적 특성
- 성리학에서 제시된 '학'의 총체적 사유체계 계승
- 심(心)의 문제를 논하나 현실적 문제 해결 지향
- 동학의 수양론적 측면과 한국적 인문학 정체성

과학철학적 의의

- 바슐라르, 라깡, 푸코 등 현대 과학철학과의 점점 지수화
- 풍(地水火風)과 같은 전통적 과학관의 재평가 인식론적
- 단절(Epistemological Break)과 패러다임 개념 서양 과
- 학관의 한계를 보완하는 대안적 사유체계

연구의 의의 및 결론

연구의 의의

- 동학대순사상의 철학적 사유 방법론이 현대 학문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 발견
- 서구 중심 근대성을 넘어서는 대안적 근대성 모색의 토대 구축
- 동서양 철학의 대화와 상호 이해를 위한 방법론적 기반 제공
- 한국적 인문학과 철학의 세계화를 위한 학문적 기초 마련

결론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에 담긴 자생적 근대성과 철학적 사유 방법론은 오늘날 물질 중심 서구 근대 문명이 초래한 지구적 위기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본 연구는 철학적 실천적 의미를 함께 조명함으로써 미래 대안 문명 구축에 있어 한국 사상이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특히 '학(學)'의 본래 의미를 되살려 현대 학문과 인류 문명의 방향성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연구의 목적과 범위

Research Objectives and Scope

연구 목적 및 배경

- 본 연구는 '동학' 관련 사상이 동양의 철학적 사유 방법을 통해 동서양을 융합한 천관지관·인간관을 구축하였음을 밝히고자 함
-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의 비교를 통해 상생적(相生的) 천계관·지계관·인계관이 어떻게 도출되었는지 분석
- 서양 근대성에 대한 대안으로서 자생적 근대성의 수립 과정과 특징을 고찰
-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에서 나타나는 동양적 사유체계의 철학적 구조와 논리적 정합성 재평가

핵심개념정의

- **상관적 사유(correlative thought)**

만물의 전체를 먼저 보고 맥락과 관계에서 부분을 보는 동양의 홀리스틱한 사유체계

- **리미널리티(Liminality)**

통과의례의 중간지대로, 변화 이전과 이후 사이의 제3의 영역을 설명하는 이론

- **재활성화(Revitalization Movements)**

외부 위협에 대해 전통을 활용한 대응과정의 변화와 유지 기제를 설명하는 이론

연구 범위 및 방법론

- 동서양 사유체계 비교: 상관적 사유(相關的 思惟)와 분석적 사유(annalistic thought)의 대비
- 연구 범위: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의 천관(天觀)·지관(地觀)·인간관을 중심으로 지생적 근대성 추적
- 연구 방법: 문헌 분석 및 선행연구 고찰, 리미널리티(Liminality)와 재활성화(Revitalization) 이론 적용
- 전통적 천관지관인간관의 근대적 변화 및 그 원리를 두 사상 간 상호 비교

연구구조개요

- I. 선행연구 분석
- I. 근대성과 자생적 근대성의 개념적 구분, 이론 제시
- I. 동학사상의 천관지관인간관 분석
- IV. 대순사상의 천관지관인간관 분석
- V. 두 사상의 비교 및 종합
- VI. 결론 및 연구의 의의

동학사상의 천관·지관·인간관

1. 시천주적(侍天主的) 천관

- 동양의 동화적(同化的) 천관과 서양의 형상적(形相的) 천관의 융합
- 하늘을 모시는 개념으로 신성과 인간의 새로운 관계 정립

2. 조화정(造化定)적 지관

- 동양의 응축적(凝縮的) 지관과 서양의 질료적(質料的) 지관의 통합
- 자연의 조화를 정하는 개념을 통한 근대적 자연관 제시

3. 영세불망(永世不忘)적 인간관

- 동양의 접화적(接化的) 인간관과 서양의 성장론적 인간관의 결합
- 영원히 잊지 않는 역사의식과 근대적 인간 주체의 확립

대순사상의 천관지관인간관

- **인신강세의 천계관**- 상제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강세하심으로써 천지인 삼계를 통합하는 관점
- **천지성경신의 지계관**- 천지가 천지신명의 성(誠)과 경(敬)과 신(信)으로 발생하고 유지된다는 세계관
- **성사재인의 인계관**- 일이 이루어짐은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인간 주체성 중심의 세계관
- **참동학으로서의 특성**- 동학사상에서 제시된 용어들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고 보완하여 동양의 철학적 사유 방법론에 더 충실한 체계 구축

연구의의및전망

- 자생적 근대성 확립으로서의 '동학'에 대한 본질적 이해 가능성 제시
- 동서양 사유 방법론의 융합을 통한 상생적(相生的) 세계관 구축 의의
- 현대 문명의 위기 해결을 위한 대안적 근대성 모델로서의 가치 발굴
-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의 천관·지관·인간관에 내재된 동양 철학의 현대적 적용 가능성 모색

3

선행연구 분석

Analysis of Prior Research

목차

1. 연구 개관
2. 연구 분야별 분석: 민중운동
3. 연구 분야별 분석: 종교사상
4. 연구 분야별 분석: 철학적 사유방법
5. 주요 연구자별 관점 (1)
6. 주요 연구자별 관점 (2)
7. 동학사상과 대순사상 비교 연구
8. 상관적 사유 연구
9. 동시성 연구와 프랙탈 과학
10. 동학사상 연구의 미진점
- 11. 종합 및 논의**
- 12. 결론 및 향후 과제**

연구개관

- 동학사상, 대순사상에 대한 선행연구는 1,000편 이상의 논문에서 발전
- 주요 논의: '실학'에서 '동학'으로, 자생적 근대성의 철학적, 종교적, 사회적 함의 탐구
- 연구 영역: 민중운동, 종교사상, 철학적 사유방법으로 구분

민중운동 분야 선행연구

- 동학 민중운동: 동학농민혁명 등 실제 사회운동의 전개 역사 분석
- 방법론: 사회과학적 접근, 역사적 맥락 강조
- 주요 연구 초점:
 - 민중의 영성적 변화와 의식 구조 분석
 - 사회 구조 변화와 역사적 의의 조명
 - 종교 운동에서 사회 운동으로의 확장 과정

종교사상 분야 선행연구

- 동학과 대순의 종교사상 비교 연구 활성화
- 종교사상적 의의 탐색 연구자들
 - 장병길: 민중 영성, 천지변화 원리, 신명관
 - 정진홍: 테오스(Theos)로서의 동학, 동학을 한국 종교사 흐름에 위치시킴
 - 윤이흠: 최고신 형태, 정감록의 변혁적 세계관 계승
- 대순사상의 해원상생: 탈근대적 대인적 근대성으로 해석

철학적 사유방법 분야 선행연구

- 과정철학, 상관적 사유, 동시성, 프랙탈 과학 등 동서융합적 분석 등장
- 주요 학자:
 - 김경재(과정신학) - 동학의 신관을 범재신론으로 해석
 - 김상일(신서학) - 하츠혼, 존 캡의 과정 신학 적용
 - 박재주(주역적 분석) - 주역사상의 과정철학적 분석
- 동학과 대순의 철학적 근대성 접근: 동양 전통사상의 사유방법과 현대 과학철학의 접점 탐색

주요 연구자별 관점 (1)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을 깊이 있게 해석한 연구자들

- **장병길:** 민중 영성, 천지변화론

-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은 **기층 민중의 영성적 세계관**으로 이해
- 대순사상에서는 **신명관, 인간관, 가치관** 등의 총체적 변화 수반

- **정진홍:** '테오스(Theos)' 개념, 동학의 근대성 강조

- 한국종교사를 **미메시스(도교), 뮈토스(불교), 로고스(유교), 테오스(동학)**로 정리
- 동학은 짧은 출현 기간이었지만 **테오스(Theos)의 시작**이라는 중요한 의미

- **윤이흠, 최종성:** 정감록·신종교와의 연관

- 윤이흠: 동학은 **정감록의 변혁적 세계관**을 공유하고, 이후 신종교의 표본
- 최종성: 동학을 '**테오프락시(Theopraxy)**'라는 의례중심으로 연구할 필요성 주장

주요 연구자별 관점 (2)

- **강돈구:** 『정역』 과 한국 신종교의 차별성 강조, 특히 대순사상에서 한국적 특징을 잘 표현
- **노길명:** 탈근대성과 현대적 현상으로서 대순의 해원상생 사상 연구, 서양 근대성 위기에 대한 대안적 근대성으로 평가
- **김홍철:** 금산사와 진표율사 중심의 백제 미륵신앙과 동학대순사상의 지리적 연관성 연구
- **돈 베이커:** 한국인의 영성(靈性)을 이루는 신(神)과 도(道)의 결합 관점에서 동학 관련 사상 해석
- **유동식:** 풍류(風流) 신학 제시, 한국 민간신앙의 3대 주류와 동학대순사상의 연관성 탐구

동학사상과 대순사상 비교 연구

- 비교연구의 핵심 쟁점 및 대표적 학자
 - 김지하: 정치적 근대성(동학) vs 문화적 근대성(대순)
 - 김탁: 용어 비교 및 인간중심주의적 접근

동학사상

- 정치적 근대성, 조직적 혁명
- 동세개벽(動世開闢) 추구

대순사상

- 문화적 근대성, 일상적 실천
- 정세개벽(靖世開闢) 지향

- 두 사상의 상관적 사유 및 자생적/탈근대성 해석 시도

상관적 사유 연구

- 상관적 사유: 동양 전통사상의 핵심, 동학과 대순 해석에서 주목받는 개념
- 유교, 도교, 프랙탈 과학에까지 연결되는 광범위한 해석틀
- 개별 사상 연구에는 적용되었으나 두 사상의 비교 연구에는 미진
- 주요 연구자:

김형효

이창일

곽신환

정우진

박정진

김기

백승종

이봉호

김백현

동시성 연구와 프랙탈 과학

- 동시성: 종교와 과학의 통합적 접근
 - 프랙탈 과학, 영원 철학을 통한 동서양 융합 근대성 해석
 - 전체가 부분 속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프랙탈 패턴 연구
- 주요 연구자:
 - 허훈: "영원 철학(Perennial Philosophy)"을 통한 대순사상 조망
 - 박병훈: 동학의 강필(降筆) 연구를 통한 동시성 사례 발굴
- 국제 과학과 종교 학회(International Society for Science & Religion)를 통한 지속적 연구 전개

결론 및 향후 과제

- 동학사상과 대순사상 연구의 현황 종합
 - 자생적 근대성, 상권적 사유, 리미널리티 등 주요 키워드 정리
 - 패러다임 변화, 이후 추가연구 및 방법론적 확장 필요성 제언
-

연구 방향성

- 동서양 학문 통합적 접근을 통한 한국 근대성 재해석
- 현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함의 도출

Chapter II

자생적(自生的) 근대성과 리미널리티

Indigenous Modernity and Liminality

목차

1. 근대성의 개념과 정의
2. 서구 근대성의 특징
3. 서구 근대성의 한계
4. 탈근대성과 대안적 근대성
5. 다중적 근대성과 통섭
6. 동양의 자생적 근대성
7. 동학사상의 자생적 근대성
8. 대순사상의 자생적 근대성
9. 서구 근대성의 동양적 기원
10. 비교: 서구와 동양의 근대성
11. 리미널리티 개념과 사상적 함의
- 12. 결론 및 시사점**

근대성의 개념과 정의

근대성(Modernity)은 이성과 과학, 자본, 국가의 결합을 통해 등장한 새로운 삶의 양식이자, 중세 이후 인류가 발견한 보편적 가치임.

과학기술을 세계 인식의 토대로 삼고, 자본과 국가가 결합해 자연과 인간을 대상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삶의 양태로 규정 됨.

주요 개념:

합리화

과학기술

국가주의

자본주의

근대성의 어원인 'mode'는 "지금, 여기"를 의미하며, 이는 근대와 탈근대의 의미를 동시에 내포할 수 있음.

서구 근대성의 특징

베버는 근대성을 '전 사회의 합리화(rationalization)'로 압축하여 설명함

베버의 근대성 3요소:

- 합리적 자본주의 (rational capitalism)
- 합리적 법-행정 체계 / 법치국가 (rational legal-administrative systems)
- 합리적 사회분화 (rational social differentiation)

서구 근대성의 주요 특징:

이성 중심주의

합리성의 원칙

진리의 절대성

과학적 세계관

세속화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Cogito, ergo sum)"에서 비롯된 방법론적 회의와 이성 중심주의가 서구 근대성의 인식론적 토대를 형성함

서구 근대성의 한계

고삐 풀린 욕망의 결과로, 근대는 인류를 전대미문의 절멸 위기에 봉착하게 하고 근대에 대한 비판이론인 탈근대성(post-modernism) 이론이 크게 유행하게 됨

탈근대주의자의 비판:

- **합리성의 문제:**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로 대표되는 이성 중심주의가 근대성의 핵심 문제
- **나르시시즘적 동일자:** 이데아나 신을 부정하고 나로부터 모든 법칙을 재정립하는 나르시시즘적 근대성
- **타자의 배제:** 합리성의 이름으로 타자를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근대적 사고

"타인은 지옥이다 (*L'enfer, c'est les autres*)"

—장 폴 사르트르 (*Jean-Paul Sartre*)

포스트모더니즘 등장 배경:

1968년 5월 프랑스 학생운동을 계기로 실존주의와 구조주의 논쟁이 시작되었으며, 이후 후기구조주의(post-structuralism)로 발전하여 오늘날 현대 철학의 거대한 흐름을 형성

탈근대성과 대안적 근대성 논의

탈근대성(Post-modernity)은 근대성의 비판과 그 한계를 극복하려는 다양한 대안 탐색의 흐름으로, 서구 근대성이 초래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사조임

성찰적 근대성

울리히 벡(Ulrich Beck)이 제시한 개념으로, 근대화의 반성과 성찰을 통한 근대성의 재구성을 주장

액체 근대

지그문트 바우만(Zygmunt Bauman)의 이론으로, 현대 사회의 불확실성과 유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근대성

다중적 근대성

아이젠슈타트 등이 주장한 개념으로 지역적, 문화적 다양성에 기반한 서로 다른 근대성의 공존 인정

대안적 근대성

서구 모델을 넘어 동양의 자생적 근대성 등 다양한 문명권의 독자적 근대화 경로 주목

주요 특징:

근대성의 한계 극복

지역적 다양성 인정

성찰과 자기 비판

문화적 상대주의

다중적 근대성과 통섭 이론

다중적 근대성(multiple modernity)은 서구 이외 지역의 근대성 발현을 인정하고, 각 사회가 자체적으로 발전시킨 근대성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개념



대표 학자들

아이젠슈타트(S. N. Eisenstadt), 위트록(B. Wittrock), 아나슨(J. P. Amason) 등 비교역사 사회학자들

통섭(統攝) 이론:

데카르트식 합리성 중심의 서구 근대성에 대한 대안 모델로, 성(聖)과 속(俗)의 경계와 관계 재배치를 통한 근대성 설명

통섭 1 기축시대 이후 성(聖)이 속(俗)을 통섭

통섭 2 근대성은 속(俗)이 성(聖)을 통섭하는 전환

통섭 모델은 서구의 근대성(베버의 종교개혁 사례)과 동양의 근대성(송나라의 성리학)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대안적 이론

동양의 자생적 근대성

자생적 근대성(Autogenous Modernity)은 우리의 전통에 내재한 근대적 요소와 서양의 근대성에 대응하여 우리 전통을 살린 독자적인 근대성을 의미함

자생적 근대성의 주요 특징:

- ① **상관적 사유:** 서양의 이분법적 사고와 달리 세계의 모든 요소가 상호연결된 관계 속에서 조화를 이룬다는 사유방식
- ② **리미널리티:** 성(聖)과 속(俗)의 경계에서 성찰적으로 이를 넘어서고자 하는 시도
- ③ **내재적 발전:** 서구의 영향 이전에도 동양 사회 내부에서 자체적인 근대화 과정이 존재했음

동양적 근대성의 사례:

동학의 민족주의

대순사상의 해원상생

송나라의 성리학

일본 교토학과

중국 왕후이의 연구

동학과 대순사상은 단순히 서구 문명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동양의 전통과 서양의 근대성을 창조적으로 통합하는 독자적인 근대 사상임

동학사상의 자생적 근대성

동학은 임진왜란 이후 조선의 "온나라 양반되기" 사조의 결정판으로, 한국의 국민국가개념이 최초로 형성된 사상적 토대임

동학의 자생적 근대성 특징:

- **내재적 사유:** "우주의 원리가 몸에 구비해 있으니 민심이 곧 천심"이라는 동양 사상의 내재성 강조
- **상관적 사유와 리미널리티:** 성(聖)과 속(俗)의 경계에서 창조적 긴장관계 형성
- **종교개혁과 유사성:** 서구의 근대성 효시인 종교개혁과 구조적 유사성 공유

‘동학의 다시 개벽이라는 표현은 서구 근대성에 대한 동양적 기원을 간접적으로 주장한 것’

동학과 국민국가 형성:

민족주의 운동

민심=천심

만민평등

사회변혁

동학은 근대 국가의 출발과 더불어 근대에 대한 비판적 사유까지 동시에 제시함으로써 근대성과 탈근대성을 포괄하는 독특한 자생적 근대성의 사례를 보여줌

대순사상이 제시한 근대성

대순사상은 120여 년 전 당시 서구 근대성의 한계를 예견하고, 동서양 사상을 통합한 대안적 근대성을 제시함

해원상생(解冤相生)

상극(相克)에 지배되는 원한 관계를 해소하고 상생(相生)의 도(道)를 실현하는 대순사상의 핵심 원리

원한 해소

상호 공존

조화로운 관계

동서융합적 접근

서구의 합리성과 동양의 도덕성을 통합하여 균형 잡힌 근대성 추구

합리성과 영성

성(聖)과 속(俗)의 조화

동서 사상의 통섭

대순사상이 예견한 근대성의 위기와 대안:

- 서구식 근대성의 물질주의가 초래할 인류 절멸의 위기를 예견
- 동서양 문명의 조화로운 상생이 새로운 근대성의 대안임을 제시
- 성찰적 근대성과 유사한 개념을 이미 120여년 전에 제시

‘대순사상이 동서양 사상을 종합하여 제시한 근대성 개념은 이제야 현대 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주목받기 시작함’

서구 근대성의 동양적 기원

최근 연구들은 서구 근대성이 동양, 특히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으며, 마테오 리치 이후 유럽의 '중국열풍'이 서구 계몽주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음

계몽주의 사상가들의 동양사상 영향:

볼테르 중국의 종교 없는 도덕성을 높이 평가하며, 유럽의 종교적 독단주의 비판에 활용

아담 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 개념이 동양사상, 특히 중국의 자연질서 개념에서 영감을 받음

루소 '천부인권설(Natural Right)'이 중국의 문명과 인성론(人性論)에서 착안되어 발전

연구 학자들:

토마스 메츠거 (Thomas A. Metzger)

프랑크 (Andre Gunder Frank)

홉슨 (John M. Hobson)

줄리앙 (François Jullien)

우드사이드 (Alexander Woodside)

주요 시사점:

유럽물신주의 극복

지식의 상호교류

은폐된 역사 복원

다중적 근대성 인정

결론 및 시사점

자생적 근대성의 재발견

근대성 연구는 '지금, 여기'에서 끊임없는 성찰이 필요하며, 서구 중심적 근대성을 넘어선 대안적 시각의 확장이 중요함

동양사상의 현대적 함의

동학, 대순사상과 같은 동양의 자생적 근대성은 단순한 역사적 유물이 아닌, 현대 사회의 문제에 대한 성찰적 대안을 제시함

융합과 새로운 패러다임

서구와 동양 사유의 통섭과 리미널리티 개념을 통해 근대성의 긍정적 측면은 유지하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사회 패러다임 모색이 가능함

"근대성을 넘어선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1

근대성과 자생적 근대성

Modernity and Indigenous Modernity

목차

- 1 근대성의 개념과 정의
- 2 근대성의 성과와 한계
- 3 탈근대성의 등장
- 4 중세-현대-탈현대 비교표
- 5 다중대안적 근대성
- 6 서구 근대성의 동양적 기원
- 7 자생적 근대성의 개념
- 8 동학사상과 자생적 근대성
- 9 대순사상과 해원상생
- 10 결론 및 시사점

근대성의 개념과 정의

근대성(Modernity)은 과학기술을 세계 인식의 토대로 삼고, 자본과 국가가 결합하여 자연과 인간을 대상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삶의 양태입니다.

베버의 합리화 이론

베버는 근대성을 '전 사회의 합리화'로 정의하고, 다음과 같이 세분화했습니다:

- 합리적 자본주의
- 합리적 법-행정 체계 (법치국가)
- 합리적 사회분화

근대성의 주요 특징

- 이성과 과학이 지배하는 세계관
- 합리성의 원칙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
- 인간 중심의 가치 체계 확립
- 진리의 절대성과 보편성 추구

근대성의 성과와 한계

근대의 성과

- 물질적 풍요: 과거 황제와 같은 물질적 풍요 실현
- 수명 연장: 30년에서 80년까지 평균 수명 연장
- 자연 극복: 자연과 아사의 물질적 공포로부터 해방
- 합리적 체계: 법치국가, 민주주의 등 합리적 제도 정착

"백만년을 넘는 인류 진화의 역사 속에서 근대는 처음으로 인류를 자연과 아사라는 물질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고... 일반 시민이 과거 황제와 같은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한 전무후무한 시기였다."

근대의 한계와 위기

- 욕망의 과잉: "고삐 풀린 욕망"으로 인한 문제 발생
- 세계화된 위기: 기후변화, 핵위협 등 인류 존속 위협
- 합리성의 역설: 합리성이 오히려 불합리한 상황 초래
- 인간소외: 과학기술과 자본에 종속된 인간의 소외

"근대는 다시 인류를 전대미문의 절멸 위기에 봉착하게 하고 근대에 대한 비판 이론인 탈근대성(post-modernism) 이론이 크게 유행하게 되었다."

중세-현대-탈현대 비교

구분	중세	현대(근대)	탈현대(탈근대)
상부 구조	신 중심	인간 중심	생태론적 패러다임
신성/권위	神聖의 지배	이성과 합리성의 원칙	이성중심주의의 해체
진리관	신이 진리	진리의 절대성과 보편성	진리의 상대성, 불가지성
과학	미신과 주술	과학	과학(적 진리)의 불확정성
예술관	善, 또는 神이 美	예술의 세속화와 자기목적성	예술의 異種性, 混種性과 해체
주체관	신에게 복속된 자아	주체	상호주체성
세계관	생의 공간	현실	시뮬라시옹
중심	로마와 중국 중심주의	유럽중심주의	세계화와 지역화
소통 매체	중심의 문자	국가의 문자	이미지
사회 체제	봉건체제 전산업사회	자본제 산업사회	후기자본제 탈산업사회

문서 <표 1> 중세·현대·탈현대 개괄 내용 기반

다중적 근대성과 대안적 근대성

다중근대성(Multiple Modernity)

- 근대성은 서구만의 산물이 아닌, 각 지역과 문명권마다 다양한 형태로 발현
- 1998년 학술지 『Daedalus』 'early modernities' 특집호에서 체계화
- 아이젠슈타트, 위트록, 아나슨 등 비교역사 사회학자들의 기여

중층근대성(Multilayered Modernities)

근대성의 발전 단계:

- 원형 근대성(proto modernity) - 서구적 근대성 이전
- 서구적 근대성(Western modernity)
- 식민-피식민 근대성(colonizing-colonized modernity)
- 지구근대성(global modernity) - 현재

대안적 근대성의 특징

- 문화이론, 문예·정치 비평, 인류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기
- 서구 근대성의 합리주의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
- 통섭(統攝) 모델 - 성(聖)과 속(俗)의 경계 전환
- '통섭 1': 성(聖)이 속(俗)을 통섭
- '통섭 2': 속(俗)이 성(聖)을 통섭

"유럽물신주의(*fetishism of European modernity*)는 오늘날 대안적 근대성 구축에 큰 장애가 된다."

대안적 근대성의 사례

- 중국 송나라의 성리학기반 근대적 발전
- 일본의 교토학파(京都學派)의 근대성 이론
- 한국의 동학사상과 대순사상

서구 근대성의 동양적 기원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서구 근대성의 많은 개념들이 동양 사상에서 영향을 받았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동서양 교류의 핵심 인물

마테오 리치 (1552-1610)

동양의 문명신과 도통신을 서양으로 이동시킨 인물로, 유교 경전을 라틴어로 번역하여 유럽에 전파

볼테르 (1694-1778)

중국 사상에 매료되어 유교적 정치체제를 유럽의 모델로 제시했으며, 유교의 도덕 철학 찬양

근대 서구 사상에 미친 영향

루소 (1712-1778)

천부인권설(Natural Right)이 당시 중국에서 연구되던 개념에서 영향을 받음

아담 스미스 (1723-1790)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 개념 또한 동양 사상에서 착안하여 개발된 것으로 연구됨

동양이 서구 근대성에 끼친 영향

- 계몽주의 시기 유럽의 "중국열풍" - 유교 사상이 종교전쟁으로 분열된 유럽에 대안 제시
- 과거제와 같은 능력주의 제도 - 신분이 아닌 능력 중심의 사회 질서 모델
- 세속화된 합리적 전통 - 종교가 없이도 도덕적인 중국 사회가 유럽에 던진 화두
- 서양이 동양을 전근대적으로 평가한 것은 식민지 지배 정당화 과정에서 시작

자생적 근대성의 개념

자생적 근대성(Autogenous Modernity)이란 우리의 전통에 근대성이 있었고, 서양의 근대성에 대하여 우리 전통을 살린 근대성이 있었다는 개념입니다.

자생적 근대성의 특징

- 서구 모방이 아닌 전통 내부에서 발전
- 동시에 근대성과 탈근대성의 특성을 담음
- 압축적으로 근대와 탈근대를 구축
- 상관적 사유와 리미널리티 강조
- 서구 외부의 "바깥의 사유" 활용

자생적 근대성의 사례

동학사상

"우주의 원리가 몸에 구비해 있으니 민심이 곧 천심"이라는 내재적 초월성 사상

대순사상

동서양 사상을 종합한 해원상생의 근대성 개념, 인류 절멸 위기 예견

교토학파와 왕후이

일본과 중국의 자생적 근대성 시도

"서양에서 찾는 탈근대성보다 서구 외의 지역에서 나타나는 자생적 근대성이 대안적 근대성으로 더 적합할 수 있다."

동학사상과 자생적 근대성

동학은 조선 후기 최제우가 창시한 사상으로, "우주의 원리가 몸에 구비해 있으니 민심이 곧 천심"이라는 사상에 기초하는 동양의 자생적 근대성을 대표합니다.

동학의 철학적 의미

- 국민국가 개념의 최초 등장
- 동양 내재성 사상의 실현
- 한국의 자생적 근대성 발현
- 단순한 저항운동이 아닌 철학적·문명사적 혁신

상관적 사유의 특징

- 전체적, 생성적 논리 중시
- 서양의 분석적 사유와 대비
- 집단주의, 공감의 윤리 기반
- 리미널리티(경계 넘기)를 통한 변혁

동학의 근대성 특성

동학은 서구적 근대성과 달리, 전통 내부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근대성으로, 서구 근대성과 탈근대성의 특성을 동시에 지닙니다. 이는 한국의 역사적·문화적 맥락에서 형성된 독특한 근대성 모델을 제시합니다.

결론 및 시사점

자생적 근대성의 현대적 의의

서구 중심의 근대성이 초래한 문명적 위기 상황에서, 동학대순사상이 제시하는 자생적 근대성은 한국 사상의 독창적 기여이자 지구적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시사점

- 1 근대성 개념의 재정립
서구 중심의 합리성 개념을 넘어, 동서양 통합적 시각에서 근대성을 재해석
- 2 상관적 사유의 가치
분석적 사유에서 벗어나, 전체론적이고 관계적인 사유방식의 복권
- 3 성(聖)과 속(俗)의 통섭
세속화와 종교화의 새로운 균형을 통한 사회적문화적 해법 제시
- 4 동서양 문명의 융합
동학과 대순사상이 제시하는 동서양 사상의 창의적 융합 가능성
- 5 해원상생의 실천적 가치
갈등과 대립을 넘어선 화해와 조화의 문명론적 비전 제공
- 6 향후 연구 과제
자생적 근대성의 현대적 적용 방안과 세계사적 위치 정립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이 제시한 자생적 근대성은 서구중심 근대성의 한계를 넘어, 동서양사상의 장점을 통합하는 대안적 문명 모델로서 재평가되어야 한다.”

■ 가 근대성과 성(聖)·속(俗)의 통섭(統攝)

Modernity and the Encompassment of Sacred and Secular

목차

- 1. 근대성의 개념과 정의
- 2. 근대화근대성·모더니즘 구분
- 3. 탈근대성 이론과 비판
- 4. 베버와 합리성 중심 근대성
- 5. 통섭 이론: 성과 속의 관계
- 6. 다중적 근대성론
- 7. 대안적 근대성론
- 8. 자생적 근대성과 동학사상
- 9. 대순사상과 근대성
- 10. 현대 위기와 근대성의 재조명
- 11. 결론: 동서양의 융합과 통섭
- 12. 참고문헌 및 시사점

근대성의 개념과 정의

근대성(Modernity)이란 인류를 어둠의 질곡에서 벗어나 이성의 힘을 되찾게 해 준 특성으로 동서양을 통해 문명의 상징으로 숭배되어 온 개념입니다.

과학기술을 세계 인식의 토대로 삼고 그것에 자본과 국가가 결합해 자연과 인간을 대상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삶의 양태를 근대성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근대성은 오랜 인류 역사의 시행 착오를 통해 인류가 발견한 보편적 가치였고 이에 "근대성"은 세계가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되었습니다.

근대화·근대성·모더니즘 구분

근대화(modernisation)

산업혁명 및 그 영향과 관련된 일련의 **기술적경제적정치적 발전**을 의미

예: 산업혁명, 도시화, 시장경제의 확대, 국민국가의 형성

근대성(modernity)

근대화의 결과로 나타난 **사회적 조건과 경험의 방식**

예: 이성과 합리성 중시, 개인주의, 세속화, 전통과 권위의 약화

모더니즘(modernism)

근대성의 특징을 **예술·문학 등 문화영역**에서 표현한 사조

예: 전통과 형식의 해체, 실험적 예술 기법, 자아표현의 중시

탈근대성 이론과 비판

탈근대성(post-modernism) 이론은 근대성에 대한 비판이론으로서, 고삐 풀린 욕망의 결과로 인류가 전대미문의 절멸 위기에 봉착했다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탈근대론자들의 주요 비판

- 데카르트식 합리성의 환원주의적 성격 비판
- 이성 중심주의와 동일자로서의 근대성 문제
- 타자를 배제하는 근대적 사유 방식
- 절대적 진리와 보편성에 대한 회의

대안적 제안

- 타자를 수용하는 상호관계적 합리성
- 생성적, 과정적, 해체적 사유 방식
- 진리의 상대성과 다원성 인정
- 미시적 권력관계 및 담론 분석

주요 사상가들

니체 (1844-1900)

푸코 (1926-1984)

데리다 (1930-2004)

베버와 합리성 중심 근대성

막스 베버(Max Weber)는 근대성의 핵심을 **전 사회의 합리화**로 압축하여 설명했습니다.

베버가 정의한 근대성의 3대 요소:

- 합리적 자본주의(Rational Capitalism)
- 합리적 법-행정 체계(Rational Legal-Administrative System)
- 합리적 사회분화(Rational Social Differentiation)

베버의 『종교사회학논총』에서 제시된 **합리성**은 근대성의 핵심 개념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탈근대론자들의 합리성 비판:

- 데카르트적 이성 중심주의의 한계 지적
- 근대성의 합리성이 타자를 배제하는 동일자 중심의 세계관 형성 합리성의 편향
- 성이 현대 위기의 원인이라고 주장

통섭 이론: 성과 속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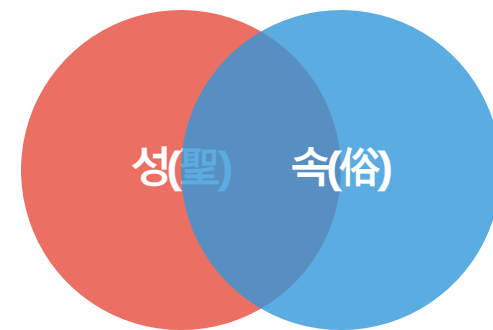
통섭(統攝)은 중심이 외부를 배제하지 않고 포함하되 통제하는 종교사회학적 근대성 모델입니다.

통섭 1: 성(聖)이 속(俗)을 통섭 - 기축시대 이후

통섭 2: 속(俗)이 성(聖)을 통섭 - 근대성의 의미

성(聖)과 속(俗)의 재배치를 통한 신성(神性)의 강화인 통섭 관계는 인류 보편의 현상입니다.

통섭 이론은 종교화 이면의 합리화를 설명해주어 동서양 근대성의 다양한 양상을 이해하는데 유용합니다.



통섭 1: 성(聖)이 속(俗)을 포함하고 통제

통섭 2: 속(俗)이 성(聖)을 포함하고 통제

근대성은 통섭 1에서 통섭 2로의 전환

다중적 근대성론

다중근대성(multiple modernity)은 근대성을 서구만의 현상이 아닌 다양한 문명과 문화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하는 이론입니다.

- 1998년 학술지 『Daedalus』 "early modernities" 특집호에서 처음 등장
- 대표 학자: 아이젠슈타트(S. N. Eisenstadt), 위트록(B. Wittroc), 아나슨(J. P. Amason)
- 서구 중심주의적 근대성 개념에 대한 비판적 대안

다중적 근대성의 핵심 주장

오늘날 근대성은 지구적 근대성(global modernity)으로 이해해야 하며, 이는 여러 문명의 상호교류에 의한 중층적 근대성(Multilayered Modernities)입니다.

- 원형 근대성(proto modernity) - 서구적 근대성 이전
- 식민-피식민 근대성(colonizing-colonized modernity) - 서구적 근대성 이후
- 지구근대성(global modernity) - 현재의 중층근대성

7 대안적 근대성론

대안적 근대성론은 서구적 근대성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문화와 역사적 맥락 속에서 발현되는 근대성의 대안적 형태를 모색합니다.

문화이론적 접근

서구 중심주의를 탈피한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서의 근대성 이해

인류학적 관점

비서구 사회의 자생적 근대화 과정과 독특한 근대성 발현 방식 탐구

문예·정치 비평

다양한 예술과 정치적 맥락에서 나타나는 대안적 근대성 표현 연구

지구화와 지역성

세계화 속에서 지역적 특수성이 결합된 새로운 근대성 형태 제시

구분	다중적 근대성론	대안적 근대성론
초점	서구와 다른 문명권에서 발현된 다양한 근대성의 유형 분석	서구적 근대성에 대한 대안 모색과 실천적 변화 가능성
주요 연구자	아이젠슈타트, 위트록, 아니슨	아파두라이(Appadurai), 길로이(Gilroy), 옹(Ong)

8 자생적 근대성과 동학사상

자생적 근대성(Autogeneous Modernity)이란 서구의 근대성을 수용하는 것이 아닌, 우리 전통 속에서 근대성을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개념입니다.

자생적 근대성의 특징

- 서구와 동양의 근대성이 **압축적으로** 공존
- 근대성과 탈근대성을 동시에 포함
- 동양 전통사상의 **내재성**에 기초

동학사상은 조선의 사회변화 속에서 나타난 자생적 근대성의 대표적 사례로서, "우주의 원리가 몸에 구비해 있으니 민심이 곧 천심"이라는 동양의 상관적 사유에 기초합니다.

동학사상과 서구 근대성의 비교

구분	서구 근대성	동학의 자생적 근대성
주체	개인의 이성	민중의 경험
기반	계몽주의, 이성	내재적 영성
목표	개인의 자유	보국안민(保國安民)
방법론	합리적 과학	성속의 통섭

9 대순사상과 근대성

대순사상은 120여년 전에 이미 근대성에 내재된 위기를 예견하고, 동서양 사상의 융합을 통한 대안적 근대성을 제시했습니다.

대순사상의 근대성 이해

서양의 근대성이 현대 위기의 진앙이 되었을 때, 대순사상이 제시한 해원상생(解冤相生)의 근대성 개념은 근대성 재정립의 새로운 해법으로 주목됩니다.

당시 이해되지 못한 이유

- 서양의 물질문명으로 화려하게 포장된 근대성에 가려짐
- 양 사상을 종합한 대순사상의 깊이를 이해하기 어려웠음
- 서구중심적 근대화 담론의 지배적 위치

현대적 재조명의 맥락

- 서양 근대성 한계에 대한 인식 확산동서
- 신과학으로부터 동양학으로의 관심 전환
- 통합적 세계관의 필요성 증대
- 근대성의 재정립을 위한 대안 모색

"대순사상이 제시한 동서양이 융합된 해원상생의 근대성 개념은 근대성 개념의 재정립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으로 주목된다."

현대 위기와 근대성의 재조명

근대성이 만들어낸 **현대 사회의 위기**가 인류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

근대성의 역설적 결과:

- 환경 위기와 생태계 파괴
- 인간 소외와 공동체 붕괴
- 과학기술의 발전과 불확실성 증가
- 질적 풍요와 정신적 공허함의 공존

근대성의 재해석 시도:

성찰적 근대성 (올리히 벡)

근대성 자체가 스스로를 성찰하고 위험을 인식하여 위험 사회에 대응하는 새로운 방향성 제시

액체근대성 (지그문트 바우만)

고정되고 견고했던 근대가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액체' 상태로 변화한 현대 사회 진단

11 결론: 동서양의 융합과 통섭

자생적 근대성과 서구적 근대성의 통섭을 통한 인류 공존의 새로운 패러다임

동양의 자생적 근대성

- ◆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에 담긴 내재적 근대성
- ◆ 성(聖)과 속(俗)의 조화를 통한 인간 이해
- ◆ 우주의 원리가 몸에 구비되어 있다는 상관적 사유

서구의 합리적 근대성

- ◆ 과학적 합리성과 이성 중심의 세계관
- ◆ 근대화를 통한 물질적 풍요 달성
- ◆ 인간 중심적 사유를 통한 자연 지배

통섭을 통한 새로운 근대성

- ◆ 성(聖)과 속(俗)의 경계 넘기를 통한 대안적 근대성 해
- ◆ 원상생(解冤相生)의 원리를 통한 인류 공존 방향 제시
- ◆ 동서양 사상의 통합적 이해를 통한 미래 사회의 지향점



성찰과 통합을 통한
자생적 근대성의 재발견

근대성과 서양의 통섭

12 참고문헌 및 시사점

주요 참고문헌

김상준, 『맹자의 땀 성왕의 피: 중층근대와 동아시아 유교문명』, 서울: 아카넷, 2011.
이정우, 『세계철학사3: 근대성의 카르토그래피』, 서울: 길, 2021.
이정우, 『세계철학사4: 탈근대 사유의 지평들』, 서울: 길, 2024. 율리히 벡,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를 향하여』, 서울: 새물결, 1997. 지그문트 바우만, 『액체근대』, 서울: 강, 2009.
막스 베버,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서울: 길, 2010. 아이젠스타트, 『다중적 근대성의 탐구: 비교문명적 관점』, 파주: 나남, 2009.

연구의 시사점

- **자생적 근대성** - 한국과 동아시아만의 독자적 근대성 이해 가능
- **통섭 모델** - 서구 합리성 모델의 한계를 보완하는 대안적 이론 제시
- **동학과 대순사상** - 한국의 근대성 형성에 있어 고유한 사상적 토대 마련
- **성과 속의 관계 재조명** - 현대 사회의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관점 제시

한국학 연구의 발전 방향

성과 속의 통섭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와 사상을 재해석함으로써, 현대 한국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고 동서양 사상의 통합적 이해를 통해 글로벌 시대의 보편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 나 서구 근대성과 자생적 근대성의 동양적 공동 기원

Eastern Common Origins of Western and Autogenous Modernity

연구 배경 및 문제제기

- 동아시아3국의 경제성장과 근대성 재평가
비서구 문명 중 유일하게 서구를 능가하는 경제 성장을 이룬 동아시아3국의 재평가 필요성 대두
- 서구 근대성의 동양적 기원 연구 동향
서구 근대가 오히려 동양의 영향을 받았다는 연구 속출 - 줄리앙, 프랑크, 홉슨, 크릴, 우드사이드 등의 서구 학자들의 새로운 시각
- 한국의 자생적 근대성 재조명 필요성
구시대의 독자적 유산 정도로만 간주되던 근현대 한국의 자생적 근대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재평가

베버의 동양사회론과 한계

- 동양사회를 비합리적, 전근대적 사회로 규정
한자를 모르던 베버는 동양 사회가 합리성(rationality)과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가신관료체제로 지목
- 헤겔의 절대 이성(Absolute Geist)과 서구 중심적 관점 수용
헤겔의 변증법적 역사관을 수용하여 서구 근대 사회를 발전의 정점으로 놓고, 동양 사회를 열등한 발전 단계로 규정
- 칸트의 영향과 합리성·일관성 부재 주장
칸트식의 일관성 개념을 기준으로 성리학의 이(理)를 평가하여 논증 없는 비합리적 체계로 오해
-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영향력과 문제점
10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서구와 동양 지성인들이 동양 사회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으로 작용, 자생적 근대성 논의의 첫 장애물

메츠거의 반박론과 동양적 근대성

- 한자를 이해한 베버 이론 재해석
토마스 메츠거: 한자를 알고 동양 문화를 깊이 이해하여 베버와 정반대의 결론 도출 - 동양 사회를 합리성이 부재한 사회라는 베버의 주장 반박
- 동양의 우환의식과 긴장감
베버가 프로테스탄트적 요소로 본 긴장감이 오히려 동양인에게서 강하게 나타남 - 우환의식을 통한 세계에 대한 동양인의 성찰과 끊임없는 자기 수양
- 관료주의 확대와 역사 발전 해석
동양적 관점에서 민주주의는 관료주의의 확대로, 내성외왕(內聖外王)의 과정 - 현대 동아시아의 독보적 경제 발전이 이러한 동양적 근대성의 증거
- 동양적 근대성의 재평가
동학사상의 성리학에 대한 종교개혁적 성격과 조선 사회의 시민사회적 특성 - 서구 시민사회보다 더 강한 시민사회적 요소를 갖춘 조선 사회의 특징

서구 근대성의 동양적 기원 증거

- 계몽시대 유럽 지식인들의 중국 사상 수용
볼테르, 루소, 아담 스미스 등 근대 사상의 기원을 이룬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중국 사상에서 자신들의 주장 근거 발견 - 유럽의 '중국 열풍'
- 마테오 리치의 중국 사상 전파 역할
마테오 리치가 유럽에 전래한 중국 사상이 서구 근대성의 핵심 개념 형성에 결정적 영향 - 동학과 대순사상에서도 언급되는 마테오 리치의 역할
- 역사적 증거: 서구 근대 개념의 동양적 기원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루소의 천부인권설이 동양사상에서 착안 - 중국의 과거제와 세속화된 합리적 전통이 서구에 미친 영향
- 서구의 보편성 개념 형성과 동양 사상
서양의 가톨릭적 '보편성' 개념이 동양 문명과의 접촉을 통해 재정립 - 종교 없이도 도덕적인 중국 사회가 당시 종교전쟁에 시달리던 유럽에 주는 충격

동학사상과 한국의 자생적 근대성

- 동학의 '다시 개벽' 사상과 서구 근대성의 동양적 기원
동학에서 간접적 표현으로 나타난 서구 근대성의 동양적 기원과 이를 통한 동서양 문명의 재해석
- 서학중원론과 한국의 서명응
서양 학문의 기원이 중국에서 시작되었다는 서학중원론의 영향과 한국의 서명응을 통한 발전
- 동학사상의 종교개혁적 성격
성리학에 대한 종교개혁의 성격을 가진 동학-서구 프로테스탄티즘과의 유사성과 차별점
- 한국 성리학과 시민사회적 성격
한국의 조선 사회가 서구 시민사회보다 더 시민사회적 성격이 강했다는 최근 연구와 그 의미

공감과 성찰적 근대성

- 공감의 동양적 근대성 키워드

동양 유교 사상의 '공감' 개념이 서구 근대성의 핵심 요소로 전환 – 서양 도덕 이론의 새로운 토대

- 18세기 서구의 유교 '공감' 개념 수용

홉스, 아담 스미스 등이 마테오 리치가 전수한 공자의 유교 사상을 '공감'으로 해석하며 서구 도덕 이론에 접목

- 성찰과 결합된 근대성의 중요성

동양의 근대성에는 서양의 근대성보다 성찰을 강조하는 '성찰론적 근대성'의 특성 – 서양 근대성의 기원인 공감도 성찰과 결합될 때 진정한 의의 발생

- 대안적 근대성으로서의 가치

서양 근대성의 물질주의와 인간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동양의 자생적 근대성 –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대안적 패러다임 제시

결론 및 의의

- ✓ 근대성 논쟁에서 동양적 기원의 중요성

서구 근대성이 동양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역사적 증거 발견 - 마테오 리치의 영향, 계몽주의 시대의 '중국열풍', 유교 사상의 공감 개념 도입

- ✓ 한국 자생적 근대성의 재해석과 오늘날 시사점

동학사상과 한국 성리학의 독특한 특성이 근대성의 맥아로 재평가 - 베버의 한계를 넘어 자생적 근대성의 재발견

- ✓ 미래 대안적 근대성으로서의 '성찰적·공감적' 근대성

서구 근대성의 물질주의와 인간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동양의 자생적 근대성 - 공감과 성찰이 결합된 새로운 근대성 패러다임 제시

"문명의 위기를 해결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동서양 문화의 통합적 근대성을 재고찰할 시점"

다 자생적 근대성의 형식 체계로서의 "학(學)"

Hak as the Formal System of Autogenous Modernity

연구배경 및 문제제기

- ◆ 서양 학문의 위기와 과학철학적 반성
- ◆ 동양의 종교로서 '학(學)'의 독자적 지위 고찰 필요성
- ◆ 동양 종교에서 종교와 학(學)의 전통적 관계
- ◆ 근대성 속에서 '학'의 의미 변화가 연구 문제로 등장

'종교사상으로서의 동학이 다른 종교와 가장 두드러지게 구별되는 부분은 종교를 '학(學)'이라는 학술적 용어로 표현한다는 점이다.'

연구목적 및 방법론

- 연구목적: 동양의 '학(學)'을 종교현상학적으로 규명
- 방법론: 과학철학종교현상학종교인류학의 3가지 접근법 입체 활용
- 분석대상: 동학과 대순사상의 주요 용어와 개념의 연속성과 변화

종교현상학적 연구 방법론 적용

구조적 접근
패러다임 이론 상관
적 사유와 분석적 사유

원리적 접근
통과의례 이론리
미널리티(경계상태)

과정적 접근
재활성화이론 문
화 변용과 전통 재해석

"이 글은 두 사상의 주요 용어에 주목하되 용어가 갖는 의미의 연속과 변화를 구조, 원리, 과정이라는 세 가지 관점 모두를 사용하여 입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동양 "학"의 종교현상학적 의미

- ◆ 종교를 '학(學)'이라는 학술적 용어로 표현하는 동아시아적 전통
- ◆ 천문지리 등 자연과학적 배경과 종교가 구분되지 않는 총체적 속성
- ◆ '학'이 세계관으로 작용하는 종교현상학적 의미
- ◆ 동양 '학'의 특징: 상관적 사유를 고유한 규범으로 하는 철학적 사유체계

'전통적으로 동양에서 종교가 학으로 표현된 이유 중 하나는 동양의 종교는 천문지리라는 자연과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자연과학과 구분되지 않는 총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니니안 스마트의 종교현상학 이론

- ◆ 세계관 = **Welterklärungssystem** (세계설명체계) + **Lebensbewältigungssystem** (인생문제 극복체계)
- ◆ 7가지 종교 차원과 문화 교차적 현상학 종교
- ◆ 를 시스템적·현상학적으로 바라보는 관점

니니안 스마트의 7가지 종교 차원

- | | |
|---------------------|-----------------------|
| ● 의례적 차원 (Ritual) | ● 경험적 차원 (Experience) |
| ● 신화적 차원 (Myth) | ● 교리적 차원 (Doctrine) |
| ● 윤리적 차원 (Ethics) | ● 사회적 차원 (Social) |
| ● 물리적 차원 (Material) | |

"문화 교차적 현상학은 종교학적 연구대상으로서의 세계관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종교인류학적 접근법

- ◆ 문제해결로서의 종교: 원리, 구조, 과정의 3가지 관점

원리 (Principle)

반개념의 통과의례(rite of passage)와 터너의 리미널리티(Liminality) 이론

구조 (Structure)

패러다임(paradigm)으로서의 종교, 동양의 상관적 사유와 생성론적 방법

과정 (Process)

윌라스의 재 활성화(revitalization) 모델, 문화 접변과 정의 적응

- ◆ 동학~대순사상에 나타나는 리미널리티(경계상태)와 의례의 변화
- ◆ 상관적 사유: 만물의 상호연관성에 근거한 동양 특유의 사고방식
- ◆ 생성론적 방법과 존재론적 방법의 비교

“상관적 사유는 위에서 아래로 생성되어 가는 연역적 원칙을 가진 동양의 생성론적 사유방법에 해당된다.”

동학과 대순사상의 비교 분석

- ◆ 동학 및 대순사상의 용어와 개념에서 나타나는 연속과 변화
- ◆ 근대성 맥락에서 두 사상의 학(學) 개념 적용 사례
- ◆ 분석: 구조원리과정이라는 관점 동시 활용

구분	동학	대순사상
학(學)의 의미	동양적 학문체계로서의 종교	상관적 사유에 근거한 자생적 근대성
세계관 특성	동서 방법론의 대립구조	통합적 리미널리티 단계
핵심 사유	생성론적 방법	상관적 사유의 체계화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에 나타나는 전통의 연속과 변화는 주로 용어와 개념상의 의미 변화에서 나타난다.”

결론 및 의의

- ◆ 동양 학(學) 개념의 종교현상학적 가치 규명
- ◆ 동학에서 대순사상으로 이어지는 전통과 변화의 의미자
- ◆ 생적 근대성 연구의 확장 가능성 및 후속연구 제언동서
- ◆ 양 학문의 상호보완적 방법론 모색을 위한 기초 연구

종합적 결론

동학사상에서의 '학'은 단순한 지식체계가 아닌, 상관적 사유를 통한 세계관적 시스템으로서 자생적 근대성의 형식 체계로 작동했으며, 이는 현대 종교 현상학적 연구를 통해 동서양 사상의 통합적 이해를 가능하게 함

연구의 의의

종교현상학과 종교인류학 방법론을 통합 적용하여 동양의 '학' 개념을 체계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자생적 근대성의 새로운 이해 가능성을 제시 함

후속연구 제언

다양한 동아시아 종교사상에 나타난 '학' 개념의 비교연구 및 현대적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학제간 연구 필요

라 자생적 근대성의 이론적 배경으로서 동서 구분

East-West Distinction as Theoretical Background

목차

- 1 동서양 사유 방법론 차이
- 2 인지심리학적 연구 결과
- 3 동서양 차이의 다양한 해석
- 4 구조주의와 내재성 개념
- 5 후기구조주의의 바깥의 사유
- 6 대안적 근대성 이론
- 7 대순사상에서의 동서 구분
- 8 결론 및 의의

동서양 사유 방법론 차이

동양적 사유

- ◆ 전체론적 사유 (Holistic Thinking)
- ◆ 맥락과 배경에 초점
- ◆ 집단적 통제 지향적
- ◆ 복합적 세계관

서양적 사유

- ◆ 분석적 사유 (Analytic Thinking)
- ◆ 개별 사물과 수량에 초점
- ◆ 개인적 통제 지향적
- ◆ 단순화된 세계관

리처드 니스벳(Richard Nisbett)의 인지심리학 연구

실험 결과: 날아가는 새를 보고

동양인 → 배경을 기억

맥락과 전체적 이미지에 집중

서양인 → 새의 개수를 기억

개별 객체와 수량에 집중

동학 및 대순사상에서의 동서 구분

동학과 서학(서양 학문)의 차이는 단순한 문화적 구분이 아닌, 근본적인 사유체계의 차이를 반영함

인지심리학적 연구 결과

니스벳(Richard E. Nisbett)의 실증적 연구

실험심리학을 통해 동서양인의 인지 패턴 차이 입증

동양인의 인지

- 세계는 복잡하고 집단적 통제의 대상
- 배경과 맥락에 초점

서양인의 인지

- 세계는 단순하고 개인적 통제의 대상
- 사물과 수량에 초점

푹우란(馮友蘭)의 해석

상업과 농업문화의 차이

- 서양: 상업 발달로 본질과 실체 구분 필요 동양: 농업 중심 환경에서
- 직관적 인식 중요
- 동양에서는 인식론이 없었던 이유: 자연과의 직접적 관계에서 비롯

김필년의 해석

지리 환경적 요인

- 서양: 다인종 공존 → 명확한 의사소통 → 논리 발달
- 동양(중국): 춘추전국 정치적 문제 → 내면 윤리 발전
- 집단성(동양)과 개인성(서양)의 기원은 환경적 요인

박동환의 언어학적 모델

한국의 논리는 서양중국과 다른 허사 결정의 순환적 논리학 주변이 중심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이론이 융합되는 특징

동서양 차이는 전체와 부분의 관계로 유형화
최봉영: 개체와 공동체를 개별적/전체론적 관점에서 보는 차이

* 니스벳(1941-현재), 푹우란(1894-1990), 김필년, 박동환 등의 연구에 기반

동서양 차이의 다양한 해석



환경결정론적 해석

푹우란(馮友蘭): 상업과 농업문화의 차이 - 동양의 자연환경이 농업 기반 직관적 인식 발
달김필년: 집단성과 개인성의 차이 - 지리환경적 차이에서 기인 (다인종 vs 단일민족)



언어학적 모델

박동환: 한국의 논리학은 주변이 중심을 결정하는 '허사 결정의 순환적 논리
학' 서양과 중국과 다른 한국적 논리는 새로운 이론을 융합하는 특징을 가짐



문화론적 접근

최봉영: 개체와 공동체의 관계성 - 각 문명을 유형화

- 서양: 개별자-합체적 세계관 (근대), 통체-종속자적 세계관 (전
- 통) 중국: 통체-부분자적 세계관
- 인도: 통체-연기자적 세계관

“ 문화 차이는 단순한 관습의 차이가 아닌, 사유 체계와 세계관의 근본적 차이로 이해해야 한다 ”

구조주의와 내재성 개념

레비스트로스와 '야생의 사고'

- 구조주의 인류학: 원시사회의 사유도 서구적 사유보다 부족하지 않은 구조적 원리 보유
- '야생의 사고(Savage Mind)': 음양과 같은 대칭적 사유(Symmetrical thinking)로 구성
- 동양적 전체론적 사유가 대칭적 사유에 더 가깝음
- 불교의 공(空) 개념: 대칭성 사고의 극치이자 만물의 대칭성과 일치

내재성 개념과 서양 사유의 한계

- 내재성(Immanence): 특정 문화에서 공유하는 암묵적 규약, 비깅에서만 인식 가능
- 서양 사유의 내재성: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체론(substance theory)
- 마테오 리치: 실체론에 기반해 음양오행과 이기론 비판
- 서양 실체론의 독단: 변화를 실체(원자, 신 등)로 설명해야 논리적이라는 전제

들뢰즈, 줄리앙의 내재성 탐구

들뢰즈(Gilles Deleuze, 1925-1995)

서양 사상의 실체성을 비판하며 '바깥의 사유(Outside Thinking)' 추구

프랑수아 줄리앙(François Jullien)

동양의 내재성에 주목: 실체를 가정하지 않으면서도 대립의 통일 지향

- 동양의 상관적 사유: 독단을 벗어나면서도 분석철학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

* 레비스트로스 『야생의 사고(La Pensée sauvage)』 (1962)

후기구조주의의 바깥의 사유

'바깥의 사유(Outside Thinking)'란?

후기구조주의자들이 서양 사상의 내재성(Immanence)에서 벗어나기 위해 추구한 사유 방식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체론이 가진 독단적 성격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

질 들뢰즈 (Gilles Deleuze)

내재성(Immanence) 개념 제시
서양 철학의 실체성은 비판하면서도 동양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음

미셸 푸코 (Michel Foucault)

서구 지식체계의 계보학적 비판
서양 사상의 핵심에 내재된 권력과 독단 관계 분석

자크 데리다 (Jacques Derrida)

음성중심주의(Grammatology) 비판
서양 형이상학의 이분법적 구조 해체

서양 실체론의 한계

- 변화 과정에 반드시 실체(원자, 신 등)가 필요하다는 독단
-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체론이 서양 사상의 독단을 초래
- 마테오 리치가 동양의 음양오행론 비판에 실체론 활용

동양적 대안 가능성

- 실체를 가정하지 않는 동양의 내재성
- 서양의 독단을 벗어날 수 있는 상관적 사유 체계
- 줄리앙: 동양의 내재성에서 서양 근대 사상의 도덕적 기반 발견

대안적 근대성 이론

왕후이(汪暉, 1959-현재)

중국 사유에 기반한 대안적 근대성

- ◆ 중국 사유의 변환과정에서 대안적 근대성 탐색
- ◆ 공자의 '인(仁)' 사상은 주나라 예악의 신성성 회복 시도
- ◆ 재이론(災異論)과 이기론 역시 무너진 신성성의 회복
- ◆ 전통의 회복과 함께 대안적 근대성 기능

황태연(1955-현재)

유교적 합리성과 근대성

- ◆ 서구의 합리성은 칸트적 의미가 아닌 유교적 합리성 공
- ◆ 자맹자의 사상이 서구에 도입되어 근대 합리성 형성
- ◆ 분석철학보다 유교적 합리성이 독단에서 자유로움 "유
- ◆ 교적 근대의 일반이론" 제시

대안적 근대성의 공통점

성과 속의 통섭과 변화
동양 전통에서 현대적 가치 발견

상관적 사유의 현대적 적용
음양론적 사고를 통한 실체론 극복

* 왕후이 『근대 중국 사상의 흥기』

* 황태연 『유교적 근대의 일반이론』

대순사상에서의 동서 구분

서양(西洋)

서양(西洋) - 양(陽)

- 곤륜산 서쪽 지역
- 양의 속성: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원리
- 분석적실체적 사유체계
- 대순사상: 서양의 각자위심(各自爲心)

동양(東洋)

동양(東洋) - 음(陰)

- 곤륜산 동쪽 지역
- 음의 속성: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원리
- 전체론적속성적 사유체계
- 동학사상: 동양 신명이 머무는 영역

곤륜산

신명계(神明界)의 동서 구분

"마테오 리치 이전에 동서양을 굳게 지켜 신명이 서로 왕래하지 않았다."
- 『전경』 「교운」 1-9

"동양의 모든 도통신을 거느리고 서양으로 진묵대사가건너갔다."
- 『전경』 「공사」 3-15

대순사상에서 동서양의 구분은 지리적 경계를 넘어 신명계의 구조까지 관통하는 근본적 원리로 작용함

결론 및 의의

동서양 구분의 철학적 함의

동양의 내재성

전체론적 속성, 맥락 중심, 우주에서 자기로 하강하는 음(陰)의 원리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의 의의

동서양 구분을 음양의 세계관적 기반으로 해석하여 근대성에 대한 자생적 이해 틀 제공

서양의 내재성

부분자적 실체, 개체 중심, 자기에서 우주로 상승하는 양(陽)의 원리

자생적 근대성의 가능성

동양적 접근의 가치

- 전체론적 사유의 현대적 재해석
- 맹자의 수양론적 실존 개념 왕
- 후이의 대안적 근대성 모델
- 음양기반 상관적 사유의 현대적 적용

통합적 관점의 필요성

- 후기구조주의의 '바깥의 사유' 추구
- 리미널리티 이론과 액체 근대성
- 실체론과 속성론의 상보적 결합
- 프랙탈 이론과 자기조직화 이론

현대적 의의와 시사점

동서양 구분은 단순한 지리적문화적 차원을 넘어 사유방식 과 철학적 내재성 의 근본적 차이로 해석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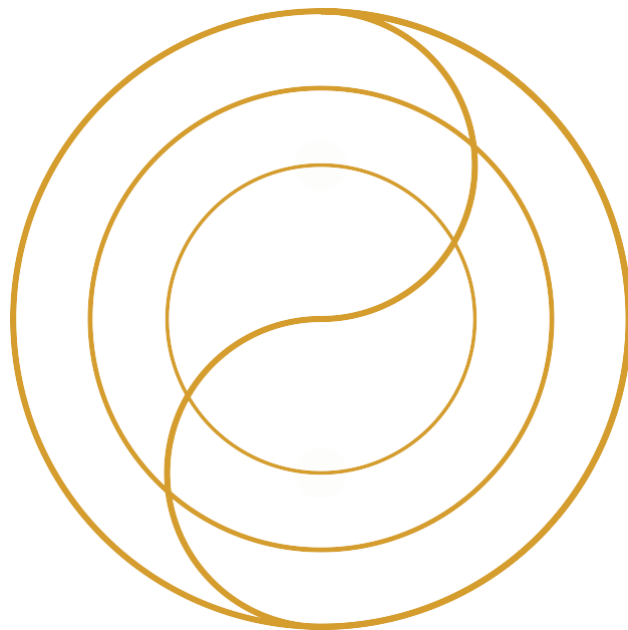
동서양의 이분법을 넘어 음양 조화의 원리로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철학적 기반 제공

■ 마 자생적 근대성의 철학적 방법론으로서의 상관적 사유

Correlative Thought as Philosophical Methodology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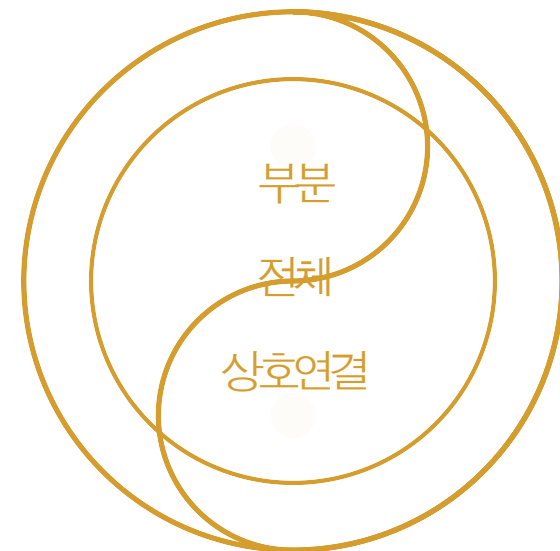
- 1 상관적 사유의 개념과 정의
- 2 서양의 분석적 사유와의 비교
- 3 상관적 사유 이론의 발전사
- 4 헨더슨의 4가지 구분
- 5 인지심리학적 실증
- 6 동양적 세계관과 전통
- 7 공자의 일이관지와 공감
- 8 서양의 계몽주의와 경험론에 미친 영향
- 9 포스트모더니즘과의 연계
- 10 결론 및 의의



상관적 사유의 개념과 정의

"상관적 사유 (相關的 思惟, *correlative thinking*)란 부분과 전체가 동시에 움직인다는 사유 방식이다."

- 부분 속에 전체가 있어 만물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인식체계
- 서양을 제외한 대부분 문명은 이러한 사유체계를 지니고 있음
- 과거에는 미신적 사고로 치부되었으나, 현대과학으로 검증되면서 새로운 과학으로 가능성 재평가
- 음양이론은 대표적인 상관적 사유 체계로 주목받고 있음



서양의 분석적 사유와 동양의 상관적 사유 비교

- **분석적 사유:** 만물은 독립적으로 움직이며 입자(원자, 분자, 양자)로 쪼갤 수 있다는 서양의 사유방식
- **상관적 사유:** 만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쪼갤 수 없고 상관관계로 인식하는 동양의 생성론적 사유방식
- 서양 교육을 받은 현대 동양인들도 대부분 분석적 사유를 채택함

구분	분석적 사유(서양)	상관적 사유(동양)
인식론적 기반	개체성, 분리성	전체성, 연결성
접근 방법	분해적, 환원주의적	종합적, 관계론적
사고 방식	선형적, 직선적	순환적, 관계적

서양의 분석적 사유

분리된 개체들의 집합으로 세계를 인식



동양의 상관적 사유

모든 것이 연결된 관계망으로 세계를 인식



상관적 사유 이론의 발전사

- 음양오행설에 대한 최초의 긍정적 평가는 그라네(Granet)로부터 시작
- 그레이엄(A. C. Graham, 1919-1991)은 구조주의와 중국철학을 접목시켜 동양의상관적 과학성을 증명
- 에임즈(Roger T. Ames), 홀(David L. Hall), 슈워츠(Benjamin Schwartz), 니덤(Joseph Needham) 등으로 연구 확장
- 상관적 사유이론은 음양오행설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평가해 원시적 형태의 과학으로 재해석
- 서양은 이를 통해 동양의 과학성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동양은 서양의 해석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재발견하는 계기 마련

- 1920-1930년대
마르셀 그라네 음양오행
설 최초 긍정평가
- 1950-1970년대
조셉 니덤 중국과학
기술사 연구
- 1970-1990년대
A. C. 그레이엄 구조주의
와 중국철학 접목
- 1990-2000년대
에임즈, 홀, 슈워츠
상관적 사유 체계화
- 현재
동서양 철학의
통합적 접근 연구 확장

헨더슨의 4가지 상관적 사유 분류

John B. Henderson의 상관적 사유 분류 체계

1 인간과 우주의 관계

소우주(人)와 대우주(宇宙) 사이의 상관관계, 인간 몸과 우주 질서의 대응

2 국가유비(니덤)

코스모스의 영역(하늘)과 지상의 영역(왕조/국가 관료 체계) 사이의 관계, 하늘의 질서가 지상 정치에 반영

3 수비학적 상관체계

오행(五行, 금·목·수·화·토)과 같은 수리적상징적 체계를 통한 우주 현상 설명

4 주역의 체계

음양의 변화법칙을 통해 우주만물의 변화를 설명하는 역학(易學)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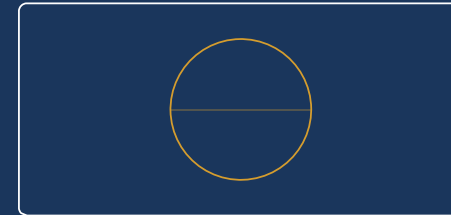
인지심리학적 실증

리처드 니스벳 (Richard E. Nisbett)

"동양인은 상관적 사유로 인해 세계가 서양인보다 더 복잡하게 나타난다... 실로 다른 두 세계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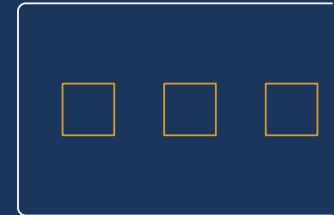
- 동양인의 인지 특성: 상관적 사유, 맥락 중심, 집단적 통제의 대상
- 서양인의 인지 특성: 분석적 사유, 객체 중심, 개인적 통제의 대상
- 실험 결과: 동양인은 배경과 관계에 주목, 서양인은 중심 객체에 주목
- 국가간 차이는 있으나 상관적 사유 경향성은 동양 문화권 공통

동양적 인지



전체적 시각
(Holistic View)

서양적 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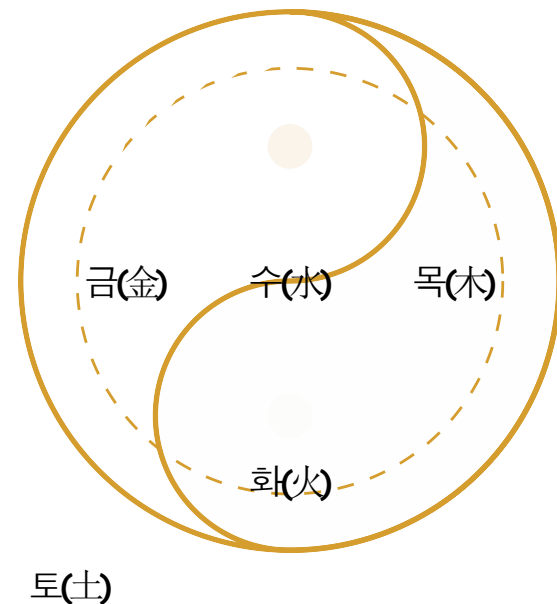


분석적 시각
(Analytic V

동양적 세계관과 전통

"상관적 사유는 동양적 세계관의 공통된 인식 틀이므로 전통의 연속과 변화에서 그 원리가 상관적 사유로 나타난다."

- 음양오행과 태극으로 대표되는 동양적 사유는 전통의 연속과 변화를 설명
- 동양 문화에서 전통과 변화는 음양오행과 태극 개념에 얼마나 부합하는가로 평가됨
-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에 나타난 전통과 연속의 변화도 음양오행과 태극 개념으로 해석 가능
- 동양 철학에서 음양과 오행의 원리는 우주와 인간 세계를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기본 체계



공자의 일관지와 공감

"공자는 자신의 이론을 충서(忠恕)라는 공감 개념으로 일관지(一以貫之)했다."

- 일관지(一以貫之): 하나로 꿰뚫는 일관성 있는 원리 체계
- 충서(忠恕): 서로에 대한 진실함과 이해, 공감의 핵심 개념
- 술이부작(述而不作): 창조가 아닌 고대로부터 내려온 전통의 계승
- 동양은 서양보다 내면적 일관성에 더 집착, 공감의 일관지로 동양사상이 객관적 일관성을 획득
- 천지인이 서로 공감하는 것을 감응으로 표현, 공감은 감응의 연장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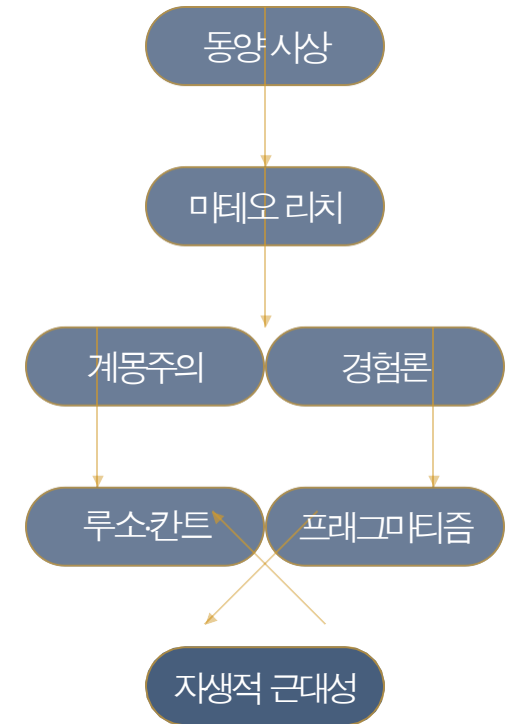


"나의 도는 하나로 일관된다"
- 논어, 위령공편

서양의 계몽주의와 경험론에 미친 영향

"계몽주의는 서양에서는 이질적인 사상이었고 서양은 계몽주의의 이질성을 신을 대체하는 도덕의 기초로 잘 발전시켜 근대 문명을 이룰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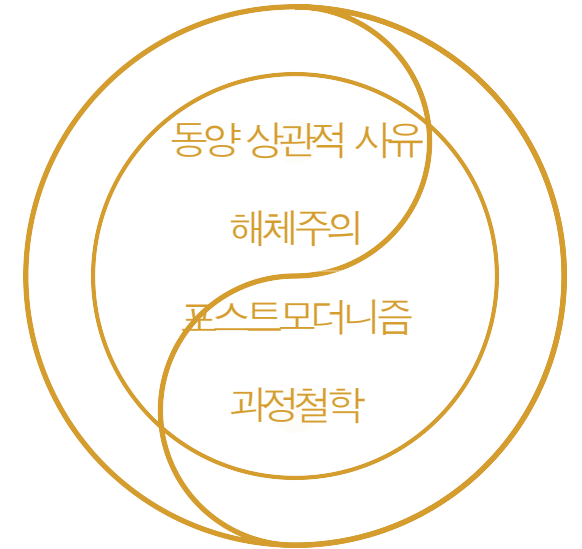
- 줄리앙: 맹자와 계몽철학자들의 내재성 이론, 공감의 공통점 발견
- 루소: 서양 철학에서 찾기 힘든 동양의 내재성인 공감을 도입
- 영국 경험론: 마테오 리치의 유교 번역물을 통해 동양 사상 수용
- 진화론과 진화 인류학으로 발전, 뇌과학의 거울 세포 이론과 결합
- 듀이의 프래그마티즘: 공자 사상과의 유사성, 중국에 큰 영향 미침



포스트모더니즘과의 연계

"동양의 상관적 사유는 현대 포스트모더니즘 철학과 깊은 연관성을 지니며, 이를 통해 새로운 철학적 대화가 열리고 있다."

- 김형효: 증산사상과 포스트모더니즘 연계, 데리다, 노장의 독법 연구
- 박정진: 종교학적 관점에서 철학의 선물, 선물의 철학 연구
- 박용숙: 문명사적 관점에서 고대 사머니즘의 동서 회통 연구
- 대순사상 연구: 헤겔, 하이데거, 데리다, 들뢰즈와의 비교 연구를 통한 동서 철학의 융합가능성 모색



결론 및 의의

상관적 사유는 서양의 분석적 사고와 달리 자연과 인간, 우주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동양 철학의 본질적 요소로서, 현대 과학에서 재조명되는 철학 방법론입니다.

- 상관적 사유: 동양 철학의 정수로서 만물의 상호연결성을 인식하는 독자적 인식론
- 자생적 근대성: 서양 근대성과 달리 동양의 내재적 가치 체계에서 발현된 고유한 근대화 과정
- 현대적 의의: 생태학, 양자물리학, 복잡계 과학 등 현대 학문에서 재발견되는 상호연결적 세계관
- 철학적 방법론: 동서양의 철학적 통합, 포스트모더니즘과의 접목 가능성 확장
- 미래 전망: 상관적 사유를 통한 동서양 철학 통합의 가능성과 새로운 학문 패러다임 구축



2

리미널리티와 재활성화

Liminality and Revitalization

연구 배경과 목적

- 리미널리티(경계성)이론과 동서 사유의 접점
-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이 근대성 담론에서 갖는 의미
- 리미널리티 이론의 학제적 적용 배경과 연구 목표

리미널리티 이론 개관

- 리미널리티(Liminality)의 정의: **경계적 상태**
 - ◆ 라틴어 'Limen'(문지방, threshold)에서 유래
 - ◆ 기존 구조와 새로운 구조 사이의 중간지대
- 특성: 모호함, **불확정성**, 다양한 가능성
 - ◆ 죽음, 자궁, 어둠, 남녀양성성 등에 비유
- **창발성**: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출현
 - ◆ 변화이전 상태를 포함하면서도 넘어서는 '포월'
- 사회·문화적 **변화기제**로서의 가치

반게넵의 통과의례 이론

- 아르놀트 반게넵(Arnold van Gennep, 1873-1957): 통과의례(Rite of Passage) 이론 창시자

1 **분리의례(Separation):** 이전 상태/지위에서 분리되는 단계

2 **전이/리미널(Transition/Liminal):** 경계적 상태, 과도기적 단계

3 **통합의례(Integration):** 새로운 정체성이나 지위로 재통합되는 단계

- 리멘(Limen): 문지방(Threshold)을 의미,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경계 공간
- 통과의례는 인류 보편적 현상으로, 모든 사회에서 발견됨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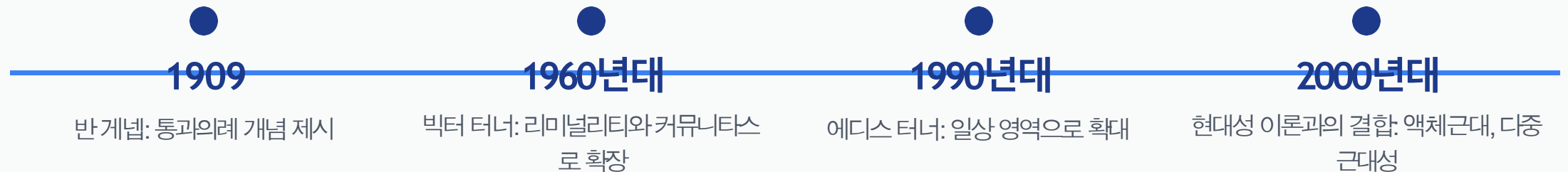
리미널리티와 재활성화: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의 자생적 근대성

빅터 터너의 리미널리티와 커뮤니티

- 리미널리티 개념의 확장: 사회적 변화와 위기 극복의 창조적 과정
 - ◆ 통과의례에서 사회 전반의 변화 분석 도구로 확장
- 커뮤니티(Communitas): 구조화된 사회 관계를 넘어선 공동체성
 - ◆ 익명성, 평등성, 약자의 역설적 힘의 특성
- 반구조(Anti-structure): 기존 질서의 일시적 해체와 재구성
 - ◆ 사회적 역할과 지위의 전복, 새로운 가능성의 창출
- 사회극(Social Drama): 위반-위기-교정/치유-재통합/분열의 변증법적 과정

리미널리티 이론의 발전 과정

- 반개념 → 빅터 터너 → 에디스 터너로 이어지는 학문적 진화
- 종교 의례에서 사회 변동, 공연학, 재난 대응으로 이론 확장바우만
- 의 '액체근대', 아이젠슈타트의 '다중근대성' 이론과의 연결



근대성과 리미널리티

- 바우만의 '액체근대'와 아이젠슈타트의 '다중근대성'이론 모두 리미널리티 개념과 연관
 - ◆ 헤겔의 변증법이 제시하지 못한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도구로 주목받음

액체성(Liquidity): 근대성의 양가성(ambiguity)을 내포하며 리미널리티의 긍정적 의미와 연결

- 리미널리티가 근대성 담론에서 갖는 의의
 - ◆ 성과 속의 재배치를 통한 불확정성과 창발적 변화영원
 - ◆ 한 리미널리티 상태에 놓인 현대 사회의 특성 반영
- 근대성 위기에 대한 대안적 해석 제공
 - ◆ "아이를 씻은 물을 버리고자 아이까지 버린" 탈근대성의 혼란 해석

동학사상과 리미널리티

- 동학사상의 상관적 사유와 위기 극복
 - 음양론적 세계관과 리미널리티의 경계성
- 제국주의 시대의 위기와 통과의례적 변환
 - 외부 충격에 대응하는 자생적 근대성의 배태

"동학사상은 제국주의의 아시아 지배에서 인종청소의 위기 가운데 위기 극복의 통과의례로 발생한다."

- 생명사상상생의 철학과 리미널리티의 창발성

대순사상과 재활성화

- 대순사상이 동학의 이상세계 실현을 계승발전시키는 방식
 - 동학의 혁신성과 대순사상의 종교적 실천 연계
- 커뮤니티스와 수행론적 특성
 - 공동체적 수행과 일상에서의 변화 실천
- 전통의 재구성 및 재활성화
 - 위기 상황에서 전통을 재해석하는 창조적 접근
- 재활성화 이론과의 접점
 - 위기 극복을 위한 전통의 활용과 미래지향적 변화

자생적 근대성의 특징

- 서구 근대성과 구별되는 동아시아적·한국적 근대성

서구 근대성

- 변증법적 대립과 극복
- 이분법적 구조와 전통 단절

자생적 근대성

- 상관적 사유와 통합
- 전통의 재활성화와 연속성

- 리미널리티와 재활성화, 상관적 사유의 통합
 - 위기 극복의 내부적 변화(리미널리티)와 외부 적응(재활성화)의 결합
 - 성(聖)과 속(俗)의 경계 변화를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 개체발생과 계통발생의 반복, 몸의 변화성
 - 변화 과정에서 축적되는 '몸'의 경험과 기억
 - 가일배법(加一倍法)과 '화(化)'의 원리: 기존 바탕 위에 한 수를 더함

이론적 함의와 의의

- 리미널리티재활성화이론을 통한 두 사상의 해명
 - ◆ 동학과 대순사상: 위기에서의 변화와 전통의 재구성
- 보편성과 특수성의 균형적 시각
 - ◆ 서구 근대성 이론과 동아시아 사상의 창조적 통합
- 현대 한국 사회와의 연계
 - ◆ 사회변동, 공동체성, 사회적 위기 극복의 실천적 함의

결론 및 향후 과제

- 요약: 리미널리티와 재활성화 이론이 제공하는 통합적 해석
 - 동학과 대순시상은 위기와 전환의 리미널리티 과정을 통한 자생적 근대성의 모델
- 연구의 한계와 앞으로의 연구과제
 - 실천적 측면에서의 리미널리티 분석과 현대 적용 사례 필요
- 사회적·학문적 확장 가능성
 - 현대 사회 위기 속 공동체적 커뮤니티스 실현을 위한 이론적 틀 제공

가 자생적 근대성의 성(聖)·속(俗) 변화 기제로서의 리미널리티

Liminality as Mechanism of Sacred-Secular Transformation

목차 및 연구 배경

연구 내용

- 1 리미널리티 개념과 발전과정
- 2 근대성과 리미널리티의 상관관계
- 3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의 특징
- 4 자생적 근대성과 리미널리티의 교차점
- 5 현대적 적용과 시사점

연구 배경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동서양의 근대성 개념의 차이와 통합가능성 모색. 리미널리티 개념을 통한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의 자생적 근대성 분석.

동학대순사상 개요

한국의 대표적 자생 사상으로, 서구 근대성과 다른 방식으로 근대적 변화를 추구한 사상체계. 성(聖)과 속(俗)의 경계를 넘나드는 리미널리티적 특성.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의 불확실성과 양극성의 시대에 대안적 근대성 모델로서의 가능성 탐색. 리미널리티를 통한 동서양 사상의 새로운 통합가능성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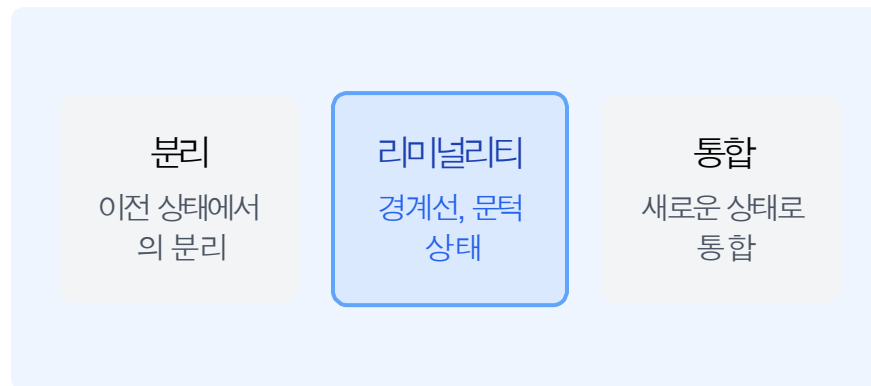
리미널리티 개념 정의

리미널리티(Liminality)란 경계, 문턱을 의미하는 라틴어 'Limen'에서 유래한 개념으로, 인류학자 반게넵(Arnold van Gennep)이 통과의례 연구에서 처음 제시한 용어입니다.

주요 특징

- **경계성(境界性)과 전이성**: 이전 상태와 이후 상태 사이의 모호하고 불확정적인 중간 상태
- **창발성과 가능성**: 기존 질서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창조적 공간
- **양가성(兩價性)**: 위기와 기회, 죽음과 재생, 혼돈과 질서가 공존하는 양면성

리미널리티의 위치



리미널리티는 단순한 통과의례 이론에서 출발하여 사회, 문화, 역사, 종교 등의 폭넓은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통과의례와 리미널리티의 3단계

반 게넵(Arnold van Gennep)은 세계의 통과의례가 공통적으로 3단계 구조를 가진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중 두 번째 단계인 전이 과정에서 '리미널리티'가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통과의례의 구성 단계

모든 통과의례는 다음의 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 ◆ 분리의례(分離儀禮, rite of separation): 기존 세계와의 단절
- ◆ 전이/과도의례(轉移/過渡, rite of transition): 리미널리티 단계
- ◆ 통합의례(統合儀禮, rite of incorporation): 새 정체성 획득과 복귀

1 분리의례 (Separation)

기존의 사회적 지위, 상태, 위치로부터 분리되는 단계. 일상과 단절하고 이전 지위와 역할이 해체됩니다.



2 전이의례 / 리미널리티 (Liminality)

이도저도 아닌 "경계적" 상태. 기존 질서에서 벗어나 모호하고 불확정적인 상태에 놓입니다.

i 특징: 애매모호함, 창발성, 양가성(兩價性), 평등, 익명성, 탈구조화



3 통합의례 (Incorporation)

새로운 정체성과 지위를 부여받아 사회로 재통합되는 단계.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사회적 존재로 거듭납니다.

리미널리티 이론의 발전 과정

1

반 게넵의 통과의례 이론

아놀드 반 게넵(Arnold van Gennep)

~20세기 초

주요개념: 통과의례(rite of passage)에서의 리미널리티 발견, 분리전-통합 3단계 구조화

의의: 인류학에서 처음으로 의례의 공통속성인 '통과'를 발견했으나, 뒤르켐의 비판으로 일시적 축소

2

빅터 터너의 재발견과 확장

빅터 터너(Victor Turner)

1960~80년대

주요개념: 리미널리티와 커뮤니티스, 사회극(Social Drama) 이론, 구조-반구조-구조 변화 모델

의의: 의례론을 넘어 사회·문화·종교 변동의 일반원리로 확장, 공연학(Performance Studies)과의 연계

3

현대사회와 근대성 분석으로의 확장

에디스 터너, 지그문트 바우만, 슈무엘 아이젠슈타트 등

1990년대~현재

주요개념: 일상과 재난의 커뮤니티스, 액체근대(Liquid Modernity), 다중근대성(Multiple Modernities)

빅터 터너의 사회극 이론

사회극(Social Drama)이란 빅터 터너가 반 개념의 통과의례 개념을 사회문화 종교 제반 영역으로 확장하여 제시한 개념으로, 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연극'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사회극의 특징

- 보편성: "전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보편적인 사회문화 현상"의 변화를 설명
- 변증법적 과정: 구조(structure) → 반구조(anti-structure) → 구조(structure)의 순환적 변화
- 심리적 기능: 고통스러운 인생의 전환 과정을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도움

사회극의 4단계

1. 위반(Breach)

기존 사회 규범이나 규칙의 위반



2. 위기(Crisis)

갈등 확산과 대립 심화



3. 교정/치유(Redressive Action)

문제 해결을 위한 공식비공식적 메커니즘 작동



4. 재통합/분열(Reintegration/Schism)

사회 재통합 또는 새로운 분열의 시작

구조와 반구조

구조(Structure): 기존 사회의 위계적, 분화된 조직 형태

반구조(Anti-structure): 평등, 연대감이 강조되는 커뮤니티스 형태. 기존 질서가 일시적으로 무화되는 상태

커뮤니타스와 반구조 개념

👥 커뮤니티

빅터 터너가 제시한 인간의 특별한 상호관계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리미널리티 상태에서 형성되는 공동체적 경험입니다.

주요 특징

- ✓ 평등성: 기존 사회적 지위, 계급, 신분이 모두 사라지는 평등한 관계
- ✓ 연대감: 강한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 형성
- ✓ 즉흥성: 구조화된 패턴이 아닌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관계 형성

"은뎀부 부족 사례: 성인식 과정에서 아이들은 낯선 환경에 홀로 던져진 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해 강한 연대감과 협동심을 형성하며 커뮤니티를 경험"

⌘ 반구조

기존의 사회 구조와 질서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구조화된 사회의 틀을 일시적으로 벗어나거나 역전시키는 상태입니다.

주요 특징

- ✓ 익명성: 의례 참여자들은 동일한 복장과 무소유 상태로 표상되어 개인 정체성이 약화됨
- ✓ 역할 역전: 사회적 지위와 권위가 역전되어 약자가 일시적으로 권위를 가짐
- ✓ 사회적 구조 중지: 기존 사회적 규범과 질서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현상

관계도: 구조(structure) → 반구조(anti-structure) → 새로운 구조(new structure)

* 터너의 사회극 이론에서는 위기와 변화의 핵심 메커니즘으로 작용

"반구조를 이루는 커뮤니티와 리미널리티는 밀접하게 연관되면서도 구별됩니다. 리미널리티는 존재 양식과 조건에 관한 것이고, 커뮤니티는 그러한 상태에서 형성되는

액체근대와 다중근대성

지그문트 바우만의 액체근대론

(Liquid Modernity, 液體近代)

근대성을 **영구적 리미널리티**로 인한 극단적 유동적 변화상태로 해석

- ◆ 봉건적 가치 극복 후 대안적 가치 정립 실패
- ◆ 액체와 같이 불확정적이고 계속 변화하는 상태
- ◆ 근대성의 특징인 **양가성(兩價性, ambiguity)** 강조
- ◆ 현대인의 의기소침함과 불확정성 설명

슈무엘 아이젠슈타트의 다중근대성

(Multiple Modernities, 多重近代性)

성(聖)과 속(俗) 개념의 재정의를 통한 통섭적 근대성 제시

- ◆ 단일한 서구적 근대성 모델 거부
- ◆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서 출현하는 복수의 근대성 인정
- ◆ 성과 속의 경계 전환에 있는 **리미널리티** 강조
- ◆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근대화 가능성 제시

리미널리티와의 연관성

변증법을 넘어선 해석

헤겔의 변증법이 제시하지 못한 현대 사회의 문제점과 불확실성을 리미널리티로 설명



양가성과 모호성

아이를 씻은 물을 버리면서 아이까지 버린 결과 - 기존 가치 전복의 부작용



탈근대성의 분석

리미널리티가 영구화된 현대사회의 불안정성과 창발성의 공존 설명

동서양 근대성 비교

	동양(東洋)	서양(西洋)
사유방식	상관적 사유, 음양론	변증법적 사유, 이분법
근대성 발생	제국주의 지배와 위기 속 자생적 발전	중세위기(몽골침입, 페스트) 와 타문명 교류
전개방향	우주(천)에서 개인(인)으로 내면화	개인에서 우주로 확장
리미널리티 해석	포월(包越), 가일배법(加 一倍法), 화(化)	통과의례, 사회극, 커뮤니티 스
한국적 특징	접화(接化)의 특성 - 이질적 요소의 통합과 초월	

"서양과 동양 모두 천관지관인간관을 통해 리미널리티를 구축하며 근대성을 실현하지만, 자기로부터 우주로 확대해가는 서양과 우주로부터 자기에로 확대해가는 동양은 근대성의 리미널리티 형태가 다르다."

리미널리티 적용 방식

서양의 리미널리티

개인 합리성에서 사회로 확장되는 방식

개인

→

우주/사회

- 통과의례를 통한 개인의 사회 편입 변증법
- 적 발전(정-반-합)을 통한 진보 액체근대(바우만): 영구적 리미널리티 상태

동양(한국)의 리미널리티

우주적 원리가 개인에게 내면화되는 방식

우주/천

←

개인

- 음양오행의 순환적 사유체계
- 동학의 시천주(侍天主) - 하늘을 내 안에 모심
- 대순사상의 포월(包越) - 포함하고 초월함

자생적 근대성의 특징

동아시아 삼국 중 한국의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은 자생적 삼계관(천·지·인)을 통해 리미널리티적 근대성을 구현했으며, 접화(接化)의 성격으로 기존 요소와 새로운 요소를 통합하

자생적 근대성과 동학/대순사상

동학사상과 리미널리티

● 시천주(侍天主) 사상

하늘을 모신다는 개념으로 인간 내면의 신성과 세속의 경계를 넘나드는 리미널리티적 특성
내포

● 생명사상과 상관적 사유

김지하의 연구: 동학사상에서 발견되는 생명 중심 사상은 서양 변증법과 다른 생성적 사유
방법으로 자생적 근대성의 특징

● 개벽(開闢) 사상

기존 질서와 새로운 질서 사이의 경계에 있는 리미널한 전환기적 사상으로 근대성의 변화
기제 역할

대순사상과 리미널리티

● 해원상생(解冤相生)

원한을 풀고 상생하는 개념으로, 이영란의 연구에 따르면 대립적 관계에서 제3의 요소를 창
출하는 리미널리티 특성

자생적 근대성의 특징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은 서구의 근대성과 달리 **상관적 사유**
와 주체성의 균형을 통해 한국적 리미널리티 모델을 구성

- 성(聖)과 속(俗)의 재배치: 종교적 성스러움과 일상의 세속성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접근
- 가일배법(加一倍法)과 접화(接化): 기존 바탕 위에 새로운 요
소를 더하는 포괄적 변화 방식으로 리미널리티 구현
- 내재적 초월: 김익두의 연구에서 제시된 힝그늘의 미학처럼
대립을 넘어선 제3의 공간 창출

서구 근대성과의 차이점

서구 근대성 개인 → 우주로 확장

동학/대순사상 우주 → 개인으로 내면화

변화 방식 대립적 변증법 vs. 상관적 리미널리티

리미널리티의 현대적 적용

현대사회의 리미널리티 적용 영역



일상과 문화 영역

- 축제, 공연예술, 대중문화에서의 경계 허물기
- 낭만적 사랑의 리미널리티적 특성과 현대 해석
- 일(노동)과 여가의 경계 변화와 의미 전환



사회정치적 영역

- 광주민주화운동 등 시민저항운동의 리미널리티
- 디지털 공간에서의 정체성과 현실의 경계 모호화
- 사회 변동기의 커뮤니티스 형성과 새로운 질서 창발

리미널리티의 현대적 의미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의 역할

에디스 터너는 재난 상황에서 커뮤니티스가 중요한 대처 메커니즘으로 작용함을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사회 언론이나 제도적 대응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때 종교적 대처와 함께 자발적 공동체 형성이 위기 극복에 기여했습니다.

“위기 상황은 리미널리티 양상을 통해 창발적 공동체 형성의 계기가 된다”

탈근대성과의 연결성

리미널리티는 변증법이 설명하지 못하는 현대 사회의 양가성과 불확실성을 설명하는 대안 이론으로서, 특히 영구적 리미널리티로 특징지어지는 액체근대 상황에서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의 자생적 리미널리티 접근이 대안적 근대성 모델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현대적 의미

리미널리티는 단순한 통과의례 이론을 넘어 **현대 사회의 복잡한 변화와 혼돈 속에서** 새로운 창발의 원리를 이해하는 이론적 틀로 확장되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연구결론

리미널리티는 근대성과 탈근대성을 연결하는 통합적 개념 틀로서의 가치를 지닙니다.

- ✓ **근대성 해석의 확장**
리미널리티는 변증법의 한계를 넘어 근대성의 불확정성과 양가성을 효과적으로 설명합니다.
- ✓ **자생적 근대성의 재발견**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은 서구적 근대성과는 다른 경로의 자생적 근대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 ✓ **리미널리티의 보편성**
성(聖)과 속(俗)의 경계 변화를 통한 리미널리티는 동서양 공통의 사회변동 기제로 작용합니다.

연구 시사점

‘리미널리티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새로운 창발성과 가능성을 열어주는 개념적 도구가 됩니다.’

💡 이론적 시사점

- ◆ 동서양 근대성 비교를 위한 새로운 이론적 틀 제공
- ◆ 변증법을 넘어서는 대안적 사유방식으로서의 가치
- ◆ 한국 신종교 사상의 학문적 재평가 가능성

🌱 실천적 시사점

- ◆ 현대사회의 불확실성과 위기 극복을 위한 통찰 커뮤
- ◆ 니타스적 연대의식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가능성 문
- ◆ 화적 정체성과 보편적 가치의 조화로운 통합 방안

리미널리티를 통해 본 자생적 근대성은 미래 사회의 대안적 패러다임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나 자생적 근대성의 성(聖)·속(俗) 지속 기제로서의 재활성화

Revitalization as Mechanism of Sacred-Secular Continuity

목차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2 이론적 배경: 리미널리티 & 재활성화
- 3 월라스의 재활성화이론 개관
- 4 한섬 레이크와 롱하우스 운동
- 5 재활성화의 5단계
- 6 동학사상의 자생적 근대성
- 7 대순사상의 자생적 근대성
- 8 동학vs 대순사상 비교
- 9 상관적 사유와 자생적 근대성
- 10 자생적 근대성의 의의
- 11 결론 및 제언
- 12 참고문헌

연구 배경 및 목적

서구 근대성과 비서구 근대성

- 근대성의 양상은 제국과 식민지에 따라 전통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선명하게 구분됨
- 서구 근대성: 전통에 대한 반작용으로 정체성 규정, 부정적 입장 강조
- 비서구 근대성: 서구에 대한 반작용으로 전통에 긍정적 입장 강조

자생적 근대성과 재활성화

- 비서구 사회에서는 서구의 근대화를 단순 모방하지 않는 자생적 근대성이 발현됨 정체
- 성 위기 속에서 리미널리티를 통한 내적 혁신과 재활성화를 통한 전통 재구성 추구
- 본 연구는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을 통해 한국의 자생적 근대성의 특성과 의미를 밝히고자 함

이론적 배경: 리미널리티 이론과 재활성화 이론

| 터너(Turner)의 리미널리티 이론

- 사회적 구조와 질서의 경계(limen)에 있는 전환적 상태
- 통과 의례로서 기존 질서에서 분리, 변화 후 재통합되는 과정
- 리미널리티는 변화의 기제로서 작동, 위기에 대응하는 변화 중심
- 커뮤니티스(communitas): 리미널리티 상태에서 형성되는 평등한 공동체

| 월라스(Wallace)의 재활성화 이론

- 문화적 위기 상황에서의 지속 기제로서의 전통 재해석
- 메이즈웨이(Mazeway): 사회 구성원이 가진 정신적 이미지, 사회적 유기체에 적응하는 방식
- 정체성 위기에 대한 집단적 대응으로서 전통의 재구성과 계승
- 문화 변화보다는 전통의 연속성에 초점을 둔 이론

두 이론의 상호보완성: 리미널리티는 **변화의 과정**을, 재활성화는 **지속의 과정**을 설명

왈라스의 재활성화 이론 개관

메이즈웨이(Mazeway) 개념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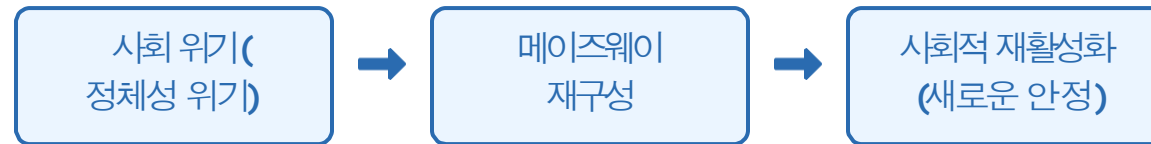
사회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이미지(mental image)로, 개인이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방식

원래 의미: '미로(maze)' - 복잡한 사회 환경 속에서 개인이 길을 찾아가는 방식

- 메이즈웨이는 사회적 환경 속 물리적 객체에 대한 인식과 스트레스 최소화 방식을 포함함
- 사회 위기 시 메이즈웨이에도 위기가 발생하며, 이는 물질적 위기보다 더 큰 위협으로 작용함

사회 유기체론과 재활성화

- 왈라스는 인간 사회를 거대한 유기체로 보고, 위기 시 사회는 긴급 조치를 취함
- 재활성화는 "보다 만족스러운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사회 구성원의 신중하고 조직적이며 의식적인 노력"



재활성화 이론은 리미널리티 이론이 변화기제에 초점을 둔다면, 지속 기제에 초점을 두는 이론이다 ”

한섬 레이크와 롱하우스 운동

배경: 정체성의 위기

- 19세기 초 미국 북동부 인디언 부족 이로쿼이족의 세네카 부족 지도자
- 미국의 식민 정책으로 인한 전통적 권위 상실과 정체성 위기 경험
- 다른 인디언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술과 방종의 생활로 접어들었으나 신비체험을 통해 삶이 변화

재활성화의 과정

- **신비체험**
신령스러운 존재가 나타나 인디언의 재활성화된 미래를 계시하고, 절제된 규율 생활을 요청
- **실천 및 전파**
자신의 경험과 가르침을 직접 실천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
- **롱하우스 운동의 탄생**
한섬 레이크가 있던 롱하우스에 모여 규율 운동에 동참하는 공동체 형성

북미 인디언의 다른 재활성화 운동

고스트 댄스(Ghost Dance)

춤을 추면 인디언의 유토피아가 빨리 도래한다는 계시에 따른 의례적 운동

페요티 의례(Peyote Ritual)

페요티라는 약초를 섭취하는 의례를 통한 영적 재활성화 운동

의의: 윌라스의 재활성화 이론은 한섬 레이크의 사례를 연구하여 정립됨 →
수많은 재활성화 운동의 공통된 단계를 발견하는 토대가 됨

재활성화의 5단계

왈라스(Anthony F. C. Wallace)가 제시한 재활성화 운동의 다섯 단계 과정

1

정상 상태 (Steady State)

사회 구성원들이 메이즈웨이(사회적 인식체계)를 통해 안정적 삶을 영위하는 상태

2

개인 스트레스 기간(Period of Individual Stress)

외부적 요인(식민지배, 문화충격 등)에 의해 개인이 정체성 혼란과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시기

3

문화적 왜곡의 시대 (Period of Cultural Distortion)

전통 신념체계가 무너지고 외부 문화와의 충돌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는 단계

4

활성화 기간(Period of Revitalization)

기존 전통을 새롭게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핵심 단계로 다음 요소들이 나타남:

- ◆ 메이즈웨이 재구성
- ◆ 조직 형성
- ◆ 문화 변형
- ◆ 의사소통과 전파
- ◆ 문화적 적응 일
- ◆ 상화

5

새로운 안정 상태 (New Steady State)

동학사상의 자생적 근대성

동학의 등장 배경

- 조선의 정체성 위기: 오랜 종법적 질서가 일본과 서구의 자본주의적 물질문화에 위협받음
- 전통의 붕괴: 수천 년간 이어오던 전통이 서구문명에 의해 미신으로 터부시됨
- 지도층의 위기: 존경받던 지도자들이 미신을 조장하는 사기꾼으로 전락

"동학" 명칭의 의미

- ① "동" - 동양의 인식론적 방법, 상관적 사유
- ② "학" - 내부적 변화와 성장 추구
- ③ "서학"에 대한 대응 - 전통의 재해석적 대안

동학의 자생적 근대성과 운동 방향

- 리미널리티적 특성: 내부적 변화와 성장 추구, 정심수신(正心修身)의 실천
- 재활성화 측면: 유불선 통합, 전통의 창조적 재해석과 전유
- 이중적 대응: 내성(內聖)은 반봉건, 외왕(外王)은 반외세로 대응
- 인간중심주의: 인내천(人乃天) 사상을 통한 인간가치의 근대적 재정립
- 자생적 근대성: 서구 모방이 아닌 전통의 연속과 변화로 독자적 근대성 추구

“ 동학은 그 명칭에서부터 서학이라는 외부 이데올로기에 대한 대응 양상이 나타나며, 상관적 사유를 통한 자생적 근대성의 전형적 사례이다.

대순사상의 자생적 근대성

대순사상의 등장과 의의

- 대순진리회는 동학 관련 단체 중 동양전통의 종단 명칭과 교리체계를 유지하며 대중단으로 성장한 유일한 단체
- 동학이 제시한 이상세계의 실현으로까지 동학의 범위를 확대한 대순사상
- "참동학"이란 명칭을 통해 동학의 완성을 의미하며 유불선 전통의 통합 지향

리미널리티와 재활성화 관점

- 리미널리티 양상에서 이룩한 변화가 지속되는 유일한 커뮤니티스로서의 의미
- 대순사상은 무극도로부터 종단으로 발전하며 리미널리티보다 재활성화가 적합한 단계로 진입
- 대순사상의 "회(會)"는 커뮤니티스에 대응하며 패트릭 로드는 이를 동양의 근대성으로 해석

동학과 대순사상의 자생적 근대성 차이점

동학이 초기 정체성 위기에 대한 리미널리티적 대응이었다면, 대순사상은 동학의 재활성화에 실패한 지점에서 전통을 새롭게 해석하여 지속시킴으로써 자생적 근대성의 완성된 형태를 제시함

동학 vs 대순사상 비교

리미널리티와 재활성화 관점에서 본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의 차이점과 공통점

비교 항목	동학사상	대순사상
등장 배경	"서학"에 대한 직접적 대응, 반봉건반외세 운동	동학의 리미널리티를 지속시키는 새로운 커뮤니티스 형성
리미널리티 양상	내부적 변화, 성장 중심의 통과의례적 특성 강조	종단으로 발전하며 재 활성화 중심으로 전환
명칭의 의미	"동": 동양적 인식론의 방법론적 대응	"참동학": 동학의 완성과 본질적 가치의 회복
전통에 대한 태도	유불선 전통의 통합적 수용	동양 전통 종단 명칭과 교리체계의 유지·발전
재활성화 특성	전통의 재해석과 사회변 혁적 유토피아 지향	"회"라는 특성을 통해 동양적 근대성 구현
핵심 가치관	인내천(人乃天)의 인간중심주의	무자기(毋自欺)를 통한 자기성찰과 창조적 수용

상관적 사유와 자생적 근대성

상관적 사유의 개념

상관적 사유(Correlative Thinking): 동양 전통 인식론의 핵심 사유방식으로, 사물간의 연관성과 전체적 맥락을 중시하는 사고체계

서양의 분석적 사유

- 대립적 요소의 변증법적 조화
- 이항대립을 통한 분석 원자
- 론적 세계관

VS

동양의 상관적 사유

- 상보적 요소의 경계 조화
- 전체론적 접근
- 천·지·인 합일의 세계관

자생적 근대성과 포스트 휴머니즘

- 서구 근대성이 르네상스를 통해 그리스·로마 문화의 재활성화로 시작된 것처럼, 동양도 자체적 전통의 재해석을 통해 자생적 근대성 구축
- 과거에는 상관적 사유가 동양의 근대성을 정체시킨 요인으로 지목되었으나, 한국 신종교는 이를 자생적 근대성의 토대로 활용
- 포스트 휴머니즘 시대의 도래: 인간과 기계의 결합이 문제가 되는 현대에, 한국 신종교의 인간중심주의는 새로운 가치 제공 가능
- 동학과 대순사상의 상관적 사유는 인지종교학 영역에서 탈근대성을 넘어 포스트 휴머니즘 시대의 대안적 철학으로 재해석 가능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의 리미널리티와 재활성화는 상관적 사유의 창조적 수용을 통한 자생적 근대성의 구현이다’

결론 및 의의

연구 요약

- ✓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에 나타난 자생적 근대성이 상관적 사유, 리미널리티, 재활성화 이론을 통해 체계적으로 설명됨
- ✓ 비서구 사회의 독자적 근대화 경로로서 전통의 재해석과 창조적 수용 과정 확인

한국 신종교의 보편적 가치

- 💡 상관적 사유를 토대로 한 인간중심주의는 포스트 휴머니즘 시대의 대안적 사상으로 재조명 가능
- 💡 무자기(毋自欺)의 자기성찰과 창조적 수용은 현대사회의 정체성 위기 해결에 기여

자생적 근대성의 성과

- ✓ 서구 모방이 아닌 전통의 연속과 변화를 통한 독자적 근대성 구축
- ✓ 대순사상의 "회"라는 특성이 동양적 근대성의 커뮤니티스로 기능

향후 연구 방향

- ➔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중심주의와 한국 신종교 사상의 접점 연구
- ➔ 동아시아 다른 국가들의 자생적 근대성과의 비교 연구 필요

"상관적 사유의 리미널리티와 재활성화는 서구 근대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대안적 근대성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Chapter III

동학사상의 자생적 근대성과 작란(作亂)의 리미널리티

Autogenous Modernity and Liminality of Disorder in Donghak

목차 및 연구 개요

본 연구는 동학사상에 나타난 자생적 근대성과 리미널리티(경 계성)를 동서양 천관·지 관·인간 관의 비교를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합니다.

동학의 시천주(侍天主), 조화정 (造化定), 영세 불망(永世不忘) 사상에 나타난 동서양 사유의 창조적 융합과 자생적 근대성을 조명합니다.

1. 문제의식과 연구 배경
2. 이론적 배경: 리미널리티 개념
3. 동서양 천관 비교
4. 동학의 천관과 리미널리티
5. 동서양 지관 비교
6. 동학의 지관과 리미널리티
7. 동서양 인간관 비교
8. 동학의 인간관과 사회적 의미
9. 결론 및 함의

문제의식과 연구 배경

- 동학사상은 동서양 사상의 충돌과 융합이 일어난 19세기 조선의 시대적 맥락에서 자생적 근대성을 형성함
- 천관(天觀)·지관(地觀)·인간관(人間觀)은 동서양 사유체계를 비교하는 핵심 개념
 - 서양: 존재론적 사유체계 (실체론, 본질/현상 이분법)
 - 동양: 생성론적 사유체계 (속성론, 변화/상관성 중시)
- 리미널리티(Liminality)는 경계성, 중간성, 전환성을 의미
 - 사회적·문화적 질서가 해체되고 재구성되는 경계적 공간
 - 동학사상에서 동서 사유의 충돌과 합성을 통한 창조적 전환을 분석하는 개념
- 본 연구의 목적: 동학의 시천주(侍天主)·조화정(造化定)·영세불망(永世不忘) 사상에 나타난 리미널리티를 탐구하고 한국 근대성의 자생적 측면 재조명

이론적 배경: 리미널리티(Liminality) 개념

- 리미널리티는 **경계성**, **중간성**, **전환성** 을 의미하는 개념

리미널리티(Liminality)의 특성:

기존 질서가 해체되고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경계적 공간**으로, 변환과 창조의 가능성이 열리는 장

- 동학사상 연구에서 리미널리티의 적용
 - 동서양 사유체계의 **충돌과 융합**을 통한 창조적 경계 공간
 - "계통발생이 개체발생을 반복"하는 관계성으로 천지인 삼재의 새로운 배치
- 리미널리티의 분석 차원
 - 천관(天觀)**: 형상적/동화적 천관의 경계와 시천주 개념의 출현
 - 지관(地觀)**: 질료적/응축적 지관의 경계와 조화정 개념의 형성
 - 인간관(人間觀)**: 성장론적/접화적 인간관의 경계와 영세불망 사상
- 리미널리티로 본 동학의 **자생적 근대성**: 동서양 근대성의 단순한 중간이 아닌 창조적 재구성과 새로운 가능성 공간

동서양 천관 비교 - 서양의 형상적 천관

- 존재론적(實體論) 천관의 특징
 - 변화를 실체(substance)로 설명
 - 본질과 현상의 이분법적 구분
-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관
 - 플라톤: 이데아(형상) 세계와 현상 세계
 - 아리스토텔레스: 형상(形相, form)과 질료(質料, matter)
- 4원인설과 4원소설 (地水火風)
 - 4원인: 형상인, 질료인, 작용인, 목적인
 - 4원소: 지(地), 수(水), 화(火), 풍(風)
 - 제5원소로서의 신(神) 또는 이데아
- 서양 근대성과 천관의 변화
 - 지동설과 켈빈의 구원예정 설
 - 마테오 리치의 『천주실의』와 서학 전파
- 서양의 형상적 천관은 아래에서 위로 관찰하는 방식으로, 현상을 형상(본질)과 질료(물질)로 구분하고 실체를 통해 변화를 설명하는 존재론적 구조를 형성

동양의 동화적(同化的) 천관

- 동양의 천(天) 개념의 이중성
 - 천외천(天外天): 천지를 낳은 무극, 태극의 천 (하늘 위의 하늘)
 - 이법천(理法天): 천지로 구분된 하늘, 이치로서의 천
- 동화적(同化的) 천관의 특성: 이질적 요소를 하나로 통합하는 성질
 - 천원지방(天圓地方):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남 - 형태적 구분
 - 천도지덕(天道地德): 하늘은 도(道), 땅은 덕(德) - 기능적 구분
- 음양오행(陰陽五行)을 통한 생성론적 우주관
 - 서양의 실체론적 변화(지수화풍)와 달리 속성으로 변화를 설명
 - 상관적 사유를 통한 만물의 유기적 관계 설명: 음양→삼재→사상→오행→팔괘 발전
- 천관지관·인간관의 삼중 구조
 - 동화(同化): 천(天)의 속성 - 이질적 요소의 통합 (탄소동화작용처럼)
 - 응축(凝縮): 지(地)의 속성 - 압축과 응결 (수증기 응축처럼)
 - 접화(接化): 인(人)의 속성 - 서로 다른 요소의 만남과 융합

동학사상의 시천주(侍天主) 천관과 리미널리티

- 시천주(侍天主) 는 동학의 핵심 교리로, '하늘님을 모신다'는 의미
 - 최수운의 천사문답 체험에서 비롯된 종교적 각성의 산물
 - 서양의 인격적 천주와 동양의 이법적 천관의 창조적 융합
- |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니라. 사람이 각기 자기 마음 속의 천주를 모시고 받들어 섬기면 그것이 곧 천도니라." - 동경대전 중에서
- 동서양 천관의 리미널리티 (경 계적 융합)
 - 서양: 형상적(形相的) 천관 - 초월적 신과 인간의 분리
 - 동양: 동화적(同化的) 천관 - 천인합일, 천과 인간의 일체화
 - 동학: 초월적/내재적 천을 동시에 인정하는 중재적 입장
- 자생적 근대성의 표현
 - 천주의 '내재성'을 강조한 내유신령 외유기화(內有神靈外有氣化) 교리
 - 무극대도(無極大道), 조화(造化), 무위이화(無爲以化) 등 동학만의 독창적 천관 형성
 - 단순한 서학 대응이 아닌 동서양 사상의 창조적 종합과 새로운 사상체계 구축

동서양 지관 비교 - 서양의 질료적 지관

- 서양의 질료적 지관: 존재론적 관점에서 땅(地)을 질료(matter, hyle)로 개념화
- 지수화풍(地水火風)의 4원소설
 - 땅을 구성하는 물질적 실체로서의 4원소
 - 아리스토텔레스의 4원인설과 연결된 물질적 세계관
- 원자론적 세계관
 - 분석적 사유: 전체에서 부분이 아닌 부분에서 전체로
 - 데모크리토스, 에피쿠로스부터 근대 과학까지 이어진 전통
- 3기능 체계로서의 지관
 - 인도-유럽어족 문화권의 공통된 구조
 - 천(프리스트) - 지(전사) - 인(생산자)의 사회적 구조화
- 존재론적 지관의 근대적 변용
 - 신을 배제한 근대과학의 물질주의적 패러다임
 - 대상화·도구화된 자연으로서의 땅: 기계론적 세계관

동양의 응축적(凝縮的) 지관

- 동양의 지관은 응축적 특성을 가짐: 이질적 요소들이 한데 얹혀 굳어지는 현상
 - 땅(地)은 하늘(天)의 영향을 받아 압축·수축하는 힘이 작용
 - 천원지방(天圓地方), 천도지덕(天道地德)의 상호관계성 강조
- 토(土) 개념의 중요성
 - 오행에서 중앙의 토(土)는 음양의 조화와 변화의 중심 역할
 - 시간의 변화에서도 진·술·축·미(辰戌丑未)의 토(土)가 변화를 중재
- 풍수지리 와 명당 사상
 - 땅의 기운을 중시하는 풍수지리 체계와 삼수분화(三數分化) 이론
 - 구궁팔괘(九宮八卦)와 하도낙서(河圖洛書)로 발전된 땅의 상징체계
- 상관적 사유 에 기반한 땅과 인간의 관계
 - 땅은 인간과 하늘의 중재자: 응축은 동화와 접화를 연결하는 매개체
 - 서양의 질료적 지관과 달리, 땅 자체가 생명력과 신성성을 지닌 유기체적 존재

동학사상의 조화정(造化定) 지관과 리미널리티

- 조화정(造化定)의 의미와 지관(地觀)
 - '造化'는 천지운행의 결과, '정'은 정착과 구현을 의미
 - 서양의 질료적 지관과 동양의 응축적 지관의 리미널리티
- 동학에서 땅의 신성화와 대중성
 - 땅은 단순한 물질이 아닌 영성과 조화의 공간으로 재해석
 - 민중 삶의 공간인 땅의 지위를 재설정하는 평등적 관점
- 동학 교리의 도교적 요소와 성리학적 융합
 - 주문부적의 자연스러운 융합과 사상적 재해석
 - 전통 유학의 이법천과 서양의 형상적 천관의 융화
- 지관의 리미널리티와 사회적 의미
 - 공간의 계층적 구분이 해체되는 사회적 리미널리티
 - 자생적 근대성의 토대로서 땅과 민중의 연결
 - 동학농민운동 당시 '작란'을 통한 새로운 사회공간 창출

서양의 성장론적 인간관

- 존재론적 인간관: 인간 본질과 성장 중심
- 기독교적 기원
 - 원죄론: 구원을 통한 성장과 변화
 - 프로테스탄트 윤리: 자기계발, 노동을 통한 신성화
- 근대적 발전
 - 데카르트의 이성적 주체: 사유하는 개인
 - 계몽주의: 이성과 합리성을 통한 인간 완성

- 현대적 전개
 - 매슬로우의 자기실현: 성장욕구의 단계적 완성
 - 실존주의: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주체로서 인간
 - 포스트휴머니즘: 기술과 결합된 초월적 진화
- 서양 인간관의 특징
 - 수직적 성장: 부분에서 전체로, 아래에서 위로
 - 개인주의적: 집단보다 개인의 성취와 발전 강조
 - 진보와 발전: 지속적인 변화와 성장을 긍정적 가치로 평가

동양의 접화적 인간관

- **접화(接化)**: 이질적인 존재가 동등하게 만나 차이를 보존하며 통합하는 속성
 - 동서양 인간관의 핵심적 차이점을 나타내는 개념
 - 천원(天圓)과 지방(地方), 천도(天道)와 지덕(地德)의 융합으로서 인간
- **천지와 인간의 상호화육**: 천지인 삼재의 상호작용
 - 건건곤순(乾健坤順): 천의 건(健)과 지의 순(順)을 통합하는 인간
 - 프랙탈적(fractal) 인간-우주관: 천(1), 지(2), 인(3)에서 인은 천지를 포함하는 (1+2+3)
- **상관적 사유**와 유학 심리학
 - 집단성과 개별성의 조화: 개인은 사회와 우주의 유기적 일부
 - 내면(理)과 외면(氣)의 통합, 심성(心性)과 정감(情感)의 균형
- 동양적 접화 인간관의 사회적 구현
 - 정치: 군자의 도덕적 본보기와 사회 조화의 이상
 - 학문: 경세치용(經世致用)과 내성외왕(內聖外王)의 통합

동화(同化)

중심지향·통합
천(天)의 속성

응축(凝縮)

완벽주의 수렴
지(地)의 속성

접화(接化)

혼합주의 융합
인(人)의 속성

동학사상의 영세불망(永世不忘) 인간관과 리미널리티

- 영세불망(永世不忘)의 의미와 배경
 -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 중 '인(人)'의 위상과 역할 고양
 - 동학에서 인간은 천지와 대등한 삼재의 일부로서 우주적 위상 획득

"내유신령 외유기화" (內有神靈外有氣化)
내면에는 신령함이 있고, 외면에는 기화됨이 있다

- 시천주(侍天主) 중심의 인간관
 - 인간 내면에 있는 '신'의 발견과 모심 → 인간의 신성화
- 사회적 의미와 리미널리티
 - 접주제(接主制)를 통한 평등사상의 제도화 → 계층 경계의 해체
 - 동학농민운동과 민중의 지위 상승 → 신분제의 실질적 붕괴
 - 자생적 근대성: 서구적 근대성과 구분되는 내재적 평등성과 공동체적 인간관

동학의 자생적 근대성과 사회적 의미

자생적 근대성의 특징

- 구조적 창발성: 동서양 사유체계의 창조적 결합
- 탈경계적 통합: 천·지·인 삼재의 통합적 재구성
- 시천주·조화정·영세불망으로 표현된 자생적 근대성
 - 서구화되지 않은 한국적 근대성
 - 내재적 초월성을 통한 새로운 우주관

사회적·역사적 의미

- 신분제 해체와 평등사상의 실천적 모델
- 동학농민운동의 역사적 의의
 - 사회변혁운동의 사상적 기반 제공
 - 민중주체의 역사의식 형성
- 현대적 함의
 - 한국 민주주의 운동의 사상적 토대
 - 포스트 근대성으로의 전환 가능성

결론 및 함의

동학사상의 리미널리티와 자생적 근대성

- 동학사상은 단순한 종교운동이 아닌 동서양 사유의 통섭적 재구조화 를 통한 자생적 근대성의 출현
- 시천주(侍天主)·造化정(造化定)·영세 불망(永世不忘)은 형상적/동화적 천관, 질료적/응축적 지관, 성장론적/접화적 인간관의 창조적 융합

자생적 근대성의 의미

- 서구적 근대성과 구분되는 내재적 평등성 과 영성의 사회적 구현
- 사회 변혁과 정신적 혁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한국적 근대성의 특수성

현대적 시사점과 향후 연구 방향

- 생태위기와 근대성 위기 시대, 동학사상의 통합적 우주관이 제시하는 대안적 사유체계
- 신분·계급·성별 등 기존 경계의 해체와 재구성을 통한 포스트 근대성 으로의 가능성
- 동학-천도교-종교다원주의로 이어지는 한국적 근대성 담론의 계보학적 연구 필요성

1

시천주(侍天主) 천관(天觀)의 자생적 근대성

Autogenous Modernity in the Sicheonju View of Heaven

목차

- ① 연구 배경 및 목적
- ② 서양의 형상적 천관
- ③ 동양의 동화적 천관
- ④ 동서양 천관의 비교
- ⑤ 동서양 지관의 비교
- ⑥ 동서양 인간관의 비교
- ⑦ 결론 및 의의
- ⑧ 참고문헌

연구 배경 및 목적

- 천관지관인간관은 인간 실존과 생존의 기본적인 토대
- 시대의 획이 그어지는 근대와 같은 변화는 천관지관인간관의 변화가 척도
- 동서양 천관지관인간관의 근본적 차이- 존재론과 생성론
- 시천주 천관을 중심으로 한 자생적 근대성의 가치 탐구
- 동서 문명의 세계관 비교를 통한 새로운 인문학적 통찰 추구

서양의 형상적 천관

-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론: 실체(본질)와 현상을 구분하여 변화를 설명
- 4원인설: 형상인, 질료인, 작용인, 목적인을 통해 변화의 원인 설명
- 4원소설: 지(地), 수(水), 화(火), 풍(風)으로 물질 구성
- 플라톤의 이데아론: 눈에 보이는 세계는 이데아의 반영
- 형상(形相): 질료를 변화시키는 본질적 원리로서의 하늘
- 근대성의 기초: 존재론적 사유체계가 서양 근대 과학관에 큰 영향

동양의 동화적 천관

- 무극과 태극의 이중적 천 개념
 - 천지를 낳은 무극태극(천외천)과 천지로 구분된 후의 천
- 음양오행의 속성적 사유와 상관적 우주관
 - 실체가 아닌 속성으로 변화를 설명하는 생성론적 사유체계
- 천원지방(天圓地方), 천도지덕(天道地德)의 관계
 - 이질적인 것이 하나로 통합되는 동화(同化)의 천관
- 신(神)의 다층적 개념
 - 상제, 천지신명, 조상신의 유기적 통합 구조

동서양 천관 비교

서양의 형상적(形相的) 천관	동양의 동화적(同化的) 천관
근본 사유체계 실체로 변화를 설명하는 존재론적 사유	근본 사유체계 속성으로 변화를 설명하는 생성론적 사유
대표 철학 플라톤의 이데아, 아리스토텔레스의 4원인설과 4원 소설	대표 철학 음양오행의 상관적 사유체계, 천지인 삼재관
하늘 인식 본질과 현상의 이분법적 구분, 경계가 명확한 실체	하늘 인식 천원지방, 천도지덕으로 상호보완적 관계, 유기적 통합
변화의 관점 형상과 질료의 결합과 분리, 실체의 작용	변화의 관점 이질적인 것의 동화와 통합, 상관적 감응
신(神)의 존재 유일신, 초월적절대적 존재, 제5원소로서의 신	신(神)의 존재 상제와 다양한 신명, 천외천의 중층적 개념, 천지인 삼재

동서양 지관·인간관 비교

서양의 관점	동양의 관점
지관(地觀)	
질료적(質料的) 지관 형상(形相)을 받아들이는 질료로서의 땅	응축적(凝縮的) 지관 천원(天圓)에 대한 지방(地方), 내부를 향해 수축하는 힘
지수화풍의 4원소, 명확한 경계와 실체를 가진 물질 세계	천도(天道)에 대한 지덕(地德), 음양오행 법칙이 내재된 유기체
인간관(人觀)	
성장론적(成長論的) 인간관 기능적 분화와 개체성 강조, 합리적 이성의 주체	접화적(接化的) 인간관 이질적인 존재가 만나 하나로 어우러지는 융합
천(形相)과 지(質料)의 중재자로서 자연을 대상화하고 지배하는 존재	천도(天道)와 지덕(地德)의 융합을 통한 조화와 중재의 역할

결론 및 의의

- 서양의 형식적 천관과 동양의 동화적 천관의 근본적 차이 규명
- 시천주 천관의 자생적 근대성은 서구적 근대성과 차별화된 독자적 가치 지
님
- 존재론과 생성론의 상호보완적 통합을 통한 새로운 세계관 가능성 제시
- 동서양 문명의 상호 이해와 융합을 위한 학문적 토대 마련
- 현대 사회의 인문학적 성찰과 미래 지향적 사유체계 구축에 기여

■ 가 서양의 형상적(形相的) 천관

The Western Formal View of Heaven

서론: 천관지관·인간관의 중요성

서양 근대성의 중심 요소는 천관지관·인간관의 변화에 있습니다.

- 근대 서양의 세계관 전환:

지동설과 캐빈의 구원예정 설은 모두 천관지관·인간관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

- 실존과 생존의 기본 토대:

천관지관·인간관은 인간의 실존과 생존에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철학적 토대로 작용

- 문명 변화의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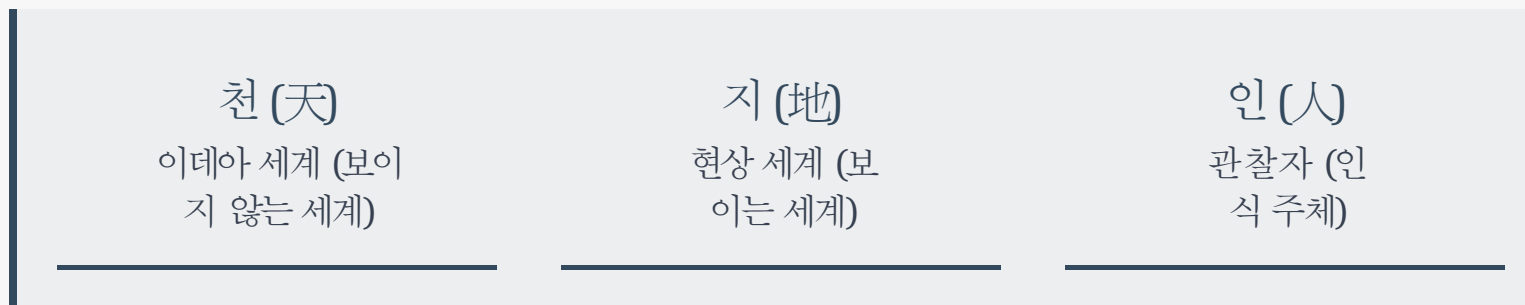
시대의 획이 그어지는 근대와 같은 변화는 천관지관·인간관의 변화가 그 척도가 됨

"천관지관·인간관은 인간의 실존과 생존에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므로 시대의 획이 그어지는 근대와 같은 변화는 천관지관·인간관의 변화가 척도가 된다."

플라톤의 이데아론과 천지인 삼재

동서양 모두에서 천지인 삼재는 우주 인식의 근본 토대로 작용해왔습니다.

- 플라톤의 이데아와 천지인의 관계:
눈에 보이지 않는 이데아 세계는 동양의 '천', 눈에 보이는 세계는 '지', 관찰하는 존재는 '인'에 대응
- 서양과 동양의 우주관 연관성:
플라톤 철학에서도 우주, 신, 인간이라는 세 차원의 구조가 천지인 삼재와 유사한 형태로 나타남
- 이데아론의 핵심:
눈에 보이는 우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데아 세계의 반영이라는 관점 - 형상적 천관의 근간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질료론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현실적으로 재해석하였습니다.

- 플라톤 이론의 실용적 변형:
이데아를 형상(形相, *eidos*)으로, 현실세계를 질료(質料, *hyle*)로 재해석하여 실천적인 우주론 제시
- 형상과 질료의 결합:
형상적 하늘(天, 본질)과 질료적 땅(地, 현상)의 결합으로 사물과 변화를 설명
- 인간의 위치:
인간은 하늘의 형상을 땅에 구현하도록 돕는 매개체로서 천지 사이에 위치
- 존재론적 세계관의 시작:
변화를 실체로 설명하는 존재론적 사유의 기초를 확립하여 서양 철학의 근간 형성

‘아리스토텔레스에게 형상적 하늘, 질료적 땅의 형태로 나타난 우주는 하늘의 형상이 땅을 질료로 변형시킨 세계로 나타났다. 인간은 하늘의 형상을 땅에 나타나게 도와주는 존재로 간주된다.’

서양의 존재론적 사유체계

서양 사유에서 변화와 존재는 '실체'를 바탕으로 설명됩니다.

- 실체론적 사고방식:
변화의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체로 설명되어야 한다는 존재론적 이론
- 사유의 방향성:
동양의 전체에서 부분으로, 위에서 아래로 사유하는 방식과 달리
서양은 부분에서 전체로, 아래에서 위로 확장되는 사유체계 채택
- 본질과 현상의 구분:
서양 존재론에서는 본질(형상)과 현상(질료)이 명확히 구분됨
동양의 일원론적 사고와 달리 이분법적 구조를 형성

“존재론과 생성론은 오늘날 동양과 서양을 구분하는 주요 사유체계가 된다. 서양은 실체를 통해 변화를 설명하는 존재론이라 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4원인설과 4원소설

4원인설 (四原因說)

- 형상인 (形相因):
사물의 본질과 형태를 규정하는 원인
- 질료인 (質料因):
사물을 구성하는 물질적 기반
- 작용인/운동인 (作用因):
사물에 변화를 일으키는 외부 원인
- 목적인 (目的因):
사물이 지향하는 최종 목표

4원소설 (四元素說)

- 지 (地):
대지, 압축과 폭발의 원소
- 수 (水):
물, 수렴과 하강의 원소
- 화 (火):
불, 확장과 상승의 원소
- 풍 (風):
바람, 팽창과 이동의 원소

존재론적 우주관의 토대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체론은 변화의 과정이 논리적으로 설명되려면 반드시 실체로 설명되어야 한다는 존재론적 이론입니다. 4원인설과 4원소설은 서양 형상적 천관의 핵심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형상과 질료가 결합하는 목적과 작용이 실체가 형성되는 4원인이고, 질료가 구분된 것이 지수화풍의 4대 원소입니다. 이러한 이론은 17세기까지 서양에서 우주를 설명하는 가장 합리적인 이론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동서양 사상의 차이점

서양의 존재론적 사유	동양의 생성론적 사유
변화의 원리 변화를 실체로 설명하는 존재론적 체계 실체로서의 형상(eidos, form)이 질료에 작용	변화의 원리 실체를 가정하지 않는 생성론적 체계 음양오행과 같은 속성의 변화로 설명
세계인식 방향 아래에서 위로 (부분에서 전체로) 본질(형상)과 현상(질료)의 이분법적 구분	세계인식 방향 위에서 아래로 (전체에서 부분으로) 현상과 본질의 일원론적 통합
핵심 이론과 적용 4원인설과 4원소설 (지수화풍) 변화의 원인을 실체적으로 규명 (해부학 발달)	핵심 이론과 적용 음양오행의 상생상극 체계 감응과 프랙탈적 변화 설명 (생체의학 발달)

“동양이 음양오행으로 변화를 속성으로 설명한다면, 서양의 지수화풍은 실체로 설명한다는 차이가 있으며, 이 차이가 동서양의 근대성과 세계관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결론 및 의의

서양의 존재론적 천관이 가지는 철학적 의미와 현대적 함의

- 실체론에 기초한 세계관:

플라톤의 이데아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질료론으로 이어지는 서양 철학의 근간이 천관지관·인간관의 존재론적 구조를 형성함

- 동-서양 사유의 구조적 차이:

변화를 실체로 설명하는 서양의 존재론과 실체를 전제하지 않는 동양의 생성론의 대비는 문명 발전의 서로 다른 경로를 설명함

- 현대적 의의:

오늘날의 과학 패러다임과 세계관 형성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존재론적 천관의 유산을 이해하는 것은 동서양 문명의 융합과 상호 이해를 위한 철학적 토대가 됨

"요컨대 서양의 존재론적 천관은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시작하는 지수화풍의 세계관으로 대표된다. 아래에서 위로 사물을 관찰하는 서양의 경우 본질과 현상으로 실체는 구분되며 현상은 본질인 형상이 현상인 질료를 실체로서 변화시키는 것이다."

나 동양의 동화적(同化的) 천관

The Eastern Assimilative View of Heaven

목차

1. 천(天) 개념의 이중성
2. 신(神) 개념의 구분
3. 동양의 삼재관: 동화적(同化的) 천 관
4. 응축적(凝縮的) 지관과 접화적(接化的) 인간관
5. 서양 사상과의 비교
6. 음양오행과 상관적 사유
7. 동양의神明 체계
8. 천지지용(天地之用)과 12운성
9. 유불선과 천지지용
10. 결론 및 의의

천(天) 개념의 이중성

동양의 천 개념은 두 가지 의미로 구분되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천지로 구분된 후의 천: 천지 중 하나로서의 천으로, 성리학에서는 이법천(理法天)으로 불리며 이치와 법칙의 측면이 강조됩니다.

둘째, '천외천'으로서의 천: 천지를 낳은 무극, 태극의 천으로, 하늘 위의 하늘을 의미하며 만물의 근원적 존재입니다. 동학사상에서는 상제 또는 천주로 표현됩니다.

이러한 천 개념의 중의적 사용은 동양 천관, 지관의 논의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천외천(天外天)

하늘 위의 하늘
무극태극의 천
천지를 낳은 근원



천지의 천(天)

천지 중 하나로서의 천
이법천(理法天)
법칙과 이치의 하늘

신(神) 개념의 구분

동양 사상에서 신(神) 개념 또한 천(天)과 마찬가지로 중의적으로 사용됩니다.

상제(上帝): 천외천에 대응하는 신으로, 천지를 만든 궁극적 존재를 의미합니다. 동학사상에서는 '천주(天主)'라고도 표현합니다.

신명(神明): 천외천이 만든 천지 안에서 천지를 운행하는 주체로서의 신을 의미합니다. 음양오행의 법칙에 따라 각자 고유의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서양의 차이: 서양은 통일적으로 신을 천외천의 상제만을 주로 강조했으나, 동양에서는 신명을 포함한 복합적 개념으로 발전했습니다.

동양의 신 개념

최고신(상제) + 천지 신명 + 조상신

서양의 신 개념

유일신(절대신) 중심

상제(上帝)

천외천에 대응하는 신
천지를 만든 근원적 존재
동학사상의 천주



신명(神明)

천지를 운행하는 주체
음양오행의 법칙에 따름
각자 고유영역 보유



조상신

동양의 삼재관: 동화적(同化的) 천관

삼재관(三才觀)이란? 천(天), 지(地), 인(人)의 관계를 설명하는 동양 철학의 기본 체계입니다.

동화적(同化的, assimilation) 천관: 천원지 방(天圓地方), 천도지 덕(天道地德)으로 대표되는 음양 원리에서, 천관은 이질적 요소를 하나로 통합하는 동화의 속성을 지닙니다.

동화는 자기를 중심으로 **외부를 향해 끊임없이 확장**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이질적인 것을 통합하되 주종관계를 형성하여 질서를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동양의 정신문화인 유불선 또한 동화의 성격이 나타납니다:

- 도교 - 자연에 동화
- 유교 - 내면에 동화
- 불교 - 법에 동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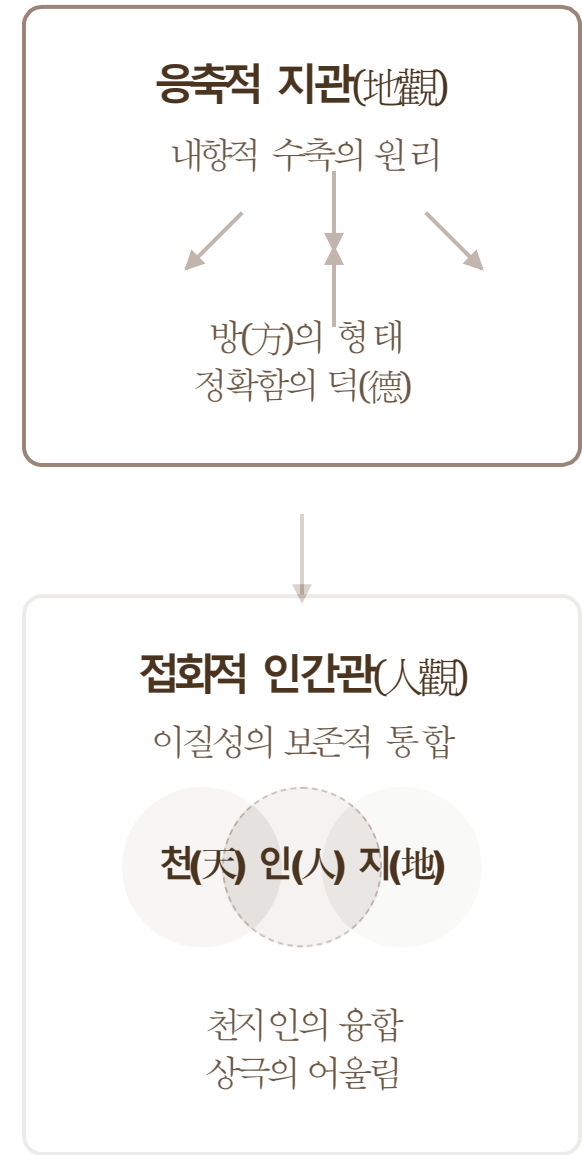
응축적(凝縮的) 지관과 접화적(接化的) 인간관

응축(凝縮)은 천원에 대한 지방, 천도에 대한 지덕에서 나타나는 특성으로, 서로 다른 요소들이 한데 얹혀 굳어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 **응축의 특징:** 동화와 달리 성분 자체가 바뀌지 않고, 이질적인 존재를 압축하여 하나의 작은 통일체를 이룹니다. 내부를 향해 수축하는 힘을 가집니다.

접화(接化)는 서로 대립적인 존재가 만나 하나로 어우러지는 것으로, 두 존재가 동등하게 만나 이질성을 보존하는 통합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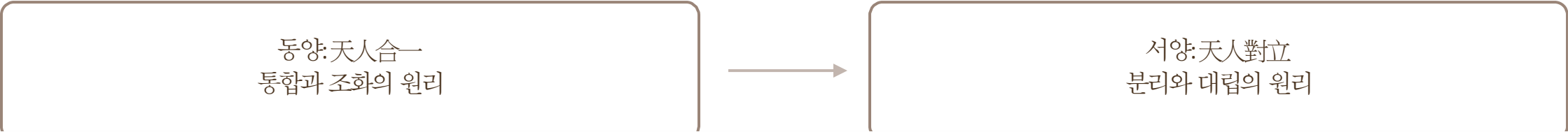
• **접화의 특징:** 상극의 어울림으로 혼합주의를 지향합니다. 천원과 지방의 융합, 천도와 지덕의 융합으로 인간의 속성을 형성합니다.



서양 사상과의 비교

동양과 서양의 천관지 관·인간관은 근본적인 사유방식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동양 사상	서양 사상
사유 방식	생성론적 (生成論的)	존재론적 (存在論的)
천관 (天觀)	동화적 (同化的) 만물을 일체로 통 합	형상적 (形相的) 아리스토텔레스의 형 상
지관 (地觀)	응축적 (凝縮的) 이질적 존재의 압 축	질료적 (質料的) 아리스토텔레스의 질 료
인간관 (人觀)	접화적 (接化的) 대립적 존재의 어 울림	성장론적 (成長論的) 개체의 성장과 발 전
특징	속성 중심 변화 상 관적 사유, 통합 지향	실체 중심 변화 이 화(異化), 분화(分化)



음양오행과 상관적 사유

상관적 사유는 동양 천관의 핵심적 특징입니다. 음양오행의 법칙은 물질뿐 아니라 신명(神明)에도 적용됩니다.

음양, 삼재, 오행, 팔괘는 기원은 달랐지만, 동일한 삼재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였으며 통합적 체계를 형성합니다.

상관적 사유는 실체적 서양 사유와 달리, **속성 중심의 천관**을 형성하여 만물과 신명에 일관된 법칙으로 작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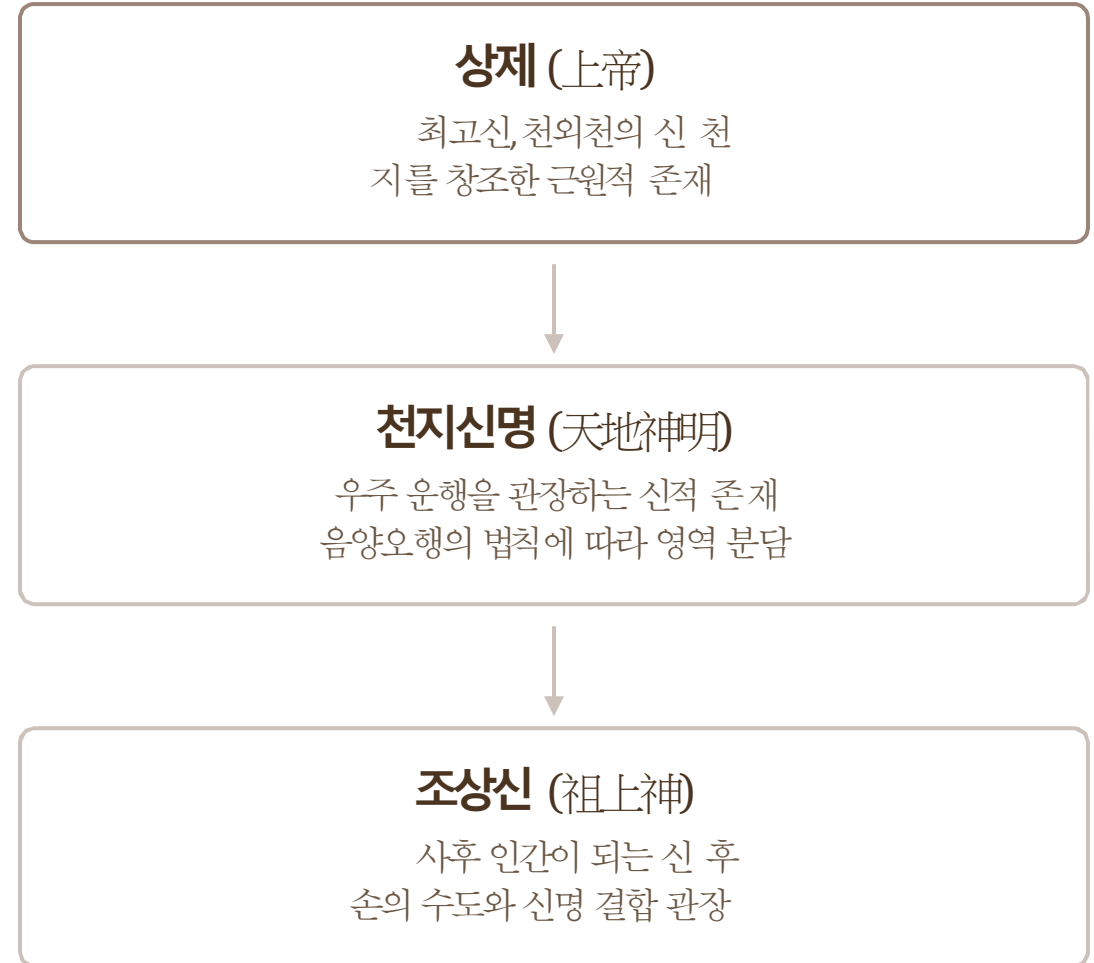
소강절의 가일배법(加一倍法)에 따라, 이들은 삼재를 세부적으로 해석하는 통합적 원리가 됩니다.



동양의 신명 체계

동양의 신 개념은 서양의 절대신과 달리 복합적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동양의 신은 **최고신(상제)**, **천지신명**, **조상신**으로 구분됩니다.
- 서양의 천사와 달리 **우주만물에 수많은 신 명이 존재**하며, 이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음양오행의 법칙에 따라 우주를 운행합니다.
- 상제는 신명의 일에 간섭하지 않아, 동양에서 최고신이 **비인격화된 법칙**에 가깝게 인식되었습니다.
- 인간이 죽어서 되는 **조상신**은 천지 운행에 관여하지 않고, 인간 후손이 신명과 결합되는 것을 관장합니다.
- 모든 신명은 **음양오행의 질서**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천지지용(天地之用)과 12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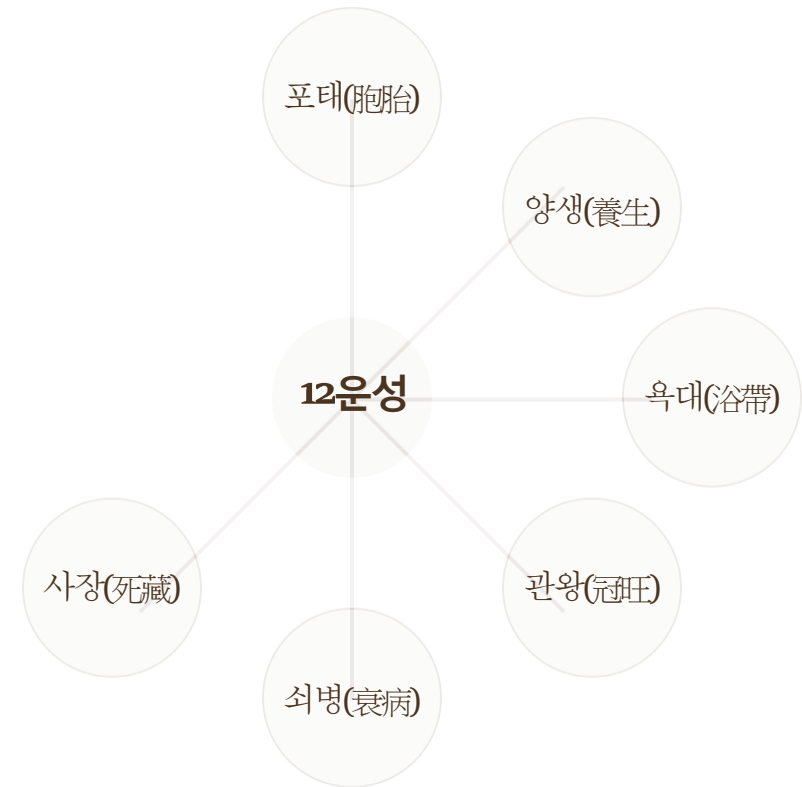
천지지용은 천지의 운행과 작용을 의미합니다.

천지에 배치된 10간(干) 12지(支)는 천지 화육(天地化育)을 위해 천지 승강(天地昇降)을 통해 천지 지용인 **12운성(運星)**의 작용을 합니다.

12운성은 다음과 같은 생명 순환의 단계를 나타냅니다:

- 포태(胞胎): 생명의 씨앗이 땅에 뿌려짐
- 양생(養生): 땅이 생명의 씨앗을 기름
- 욕대(浴帶): 씨앗이 하늘의 우로(雨露)로 목욕
- 관왕(冠旺):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
- 쇠병(衰病): 기운이 약해지고 병듦
- 사장(死藏): 죽음과 보존

이는 생명의 탄생과 성장, 소멸까지의 전 과정을 담고 있으며, 캠벨의 위질신화 12단계나 심우도와 같은 과정을 보여줍니다.



천지지용의 의미

10간 12지 가 물리학의 원자와 같다면, 천지 지용인 12운성은 원자가 결합되어 새로운 성질이 나타나는 분자와 같습니다. 천지의 운행이 단순한 기계적 작용이 아닌 성경신(誠敬信)에 의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유불선과 천지지용(天地之用)

동양의 사상체계인 유불선은 천지지용(천지의 작용)을 반영하여 형성되었습니다.

도교(선도): 천지의 포태(胞胎)를 반영한 허무의 사상으로, 자연에 동화되는 특성을 가집니다.

불교: 천지의 양생(養生)을 반영한 적멸의 사상으로, 법에 동화되는 특성을 가집니다.

유교: 천지의 욕대(浴帶)를 반영한 이조(以詔)의 사상으로, 내면에 동화되는 특성을 가집니다.

이처럼 동양의 세 사상은 천지지용의 서로 다른 측면을 반영하면서도 모두 '동화'라는 공통된 특성을 지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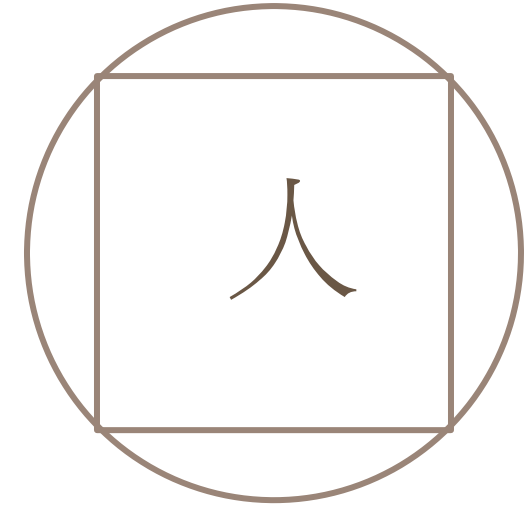
결론 및 의의

동양의 동화적(同化的) 천관은 다음과 같은 특징과 의미를 가집니다:

통합적 세계관: 동양의 천관은 만물을 일체로 통합하는 동화적 특성을 가지며, 분석과 지배보다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속성 중심의 사유: 서양의 실체론적 사유와 달리, 동양은 음양오행의 속성으로 변화를 설명하며 각 단위 내부에서 통일적 구조를 보여줍니다.

현대적 의의: 동양의 동화적 천관은 현대 사회의 기계론적 세계관의 한계를 넘어, 유기체적 자연관과 화해의 철학을 제시합니다.



천원(天圓) · 지방(地方) · 인화(人和)

- 동화적(同化的) 천관
- 응축적(凝縮的) 지관
- 접화적(接化的) 인간관

다 근대 동서양 천관의 충돌과 상극화(相克化)

Clash of East-West Views of Heaven

목차

- 1 문제 제기 및 개요
- 2 천관의 기본 개념: 지수화풍 vs 음양오행
- 3 마테오 리치와 동서양 천관 비교
- 4 보유론과 천관 충돌
- 5 태극의 리(理) 문제
- 6 천관의 상극화와 현대적 의미
- 7 동학사상의 조화적 대응
- 8 결론 및 논의

🔗 동서양 천관의 상호 관계와 현대적 의미를 탐구합니다

문제 제기 및 개요



동양 천관

음양오행(陰陽五行)

충돌



서양 천관

지수화풍(地水火風)

- ① 근대시기, 동서양의 세계관(천관)이 역사적으로 처음 본격 조우하며 충돌
- ② 동양의 **음양오행**: 상관적 자연관, 변화와 순환의 원리 중시
- ③ 서양의 **지수화풍**: 인격신 기반의 자연관, 실체와 속성 구분
- ④ 두 천관의 충돌은 동아시아 전통 사상과 사회체계에 근본적 변화 초래
→ 이러한 충돌은 단순한 문화 교류가 아닌 **문명 패러다임의 충돌**로 전개

천관의 기본 개념: 지수화풍 vs 음양오행



지수화풍 (地水火風)

서양의 4원 소론

- 1 땅(地), 물(水), 불(火), 바람(風)의 네 가지 기본요소
- 2 실체(substance)로서의 자연관 - 독립적 존재로 인식
- 3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철학에서 기원, 중세까지 계승
- 4 인격신에 의해 창조된 세계의 기본 구성요소



음양오행 (陰陽五行)

동양의 상관적 자연관

- 1 음양의 상보적 관계와 금(金), 목(木), 수(水), 화(火), 토(土)의 오행
- 2 상관성(相關性)에 기반한 자연관 - 관계와 변화 중시
- 3 순환적(相生) 관계와 억제적(相剋) 관계의 균형
- 4 이법(理法)으로서의 자연법칙, 내재적 세계관

유사점과 차이점

유사점

- 자연의 기본 구성요소를 설명하려는 시도
- 물질세계와 정신세계를 연결하는 매개 역할

차이점

- 서양: 실체 중심 vs 동양: 관계 중심
- 서양: 독립적 존재 vs 동양: 상호의존적 존재
- 서양: 인격신 중심 vs 동양: 이법(理法) 중심

마테오 리치와 동서양 천관 비교



마테오 리치 (Matteo Ricci, 1552–1610)

이탈리아 출신 예수회 선교사로 중국명 '리마두(利瑪竇)' 천주교를 동아시아에 전파하며 동서양 사상의 가교 역할저서: 『천주실의(天主實義)』 - 서양 천관을 동양에 소개

"성리학 이전의 유교 경전인 『서경(書經)』에 나타난 동양의 천관이 서양 천관과 유사하며 오히려 더 나은 점이 있음에 감탄한다."

- 마테오 리치

고대 유교 천관

인격적 상제(上帝) 관념
인간과 소통하는 초월적 존재



성리학적 천관

이법적(理法的) 천리(天理) 관념
비인격적 자연 원리로서의 천

- 1 리치는 유교 경전 『서경』에서 **서양의 인격신 개념과 유사한 요소**를 발견하고 환영함
- 2 인격신(서양, 초기유교)과 이법신(성리학) 사이의 **근본적 차이와 논쟁** 촉발
- 3 『천주실의』를 통해 서구 천관을 소개하며 **동아시아 지식층에 신선한 충격** 제공

보유론과 천관의 충돌

보유론(補儒論)

서양 천주교가 유교를
보완한다는 이론

— 일시적 협력 ▶

심각한 충돌

근본적 세계관 차이로
인한 갈등 심화

보유론의 전개

- 미테오 리치의 전략
유교 원래 사상이 천주교와 통한다는 주장
- 조선 양반층의 반응
유교 원래 취지를 살린다는 점에서 일부 수용
- 충돌 발생
표면적 유사성 넘어 근본적 세계관 차이 발견

핵심 충돌 지점

- 1 인간관의 차이
서양: 개체적·독립적 인간
동양: 관계적·상관적 인간
- 2 지관(地觀)의 차이
서양: 지구를 객체적 대상으로 동
양: 땅을 천(天)과 상관적 관계로
- 3 문명적 위기 심화
근대화 과정에서 전통 철학의 존립 위기

태극의 리(理) 문제와 천관의 상극화



서양 실체론 Substantialism

리(理)를 실체(substance)로 보는 관점

- 독립적 존재로서의 신(God)
- 외재적 창조주
- 인간과 자연의 분리



대립



동양 이기론 Li-Qi Philosophy

리(理)를 원리(principle)로 보는 관점

- 만물의 내재적 원리
- 기(氣)와의 불가분성
- 천인합일(天人合一) 사상

천관의 상극화(相克化) 현상

- 1 **존재론적 대립:** 태극의 리(理)가 자립적 존재인가의 논쟁은 동서양 철학의 근본적 충돌점
- 2 **신관(神觀)의 갈등:** 인격신과 이법신 사이의 대립, 영혼불멸설을 둘러싼 논쟁
- 3 **인간관의 변화:** 신존인비(神尊人卑)와 인존신비(人尊神卑) 관계의 착란
- 4 **사회적 결과:** 동양에서는 음양오행과 천지신명이 부정되고, 서양에서는 무신론적 세계관이 형성

"상극은 상극을 낳아 천지와 인간은 참혹하게 착란하고 진멸지경으로 전환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동학사상의 조화와 결론



- 1 **동학사상의 조화적 접근:** 한국의 동학은 **시천주(侍天主)**를 통해 음양오행의 자연철학과 지수화풍의 인격신 개념 사이의 조화를 시도
- 2 **리미널리티(경계성)의 사상적 가치**
동서양의 극단적 대립을 넘어, 서로 다른 세계관 사이의 '중간 지대' 개척
- 3 **자생적 근대성의 모색**
서구화나 전통 고수를 넘어선 새로운 철학적 사유의 가능성 제시

현대적 시사점



동서양 사상의 대화적 만남



상극화를 넘어선 상생의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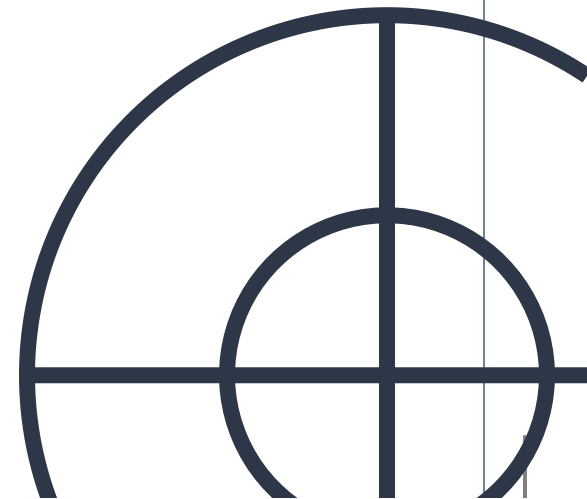
현대 지구적 위기와 세계관의 회복

라 동학사상의 시천주(侍天主) 천관에 나타난 리미널리티

Liminality in Donghak Sicheonju View of Heaven

목차

- 1 연구 배경
- 2 동학사상의 시천주(侍天主) 천관 개념
- 3 수운의 천사문답과 종교체험
- 4 동학과 서학의 비교
- 5 리미널리티 개념과 적용
- 6 동학의 사상적 배경
- 7 무극대도와 조화 개념
- 8 동학 천관의 자생적 근대성
- 9 결론 및 의의
- 10 참고문헌 및 질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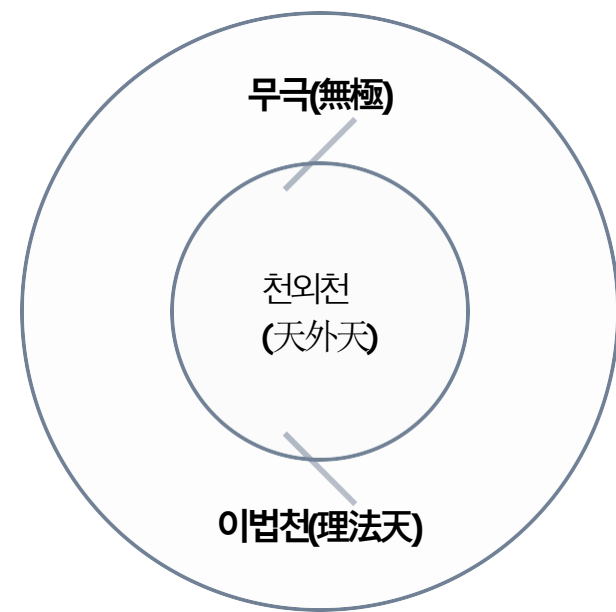
연구 배경: 성리학의 한계와 동학의 등장

성리학의 이법천(理法天)은 조선 후기 사회에서 새로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동학은 하늘 위의 하늘이라는 천외천(天外天), 곧 무극(無極)의 하늘이라는 새로운 천관으로 시대적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동학이 제시한 새로운 천관은 성리학의 이법천과 달리 하늘 위의 하늘, 곧 천외천(天外天)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동학사상은 기존 천관지관인간관에서 주목받지 못한 천외천의 개념을 강조하여 천관지관인간관의 **자생적 근대성**을 도모합니다.



동학의 천관: 이법천을 넘어선
천외천과의 직접 소통

동학사상의 시천주 천관 개념

시천주(侍天主)란 성리학의 '하늘'과 다른 **하늘 위 하늘과의 직접 소통**을 의미하는 동학의 핵심 개념입니다.

수운은 평생 '하늘 위 하늘과의 직접 소통'을 위해 자신의 모든 역량을 투입했으며, 40여년의 오랜 노력 끝에 경신년(1860)에 천사문답(天師問答)에 이르게 됩니다.

동학사상에 나타난 상제의 출현은 정통 성리학의 입장에서 보면 괴력난신(怪力亂神)에 속하는 이례적이고 이단적인 모습이었습니다.

- **독자적 천관:** 시천주 개념은 성리학의 이법천(理法天), 서학의 천주(天主)와 차별화됩니다
- 『동경대전』과 『용담유사』: 수운의 천사문답은 이 두 경전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 **천외천(天外天)과의 소통:** 하늘 위의 하늘과 직접 대화하는 종교적 체험을

시천주(侍天主)

하늘을 모시다

동학의 핵심 개념으로, 천외천과의 직접적 소통과 하늘의 뜻을 받드는 것을 의미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侍天主 造化定 永世不忘萬事知)

- 『동경대전』

수운의 천사문답과 종교체험

천사문답(天師問答): 수운이 1860년(경신년) 음력 4월 5일에 상제로부터 받은 최초 계시와 이후 6개월간 지속된 대화

동학사상이 종교사에서 가장 특징적인 점은 **창시자의 종교경험이 매우 자세하고 오랜 시간에 걸쳐 표현되었다**는 점입니다.

수운은 40여년에 가까운 오랜 세월 노력해 온 끝에 마침내 경신년에 이르러 천사문답에 도달합니다.

“뜻밖에도 사월에 마음이 선통해지고 몸이 떨려서... 어떤 신선의 말 씬이 있어 문득 귀에 들리므로 놀라 캐어 물은즉 대답하시기를 두려워 하지 말고 두려워 하지 말라. 세상 사람이 나를 상제라 이르거늘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

수운의 천사문답 이후 저술된 『**용담유사**』와 『**동경대전**』에 이 경험상세

첫 번째 계시
상제와의 만남

1860년 4월 5일

『용담유사』
『동경대전』 저술

1년 후

6개월간

영적 대화

- 수운의 천사문답 중에서 -

동학과 서학의 비교

운즉일(運則一), 도즉동(道則同), 이즉비(理則非)

수운은 동학과 서학의 차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운

수인즉 하나이며 도인즉 같으나 이치인즉 다르다." 목

표(운, 도)는 같으나 방법과 이치는 다릅니다.

동학은 **하늘의 기운이 몸에 응축되는 기화(氣化)**를 강조하며, 수심정기(守心正氣)의 수련을 통한 자연스러운 교화를 중시합니다.

반면 서학은 **"제 이익을 위한 기도"**에 치중하고, 형식은 있으나 실속이 없다고 동학은 비판합니다.

내가 받는 도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자연스럽게 세상을 교화한다 (吾道無爲而化矣)

구분	동학(東學)	서학(西學)
천관(天觀)	천외천 (天外天)	천주 (天主)
수련방법	주문수련 수심정기 (守心正氣)	기도 중심 사제와 신도 분리
특징	기화지신 (氣化之神)	형식만 있고 실속 없음
교회방식	무위이화 (無爲而化)	자기 이익 위한 기도

켄 윌버: "서양 사상 최대의 약점은
수양론이 없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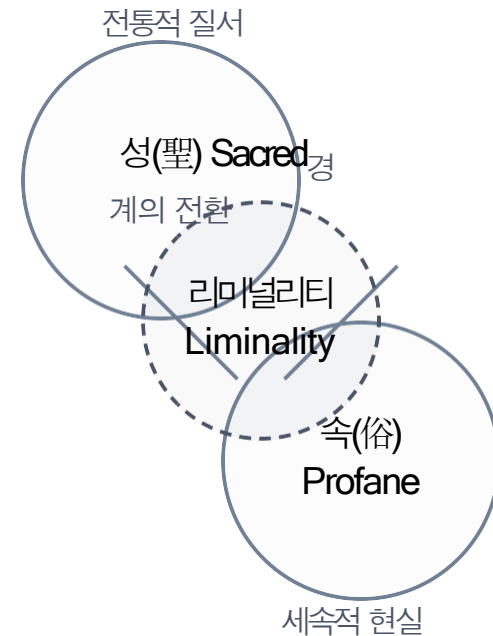
리미널리티 개념과 적용

리미널리티(Liminality)란 경계의 전환, 성-속의 재배치, 기존 질서의 해체와 재구성이 이루어지는 경계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동학사상은 다음과 같은 리미널리티 특성을 보여줍니다:

- **천외천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일상 세속에서 성(聖)을 경험하는 성-속의 순위 재배치
- **수심정기(守心正氣)**를 통해 기존의 중첩된 문제를 해결하는 경계 넘기
- 성리학의 '이법천'과 서학의 '천주'를 넘어선 새로운 **천관(天觀)**의 제시

다중적 근대성이론에서 근대성은 동학사상과 같이 기존의 천관지 관·인간관에서 소외된 부분을 재활성화하여 **성-속의 순위를 바꾸어 속이 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통섭과 리미널리티에서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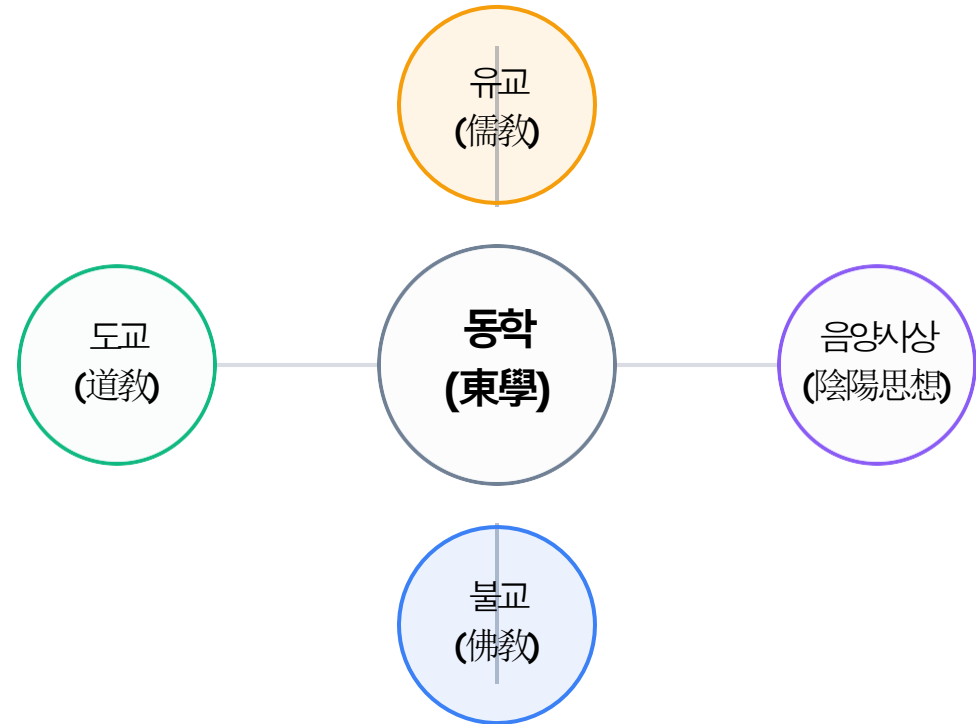
동학사상의 리미널리티:
성-속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근대성 창출

동학의 사상적 배경 – 유불선·도교의 영향

동학은 **다양한 동아시아 전통 사상**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천관을 발전시켰습니다.

다양한 종교적 배경 속에서 동학은 독자적 노선을 확립하면서도 기존 전통의 장점을 수용했습니다.

- **유교(儒敎)**: 동학은 성리학적 천관을 바탕으로 하며, "**기(氣)**"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성리학의 이법천을 넘어선 새로운 천관을 제시했습니다.
- **도교(道敎)**: 조선 후기 난단도교(鸞壇道敎)의 영향으로 **주문수련과 동학가사**에 도교 전통이 반영되었습니다. 수운은 증산에 의해 "**후천 선도의 종장(宗長)**"으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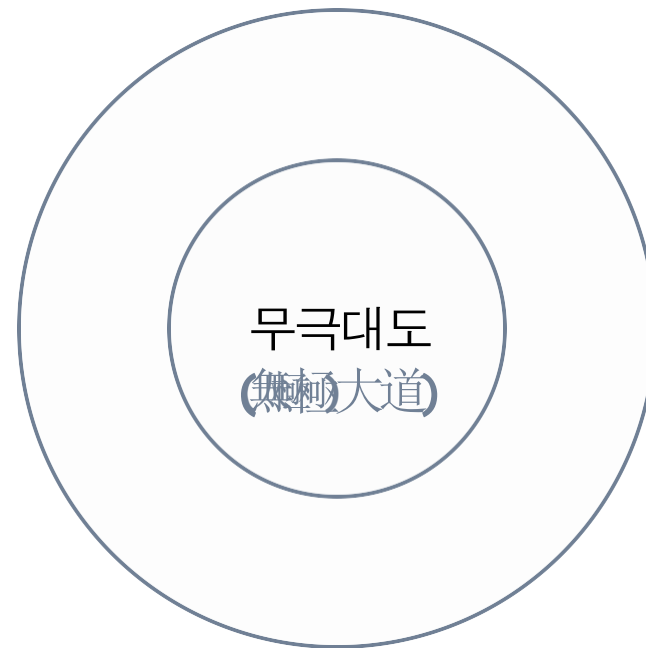
무극대도와 조화 개념

무극대도(無極大道)는 음양이 구분되기 이전의 상태인 태극보다도 이전의 상태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태초의 우주와 연관됩니다.

이는 천관의 측면에서 **하늘 밖의 하늘**, 즉 **천외천(天外天)**에 해당합니다.

"너는 무궁무궁한 도에 이르렀으니 닦고 단련하고, 글을 지어 사람을 가르치고, 법을 바르게 하여 덕을 펴면 너로 하여금 장생하여 천하에 빛나게 하리라."

조화(造化)와 **무위이화(無爲而化)**: 수운은 주문을 해석하면서 '조화'란 '무위이화'를 의미하고 '정(定)'이란 '합기덕(合其德), 정기심(定其心)'을 의미한다고 풀었습니다.



조화(造化)

창조적 변화

무위이화(無爲而化)

자연스러운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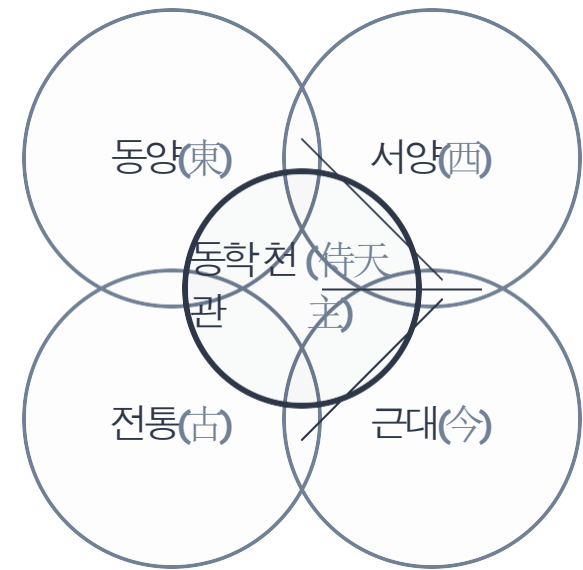
동학 천관의 자생적 근대성

동학사상의 천관은 동서고금의 천관을 포괄 및 초월하는 **자생적 근대성**을 보여줍니다.

동학의 시천주(侍天主) 천관은 성리학의 이법천과 서학의 천주를 통합하면서도 이를 넘어서는 **천외천**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합니다.

경계의 해체와 재편 - 동학사상은 성스러움과 세속, 전통과 근대의 경계를 재구성하여 일상에서 성(聖)을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동학사상의 천관이 가지는 자생적 근대성은 성과 속을 재편하고 동서고금의 천관을 포함하며 초월합니다. 동학사상의 천관은 동양 유불선의 장점을 최대한 수용하고 서양 천관의 우수성도 포용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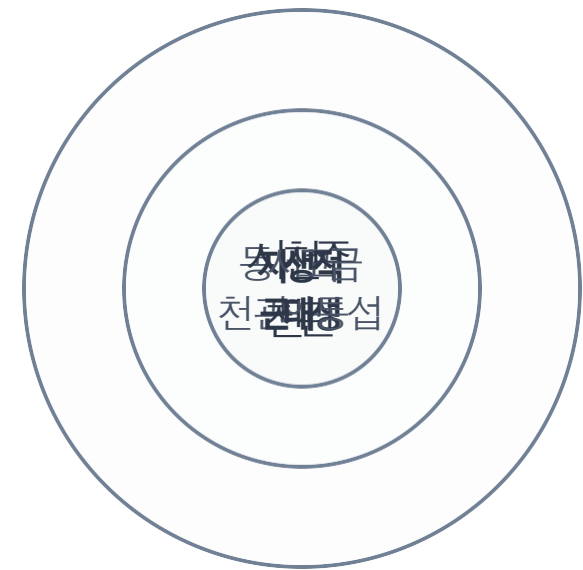
동서고금(東西古今)을 통섭하는
동학 천관의 자생적 근대성

결론 및 의의

동학의 시천주 천관은 **전통과 근대를 아우르고**, 동서고금의 천관을 포괄하는 **초월적 사유체계**를 보여줍니다.

이는 기존 천관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천외천 개념을 중심으로 **성과 속의 경계를 재편**하는 리미널리티를 통해 자생적 근대성을 성취했습니다.

- **현대적 의미:** 동학의 천관은 오늘날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 종교와 과학의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유방식의 모델이 됩니다.
- **자생적 근대성:** 서구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이자 주체적인 근대성 모색이라는 측면에서 현대 위기의 대안적 관점을 제공합니다.
- **수심정기와 주문수련:** 실천적 측면에서도 현대인의 정신적 위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동학사상의 리미널리티:
경계를 넘어선 통합적 사유

참고문헌 및 질의응답

주요 참고문헌

- 최제우, 『동경대전(東經大全)』, 「논학문(論學文)」
- 최제우, 『용담유사(龍潭遺詞)』
- 배영순, 『동학에 나타난 시천주의 천지인 사상 연구』
- 김용옥, 『동학이란 무엇인가』
- 황현, 『오하기문(梧下記文)』
- 최시형, 『해월신사법설(海月神師法說)』
- 이돈화, 『천도교 창건사(天道敎 創建史)』
- 윤석산, 『동학교조 수운 최제우』
- 윤이흠, 『한국종교연구』
- 안유경, 『퇴계와 동학의 심성론 비교 연구』



질의응답

동학사상의 시천주 천관과 리미널리티에
관한
질문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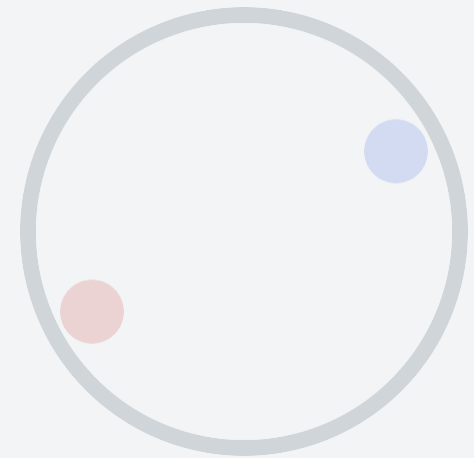
2

조화정(造化定) 지관(地觀)의 자생적 근대성

Indigenous Modernity of the Johwajeong View of Earth

목차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2 서양의 질료적 지관
- 3 동양의 응축적 지관
- 4 동서양 지관의 충돌
- 5 천지관계의 상극화
- 6 동학사상의 조화정 지관
- 7 결론 및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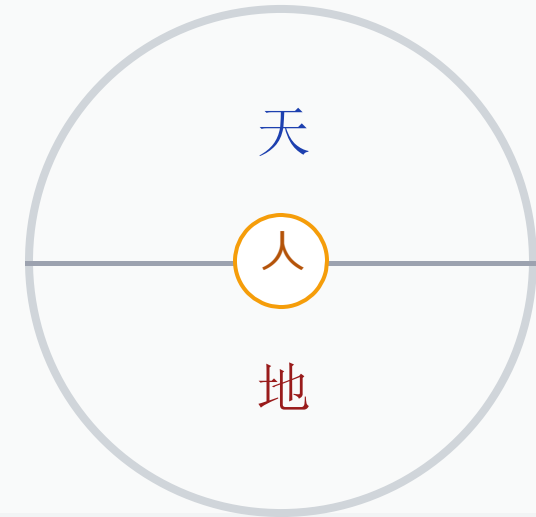
I 연구 배경 및 목적

연구의 필요성

- 동서양의 지관(地觀)에 대한 비교철학적 접근 부재
- 서구 중심의 근대성 담론에서 벗어난 자생적 근대성 모색 필요
- 동학사상의 조화정 지관이 가진 현대적 의미 재조명

'지관(地觀)' 개념 개요

- 서양: 질료적(質料的) 지관 - 초월적 형상이 실현되는 질료로서의 땅
- 동양: 응축적(凝縮的) 지관 - 천지의 기를 형체와 그릇으로 실현하는 존재



연구 목적

- 동서양 지관의 철학적 구조와 충돌 양상 분석
- **핵심 질문:** 동서양의 지관이 어떻게 충돌하였으며, 동학사상의 조화정 지관은 이를 어떻게 극복하여 자생적 근대성을 형성하였는가?
- 천지관계의 상극화 과정과 그 근대적 의미 고찰

동학사상의 조화정 지관에 나타난 리미널리티와 자생적 근대성 해명

| 서양의 질료적 지관

초월천(천외천) 중심의 서양 자연관

- 초월천에 따라 이데아, 유일신, 유물론적 이성으로 지관 변화
- 땅은 형상이 실현되는 질료적 존재로 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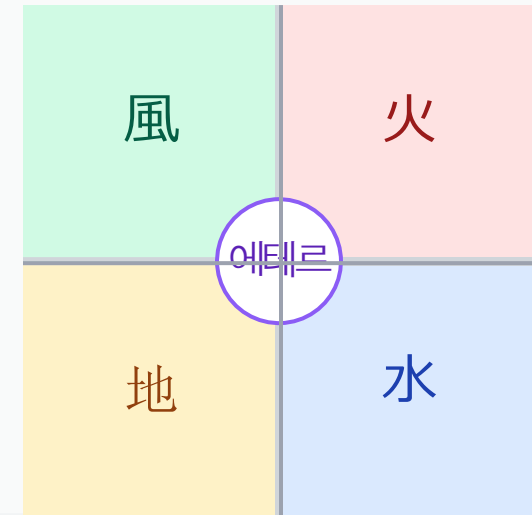
아리스토텔레스의 4원소설(지수화풍)

- 탈레스에서 엠피도클레스로 이어지는 4원소설의 발전
- 서양의 지수화풍: '실체'로 된 상관적 사유 (동양 음양오행과 차이)
- 제5원소(에테르)와 4원소의 균형 체계

실체론적, 원자론적 세계관

- 물질 문명 발전에 기여했으나 신명체계 붕괴와 자연 지배로 전락
- **핵심:** 서양의 질료적 지관은 초월천에서 비롯된 형상이 실현되는 장소로서 땅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근대 물질 문명 발전에 기여했으나 인간-자연의 관계를 지배-피지배 관계로 전락시켰다.
- 근대 원자론적 세계관: 자연을 분석·지배의 대상으로 전환

인도-유럽 3기능 체계와 천관지관인간관의 구조적 연관



동양의 응축적 지관

내재천 및 천지신명 중심의 지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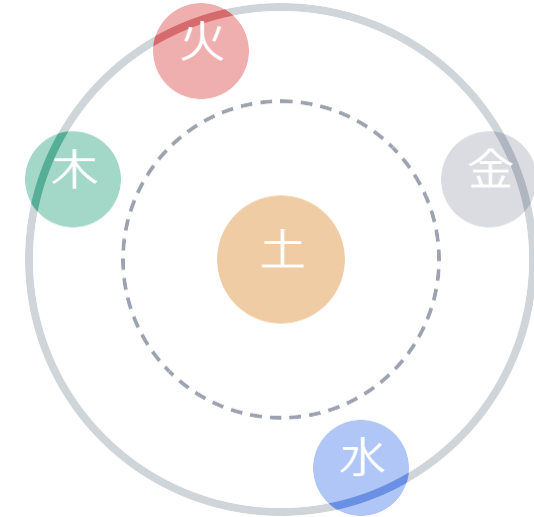
- 하늘(천)과 땅(지)이 상호작용하는 내재적 세계관
- 땅은 천지의 기를 '응축'하여 형체와 그릇으로 실현
- 『역전(易傳)』: "지극하도대! 坤元이여! 만물이 坤元에 비탕하여 생겨난다"

상관적속성적 세계관

- 음양오행: 서양과 달리 '속성'을 강조, '실체'보다 '관계'를 중시
- 삼재(天地人): 천·지·인을 독립적 존재가 아닌 상호 영향의 구성체로 이해
- 오행의 상생(相生) 작용을 통한 조화적 우주관 형성

공간의 속성과 의미

- 풍수지리: 땅을 숭배와 조화의 대상으로 간주
 - 핵심: 동양의 지관은 땅을 서양과 같은 질료적 대상이 아닌, 하늘과 상호작용하며 만물을 생성하는 응축적 존재로 파악한다.
 - 천원지방(天圓地方): 하늘의 시간성과 땅의 공간성의 조화
- 삼수분화: 만물을 천지인 3가지 구성물로 보는 복잡계적 프랙탈 구조



음양오행의 상생 관계

"동양의 응축적 지관에서는 땅은 도구나 지배 대상이 아님"

동서양 지관의 충돌

마테오 리치의 『천주실의』와 세계관적 충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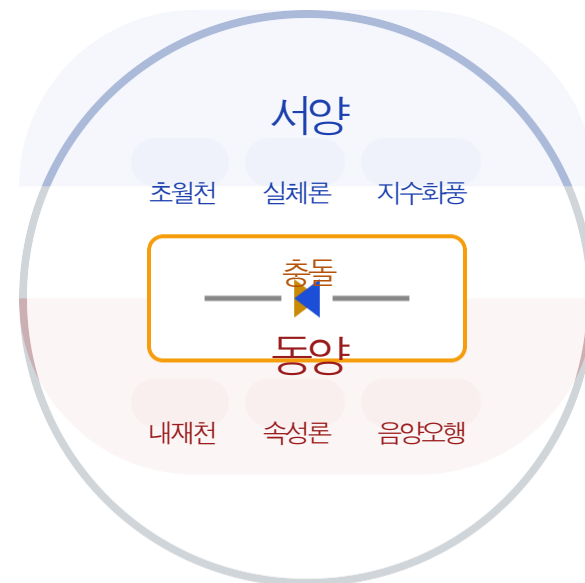
- 초월적 천관과 질료적 지관이 동양의 응축적 지관에 충격
- 음양오행과 아리스토텔레스의 4원소설(지수화풍) 논쟁
- 동양이기론과 서양 존재론의 철학적 대립

제국주의와 물질적 충돌

- 수운 동학 창도 즈음 베이징조약(1860) 등 서양의 침략
- 루쉰의 『아큐정전』에 묘사된 정신분열적 충격
- 『용담유사』에 기록된 서구 열강의 침략과 동양인의 위기의식

근대성의 문제

- 서양: 동양사상 수용 이후 과학기술 발전, 제5원소 철학 변질
- **중요 시점:** 마테오 리치의 『천주실의』(17세기 초) → 철학적 충돌 → 베이징조약(1860) → 물질적 충돌 → 동학 창도(1860) → 자생적 근대성 모색
- 동양: 초월천 배제, 천지관계의 고착화와 상극적 변화
- 자생적 근대성의 필요성 대두(서구 모방이 아닌 독자적 발전)



| 천지관계의 상극화(相克化)

서양 천지관계의 상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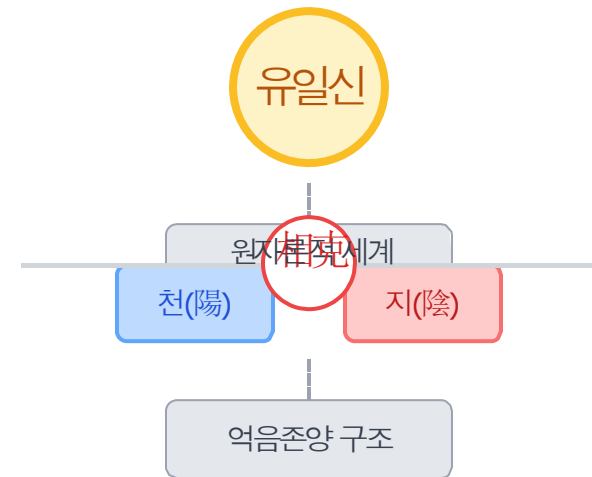
- 유일신과 만물의 이원적 대립 구조 심화 지수화풍
- 의 상관성 소멸, 원자론적 세계관으로 전환
- 제5원소의 초월화: 물질과 재리(財利)로 대체된 이성

동양 천지관계의 상극화

- 천존지비(天尊地卑): 형식적 균형에서 위계적 질서로
- 억음존양(抑陰尊陽): 음양의 불균형적 지위 고착화
- 토(土)의 내재화: 상제 개념 망각과 지존의 기복화

천지관계의 위기

- 절지통천(絶地通天): 하늘과 땅의 관계 단절
 - 핵심: 동서양의 상극화된 천지관계는 근대 위기의 본질적 배경이 되었으며, 이는 리미널리티의 상실과 초월성내재성의 단절에서 비롯되었다.
 - 인간과 자연의 대립: 지배와 정복, 생태적 보복
- 근대적 지관의 비극: 조화의 상실과 상생의 위기



동학사상의 조화정(造化定) 지관

사상적 융합과 자생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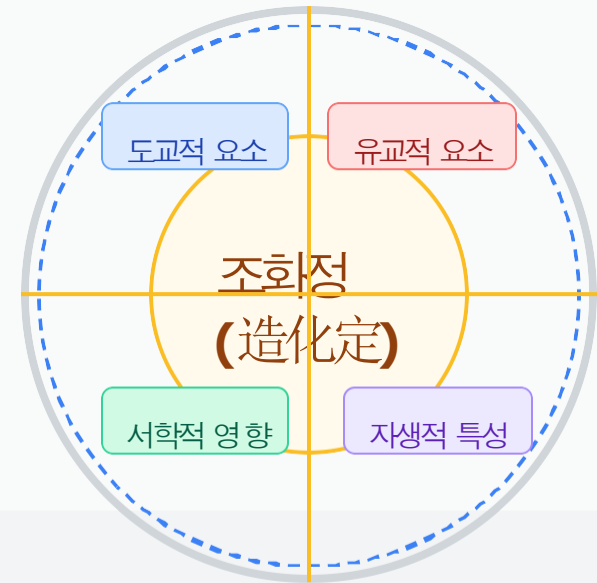
- 도교유교서학의 요소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며 독자적 지관 확립
- 수운의 천사문답과 신비체험을 통한 지관의 정립 과정

리미널리티와 경계의 초월

- 초월내재의 경계를 넘어서는 '리미널리티' 확장
- 천지귀신(天地鬼神)의 영적 상호작용과 전일적 세계관
- 무위이화(無爲而化)를 통한 조화(造化)의 구현

자생적 근대성의 특징

- 수행 중심의 실천적 지향과 백성의 평등한 참여
- **핵심 개념:** 동학의 조화정 지관은 천지귀신의 이원적 대립을 초월하는 리미널리티를 통해 상생적 질서를 구현하며, 이는 서구와 다른 자생적 근대성의 핵심이 됨
- 명당(明堂)의 재해석을 통한 풍수지리적 전통 계승 상생 (相生)과 해원(解冤)에 기반한 조화정(造化定) 지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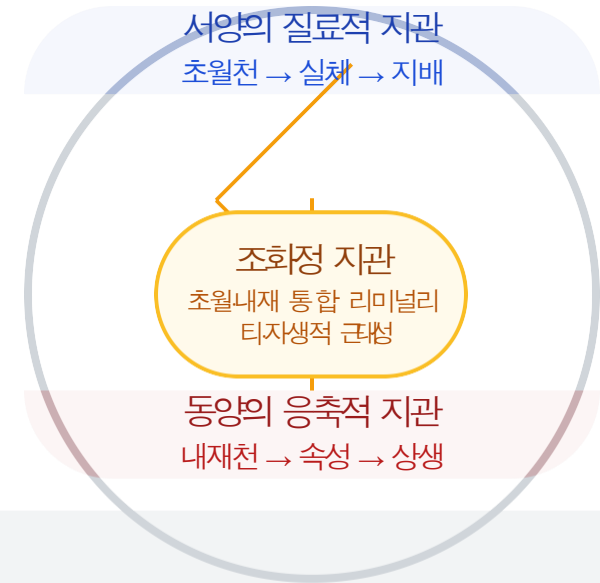
| 결론 및 의의

동서양 지관의 차이와 충돌

- 서양: 질료적(실체론적) 지관 - 지배와 정복의 대상
- 동양: 응축적(속성 중심) 지관 - 상생과 조화의 관계
- 마테오 리치 이후 세계관적/물질적 충돌과 상극화 진행

동학사상의 조화정 지관의 근대적 의의

- 초월적내재적 천지관을 통합하는 리미널리티 구현
- 상생과 조화 중심의 귀신론적 천지관계 확립
- 수행일상의 통합과 평등사상으로서의 근대적 지관 제시



| 연구의 기여와 후속 과제

연구의 핵심: 동아시아 자생적 사상 재발견

- 지관을 비판적으로 종합하여 천지귀신의 조화를 추구함으로써, 자생적이고 대안적인 근대성의 사상적 기반을 제시하고 있다.
생태·환경 위기 시대의 대안적 천지관계 모색에 기여

향후 천지관계와 근대성에 대한 다학제적 후속 연구 필요

가 서양의 질료적(質料的) 지관

The Western Material View of Earth

천관과 지관의 관계

서양에서 천관(하늘관)과 지관(땅관)의 구분은 초월천(초월적 하늘)과 내재천(내재적 하늘)을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 초월천의 관점

- ◆ 천지 전체를 포함(이데아, 유일신)

- 서양의 실체위주 존재론적 우주관

- ◆ 천지, 특히 땅은 형상이 실현되는 질료적 존재로 간주

- ◆ 내재천(천지를 음양으로 간주)과 구분됨

서양의 질료적 지관 개념

서양의 질료적 지관은 시대와 관점에 따라 변천해왔으며, 철학적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했습니다.

- 질료적 지관의 철학적 배경
 - ◆ 초월천의 성격에 따라 지관이 달라짐 (이데아, 유일신, 이성)
 - ◆ 땅은 형상이 실현되는 질료로 간주됨
- 근대 이후의 변화
 - ◆ 초월천을 유물론적 이성으로 간주하는 경향
 - ◆ 원자론적 세계관의 등장으로 세계관 재구성
- 형상과 질료의 관계
 - ◆ 하늘 밖의 하늘(초월천)의 형상이 땅(질료)에서 실현됨
 - ◆ 물질과 형상의 이원론적 구조가 서양 철학의 기본 틀

지수화풍 이론과 역사

지수화풍: 고대에서 네 가지 실체적 요소(땅, 물, 불, 바람)로 세계를 구성하는 이론



- 탈레스의 이론
 - ◆ "만물의 근원은 물(水)"이라는 실체론적 세계관
- 지수화풍의 발전
 - ◆ 엠피도클레스: 4원소설 확립 및 체계화
 - ◆ 플라톤: 이데아 세계와 연결한 4원소설
 - ◆ 아리스토텔레스: 형상론과 제5원소(에테르) 추가
- 세계적 영향
 - ◆ 서양철학 전반에 영향(마테오 리치까지)
 - ◆ 인도-유럽어족 공통 세계관으로 작용
 - ◆ 불교 천계관에도 지수화풍 바퀴 개념 등장

3기능 체계와 상관적 사유

뒤메질: 인도-유럽 신화와 서양에서 3기능 체계가 반복적으로 나타남

- 3기능 체계의 구성

상층부: 종교기능

중층부: 군사·정치기능

하층부: 생산·미학기능

- 사례: 그리스-로마 신화

- ◆ 트로이 전쟁의 세 여신
 - ◆ 헤라(종교) 아
 - ◆ 테네(정치) 아프
 - ◆ 로디테(생산)

- 상관적 원리와 지수화풍의 연결

- ◆ 지수화풍에 내재한 상관적 원리
- ◆ 상승과 하강 원리로 구성

- 유사한 삼계(三界) 체계

- ◆ 불교: 욕계·색계·무색계
- ◆ 동양삼재: 천·지·인
- ◆ 인도 신화: 미트라·바루나·아리아만

동서양 세계관 비교

동서양의 세계관은 본질적인 관점의 차이가 있으며, 같은 개념도 해석과 기능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동양: 속성(음양오행) 중심

- 관계와 속성 중심의 세계관
- 음양오행: 현상의 속성과 변화 중시
- 수(水)·화(火): 속성으로서의 역할

서양: 실체(지수화풍) 중심

- 독립적 실체 중심의 세계관
- 지수화풍: 물질의 실체적 구성 요소
- 수(水)·화(火): 실체로서의 물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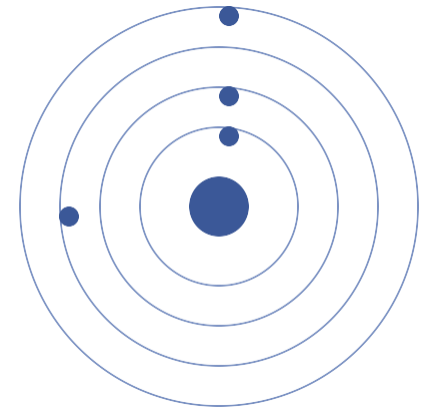
공통점과 차이점

- 공간구분: 천계지계인계의 구분은 유사함
- 핵심 원리: 같은 용어/개념도 해석과 기능이 다르게 나타남
- 마테오 리치: "지수화풍은 실체로 된 상관적 사유, 음양오행은 속성으로 이루어진 상관적 사유"

근대 원자론과 물질문명

근대 원자론은 서양의 질료적 지관이 극대화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 원자론적 세계관의 등장
 - ◆ 모든 만물이 원자와 분자로 구성된다는 관점 확립 지수화
 - 풍의 실체론적 속성을 분석적 방법으로 극대화
- 서양 물질문명과 과학 발전
 - ◆ 근대 물질문명 발전의 핵심적 기반
 - 물질세계를 분석적으로 이해하고 통제하는 방식 확립
- 형상과 질료의 구분 명확화
 - ◆ 초월천의 형상이 질료적 세계에 실현되는 관계 강조 질료
 - 적 세계관의 완성이자 극대화



결론 및 근대성 위기

서양의 질료적 지관은 근대문명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나, 그 한계점 또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 물질주의적 세계관은 과학기술 발전의 기반이 됨
- 질료적 지관은 근대 산업사회와 물질문명의 원동력

근대성의 위기

- 물질에 치우친 세계관은 신명체계 붕괴 초래
- 천하를 진멸지경으로 이끄는 위험성 내포
- 근대성 위기의 출발점이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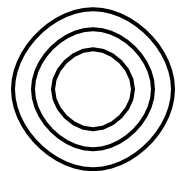
"물질에 치우친 서양의 질료적 지관은 신우주의 신명체계를 송두리째 붕괴시켜 천하를 오히려 진멸지경으로 이끌어가게 되었다."

나 동양의 응축적(凝縮的) 지관

The Eastern Condensational View of Ear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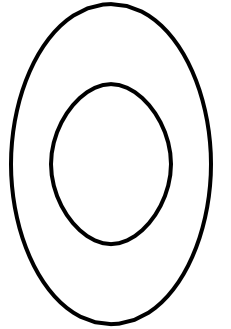
발표 개요

- 1 서양과 동양 지관의 차이점
- 2 동양의 응축적 지관 구성 요소
- 3 천지인 삼재와 음양오행
- 4 삼수분화체계와 현대적 해석
- 5 전통사상에서의 땅의 중요성
- 6 결론 및 시사점



서양과 동양의 지관: 근본적 차이

- 서양 질료적 지관:
초월적 하늘(이데아, 유일신, 유물론 등)과 형상/질료 이원론
- 동양 응축적 지관:
초월천+내재천(천지), 천지신명, 현실세계의 관계성 중시
- 동양은 하늘과 땅, 신명의 역할 분담에 주목:
하늘(동화) — 땅(응축) — 역학의 건곤으로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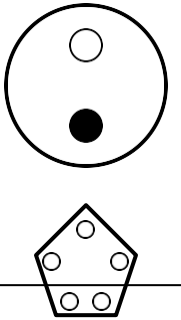
동양의 응축적 지관: 구성 요소

- 초월천, 내재천, 천지신명의 삼중구조:
초월천(상제), 내재천(하늘), 천지(땅)로 나뉘는 입체적 구조
- 하늘=동화, 땅=응축(건곤 원리):
하늘은 동화(同化)하는 역할, 땅은 천지의 기를 형체와 그릇(器)으로 응축
- 신명의 체계적 구분:
천신(天神), 지기(地示), 인귀(人鬼)의 상호작용과 역할 분담
- 관계성과 '속성'이 실체보다 중시됨:
서양의 실체(實體) 중심 사고와 달리 사물의 상호관계와 작용을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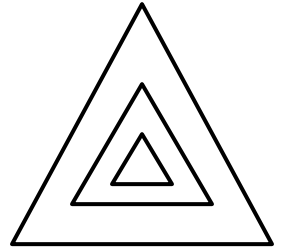
천지인 삼재와 음양오행

- 천지인 삼재:
초월천, 내재천, 내재지의 3원 체계
- 음양오행과의 결합:
세계의 속성과 질서를 이해하는 틀
삼재관이 음양으로, 음양이 삼재관으로 확대된 개념
- 각 사상의 융합:
서로 다른 출발점에서 상호 관계 속 융합
'속성'이라는 측면에서 결합하여 동양 철학의 기반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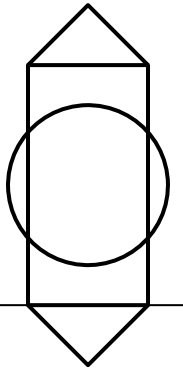
삼수분화체계와 현대적 해석

- 천지인, 음양, 오행의 삼수분화(三數分化) 구조:
만물을 천지인이라는 3가지 구성물의 복잡계적 확대로 보는 체계
- 프랙탈 구조 및 심층 심리학과의 연관성: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유사한 구조, 프랙탈 미학의 하나로서의 대칭성
- 동/서양 공통의 삼원 구조:
서양: 칸트의 3원체계, 성부-성자-성신 / 동양: 천지인체계
인문-사회-자연과학을 통합적으로 조명하는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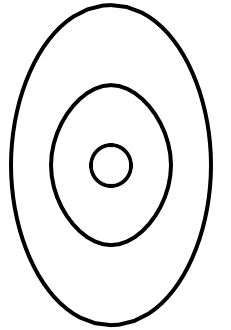
동양 전통사상에서 땅의 중요성

- 사유의 중심에 '땅'의 생명성과 관계성 강조:
내재천의 관점에서 바라본 땅은 초월천 관점보다 생명과의 관계가 깊음
- 풍수지리, 제사, 토(土) 중심의 철학적 · 실천적 비중:
동아시아의 자생적 지리학인 풍수지리학은 전통 문화의 아이콘
음양오행에서 토(土)의 중요성 강조 — 오행의 중심
-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 상생 이념의 근원:
땅의 지위상승(正陰正陽)은 인간의 해원(解冤)과 상생(相生)의 핵심
땅은 천지인과의 상관관계에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



결론 및 시사점

- 서양과 다른 동양 지관의 독자성:
질료적 지관이 아닌 관계성에 기초한 응축적 지관의 고유한 철학적 의미
- 현대 생태, 신학, 사회철학에서의 확장 가능성:
천지인 사상의 현대적 적용과 '땅'의 생명성·상호작용 중시 관점의 재발견
- 상생 · 관계성 중심의 세계관이 주는 통합적 통찰:
현대 사회의 위기 극복과 자연-인간의 조화로운 공존 패러다임 제시



다 동서양 지관(地觀)의 충돌과 상극화(相克化)

Collision of East-West Views of Earth

목차

- 1 지관의 정의와 배경
- 2 세계관적 충돌: 마테오 리치와 천주실의
- 3 물질적 충돌: 베이징조약과 동학
- 4 천지관계의 상극화 - 서양의 경우
- 5 천지관계의 상극화 - 동양의 경우
- 6 결론 및 시사점

지관(地觀)의 정의와 배경

- 지관이란 무엇인가?
- 동양과 서양의 전통적 땅에 대한 관념
- 땅: 숭배적 존재 vs. 질료적 존재
- 동서양 지관의 밑바탕에 깔린 세계관

 동서양 지관의 대비

세계관적 충돌: 마테오 리치와 천주실의

- 마테오 리치의 서양 질료적 지관 도입
- 『천주실의』를 통한 아리스토텔레스 존재론적 세계관과 동양의 이기론/음양오행 충돌
- 4원소(지 수 화 풍)와 5원소(음양오행)의 비교
- 당대 동양 지식인에 미친 영향

물질적 충돌: 베이징조약과 동학

- 베이징조약 등 서양에 대한 중국의 패배: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
- 루쉰(魯迅)의 『아큐정 전』: 정신분열적 상황에 이른 중국인의 모습
- 수운 최제우와 동학의 창도: 서양 문물에 대한 자생적 대응
- 동아시아의 자생적 근대성 모색과 그 절실함

천지관계의 상극화 – 서양의 경우

- 초월적 천관, 지관에서 내재적 개념의 도입
- 과학기술 발전과 함께 천지관계 상극화
- 제5원소에서 원자론으로의 변화
- 인간과 자연, 신과 자연의 분리 확대

서양의 과학과 세계관 변화:

서양의 천지관계 변화

지수화풍의 상관적 속성이 사라지고 원자론적 세계관으로 천지관계가 더욱 상극화됨.
제5원소가 유일신으로 고착되면서 자연은 단순한 물질로 전락.

천지관계의 상극화 – 동양의 경우

- 전통적 **천원지방(天圓地方)**-**천문지리(天文地理)**의 고착화
- **천존지비(天尊地卑)**, **양존음비(陽尊陰卑)**의 공식화 과정
- **토(土)**의 실체화와 하늘·땅 개념의 분리
- 음양오행 내 **토(土)**의 위상 변화와 문제점



음양오행설에서 토(土)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심 요소였으나, 점차 땅의 실체로만 인식되며 천지관계의 균형이 상실됨

결론 및 시사점

- 동서양 지관 충돌의 의미와 현대적 함의
- 천지관계 상극화의 교훈
- 동서양 사유의 통합 가능성 및 미래 전망

| "동서양 지관의 조화로운 통합은 현대적 생태 위기와 환경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동학사상의 조화정(造化定) 지관(地觀)에 나타난 리미널리티

Liminality in Donghak Johwajeong View of Earth

연구 목적 및 배경

동학사상의 이론적 탐구와 현대적 의의

- 01** 동학사상의 조화정(造化定) 지관(地觀)에 나타난 리미널리티(Liminality) 분석 목적
경계성 개념을 통한 동학 지관의 새로운 해석 시도
- 02** 동학의 자생 근대 사유와 동서양 사상 충돌 및 융합에 대한 이해
서양 근대성과 동양 사상의 내재적 발전이 교차하는 지점 연구
- 03** 한국 근대 사상과 민중 종교 운동에서의 의의
도교 사상의 유입과 중국 근세 난단도교의 영향 분석

동학사상의 조화정(造化定) 지관 개념

동학사상의 리미널리티 연구

조화정 지관(造化定地觀)이란?

초월천으로부터 존재하는 지(地)의 특별한 인식론으로, 동학사상에서 천과 지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한 개념

동학은 기존의 지관과 달리 땅을 초월천의 조화 대상, 무위이화, 기화의 존재로 새롭게 인식

-  천과 지의 새로운 관계성
초월천과 내재천의 구분에 따라 지(地)도 초월천의 조화 작용으로 이해됨. 땅은 더 이상 단순한 물질적 세계가 아닌 조화론적 대상이 됨
-  수행과 실천의 영역으로서의 땅
동학사상은 땅을 수행의 영역으로 확장시킴. 임금만이 아닌 모든 민중이 시천주 수행을 통해 초월천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
-  조화, 무위이화, 기화의 개념
조화정 지관은 '조화', '무위이화', '기화' 개념을 통해 서양 근대성과 구별되는 동학 고유의 생명 중심 세계관을 형성

동학사상 성립 배경과 도교의 영향

동학의 자생적 근대성 확립에 관한 고찰

동학의 사상적 배경

동학의 성립은 서양 근대성의 유입과 동양 사상의 내재적 발전이 만나는 지점에서 이루어짐

천사문답 이후 수운의 숙고와 경험이 더해지며 동학의 지관이 형성됨. 도교 사상의 영향이 특히 강조됨

➡ 도교 사상의 유입과 영향

조선에 들어온 도교는 크게 내단도교(內丹道敎)와 통신도교(通神道敎)로 구분. 내단도교는 수련 위주, 통신도교는 신과의 소통을 강조. 동학은 이러한 도교 사상을 수용하여 발전

📖 서학과의 관계 및 차별성

동학은 서학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측면을 가짐. 서양 근대성이 초래한 폐해를 인식하고 동양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제시된 사상. 서학의 초월천 개념과 차별화된 접근 제시

📖 사상의 전개와 단계적 발전

동학사상은 4단계로 발전: ①천사문답 단계 ②은적암집필 단계 ③시석(弑石) 피하는 방법 알려주는 단계 ④수운 사후 동학농민혁명 이르는 단계. 각 단계마다 지관 개념이 심화됨

조화정 지관의 리미널리티 양상

경계에서 나타나는 동학사상의 지적 특성

리미널리티(Liminality)란?

경계 사이에 위치한 상태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기존 구조와 새로운 구조 사이의 모호하고 전이적인 중간 영역을 지칭

동학사상의 지관은 유교적 지관과 서구 근대적 지관 사이의 리미널리티를 보여주며, 궁극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암시



초월천과 조화된 땅의 위치적 경계성

동학사상에서 땅은 더 이상 천에 종속된 대상이 아니라, 초월천의 조화 대상으로서 새로운 존재론적 위치를 가짐. 이는 전통적 천존지비(天尊地卑) 관념과 근대적 지동설 사이의 경계에 위치



수행 주체의 경계 해체

임금만이 땅의 기운을 받던 유교적 관념에서 벗어나, 모든 백성이 수련을 통해 초월천과 소통할 수 있다는 사상으로 전환. 성(聖)과 속(俗)의 경계가 재편되는 자생적 근대성의 단초



지기(地氣)와 명당의 재해석

동학은 땅의 중심을 재설정하여 한국이 명당임을 강조함으로써 '소중화'와 '대중화' 관념을 초월. 땅의 가변성과 역동성을 강조하는 리미널 공간으로서의 지관 형성

서양 근대성과의 비교

동학사상과 서양 근대성의 대비적 이해

지관(地觀)의 기본 관점

🌐 서양 근대 지관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변화
내재천 중심, 초월천을 배제하는 기계론적 우주관

☯ 동학의 조화정 지관

초월천과 내재천의 통합적 이해
땅을 초월천의 조화와 기화의 영역으로 인식

자연과 인간의 관계

🏠 서양 근대 관점

자연을 인간의 도구로 인식
개발과 이용의 대상, 분리된 객체

🌱 동학의 생명 사상

시천주(侍天主) 관점에서 자연도 천주에 조응
땅과 인간의 유기적 관계, 상생의 대상

근대성의 특징

⚙ 서양 근대성

기계론적 자연관
이성에 의한 자연 정복과 활용

🌾 동학의 자생적 근대성

조화와 기화에 기반한 생명 중심 사상
민중의 주체성과 수행을 통한 리미널리티

동학사상의 귀신론적 천지관계

리미널리티의 양상

천지귀신의 재개념화

동학사상은 천지역시귀신이요 귀신역시음양이라는 표현으로 기존의 천지귀신 개념을 초월천적 관점에서 재정립함

천지와 귀신의 동일성 강조를 통해 하늘 위의 하늘이라는 초월천을 포함한 새로운 천지관계 구축

"知天地而無知鬼神, 鬼神者吾也" (천지는 알아도 귀신은 모르니 귀신이라는 것도 나니라)



초월천적 귀신론의 독창성

동학은 기존 내재천으로만 사용되던 귀신이라는 개념을 초월천에 처음 적용함으로써, 서학과 유학의 한계를 넘어선 통합적 관점을 제시



천지귀신의 동일성과 리미널리티

"천지역시귀신이요 귀신역시음양인줄" - 천지와 귀신, 음양의 경계에서 형성되는 리미널리티를 통해 서학과 동양 전통사상의 중간영역 형성



음양론의 확장과 통합

동학사상은 음양의 무한한 확장성을 포용하면서도, 초월천의 조화와 가변성을 강조함으로써 전통 도교와 성리학의 지관을 넘어선 새로운 세계관 제시

연구 결과 및 의의

동학사상의 리미널리티 연구

연구의 핵심 발견

동학의 지관(地觀)은 단순한 땅에 대한 인식이 아닌, 리미널리티(경계성)를 통한성과 속의 경계 재편의 시도

동학은 외부적 입력과 내부적 발전의 혼합으로 탄생한 한국 고유의 자생적 근대 사상으로, 서양 근대성에 대항하는 대안적 가치체계 제시

학술적 기여

기존의 동학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지관의 혁신성과 리미널한 특성 규명

田 경계의 재설정과 민중의 주체성

동학 지관은 천지귀신의 개념을 통해 엘리트와 민중, 성과 속, 천과 지 사이의 전통적 경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실천적 수행의 장을 열었음

↻ 한국적 자생 근대성의 지식론적 토대

동학의 조화정 지관은 서구 근대성의 기계론적 세계관과는 다른, 유기체적 세계인식과 생명 중심 사유의 근거가 되어 독자적 근대화가능성 제시

🌱 현대적 재조명과 적용 가능성

생태·환경 위기의 현대사회에서 동학의 조화정 지관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사상적 토대로 재평가될 수 있음. 특히 유기농 농업과 생명존중 사상으로 이어짐

결론 및 향후 과제

동학사상 연구의 현대적 확장

연구의 핵심 결론

동학사상의 조화정 지관은 리미널리티(경계성)를 통해 일반 민중에게 주체성 회복의 사상적 근거를 제공함

초월천과 내재천의 새로운 관계 정립을 통해 서양 근대성과 차별화된 자생적 근대성의 길을 제시함



동학 지관의 현대적 적용 가능성

생태학적 관점에서 동학의 지관은 환경위기 시대에 인간과 자연의 공존적 관계를 위한 철학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음



리미널리티를 통한 민중의 주체성 회복

초월천내재천의 조화와 기화 개념을 통해 천존지비(天尊地卑)의 이분법적 세계관을 넘어선 민중의 실천적 주체성 확립



후속 연구 방향

대순사상과의 비교 연구를 통한 동학 조화정 지관의 확장성 탐구, 동아시아사상사에서 동학 지관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비교사상적 접근 필요

3

영세불망(永世不忘) 인간관(人間觀)의 자생적 근대성

Indigenous Modernity of the Yeongsebulmang View of Humanity

목차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2 서양의 성장론적 인간관
- 3 매슬로우 이론 및 포스트휴머니즘
- 4 동양의 접화적 인간관
- 5 상관적 사유와 프랙탈 구조
- 6 동서양 인간관의 충돌
- 7 동서양 인간관의 상극화
- 8 동학사상의 인간관
- 9 리미널리티와 자생적 근대성
- 10 결론 및 시사점

연구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동서양 인간관의 주요 전통을 비교·분석하고, 충돌과 접점, 그리고 동학사상에서의 변환 양상을 고찰함으로써 자생적 근대성의 의미를 살피고자 함.

- 동서양 '인간관'의 철학적 이해
- 사상적 변화와 현대적 시사점 도출

서양의 성장론적 인간관 - 개념과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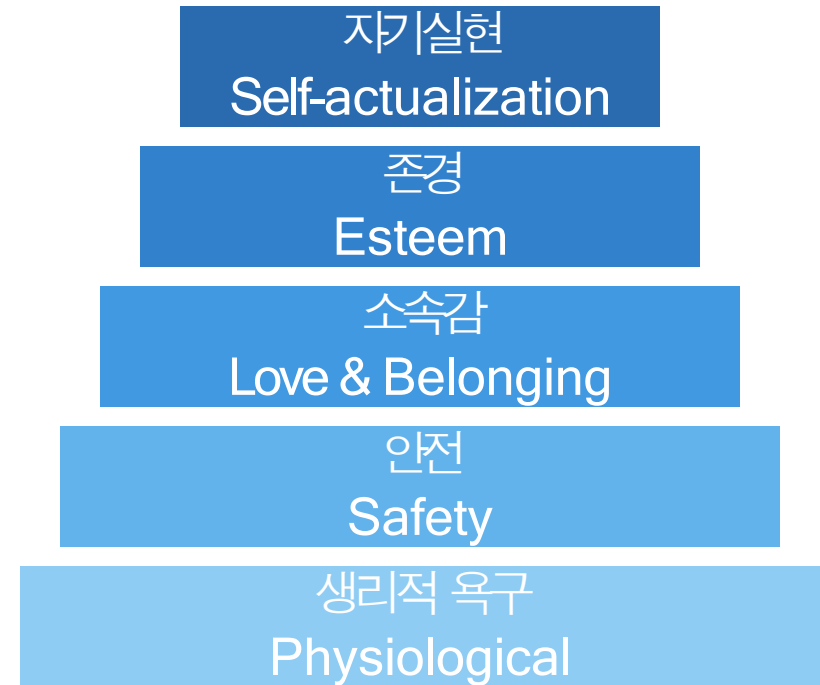
서양의 성장론적 인간관은 인간을 자기실현과 진화적 발전을 추구하는 존재로 규정하며, 근대 이후 기술발전과 개인 성장의 기반이 되었음

- 인간을 성장과 자기실현을 추구하는 존재로 파악
- 플라톤 이데아, 프로메테우스 신화, 기독교 원죄론에서 실존주의까지 계승
- 인간 욕망의 긍정, 개별성과 자율성 중시
- 긍정적 세계관과 기술지향적 근대성 추구

영세불망 인간관의 자생적 근대성

서양의 성장론적 인간관 - 매슬로우 이론과 포스트휴머니즘

- 매슬로우의 욕구단계이론: 생리적 욕구→안전→소속감→존경→자기실현
- 욕망의 긍정: 결핍동기(하위욕구)에서 성장동기(자기실현)로
- 포스트휴머니즘: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인간 능력의 확장
- 인간과 기계의 공진화: 성장지능과 자기실현의 강조



동양의 접화적 인간관 - 개념과 특징

- 동양의 접화적 인간관은 인간을 천지와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며, 상관적 사유를 바탕으로 인간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합니다.
- 인간은 천지와 밀접히 연결된 존재
- 음양오행, 천지화육(化育) 등 우주의
- 조화와순환중시 '성(誠)'으로 천지에
응답, 도덕적 책무 강조

인간의 위치: 천지간의 매개자참여자

동양의 접화적 인간관 - 상관적 사유와 프랙탈 구조

- 상관적 사유(관계 위주의 사고)와 프랙탈 구조(부분=전체)
- 음양오행 기반의 세계관 - 동일한 구조가 우주에서 인간까지 반복됨
- 전통 사회에서의 전인적 중용(中庸) 및 전체성 강조
- 학문, 예술, 일상생활 전반에 나타나는 인간관

주요 연구자: 심광현(프랙탈 이론), 최인철(인지심리학), 조금호(동양심리학), 박재주(상관적 사유) 등의 현대적 해석 제형
세계불망 인간관의 자생적 근대성



음양오행 기반 프랙탈 구조 - 부분과 전체가 동일한 패턴을 보임

근대 동서양 인간관의 충돌 - 공통 기원과 차이점

- 3기능 체계(religion-military-economic) 등 양 문화의 공통 근원

서양: 시간적(수직적) 세계관

- 초월적 유일신 중심
- 신의 지속적 개입과 구원

동양: 공간적(수평적) 세계관

- 내재적 천지관계 중심
- 숨은 신(Deus absconditus)

- 천지인(天地人)의 해석·구성 차이, 초월과 내재의 대비

- 인간·신·자연 관계 설정의 근본적 차이

근대 동서양 인간권의 상극화

서양

- 유일신 사상, 초월적 실체론
- 계급구조 확립과 종교-정치-경제적 분화

동양

- 상관적 관념의 경직화
- 계급의 고착화(양반-상놈)

- 동서 교류 이후 각 사상의 악점 심화 및 변용
- 창조주 개념의 차이: 지속적 개입(서양) vs 숨은 신(Deus absconditus, 동양)
- 3기능 체계(종교-군사-경제)의 동서양 공통 기원과 차별화

동학사상의 영세불망 인간관 - 시천주와인내천

동학사상은 자생적 근대성을 담은 영세불망 인간관을 제시하여 전통적 인간관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함

- 시천주(侍天主): 천주를 모심, 오심즉여심(吾心卽汝心): 내적 신성 강조, 인내천(人乃天): 인간 자체가 하늘
- 사제-신도 위계 철폐, 평등주의적 인간관 실현 추구
- 내부 성찰적 윤리와 소우주적 인간관의 확립
- 근대적 사회 개혁과 평등혁명의 사상적 기반 제공

리미널리티와 자생적 근대성

리미널리티(Liminality)

경계 또는 전환 상황에서의 존재 상태 - 이전 상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상태로 진입하는 과정

- 리미널리티 개념을 통한 인간관 변화 해석 - 천지인 관계의 재구성 동
- 학을 중심으로 한 근대적 전환의 촉진 - 시천주와 인내천의 실천 사회
- 적 · 사상적 혁신, 새로운 인간상 탄생 - 평등 사상과 공동체 의식
- 성-속 관계 재구성과 미래지향성 - 지상천국과 자생적 근대화의 모색

결론 및 시사점

- 서양·동양 인간관 비교를 통한 근대성의 재검토와 동학사상에서의 자생적 근대적 인간관의 의의를 살펴보았습니다.
- 서양·동양 인간관 비교를 통한 근대성의 재검토
- 동학사상에서의 자생적 근대적 인간관 의의 현대
- 사회에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

후속 연구 및 토론 과제 제시

■ 가 서양의 성장론적(成長論的) 인간관

The Western Developmental View of Humanity

서양의 전통적 인간관 개관

서양 인간관의 특징

- 천지와 분리된 독립적 존재로서의 인간
- 실체성을 지향하는 서양 전통

고대-중세

- 프로메테우스적 인간관: 이데아의 이상을 지상의 질료에 실현하는 고군분투하는 인간
- 원죄 사상: 실낙원하여 다시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 구원에 집중하는 인간

근대 이후

- 실존적 인간: 신이 사라진 세계에서 천지와 분리된 단독적 존재
- 현상학적 성장론: 분화된 세계에서 홀로 성공을 추구하는 인간

"서양은 천지와 연관된 우환의식보다 하늘 위의 하늘과 직접 관련된 실존의식이 우선했다."

성장론적 인간관의 등장 배경

시대적 전환

- 패러다임 변화: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세계관 전환
- 근대적 독립성: 천지와 분리된 자율적 인간 개념 등장

● 부정적 인간관에 대한 반발

정신분석학: 인간의 모든 욕망을 성적 욕구의 변환으로 해석

행동주의: 인간의 욕망을 단순히 물질적 욕망으로 환원 문제

점: 부정적, 기술지향적 인간관의 한계

● 철학적·심리학적 배경

실존주의: 인간의 주체성과 자기결정의 강조 현상

학: 인간 경험의 총체성과 의미 중시 인본주의: 인

간의 잠재력과 자기실현 가능성 긍정

"성장론적 인간관은 성선설에 기반한 자기실현적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인간관을 제시했다."

성장론적 인간관의 핵심 특징

성장론적 인간관은 인간의 본성과 발전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으로, 다음 세 가지 핵심 특징을 가집니다:

① 욕망의 긍정

- 인간의 욕망을 부정적인 것이 아닌 다양한 욕구의 발현으로 해석
- 매슬로우: "자기실현 욕구는 자기향상을 위한 개인의 갈망이며, 잠재력으로 지닌 모든 것을 실현하려는 욕망"

② 성장의 긍정

- 하위 욕구(결핍동기)와 고차원적 욕구(성장동기)의 단계적 발전
- '존재동기'(being motives): "경험을 넓힘으로써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삶의 기쁨을 증가시킴"

③ 세계에 대한 긍정

- 정신분석이나 행동주의의 부정적, 기계적 세계관 대신 통일적 존재로서의 인간 강조
- 인간의 잠재적 가능성과 주체성을 존중하는 긍정적 세계관

매슬로우의 욕구단계 이론과 주요 학자들

매슬로우(A.H. Maslow)의 욕구단계 이론

1940년대 중반 등장한 성장이론의 기반



- 하위 4단계: 결핍동기 (deficiency motive)
- 최상위 단계: 성장동기존재동기 (growth/being motive)

성장론적 인간관의 주요 학자들

- 👤 맥그리거(D. McGregor)
X이론(통제적 인간관) Y이론(자율적 창의적 인간관)
- 👤 허즈버그(F. Herzberg)
이요인 이론 - 위생요인(불만족 제거)과 동기요인(만족 증진)
- 👤 올포트(G. W. Allport)
특질주의 이론 - 인격 형성의 개인적 특질 강조
- 👤 아지리스(C. Argyris)
미성숙성숙 이론 - 인간의 발달을 성숙 과정으로 해석

“ 성장론적 인간관은 성선설에 기반한 자기실현적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인간관으로, 인간의 욕구가 단계적으로 잠재해 있으며 하급에서 고급으로 발전적으로 나타난다는 성장적 측면을 강조 ”

포스트휴머니즘과의 연관성

포스트휴머니즘과 성장론적 관점

- 4차 산업혁명: 성장론적 인간관이 말하는 자기실현 단계의 산업혁명으로 해석
- 실존주의의 진화: 포스트휴먼 시대에 실존주의적 인간관이 새롭게 구현

성장론적 인간관
자기실현, 잠재력, 인간 욕망의 긍정



포스트휴머니즘
기술과 인간의 융합, 새로운 정체성

기술과 인간의 새로운 관계

- 인간만의 고유한 지능과 기계의 지능 구분
- 인간과 기술의 공진화 가능성 모색

인간 정체성의 재구성

- 자기실현: 기술 발전 속에서 새로운 인간 가치 창출
- 범인공지능: 인간만의 고른 발전 능력과 성장 가능성

"포스트휴머니즘은 인간의 독자적 성장론이 현대 기술과 만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지점에 위치한다."

모라벡의 역설과 성장지능

모라벡의 역설

- "인간이 잘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잘 못하고**, 인간이 못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잘한다**"
- 계산능력과 같은 도구적 이성은 AI가 우수하나, 인간만의 고유한 지능 영역 존재

인공지능의 우수 영역

- 🧮 계산 능력
- 💾 대용량 데이터 처리
- 🔧 특정 영역 특화된 작업
- ⚙️ 반복적 정밀 작업

VS

인간의 우수 영역

- 👥 공동체 형성 능력
- 💡 상징 체계 창조와 이해
- 🔗 범용적 문제 해결
- 🌱 자기발전 능력

인간의 성장지능

- 포스트휴먼 시대: 인간은 기계와 다른 성장지능에 집중하여 공진화 추구
- 성장지능의 핵심: 상징 체계 창조, 공동체 형성, 자기발전
- 인간은 특화된 약인공지능이 아닌 다양한 영역에 균형 있게 발전된 범인공지능적 속성 보유

"인간은 실존주의적 존재 노력을 수만년간 해 왔고 그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흉내낼 수 없는 수많은 상징을 통해 지능을 개발하고 자기실현의 동기를 가지게"

결론 및 한계점

성장론적 인간관의 공헌

- 근대 과학기술의 발전 건인자기실현
- 과개인의 성장가능성 발견다양한
- 사회적 발전과 진보 이룩

한계점

- 천지와의 단절: 천지를 배제한 독단적 인간 발전
- 생태적 위기: 역설적으로 천지의 배신으로 인류 생존 위협
- 통제의 상실: 욕망의 고삐를 다시 묶을 방법 부재

미래 전망

- 대안적 근대성: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 재정립
- 동서양 통합: 성장론적 인간관과 우환의식의 균형
- 포스트휴먼 윤리: 기술발전과 인간성의 조화

"욕망의 고삐는 풀렸지만, 고삐를 다시 묶을 방법이 없는 서양의 인간관은 새로운 대안적 근대성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나 동양의 접화적(接化的) 인간관

The Eastern Transformative Contact View of Humanity

동양과 서양의 인간관 비교

2025.06.21

서양의 인간관

- 하늘 위의 하늘을 강조 (초월적 존재)
- 인간과 신/자연의 분리 및 대립
- 자연에 대한 정복과 지배의 관점
- 개인의 성장과 성취를 중시하는 실존의식

동양의 인간관

- 하늘 안의 하늘을 강조 (내재적 존재)
- 천지(天地)와 인간의 중재자적 역할 강조
- 자연과의 조화와 상호 작용 추구
- 천지의 화육에 동참하는 우환의식 중시

근본적 차이

동양의 접화적 인간관은 **상관적 사유**를 바탕으로 합니다. 서양은 인간의 능력으로 천지를 활용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반면, 동양은 천지가 인간에게 능력을 준 것이며 인간은 천지에 은혜를 갚아야 하는 존재로 봅니다.

인간과 우주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차이

동양의 접화적 인간관

상관적 사유와 프랙탈 이론

동양의 상관적 사유란?

부분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주의 모든 요소가 상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유방식입니다. 하늘, 땅, 인간이 서로 분리된 개체가 아닌 **상호연결된 체계**로 바라봅니다.

- 부분과 전체의 **유기적 연결성** 강조
- 인간을 천지(天地)와 분리하지 않고 **상관적 관계**로 파악
- 서양의 분석적·환원적 사유와 대비되는 **종합적 사유방식**



심광현의 프랙탈 이론

- 부분에서 전체 구조가 반복되는 **자기유사성**
- "**프랙탈(fractal)**"이란 복잡해도 동일한 구조의 반복
- 하구무함이 트서의 프랙탈 구조를 저이

음양오행과 프랙탈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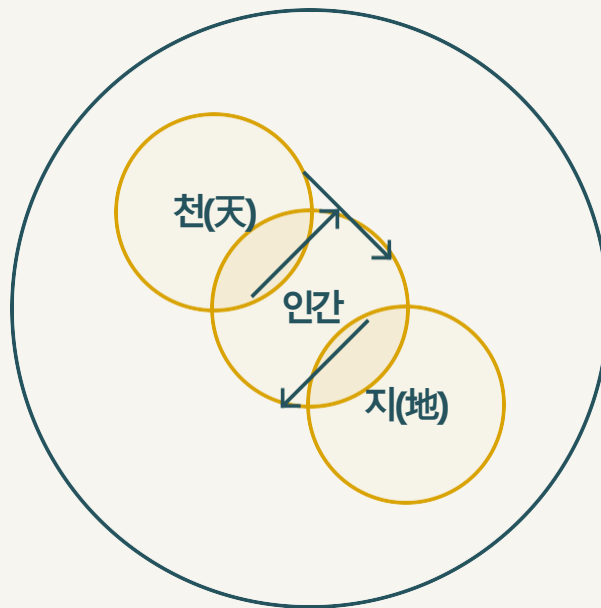
- 하늘의 음양오행 구조가 땅과 인간에도 동일하게 존재
- 우주가 **0과 1의 반복**처럼 음양의 반복
- 이기이 구조로 아며 흥느기 따이 외리드 규아기느

동양의 접화적 인간관

접화적 인간관의 개념

접화(接化)란?

접화란 **천지(우주)와 인간이 서로 연결되고 상호작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양 사상에서는 인간을 천지와 분리된 존재가 아닌, 천지와 함께 우주의 일부로서 존재하는 통합적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천지의 기운이 응집된 존재

- 인간은 천지의 **빠어난 기**를 부여받은 존재
- 음양오행의 기가 흘러들어 **가장 정수(精髓)**가 된 것이 인간
- 인간은 천지의 속성을 모두 가진 **중재자**

천지화육에 동참하는 의무

- 인간의 의무는 **천지의 화육(化育)**에 동참하는 것
- 천지는 성경신(誠敬信)으로 인간을 화육
- 인간은 성경신으로 천지에 **보답하는 존재**

동양의 접화적 인간관

천지화육과 성(誠)의 의미

천지화육(天地化育)과 성(誠)의 의미

- 음양오행의 기(氣)가 천지 가운데 흘러들어 났어난 것이 **사람**이 되고 찌꺼기는 사물이 된다
- 천지의 기운을 받은 인간은 **성(性)**을 가지게 되며, 이 성을 다하여 천지에 보답해야 함
- 천지는 **성경신(誠敬信)**으로 인간을 화육하고, 인간은 성경신으로 보답하는 관계

惟天下至誠，爲能盡其性，能盡其性，則能盡人之性，能盡人之性，則能盡物之性，能盡物之性，則可以贊天地之化育，可以贊天地之化育，則可以與天地參。

(오직 천하에 지극히 성을 행하는 자만이 자신의 성을 다할 수 있으니... 천지의 화육을 도울 수 있으며, 천지와 더불어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 『中庸』 22章

동양의 성(誠) 개념

- 천지와 인간의 창조적 상호작용
- 천지의 화육에 인간이 동참하는 근거
- 천지와 인간을 연결하는 근본 원리

화이트헤드의 창조성(Creativity)

- 유기체 철학에서의 궁극적 범주
- 서양 일원론 철학의 절대자와 대비됨
- 서아시아보다 동양철학과 더 가까운 개념



동양의 접화적 인간관

현대적 재평가와 연구 동향

동서양 교류와 현대적 재발견

서양의 근대화 과정에서 전근대적 계몽 대상으로 치부되었던 동양의 접화적 인간관이 동서양 교류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관적 사유를 현대 학문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자 및 연구 성과

최인철

- 니스벳과 공동연구
- 동양의 상관적 인식을 **인지심리학적 관점**에서 증명
- 집단성/개인성 차이 심리학적 실험으로 입증

조금호

- 동양 심리학 체계 연구
- 전체에서 부분을 파악하는 **유학 심리학** 정립
- 전인적 중용 개념의 심리학적 해석

조옥구

- 언어교육학적 관점 연구
- 천자문과 현대교육 비교
- 동양의 **상관적 사유가 대안적 과학**이 될 가능성 제시

박재주

- 화이트헤드 사상 중심의 종합 연구
- **상관적 사유체계의 종합적 설명** 제시
- 동서양 세계관과 윤리의 만남 연구

동양사상의 현대적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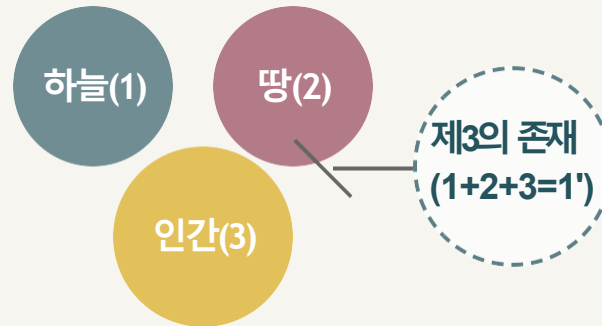
- 인지과학과 심리학의 발전으로 동양의 상관적 사유가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단계

동양의 접화적 인간관

리미널리티 이론 과 자생적 근대성

리미널리티(Liminality)란?

이영란의 리미널리티 이론에서 인간은 **경계와 전환의 존재**로서,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인간의 접화적 특성과 변화 가능성

- 하늘(1), 땅(2), 인간(3)의 수학적 연결성 (이영란의 해석)
- 인간은 천지가 부여한 **음양(혼과 백)**을 통해 **자기 변화**가 가능함
- 인간은 우주의 **천지화육 공연**을 이해하는 '**지인(知人)**'의 역할
- 더 나아가 인간은 **우주에서 공연하는 존재**로 발전해야 함

서양의 충격과 자생적 근대성

서양 근대화의 충격에 의해 동양 사상이 도전받았으나, 이를 통해 오히려 동양은 자생적 근대성을 모색하게 됨. 리미널리티 이론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상적 인간관의 실현을 준비**하는 이론적 기반이 됨.

동양의 접화적 인간관

결론 및 시사점

2025.06.21

동양의 접화적 인간관의 현대적 의미

- 현대 사회의 분절된 인간관을 통합적관계적 관점으로 재구성
- 생태적 위기 시대에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를 재정립하는 철학적 기반
- 기술 중심 사회에서의 인간 소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적 사유체계

접화적 인간관의 현대적 응용과 시사점

환

환경 및 생태 분야

천지와 인간의 상호 호혜적 관계 인식을 통한 지속가능한 환경 윤리 형성. 인간 중심이 아닌 천지와 인간의 공존적 관계 회복을 통한 생태 위기 극복

교

교육 및 인성 발달

상관적 사유를 통한 통합적 교육 방법론 개발. 개인의 성취보다 공동체와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중시하는 인성 교육

기

기술 및 과학 철학

프랙탈 이론과 상관적 사유를 통한 새로운 과학 패러다임 모색. 기술 발전이 천지화육에 기여할 수 있는 윤리적 방향성 제시

최종 시사점

동양의 접화적 인간관은 단순히 과거 사상의 재현이 아니라,
현대 문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인간세계관**으로서
인간과 자연, 인간과 우주의 새로운 관계 정립의 토대가 될 수 있다

다 근대 동서양 인간관의 충돌과 상극화(相克化)

Clash of East-West Views of Humanity

목차

1. 인간관의 충돌 - 동서양 교류 이전의 문제점
2. 동서양 교류와 변화의 계기
3. 공통 기원: 3기능 체계와 천관지관인간관
4. 천인·지인 관계의 상극화 과정
5. 서양과 동양의 천인관계 비교
6. 결론 및 의의

인간관의 충돌: 교류 이전의 문제점

동서양은 교류 이전에도 인간관이 독자적으로 발전했으나 각각의 한계와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 **서양:** 지수화풍의 제5원소가 유일신화 되면서 신명체계 소멸 → 인간은 유일신 앞에서 죄인으로 전락, 회개와 구원만이 유일한 길
- **동양:** 상관적 사유가 굳어지면서 양반과 상놈의 차별이 심화 → 사회적 계층 구조의 경직화
- 악화가양화를 구축한다는 경제학 법칙처럼, 동서양 교류 시 인간관의 단점이 더 두드러지게 됨

동서양 교류와 변화의 계기

근대기 동서양이 본격적으로 교류하면서 각 사상체계의 한계와 변화의 계기가 마련됩니다.

- **서양:** 마테오 리치를 통해 초월적 신이 없어도 가능한 윤리적 사회 발견 → 초월지향에서 내재지향으로 전환
- **세계관 변화:** 신의 자리를 물질이 대체하며 인간 중심의 세계관 강화
- **충돌의 심화:** 제국주의 시기부터 천(天)이 내재신에서 초월신으로 변화 → 땅과 동양은 정복 대상으로 인식
- 동서양 교류는 자생적 근대성의 인간관을 형성하는 계기가 됨

공통 기원: 3기능 체계와 천관지관인간관

동서양 인간관은 표면적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공통의 기원을 갖고 있습니다.

- **3기능 체계(trifunctionalism):** 인도-유럽 광역에 걸친 사회조직 원리 **구성**
- : 종교계급(브라만)- 전사계급(크샤트리아)- 생산계급(바이샤수드라) **공통**
- **사례:** 불교의 28천, 도교의 36천 천관, 그리스-로마 신화의 트로이 전쟁

서양의 특징

- 시간적 수직 구조 강조
- 창조주의 지속적 간섭
- 개인 업보와 윤회 중시

동양의 특징

- 공간적 수평 배치 강조
- '숨은 신'으로서의 창조주
- 조상과 자손의 승부(勝負) 중시

천인·지인 관계의 상극화 과정

교류와 근대의 충격으로 천인·지인관계가 정교화되면서 동시에 상극화되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 **동양:** 음양오행의 세계관에서 인격적 천인관계가 이법적 천인관계로 변화 → 삼계(천계, 지계, 인계)의 분리와 신명체계 약화
- **서양:** 제5원소가 초월신으로 격상되어 내재적 속성 상실 → 땅과 인간은 단순한 지배 및 조작 대상으로 전락
- 상생적이었던 천인·지인 관계가 상극화되면서 인간계를 통한 천상계 발전 중단 → 천지의 화육 중단, 우주 혼란 가속화

서양과 동양의 천인관계 비교

동서양의 천인관계는 인간과 신(天)의 관계 설정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서양의 천인관계

- **초월적 유일신:** 심리민상을 주재하는 절대자로, 법칙 없이 임의로 모든 것을 결정
- **권위적 구조:** 인간은 신 앞에서 죄인으로, 신의 명령에 대한 복종이 최고의 가치
- **천사의 역할:** 유일신의 일을 특별한 경우에만 수행, 특정 영역별 고유 업무 없음
- **진화 양상:** 근대 이후 초월적 신관이 약화되고 물질이 신의 자리를 대체

동양의 천인관계

- **내재적 천관:** 상제는 법칙(理法)에 따라 주재하는 숨은 신 (Deus absconditus)의 속성
- **상생적 관계:** 천명(天命)과 덕(德)을 중심으로 한 조화로운 관계 지향
- **신명 체계:** 자연을 운행하는 다양한 신명이 존재하며 각 영역별로 분화된 구조
- **진화 양상:** 시공간적 삼재관(天地人)이 강조되며 조상-자손 간 승부(勝負) 중시

결론 및 의의

동서양 인간관의 충돌과 상극화는 각 문명의 근대성 형성과 정체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 **역사적 의의:** 동서양 교류는 각각의 한계를 극복하는 계기이자 단점이 확대되는 과정이었음
- **천인관계:** 서양의 초월신관과 동양의 내재신관이 충돌하면서 상극화되었으나, 동시에 재정립의 기회 제공
- **지인관계:** 서양의 땅에 대한 지배정복 관점과 동양의 상생적 관점이 상극화되며 현대 환경문제의 기원이 됨

근대성의 리미널리티 양상으로서, 성숙의 재배치가 천인지인관계에서 요청되며 이는 현대적 인간관 탐구와 문명 간 대화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동학사상의 영세불망(永世不忘) 인간관에 나타난 리미널리티

Liminality in Donghak Yeongsebulmang View of Humanity

연구 개요 및 목적

본 연구는 동학사상의 인간관에 내재하는 영세불망 사상과 이에 수반되는 리미널리티 양상을 검토한다.

주요 연구 질문

- 동학 인간관의 변모 과정과 리미널리티의 철학적 의미
- 초월천 개념의 개입이 가져온 천관지관인간관의 변화
- 성-속 관계의 재편과 자생적 근대성의 발현 양상

연구 방법론

- 사상사적 문헌 분석 및 동학 관련 주요 사료 고찰
- 『동경대전』, 『용담유사』 등 주요 원전 분석 종교인류
- 학적 리미널리티 개념 적용을 통한 해석학적 접근

이 연구는 동학사상의 인간관이 갖는 현대적 의미와 한국 사상사에서의 위치를 재조명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동학사상의 배경과 전개

19세기 한국의 사회종교적 상황

- 성리학 중심의 지배 체제 경직화
- 서구 열강의 침략과 위기의식 고조
- 서학(西學)의 영향과 새로운 사상적 변화
- 민중의 고통과 탐관오리의 수탈 심화

동학의 형성 배경

- 최제우의 종교적 체험과 '시천주' 사상
- 서양 종교에 대응하는 '동학(東學)' 제창
- 유불선 삼교와 차별화된 자생적 사상 체계
- 민중 구제와 사회 변혁 지향

동학교조의 활동

- ⌘ 1860 최수운 천시문답(天師問答), 동학 창도
- ⌘ 1864 최수운 순도(殉道), 포덕활동 중단
- ⌘ 1860년대 후반 최시형의 『용담유사』, 『동경대전』 복구
- ⌘ 1880년대 교세 확장, 전국적 포교 활동 전개

동학농민운동과 이후 전개

- 1894년 동학농민운동: "보국안민"의 기치
- 일본의 개입으로 실패, 그러나 사상적 확산
- 천도교로의 발전 및 신종교 운동 영향
- 한국 근대성의 자생적 경로 제공

영세불망 인간관의 특징

초월천과 오심즉여심

- 초월천의 개입으로 인간의 지위 격상
- 오심즉여심(吾心卽汝心): 인간과 상제의 마음이 통함
- 하늘과 땅 사이의 인간 → 천지와 동급의 존재로 격상
- 시천주(侍天主)를 통해 상제를 모실 수 있는 지위 확보

불연기연(不然其然)의 인식론

이해하기 어려운 초월적 세계(불연)와 이해 가능한 경험적 세계(기연)의 연결을 통해 인간의 지위를 재정립

인간관의 변화 과정

- 천사문답 → 포덕활동 → 순도(殉道) 과정에서 변화
- 초기: 초월천에 의한 지위 격상 강조
- 후기: 인내천(人乃天) 개념으로 확장
- 내유신령(內有神靈) 개념으로 인간 내면의 신성화

사제·신도 구분 철폐

- 서학의 평등사상은 인정하나 사제·신도 간 계급적 차이 비판
- 접주제(接主制): 사제와 신도의 경계 허물기
- 무교회주의적 특성: 모든 신도가 직접 천주와 소통
- 성·속의 경계 재배치와 종교적 평등주의 구현

각자위심 vs 각지불이

서학의 각자위심(各自爲心)	동학의 각지불이(各知不移)
· 천주는 외부에 존재(표층 종교)	· 천주는 내부에 존재(심층 종교)
· 구원의 증명 = 속세의 성공	· 구원의 증명 = 내면의 성찰적 윤리
· 서양 근대성 기반 마련	· 자생적 근대성의 토대 제공

영세불망(永世不忘)적 인간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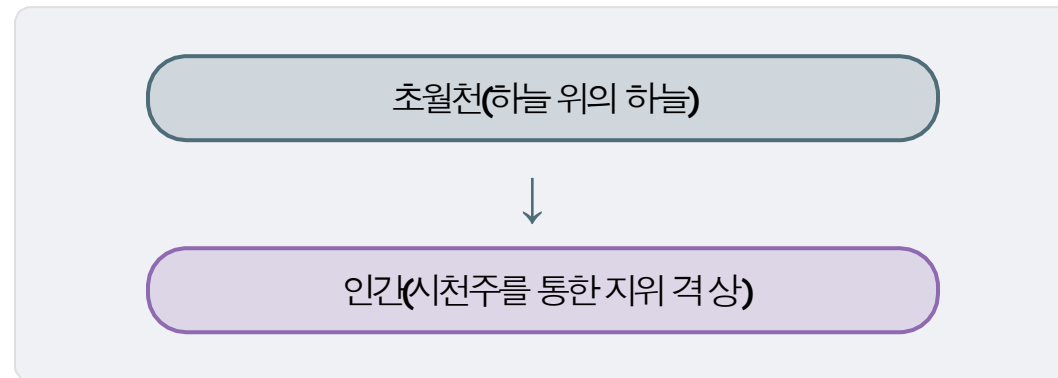
인간이 천지화육에 동참하는 존재로서 초월적 가치를 영원히 잊지 않고 실천해야 하는

내유신령(內有神靈) 천인관계의 리미널리티

시천주와 조화 개념

- 시천주의 '조화'는 내유신령으로 표현
- 서학의 유일신적 천인관계(신존인비) 극복
- '오심즉여심'을 통한 천인합일의 경지 부활
- 하늘 위의 하늘과 마음으로 직접 연결되는 인간

천인관계의 변화



- 초월천의 개입으로 인간의 지위 격상 천지화육
- 에 동참할 수 있는 존재로 인간관 변화

신분 체계의 재편

- 사제와 신도 간의 위계 철폐
- 양반·상민 구별 없이 하늘에 직접 연결
- 접주제(接主制)를 통한 종교적 평등 구현
- "온나라 양반되기"로 표현된 평등 지향

성(聖)-속(俗)의 재배치

- 기존 성-속 경계의 해체와 새로운 재배치
- 성리학: 양반(성)과 상민(속)의 구별 → 동학: 모든 인간 내면에 신령(성)
- 자생적 근대성의 리미널리티(경계성) 발현
- 종교적 지위 상승이 사회 변혁의 동력으로

외유기화(外有氣化) 지인관계의 리미널리티

개벽과 조화를 통한 지위 변화

- 시천주 사상을 통한 땅의 위상 격상
- 천지 위계질서(천존지비)에서 평등한 관계(천존지존)로 변화
- 구속억압에서 창조생명의 원천으로
- 동학의 "조화" 개념: 상반된 요소들의 리미널한 경계 통합

사회적·계급적 경계의 허물기

- "온나라 양반되기": 신분제 해체의 종교적 정당화
- 전명숙의 동학이념: "상놈을 양반으로, 천인을 귀하게"
- 왕후장상의 욕망: 동학농민운동 참여자들의 내적 동기

"본래 동학이 보국안민(輔國安民)을 주장하였음은 후천 일을 부르짖었음에 지나지 않 았으나 마음은 각기 왕후장상(王侯將相)을 바라다가 소원을 이룩하지 못하고..." 『전 경』)

지상천국과 지상신선 개념

- 다시 개벽을 통한 지상천국 실현 구상
- 지상신선: 시천주를 깨달은 인간의 새로운 위상 땅의 속성 변화
- 하원갑을을 지난 호시절의 순환 사상
- 동방의 힘: 서학을 넘어서는 새로운 세계관 제시

외유기화의 리미널리티 양상

리미널리티의 사회적 발현

반구조성: 전통적 위계질서에서 벗어난 일탈적 공간 형성

커뮤니타스: 공동체적 실천에 기반한 사회 변혁 운동

경계 넘기: 성(聖)과 속(俗)의 재배치를 통한 자생적 근대성

창조성: 조선시대 억압되었던 창조적 "조화" 요소의 해방

동학사상과 자생적 근대성

성-속(聖俗) 경계의 재구성

- 초월천의 개입으로 인한 성속 질서의 재편 시
- 천주 개념을 통한 대중의 종교적 주체화 시제-
- 신도 위계 철폐로 인한 종교적 민주화 왕후장
- 상이 될 수 있는 종교적 정당성 획득

리미널리티의 변혁적 특성

- 전통 질서와 새로운 질서 사이의 경계적 위치 조
- 화(調和)를 통한 모순의 융합과 극복내유신령외
- 유기화의 상호보완적 리미널리티

"동학사상은 하늘 위의 하늘이 개입하였지만 서교와 달리 하늘 안의 하늘 인 천지 개념도 포함했기에 일반 신도도 하늘 위의 하늘과 마음으로 연결 될 수 있었다."

자생적 근대성의 특징

- 서구적 근대와 달리 종교적 토대에 근거한 근대화
- 평등사상에 기반한 신분제 극복과 사회 변혁
- 내적 성찰과 외적 실천의 균형 모색
- 시천주 통한 자생적 계몽과 주체성 확립

동학 이후의 사회적 영향

- 천도교, 원불교 등 신종교 운동에 영향
- 3.1운동의 사상적 토대 제공
- 조화와 상생의 가치 확산
- 현대 한국 사회운동의 정신적 원류

자생적 근대성의 리미널리티 의의

동학사상은 서구적 근대성과 전통 사이에서 독특한 리미널리티 영역을 창출하여, 기존 성-속 질서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창조적 변혁의 계기를 제공했다. 이는 종교적 평등의 가치가 사회적 평등으로 확장되는 자생적 근대화의 길을 열었다.

결론 및 의의

동학사상 리미널리티의 본질

- 초월천 개입에 따른 신분질서의 균열과 재편
- 시천주 개념을 통한 천인합일 사상의 재활성화
- 내유신령외유기화의 조화를 통한 성-속 경계의 재배치
- 지상천국, 지상신선 개념을 통한 현세 변혁 지향

영세불망 인간관의 현대적 의미

- 인간 존엄성의 철학적종교적 기반 제공
- 사제-신도 구분 철폐를 통한 평등 사상의 실현
- 내적 성찰과 영적 자각을 통한 현대 사회 비판
- 자생적 근대성의 한국적 모델 제시

연구의 시사점

- 한국 전통 사상과 근대성의 연속성 재해석
- 근대화 과정에서의 동학적 영성과 윤리관 조명
- 인간관을 중심으로 한 동학·유교·서학의 사상적 관계 재고
- 동학 이후 신종교 운동의 계보학적 이해 심화

후속 연구 방향

- 초기 동학과 후기 동학의 인간관 변화 비교 연구
- 동학대순사상의 인간관 비교 및 상보적 해석
- 현대 한국 사회운동에 나타난 동학적 요소 탐구
- 글로벌 맥락에서 동학 인간관의 현대적 재해석

동학사상의 영세불망 인간관은 단순한 역사적 유물이 아닌, 현대 한국 사회에서도 여전히 작동하는 사상적·실천적 자원으로서, 인간 존재의 근원적 가치와 상호연계성에 대한 성찰을 요구한다.

Chapter IV

대순사상의 자생적 근대성과 치란(治亂)의 재활성화

Autogenous Modernity and Revitalization of Order in Daesoon

연구 개요 및 목적

본 연구는 대순사상을 통하여 한국 근대사상사의 자생적 근대성과 치란(治亂) 문제의 종교적 해법을 고찰한다.

주요 연구의의는 한국 종교사상에서 대순사상의 위상 재조명 및 삼계관 중심의 사유 구조분석에 있다.

1. 서론 및 연구목적
대순사상 연구의 배경과 학술적 의의
2. 대순사상/동학사상 비교
천관의 차이점과 연관성
3. 인신강제 개념
대순사상의 핵심 신론
4. 천계관(三界) 특징
삼계 구조와 신명계
5. 자생적 근대성의 의미
서구 근대성과의 차별화
6. 치란(治亂) 체계
해원·보은·상생의 원리
7. 재활성화 과정
천지공사와 삼계공사
8. 사상 통합
유불선과 서양사상의 융합
9. 현대적 의의
대순사상의 현재적 가치
10. 결론
연구 성과와 향후 과제

대순사상과 동학사상의 비교

동학사상	대순사상
• 초월천의 출현만 제시 (상징적) • 귀신(신명) 개념이 부분적으로만 반영 • 현세적 구원(보국안민) 위주 • 성-속 경계의 가능성 제시 단계	• 상제의 인신강세 (실체적 개입) • 신명계를 구체적 시스템으로 체계화 • 해원·보은 중심의 삼계 원한 해소 • 인신강세와 신명계로 경계 통합 완성

인신강세(人身降世) 개념

구천상제(九天上帝)가 인간의 몸으로 직접 세상에 강림한 현상

- **초월적 존재의 실체화**- 하늘(구천)이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의 입장에서 하늘과 땅의 모습을 보고 개조함
- **동학과의 차별성**- 동학은 계시와 출현에 그쳤으나, 대순은 직접적 인신 강림으로 확장
- **천지만물 개조 의도**- 하늘과 땅을 뜯어고쳐 후천개벽의 기틀을 마련함

"상제께서 구천에 계시자 신성·불·보살 등이 상제가 아니면 혼란에 빠진 천지를 바로잡을 수 없다고 호소하므로... 스스로 세상에 내리기로 정하셨습니다."

- 『전경』

천계관(天界觀)의 특징

- 삼계(三界): 천계, 지계, 인계로 구성된 유기적 신명계 시스템
- '하늘 위의 하늘' 구조 - 9중 이상의 중첩된 천계 계층
- 천계는 신명(불·보살·신성 등)의 회산(會散)과 청령(聽令) 과정
- 묵은 하늘과 새 하늘 - 천계의 가변성과 재활성화
- 신명계와 인간계의 상호작용 구조 체계화

『전경』 구절

“묵은 하늘은 사람을 죽이는 공사만 보고 있었도다. 이후에 일용 백물이 모두



자생적 근대성의 의미

서구 근대성과의 차별화

- 물질 중심의 서구 근대성에서 천지삼계·신명조화 중심의 존재론적 확장
- 서양의 "신은 죽었다"라는 전면 부정 대신 계승·발전의 가종(加宗) 방식
- 마테오 리치에 의해 초래된 근대문명의 폐해 극복을 목표

독자적 발전 양상

- 민족주의적 한계와 서구 모방을 초월한 자생적 변혁 사유
- 성·속의 경계 재배치 및 리미널리티(경계 상태)의 완성형
- 실체를 가진 인신강세로 인한 형이상학적 근대성과 탈근대적 시스템 확립
- 천지신명의 실체화를 통한 서양·동양 이원론 극복

자생적 근대성과 서구 근대성 비교

구분	서구 근대성	대순사상의 자생적 근대성
----	--------	---------------

치란(治亂)의 개념과 원리

삼계의 원한과 치란의 순환

- 선천에서의 상극에 의해 삼계(천계·지계·인계)에 원한이 누적됨
- 난(亂)의 발생: 천지인 삼계의 질서 교란과 원한의 지속적 증가
- 천지공사와 삼계공사를 통한 난(亂)에서 치(治)로의 전환 과정

치란의 핵심 원리

- 해원(解冤): 만고의 원한과 척(隻)을 해소하는 근본 원리
- 보은(報恩): 은혜에 보답하여 상생의 토대를 마련하는 실천
- 상생(相生): 상호 공존과 조화를 통한 후천 선경 건설



치란의 재활성화 과정

천지공사(天地公事)

- 묵은 하늘과 땅의 뜯어고침 - 우주 구조의 재정비
- 상제의 인신강세를 통한 직접적 개입과 개조
- 신명계와 인간계의 질서 동시 재정립
- 후천개벽(後天開闢)을 통한 새로운 천지 질서 구축

"이제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쳐 물샐틈없이 도수를 짜 놓았으니 제 한도에 돌아 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

- 『전경』

삼계공사(三界公事)의 실현

- 1 명부공사(冥府公事): 천계와 지계의 상호관계 조정
- 2 해원(解冤)과 보은(報恩): 삼계의 원한 해소와 새 질서 확립
- 3 신인조화(神人調和): 신명계와 인간계의 유기적 결합
- 4 선경(仙境) 건설: 지상천국의 현실화 및 치(治)의 완성

동서양 사상과의 통합적 관점

유불선(儒佛仙) 통합과 서양 사상의 수용

- 전통 유불선 삼교의 형이상학적 원리들을 실체화하여 통합
- 음양오행, 원형이정, 12운성 등의 동양 우주론을 체계적으로 재활성화
- 서양 근대사상의 물질주의, 초월성 개념을 독자적 관점에서 재해석
- 서구적 근대성과 다른 자생적 근대성 및 탈근대성 체계 확립



현대사회에서의 가치

- 다원사회의 갈등 해소와 사회 통합을 위한 해원 상생의 실천적 원리 제공
- 물질 중심 서구 근대성을 넘어선 인간·자연·신명계의 조화로운 공존 모델 제시
- 현대인의 정신적 위기와 소외에 대한 대안적 세계관 및 수행체계 확립

미래 전망과 함의

- 생태 환경 위기에 대응하는 천지인 삼계의 통합적 생명관 활용 가능성
- 과학기술 발전과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영성(靈性) 담론의 기반 형성

결론 및 향후 과제

연구 성과

- 대순사상의 인신강세 천계관이 지닌 자생적 근대성의 특징 규명
- 동학사상과의 비교를 통한 천관·지관·인간관의 독자적 발전 양상 도출
- 삼계관(천계·지계·인계)의 체계적 재구성과 신명계 실체 체계화

치란의 재활성화 의의

- 해원·보은·상생의 원리를 통한 난(亂)에서 치(治)로의 대전환 모델 제시
- 서구 근대성과 차별화된 한국적 근대·탈근대 사유 시스템 확립

향후 과제

1

인신강세(人身降世) 천계관(天界觀)의 자생적 근대성

Indigenous Modernity of the Cheon'gye-gwan based on Insin-gangse

연구 목적과 문제의식

동학사상에서 대순사상으로의 변화 과정
탐구

천관(天觀)의 변화와 인신강세

- 동학사상의 초월천(超越天)에서 대순사상의 인신강세(人身降世)로의 전환
- 기존 천관(天觀)의 한계와 인간 중심의 새로운 세계관 성립 필요성
- 서양 근대성의 한계를 극복하는 동아시아의 자생적 근대성 모색
- 성(聖)과 속(俗)의 재배치에 따른 새로운 리미널리티(경계성) 형성
- "묵은 하늘"을 "뜯어고치는" 천지공사(天地公事)의 의미 탐구

연구 방법론 및 주요 개념 정의

인신강세, 천계관, 삼계의 핵심 개념 탐구

접근 방법론

- **문헌연구**: 『전경』, 『대순진리회요람』 등 대순사상 원전 분석
- **비교사상 분석**: 동학사상, 유불선 천관, 서양 종교와의 비교
- **개념사적 접근**: 천관지관인간관의 역사적 변천 고찰

인신강세(人身降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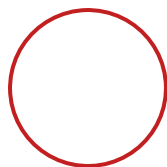
구천의 최고신(九天上帝)이 인간의 몸으로 직접 강세하여 천지를 개조하는 현상. 동학의 초월천 출현 보다 적극적인 개입 형태

천계관(天界觀)

대순사상에서 보는 하늘의 체계적 구조. 9개 이상의 중첩된 천계 층위와 신명(神明)의 시스템을 포함

삼계(三界)

천계·지계·인간계로 구성된 우주 구조. 불교의 욕계·색계·무색계와 다르며, 신명의 청령(聽令)과 회산(會散)에 의해 운행



동학사상의 초월천과 천관

초월천(超越天)의 출현

동학사상에서는 최초로 인세에 초월천이 출현하였으나, 출현만으로는 인간이 그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수운 최제우의 천시문답(天師問答)으로부터 시작된 초월천의 개념은 동학의 핵심 사상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천지가귀신이고 귀신이 음양이라"

천관·지관·인간관의 변화

동학의 초월천은 기존 천(天)의 개념을 넘어서는 새로운 초월적 존재로서, 하늘과 땅, 인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하였습니다.

동학 천관의 특징과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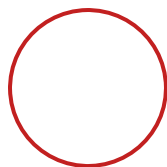
- 초월천이 인세에 출현은 하였으나 인신강세로 이어지지 못함
- 천지인(天地人) 사이의 위계 해체 시도가 불완전함
- 유교적 전통과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웠음
- 초월천의 실체화 미완성

동학사상의 성과

유교 전통의 내재신관(內在神觀)에서 벗어나 초월신관(超越神觀)으로 전환을 시도했으며, 성(聖)과 속(俗)의 경계를 재설정하는 리미널리티(Liminality, 경계성)의 기반을 마련함

동학에서 대순사상으로

동학사상에서 시작된 초월천의 개념은 대순사상에서 인신강세로 더욱 발전하며 자생적 근대성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대순사상의 인신강세 개념

인신강세(人身降世)의 의미

인신강세란 초월적 존재(구천상제)가 인간의 몸으로 직접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동학사상의 초월천이 인세에 출현만 하는 것과는 달리, 대순사상에서는 직접 인간으로 강세하여 천지공사를 행한다는 개념입니다.

"상제께서 구천에 계시자 신성·불·보살 등이 상제가 아니면 혼란에 빠진 천지를 바로잡을 수 없다고 호소하므로... 신미년에 스스로 세상에 내리기로 정하셨습니다."

인신강세의 배경

마테오 리치로부터 초래된 서구적 근대성이 병폐를 낳자, 신성·불·보살이 구천상제에게 인신강세를 호소했습니다. 이는 물질 중심의 서양 근대성이 초래한 천하진멸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초월천에서 인신강세로의 전환

동학사상	대순사상
초월천의 출현	구천상제의 인신강세
계시의 형태로 머무름	실체를 갖춘 인간으로 현현
부분적 성·속 재배치	완전한 성·속 리미널리티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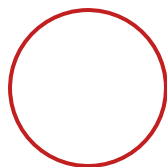
인신강세의 사상적 의미

- 하늘과 땅을 뜯어고치는 천지공사 가능
- 신명이 인간 마음에 넘니들며 개입
- 천관·지관·인간관의 총체적 변화
- 인간과 초월천이 마음뿐만 아니라 신체까지 통하는 존재로 승격
- 동서양 천관의 실체론적 통합 실현

천지 개조의 필요성

"이제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쳐 물샐틈없이 도수를 짜 놓았으니 제 한도에 돌아 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

초월천이 실체를 갖는 것은 인신강세를 통해서만 가능해집니다. 이로써 천지의 도수가 재정립되고 후천개벽이 가능해집니다.



대순사상 삼계(三界)구조

삼계(三界)의 개념

대순사상의 삼계는 **천계(天界)**, **지계(地界)**, **인간계(人間界)**로 구성된 총체적 우주 구조를 의미합니다. 이는 기존의 천지인 삼재(三才)와는 달리 각 영역의 내부적 시스템과 신명계를 강조한 개념입니다.

"그 삼계공사는 곧 천·지·인의 삼계를 개벽함이요 이 개벽은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따라 하는 일이 아니고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니..."

기존 종교의 삼계와 차이점

불교의 삼계(욕계·색계·무색계)는 천계만을 의미하지만, 대순사상의 삼계는 천계·지계·인간계를 모두 포함하는 전체 우주 구조를 나타냅니다.

종교	삼계 개념
불교	욕계(欲界), 색계(色界), 무색계(無色界)
대순사상	천계(天界), 지계(地界), 인간계(人間界)

삼계의 구조와 시스템

- 천** **천계(天界)**: 구천(九天)과 천지신명이 존재하는 하늘. 9개 이상의 중첩된 계층 구조를 가짐
- 지** **지계(地界)**: 땅의 세계. 명계(冥界)와 지계 신명이 존재하며 천계와 인간계를 연결
- 인** **인간계(人間界)**: 사람이 사는 세계. 구천상제가 인신강세한 곳이며 천지공사가 이루어지는 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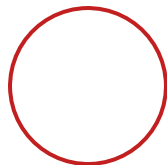
신명계(神明界)의 도입

대순사상은 동학사상과 달리 **신명(神明)**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삼계의 운영을 설명합니다. 신명은 삼계를 넘나들며 천지의 운영과 인간의 길흉화복에 관여합니다.

삼계 시스템의 특징

- 천·지·인이 **역동적이고 현재적인 변화**를 동시에 경험
- 천지의 운영이 신명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됨
- 상제의 **인신강세**로 인해 삼계의 질서 재편
- "뜯어고치는" 천지공사를 통한 삼계의 개벽 추구

신명계와 천지공사



신명(神明)의 역할

대순사상에서 **신명**은 천지의 운영을 담당하는 실체적 존재로, 상제의 명령에 따라 활동합니다. 신명은 인간의 마음에도 출입하며 체질과 성격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신명으로 하여금 사람의 뱃속에 출입케 하여 그 체질과 성격을 고쳐 쓰리니 이는 비록 말뚝이라도 기운을 붙이면 쓰임이 되는 연 고니라."

천계와 신명의 회산(會散)

천계의 신명들은 **회산(會散)**을 통해 상제의 명령(청령, 聽令)을 받고 천지의 운영을 주관합니다. 풍우(風雨)를 일으키는 데도 무한한 공력이 드는 복잡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천지공사(天地公事)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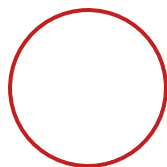
- **뜯어고치는 천지공사**: 묵은 하늘과 땅을 새롭게 개조
- 선천의 상극(相克) 질서에서 후천의 상생(相生) 질서로 전환
- 천지의 도수(度數)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는 작업
- 명부(冥府)로부터 시작되는 우주적 정비 작업

삼계공사(三界公事)의 의미

"삼계 대권을 주재하여 조화로써 천지를 개벽하고 후천 선경(後天仙境)을 열어 고해에 빠진 중생을 널리 건지려 하노라"

천지 운영의 원리

대순사상에서는 천지의 모든 운영이 신명에 의해 결정되며, 인간의 길흉화복까지 정해집니다. **천지공정(天地公庭)**에서 신명들이 회산과 청령을 통해 만물을 주관합니다.



동서양 천관 비교

동양 전통종교의 천관

- **유교**: 내재적 하늘(理), 도덕원리 중심의 천관
- **불교**: 삼계(욕계, 색계, 무색계) 중심의 천계관
- **도교**: 천지인 삼재(三才)의 천관, 도와기(氣) 중심

서양 종교의 천관

- **초월적 실체론**: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신 중심
- **물질 중심**: 마테오 리치 이후 서구 근대성 확산
- **이원론적 세계관**: 천국(천상)과 지옥(지하) 구분

"서양인 이마두(利瑪竇)가 동양에 와서 지상천국을 세우려 하였으되... 그 문명은 물질에 치우쳐서 도리어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고 마침내 천리를 흔들고 자연을 정복하려는 데서 모든 죄악을 끊임없이 저질러..."

대순사상의 천계관 차별성

- **구천(九天)**: 9개 이상의 중첩된 천계 구조
- **인신강세(人身降世)**: 초월천의 인간 몸으로의 강림
- **신명계(神明界)**: 천지인 모두를 포괄하는 신명 시스템
- **삼계공사(三界公事)**: 천계·지계·인간계의 통합적 개혁

구분	기존 천관	대순사상 천관
실체성	추상적·관념적	실체적·현실적
층위 구조	단순·위계적	복합적·시스템적
운영 원리	자연법칙초월적 섭리	신명의 청령(聽令)과 회산(會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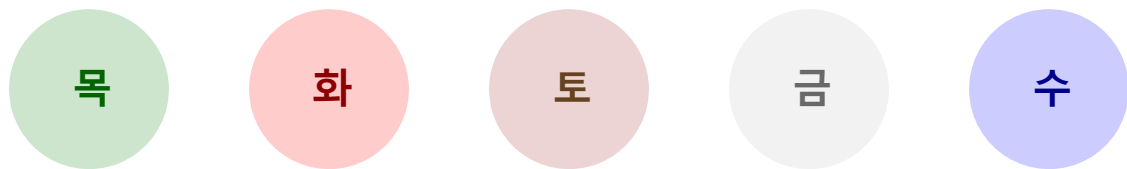
동서양 천관의 통합

대순사상은 동양의 속성론적 천관과 서양의 실체론적 천관을 통합하고, 나아가 신명의 회산과 청령이라는 실체를 통해 구천·천명·천계 사이의 위계와 역할을 새롭게 정립함으로써 새로운 성·속 재배치를 완성합니다.

오행사상과 토극수

오행사상(五行思想)의 핵심

오행사상은 우주 만물이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 다섯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상생(相生)과 상극(相剋) 관계로 세계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동양 우주론입니다.



토극수(土克水)의 의미

대순사상에서 특히 강조되는 **토극수**는 땅(토)이 물(수)을 제어하는 원리로, 상제의 인신강제와 연관됩니다. 『전경』에 나타난 "**왼 손바닥에 임(壬)자와 오른 손바닥에 무(戊)자**"는 토(戊)가 수(壬)를 다스리는 원리를 상징합니다.

금화교역(金火交易)과 우주 순환

오행에서 **금화교역**은 금(金)과 화(火)가 서로 위치를 바꾸어 오행을 순환시키는 원리입니다. 직선적 순환을 만드는 이 원리는 하도낙서의 핵심이며, 대순사상에서 천지의 변화와 개벽의 근본 원리로 재해석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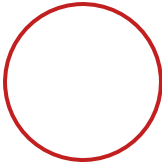
하도낙서(河圖洛書) 우주관

- **하도(河圖)**: 초월천의 우주창조 원리, 상생(相生) 중심
- **낙서(洛書)**: 우주변화의 원리, 상극(相剋) 중심
- 동양사상에서 우주만물의 이치(理)를 설명하는 근본 원리

대순사상의 재해석

대순사상은 오행 중 토(土)를 제5원소로 주목하며, 토극수의 원리를 통해 인신강제의 실체성과 우주의 균형적 변화를 설명합니다. 하도의 상생과 낙서의 상극이 조화를 이루어 후천개벽의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창조적 통합 원리를 제시합니다.

자생적 근대성의 특징



자생적 근대성의 의미

대순사상의 자생적 근대성은 서구적 근대성과는 달리 동아시아에서 내부적으로 발생한 근대적 사유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는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한 서양의 근대성이 아닌, **기존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새롭게 변화**시키는 방식의 근대성입니다.

대순사상의 근대성 특징

- **가종(加宗)**의 개념 - 기존 하늘을 인정하되 새 하늘로 교체
- 서양의 초월천과 동양의 신명이 실체로 융화되는 새로운 세계관
- 서구식 근대성의 물질 중심주의 한계 극복
- 인간의 지위와 역할 재정립

"이제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쳐 물샐틈없이 도수를 짜 놓았으니 제 한도에 돌아 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

성(聖)과 속(俗)의 재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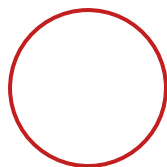
동학사상에서 제기된 성-속의 재배치는 **인신강세를 통해 완전히 실현**됩니다. 초월적 신성이 인간의 일상으로 들어오고, 초월천이 실체를 가진 구천상제로 인간 세계에 직접 강림함으로써 성과 속의 경계가 근본적으로 재구성됩니다.

리미널리티(Liminality, 경계성)의 완성

리미널리티는 기존 범주와 질서 사이의 경계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순사상에서는 천지인 삼계가 신명계로 융합되며, 인간과 신명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경계적 시스템**이 완성됩니다.

구분	동학사상	대순사상
천관 특징	초월천의 출현	구천상제의 인신강세
성-속 관계	재배치 시도	완전한 재구성
리미널리티	기반 마련	시스템적 완성

대순사상에서 성-속 재배치와 리미널리티의 완성은 **자생적 근대성의 핵심**이며, 이를 통해 지상계 타락에서부터 저계로 내려



포스트모던적 함의

대순사상 천계관의 탈근대성

대순사상의 천계관은 **근대를 넘어서는 탈근대적 특성**을 보여줍니다. 서양의 근대성이 물질중심주의와 이성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고, 정신과 물질의 조화, 초월과 내재의 통합을 지향합니다.

"이제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쳐 물샐틈없이 도수를 짜 놓았으니 제 한도에 돌아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

다원주의와의 연관성

대순사상의 천계관은 다양한 종교와 사상을 아우르는 **다원주의적 특성**을 지니며, 이는 현대 포스트모던 시대의 다양성 존중, 상호 공존의 패러다임과 맥락을 같이합니다.

탈근대성의 특징

- **대타자의 소멸**이 아닌 새로운 형태로의 변형과 재활성화
- 근대적 이분법(신/인간, 성/속, 초월/내재)을 **해체하고 통합**
- 초월천의 인신강세를 통한 **성과 속의 온전한 통합**
- 동서양 사상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세계관 제시

근대성	대순사상의 탈근대성
이성 중심	이성과 초월의 조화
물질적 진보	정신적·물질적 조화
인간 중심	천·지·인 삼계의 균형
"신의 죽음"	"신의 인간화"(인신강세)

현대 사회에서의 의미

대순사상 천계관은 1980년대 이후 포스트모던 시대의 다양한 위기(환경, 사회, 가치관)에 대한 대안적 세계관을 제시하며, 국지적 사상을 넘어 **보편적 가치와 실천 방향**을 제시하는 현대적 의의를 지닙니다.

결론 및 연구 의의

대순사상 천계관의 통합적 의미와 현대적 가치

“이제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쳐 물샧틈 없이 도수를 짜 놓았으니 제 한도에 돌아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

동서양 천관 통합 및 재해석

서양의 초월적실체론적 천관과 동양의 내재적속

성론적 천관의 통합오행사상과 토극수(土克水),

금화교역(金火交易)의 재해석

하도(河圖)·낙서(洛書) 우주관의 창조적 재구성

현대적·포스트모던적 의의

대순사상 천계관은 서구 근대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동아시아의 자생적 근대성을 완성하며, 나아가 동서양 사상의 통합을 통해 포스트모던 시대의 새로운 우주관을 제시함

대순사상 천계관의 특징

- 인신강세(人身降世)를 통한 천계관의 실체화 및 완성
- 천계지계인간계의 삼계(三界) 시스템 구축
- 신명(神明)을 통한 천지 운행의 시스템적 이해
- 성(聖)-속(俗)의 재배치와 리미널리티(경계성) 완성

■ 가 천계관(天界觀)으로서의 천관(天觀)

View of Heavenly Realm as View of Heaven

연구 개요 및 목적

- **연구배경:**

천관(天觀) 개념의 역사적 전개와 그 변화 양상을 탐구하여 한국 종교사상의 독특한 특성을 이해

- **비교대상:**

동학사상에서 나타난 초월천(超越天)의 개념과 대순사상에서의 구천(九天) 및 천계관(天界觀)

- **핵심 연구 질문:**

- 초월천의 개입 방식과 상제 인신강세 현상의 의미론적 차이는 무엇인가?
- 두 사상에서 나타난 천관·지관·인간관의 변화 양상은 무엇이며 그 의의는
- ? 삼계관(三界觀)으로서의 천계관이 갖는 독특한 특징과 현대적 함의는 ?

-

- **연구 방법:**

원전 문헌 분석을 통한 개념 비교, 사상사적 맥락 내에서의 위치 고찰, 근대성 비판 관점에서의 해석학적 접근

동학사상의 초월천(超越天) 개념

- **초월천의 인세 최초 출현**

동학사상에서 초월천은 최초로 인세에 출현하여 천관지관인간관에 총체적인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이는 하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 **인간과 초월천의 관계 변화**

인간은 이제 초월천과 직접 의사소통하는 존재로 지위가 격상됩니다. 이것은 유교적 천인합일(天人合一)의 관념과는 구별되는 소통 방식으로, 인간이 천명(天命)의 단순한 수용자에서 대화자로 전환됨을 의미합니다.

- **한계점: 의사소통이해의 미달**

그러나 초월천의 출현만으로는 인간이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직접 강세하지 않은 초월천의 한계가 대순사상의 인신강세로 극복되는 계기가 됩니다.

"하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조화가 거기운데 있느니라."

- 동경대전 -

동학 천관의 주요 특징

- ◆ 천지가 귀신이고 귀신이 음양으로 소통
- ◆ 상제를 귀신이라 표현하는 실체성 부여
- ◆ 인간과 초월천이 영적으로 연결된 관계 설정
- ◆ 초월천의 출현이 근대적 천관으로 전환의 시작점

대순사상의 구천(九天) 인신강세

- **구천의 의미와 상제의 인신강세**

대순사상에서 초월천은 구천(九天)으로 지칭됩니다. 동학사상에서는 초월천이 인세에 출현하는 데 그쳤다면, 대순사상에서는 인간의 몸으로 직접 강세합니다. 이는 단순한 영적 출현이 아닌 육체적 현현을 통해 천지 개조의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 합니다.

- **하늘과 땅의 개조**

"이제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쳐 물샐틈없이 도수를 짜 놓았으니..." 상제는 인간으로 태어나 아만 인간의 입장에서 천지의 모습을 볼 수 있었기에, 스스로 만든 하늘과 땅을 뜯어고치는 존재로 전환합니다. 이는 '후천개벽'을 통한 전면적 변화를 지향합니다.

- **인신강세의 철학적 배경**

인신강세의 배경은 마테오 라차에 의해 시작된 물질 중심의 사상이 근대성이 초래한 천하진멸의 상황입니다. 대순사상은 서구적 근대성이 야기한 인류 절멸의 위기를 경고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상제의 직접적인 강세가 필요했음을 설명 합니다.

"상제께서 구천에 계시자 신성불보살 등이 상제가 아니면 혼란에 빠진 천지를 바로잡을 수 없다고 호소하므로... 스스로 세상에 내리기로 정하셨습니다."

- 『전경』 [예시] 1 -

동학사상과의 차별성

- ◆ **실체성:** 구천의 인신강세로 초월천이 실체를 가짐
- ◆ **변혁 방식:** 개벽(갱신)이 아닌 개조(재구성)
- ◆ **삼계의 확장:** 천계·지계·인간계의 역동적 상호작용
- ◆ **신명의 작용:** 신명계의 적극적 개입과 체계화

천지공사와 삼계관의 재구성

- **천지공사(天地公事)의 의미**
구천상제의 인신강세 이후 수행된 천지공사는 하늘과 땅을 뜯어고치는 개조 작업입니다. 이는 단순한 갱신이 아닌 물샐틈없이 도수를 짜서 하늘과 땅의 근본 원리를 재정립하는 과정입니다.
- **삼계(三界)의 구조적 특성**
대순사상의 삼계는 천계(天界), 지계(地界), 인간계(人間界)로 구분되며, 각 계는 독자적이면서도 상호 밀접하게 연결된 유기적 세계를 형성합니다. 이 삼계는 신명이라는 매개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 **재(才)와 계(界)의 차이**
전통 사상의 '삼재(三才)'가 천지인의 세 가지 큰 요소나 재능을 의미한다면, 대순사상의 '삼계(三界)'는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내부 세계를 가진 시스템적 개념입니다. 계(界)는 신명계와 같은 복잡한 구조를 포함합니다.

“이제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쳐 물샐틈없이 도수를 짜 놓았으니 제 한도에 돌아 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

- 『전경』 『교법』 3-4 -

불교·도교와의 비교

불교의 삼계

욕계(欲界), 색계(色界), 무색계(無色界)로 구성
→ 천계만을 세분화한 개념

도교의 삼계 개념

천(天), 지(地), 수(水)의 삼원(三元) 또는 상계(上界), 중계(中界), 하계(下界) 구분
→ 구체적 체계화 미비

대순사상의 삼계

천계(天界), 지계(地界), 인간계(人間界)를 명확히 구분
→ 신명 시스템 기반 상호작용 강조

신명계의 도입과 천계관의 특징

- **대순사상에서 신명(神明)의 적극적 도입**

대순사상은 동학사상과 달리 신명을 천지공사의 핵심 개념으로 도입하여 삼계의 운행과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존재로 규정합니다. 이는 상제의 인신강세를 통해 신명이 인간의 마음에 개입하는 계기가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 **구조화된 신명시스템과 삼계의 관계**

대순사상의 천계관은 '계(界)'라는 시스템을 통해 매우 상세한 신명의 구조를 제시합니다. 이는 천·지·인 삼재(三才)의 개념을 넘어서, 삼계(三界) 내부에 신명들의 역동적 시스템이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신명관의 재활성화**

동학사상에서 천지(天地)와 신명(神明)을 함께 논하는 것은 송명 이후 유학자들이 회피했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대순사상은 『곽점죽간』에 나타난 고대의 신명관을 재활성화하여 근대적 재해석을 시도합니다.

"이제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쳐 물샐틈없이 도수를 짜 놓았으니 제 한도에 돌아 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 또 신명으로 하여금 사람의 뱃속에 출입케 하여 그 체질과 성격을 고쳐 쓰리니..."

- 『전경』 『교법』 3-4 -

신명 개념의 변화

동학: "천지가 귀신이고 귀신이 음양이라"- 개념적 추상적 표현

대순: 신명이 구체적 실체로서 인간과 상호작용하며 우주적 변화를 주도

대순사상 천계관의 특징

- 불교 삼계(욕계, 색계, 무색계)와 달리 천계·지계·인간계를 포괄
- 천계, 지계, 인간계가 동시에 역동적으로 변화
- 마테오 리치로부터 초래된 근대문명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서의 천계관 제시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의 천관 비교

비교 항목	동학사상의 천관	대순사상의 천관
초월천의 표현	인세에 출현 하여 주문과 의례를 통해 소통	인신강세를 통한 직접적 현현과 천지공사
천-인 관계	인간이 초월천과 의사소통하는 존재로 지위 격상	구천이 인간으로 강세함으로써 천-인 경계의 실질적 소멸
신명(神明) 개념	"천지가 귀신이고 귀신이 음양"이라는 개념적 표현	구조화된 신명계 시스템으로 확장, 실체적 신명 작용의 강조
천관의 변화 방향	"다시 개벽"을 통한 갱신 지향	"후천개벽"을 통한 천지의 근본적 개조 추구

주요 차별성

대순사상은 동학사상에서 시작된 천관의 변화를 **상제의 인신강세**를 통해 보다 실체적이고 체계적인 형태로 완성하여, 삼계(천계, 지계, 인간계)의 구조적 관계를 재정립함

근대성에 대한 대응

동학사상의 전통에 이어, 대순사상은 마테오 리치로부터 시작된 서양 근대성이 초래한 **물질 중심의 병폐**에 대한 비판적 천관을 통해 동서양 문명의 갈등에 대한 해법을 제시함

결론 및 의의

사상사적 의미

- ◆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은 동서양 문명의 충돌 속에서 근대성에 대한 독특한 대응 방식 제시
- ◆ 서양 근대성이 초래한 물질 중심 문명의 위기를 천관의 재구성 을 통해 극복하고자 함
- ◆ 기존 유교적 천인합일 사상에서 벗어나 초월천과 인간의 새로운 관계 정립

현대적 함의

- ◆ 물질만능주의가 초래한 현대 문명의 위기에 대한 대안적 사유 제공
- ◆ 인간과 자연, 초월적 존재 간의 상생적 관계 모델 제시
- ◆ 근대 이후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사상 중 민족주의를 초월하여 인류 보편의 문제 인식

한국 종교사에서의 의의

- ◆ 한국적 상황에서 성-속의 재배치 와 리미널리티 를 통한 독창적 종교사상 형성
- ◆ 동학사상에서 시작되어 대순사상에서 완성된 '신명계'를 통한 새로운 우주론 제시
- ◆ '삼계관'으로 불교·도교와 차별화된 한국적 천관지관인간관 체계화
- ◆ 인간 중심의 코스몰로지(anthropocentricity)로서 독특한 위치 확립

질의응답 (Q&A)

오늘 발표에 대한 질문과 의견을 환영합니다.

- 연락처: example@religion-studies.org
- 추가자료: 본 연구의 전체 논문은 '한국종교학연구' 2025년 여름호에 게재 예정입니다.

나 인신강세(人身降世)의 천계관(天界觀)

Incarnational View of the Heavenly Realm

연구 개요

본 연구에서는 대순사상의 천계관, 즉 상제의 인신강세와 이에 따른 하늘(천계)의 세분화 특징을 고찰한다.

- 천계의 중첩적 구조
9개 이상 중첩된 하늘의 구조와 상제의 인신강세
- 상제와 천지신명의 역할
뇌성의 의미와 천지 창조, 회산과 청령의 체계
- 전통적 천관과의 차이
동양의 내재천, 서양의 초월천, 그리고 천외천의 개념 확장
- 묵은 하늘과 새 하늘
하늘의 변화 및 개혁, 자생적 근대성/탈근대성의 실현

천계의 구조: 9개 이상의 중첩된 하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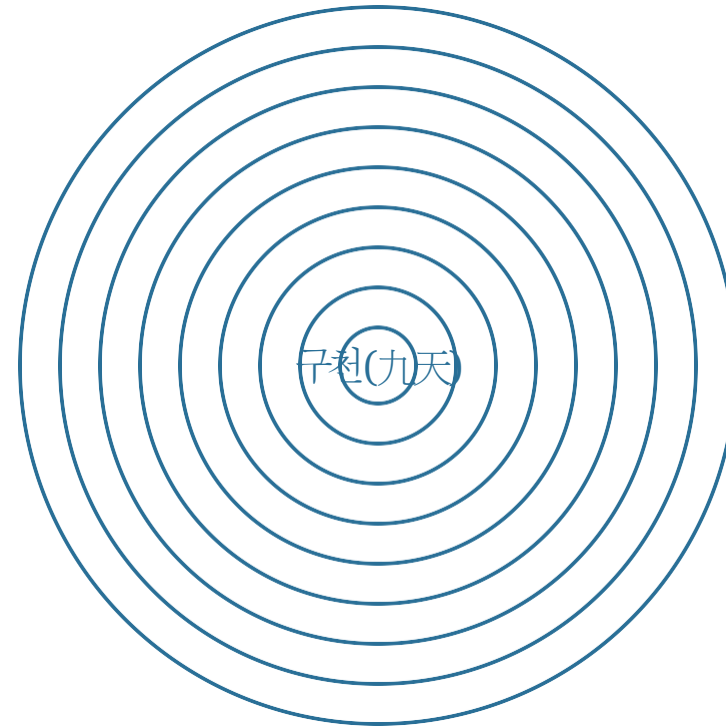
김 송환(金松煥)이 상제께 여쭙기를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나이까."

상제께서 "있느니라"고 대답하시니라.

또 그가 여쭙기를 "그 위에 또 있나이까."

상제께서 "또 있느니라"고 대답하셨도다. 이와 같이 아홉 번을 대답하시고 "그만 알아두라"고 이르셨도다.

- 대순사상에서는 9개 이상의 하늘이 중첩되어 존재함을 시사
- 하늘 밖의 하늘 (구천)과 천지인으로 구분된 하늘
- 각 천계의 독립성과 연결성을 동시에 내포 궁극적
- 으로는 상제에 의해 통솔되는 질서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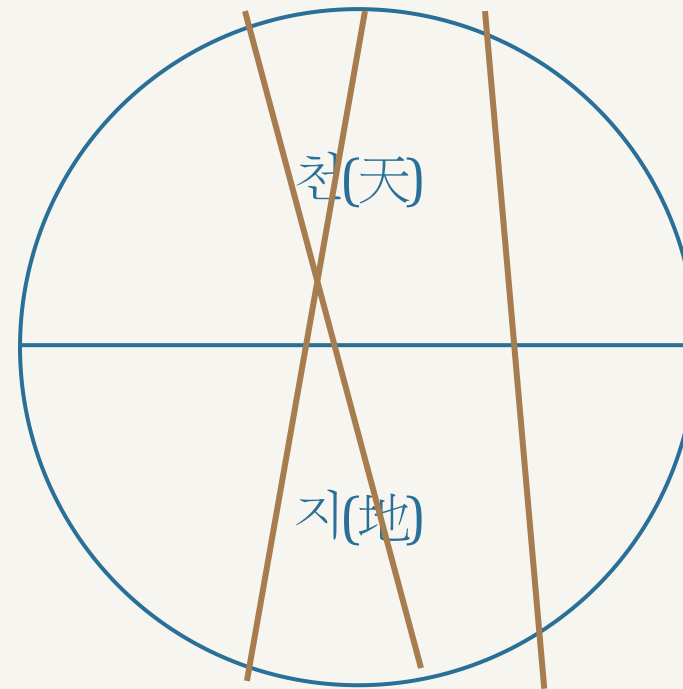


구천응원뇌성 보화천 존강성 상제: 뇌성의 의미와 천지 창조

뇌성(雷聲)이라 함은 천령(天令)이며 인성(仁聲)인 것이다. 뇌(雷)는 음양이기(陰陽二氣)의 결합(結合)으로써 성뢰(成雷)된다.

뇌(雷)는 성(聲)의 체(體)요, 성(聲)은 뇌(雷)의 용(用)으로써 천지(天地)를 나누고 동정진퇴(動靜進退)의 변화(變化)로 천기(天氣)와 지기(地氣)를 승강(昇降)케 하며 만물(萬物)을 생장(生長)하게 하고 생성변화(生成變化) 지배자양(支配滋養)함을 뜻함이며

- "천지를 나누고" - 천지가 상제에 의해 뇌성으로 나누어져 만들어짐
- "천기(天氣)와 지기(地氣)를 승강(昇降)케 하며" - 천계와 지계의 상호작용
- "만물(萬物)을 생장(生長)하게 하고" - 천지의 화육과 만물의 생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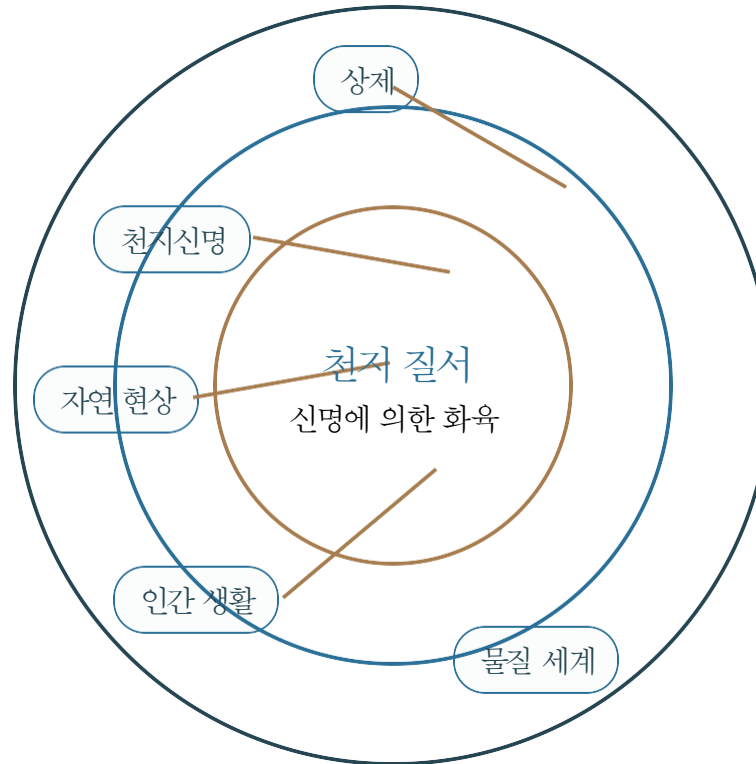
음양이기(陰陽二氣)의 결합(結合)으로 뇌성(雷聲)이 천지를 창조하고 조화함

천지 운행의 체계: 신명의 역할

상제께서 종도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가라사대

"칠 산(七山) 바다에서 잡히는 조기도 먹을 사람을 정하여 놓고 그물에 잡히며 농사도 또한 그와 같이 먹을 사람을 정하여 놓고 맺느니라. 굶어 죽는 일은 없느니라"

- 인간의 **길흉화복**을 포함한 천지의 운행이 신명에 의해 결정됨
- 천지신명이 **우주 질서**를 유지하고 만물의 생성과 분배를 주재함
- 자연계의 작은 현상(조기의 어획)까지도 **신명의 질서 체계** 안에서 이루어짐
- 이러한 천지 체계가 상제에 의해 **조화되고 통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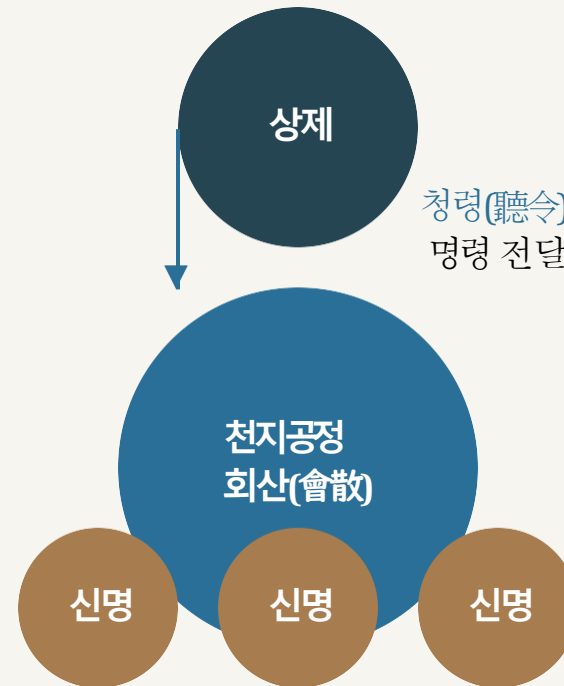
천지신명의 회산과 청령

상제께서 하루는 김 형렬에게 "삼계 대권을 주재하여 조화로써 천지를 개벽하고 후천仙境(後天仙境)을 열어 고해에 빠진 중생을 널리 건지려 하노라"

"이제 말세를 당하여 앞으로 무극대운(無極大運)이 열리나니 [...] 순결한 마음으로 천지 공정(天地公庭)에 참여하라"

고 이르시고 그에게 신안을 열어 주어 신명의 회산과 청령(聽令)을 참관케 하셨도다.

- 회산(會散): 천지신명이 모였다 흩어지는 모임으로 상제의 뜻을 전달받는 체계
- 청령(聽令): 천지신명이 상제의 명령을 듣고 수행하는 과정
- "천지의 조화로 풍우를 일으키려면 무한한 공력이 드니 모든 일에 공부하지 않고 아는 법은 없느니라."



묵은 하늘과 새 하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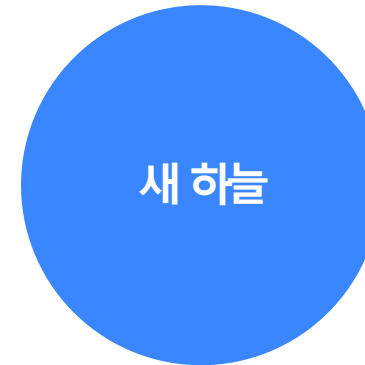
상제께서 어느 날 종도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묵은 하늘은 사람을 죽이는 공사만 보고 있었도다. 이후에 일용 백물이 모두 핏절하여 살아 나갈 수 없게 되리니 이제 뜯어고치지 못하면 안 되느니라"

상제께서 공사를 끝내시고 가라사대 "간신히 연명은 되어 나가게 하였으되 장정은 배를 채우지 못하여 배고프다는 소리가 구천에 달하리라"

- 하늘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묵은 하늘이 될 수 있음
- 묵은 하늘은 사람을 죽이는 공사만 보고 있어 개혁이 필요한 상태
- 상제께서 사흘 동안의 공사를 통해 하늘을 뜯어고침
- 하늘의 변화와 개혁은 상제의 의도에 따라 진행됨



→ 상제의 공사



천계의 개선과 변화를 통한
만물의 조화로운 화육

결론: 기존 천관과의 차이점 및 의의

동양의 천관

- 내재천: 우주 내부에 존재하는 하늘
- 성리학 이후 천외천 개념 은폐

서양의 천관

- 초월천: 우주를 초월한 하늘
- 근대에 이르러 "신은 죽었다"라는 표현으로 부정

대순사상의 천관: 천외천(天外天)의 개념

- 기존 하늘을 인정 하되 낮은 하늘(목은 하늘)로 보고 새 하늘로 교체
- 가종(加宗)의 개념으로 천관 제시 - 기존 천관을 포월(包越)
- 동양의 내재천과 서양의 초월천을 종합적으로 융화
- 신명의 청령과 회산이라는 기존 하늘의 개념을 계승 발전

대순사상의 천관이 갖는 의의

- 성-속의 관계 재배치: 일상 속에 성(聖)이 들어옴
- 자생적 탈근대성으로의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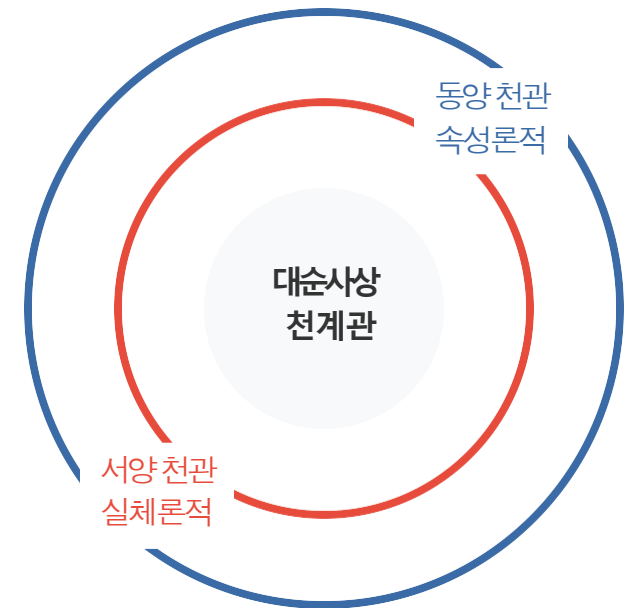
인신강세(人身降世) 천계관(天界觀)에 나타난 동서양 천관(天觀)의 재활성화

Revitalization of East-West Views in Insin-gangse

- 
- 
- 1 서론
 - 2 대순사상과 인신강세 천계관 개요
 - 3 유불선 천관의 해석과 음양오행 원리
 - 4 토극수와 금화교역: 동양 천관의 핵심
 - 5 대순사상과 서양 천관의 통합 및 차이
 - 6 구천대원조화주신 개념의 재조명
 - 7 현대적 의의: 포스트모더니즘 관점
 - 8 결론 및 시사점

대순사상과 천관의 통합적 이해

- 1 대순사상은 동서양 천관(天觀)을 통합적으로 해석하며, 인신강세(人身降世) 천계관(天界觀)을 통해 새로운 사상적 지평을 개척함
- 2 동양사상의 속성론적 천관과 서양의 실체론적 천관이 대순사상에서 이중으로 실체화되어 나타남
- 3 '토극수(土克水)'와 '금화교역(金火交易)'의 원리를 통해 유불선(儒佛仙) 천관의 한계를 극복하고 재활성화함
- 4 구천대원조화주신(九天大元造化主神)의 개념을 통해 초월과 내재가 조화된 새로운 천관 패러다임을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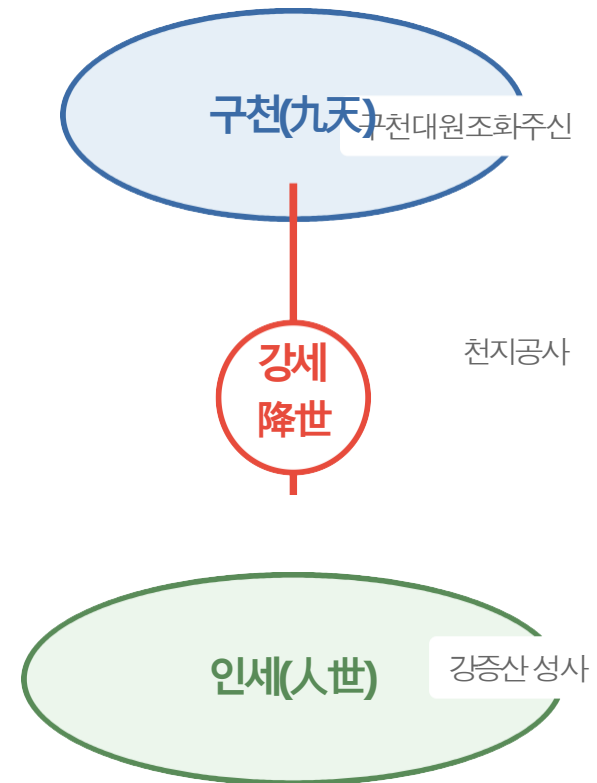


인신강세(人身降世)의 개념과 의의

인신강세의 정의

신적 존재가 인간의 몸으로 강림하여 천계의 질서가 인간 세계에 실현되는 현상으로, 천계와 인간계의 직접적 연결을 의미함

- 1 대순사상에서는 **구천대원조화주신(九天大元造化主神)**이 강증산(姜甌山) 성사(聖師)로 인세에 강림하여 천지공사(天地公事)를 행함
- 2 『전경』에 "구천대원조화주신(九天大元造化主神)으로서 삼계대권(三界大權)을 주재(主宰)하시고 천하(天下)를 대순(大巡)하시다가 인세(人世)에 대강(大降)"이라 기록됨
- 3 인신강세를 통해 추상적 천관이 실체적 신성으로 전환되며, 동양의 내재적 천관과 서양의 초월적 천관이 통합됨
- 4 "상도(常道)를 잃은 천지도수(天地度數)를 정리(整理)"하며 새로운 후천(後天) 질서를 수립함



유불선 천관과 음양오행 원리

음양오행과 '토(土)'의 특수성

- 1 유불선 3교의 천관은 음양오행 원리를 공유하지만, 대순사상은 '토(土)'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특별한 해석을 제시함
- 2 **토극수(土克水)**의 원리는 오행 중 '토'가 갖는 이중적 속성, 즉 목화금수와 달리 음양을 모두 내포하는 특수성을 보여줌
- 3 구천상제의 "왼 손바닥에 임(壬) 자와 오른 손바닥에 무(戊) 자가 있음"은 전형적인 토극수 원리를 인신강세를 통해 실체화한 것
- 4 하도(河圖)의 상생원리와 낙서(洛書)의 상극원리 사이의 전환은 '토'가 목화금수의 순환을 중재하는 역할을 통해 가능함

"五行之義 土克水也" (오행의 대의는 토극수에 있다) - 『포박지』



토극수와 금화교역의 원리

오행의 핵심 원리

■ 토극수(土克水)의 의미

음양오행에서 토(土)는 목화금수(木火金水)와 달리 음양을 모두 가진 특별한 존재로, 오행의 순환과 변화에 중심적 역할을 담당함

“五行之義土克水也”(오행의 대의는 토극수에 있다) - 『포박자(抱朴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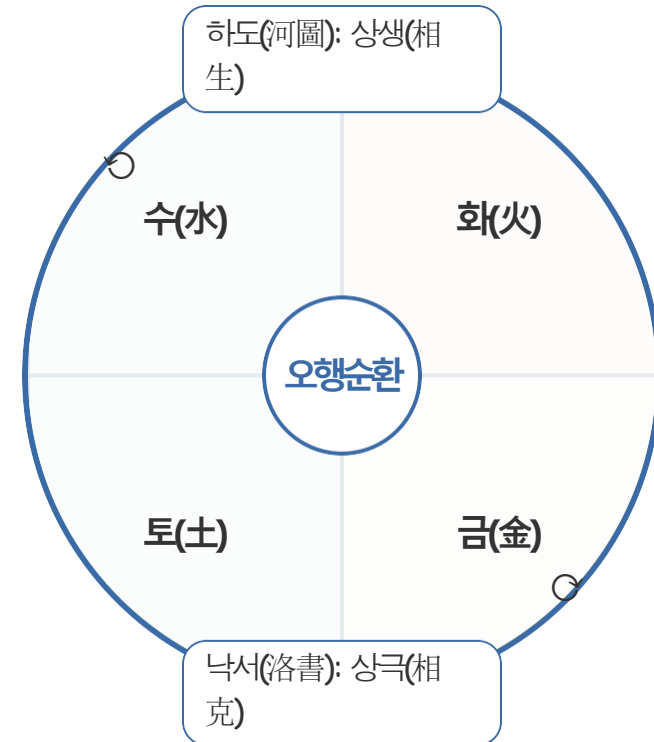
■ 금화교역(金火交易)의 원리

하도(河圖)와 낙서(洛書)의 전환에서 금(金)과 화(火)가 위치를 바꾸며, 상생(相生)과 상극(相克) 관계를 변환시키는 핵심 메커니즘

■ 천지 운용의 원리

“내가 천지를 돌려놓았음을 어찌 알리오”라는 대순사상의 표현은 8괘(八卦)의 순서 변경을 통한 우주 운행의 변화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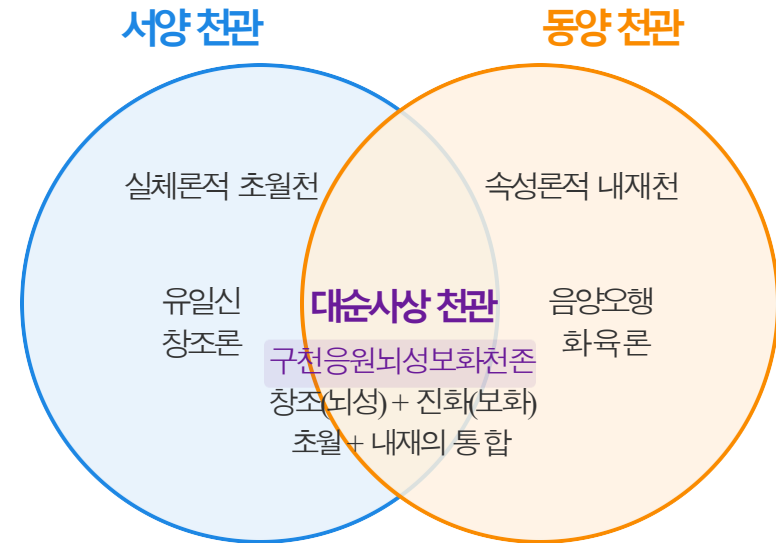
“천지 대팔문(天地大八門) 일월 대어명(日月大御命) 금수 대도술(禽獸大道術) 인간대 적선(人間大積善)”



대순사상과 서양 천관의 통합

동서양 천관의 통합적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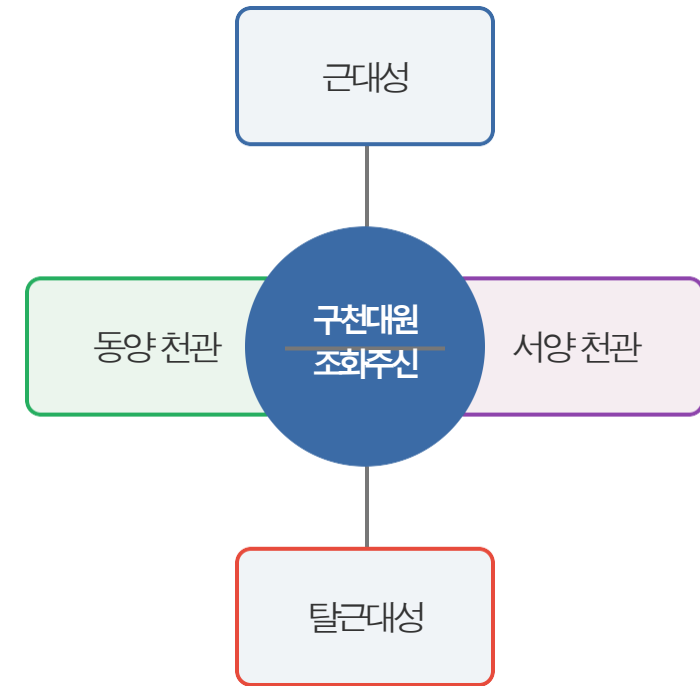
- 1 대순사상은 서양의 실체론적 초월천관과 동양의 속성론적 천관을 결합하여 이중적으로 실체화된 새로운 천관을 제시함
- 2 구천의 신위에는 음양오행적 속성이 명확히 표현되고 있으며, 서양 천관과 달리 신명(神明)의 개입이 특징적으로 나타남
- 3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강성상제" 신위 중 "뇌성"은 창조의 의미를, "보화"는 만유의 진화를 의미하여 창조론과 진화론의 논쟁을 해소함
- 4 『전경』 「교법」 1-66에 "서교는 신명의 박대가 심하니 감히 성공하지 못하리라"는 구절은 서양 천관이 초월천을 강조했으나 내재신인 신명을 부정한 한계를 지적함
- 5 대순사상은 천지의 '성공'을 천지와 유사한 인간의 배출로 정의하며, 초월적 천관과 내재적 천관의 조화를 통해 리미널리티의 포월성(胞越性)을 실현함



구천대원조화주신의 의의와 현대적 시사점

리미널리티와 포스트모더니즘적 해석

- 1 구천대원조화주신은 동양의 속성론적 천관과 서양의 실체론적 천관을 아우르는 리미널리티(경계성)를 통해 새로운 통합적 패러다임을 제시함
- 2 '토극수(土克水)'와 '금화교역(金火交易)'의 원리는 음양오행의 재해석을 통해 동서양 천관의 한계를 극복하고 천지화육(天地化育)의 새로운 모델을 형성함
- 3 대순사상은 1980년대 이후 현대 한국사회에서 활성화되면서, 포스트모더니즘 관점에서 종교적 다원주의에 대한 해결책으로 재조명받고 있음
- 4 아놀드 토인비가 말한 실존주의 이후의 실존 개념과 맥락을 같이하여, 현대사회의 종교운동에 실존적 의미와 다원적 통합의 방향성을 제공함



2

천지성경신(天地誠敬信) 지계관(地界觀)의 자생적 근대성

Autogenous Modernity of the Cheonji-Seonggyeongsin View of Earthly Realm

서론: 연구 배경과 문제의식

- 동학사상 및 한국 종교철학의 지관(地觀)
전통적인 천지인(天地人) 삼재사상과 동학의 지관 개념의 발전
- 대순사상이 제기한 자생적 근대성 문제의식
서구 중심의 근대성을 넘어선 동양적 근대성의 가능성 모색
- 지계관의 의미와 연구 필요성
천지신명(天地神明)의 삼계 시스템에서 지계가 가지는 특별한 위상과 해원(解冤)의 장으로서의 역할
- 연구방법 및 접근방식
『전경』을 중심으로 한 문헌 연구와 천지성경신 개념의 현대적 해석

지관(地觀)과 인신강세

- 인신강세(人身降世)의 개념과 의미

구천상제가 인간 모습으로 강세함으로써 속성과 실체의 두 성격을 동시에 지니게 됨. 다중적 지관(地觀)의 성립 배경이 됨.

“나는 서양(西洋) 대법국(大法國) 천계탑(天啓塔)에 내려와서 천하를 대순하다가 삼계의 대권을 갖고 삼계를 개벽하여 선경을 열고 시멸에 빠진 세계 창생들을 건지려고 너희 동방에 순화하던 중이 땅에 머문 것은...”

- 조선에서의 인신강세 이유

무명의 악소 민족을 돕고 만고에 쌓인 원을 풀어주기 위함. 특히 조선이 신명을 가장 잘 대접하는 나라였기에 선택됨.

- 삼신산과 땅의 성격

정읍의 삼신산(봉래산, 영주산, 방장산)은 땅의 중심으로서 인신강세의 지리적 배경. 천지의 음양합덕 관점에서 땅의 중심 역할.

- 해원과 땅의 관계

"이제 해원시대를 맞이하였으니 사람도 명색이 없던 사람이 기세를 얻고 땅도 버림을 받던 땅에 기운이 돌아오리라." 땅의 해원은 천지공사의 핵심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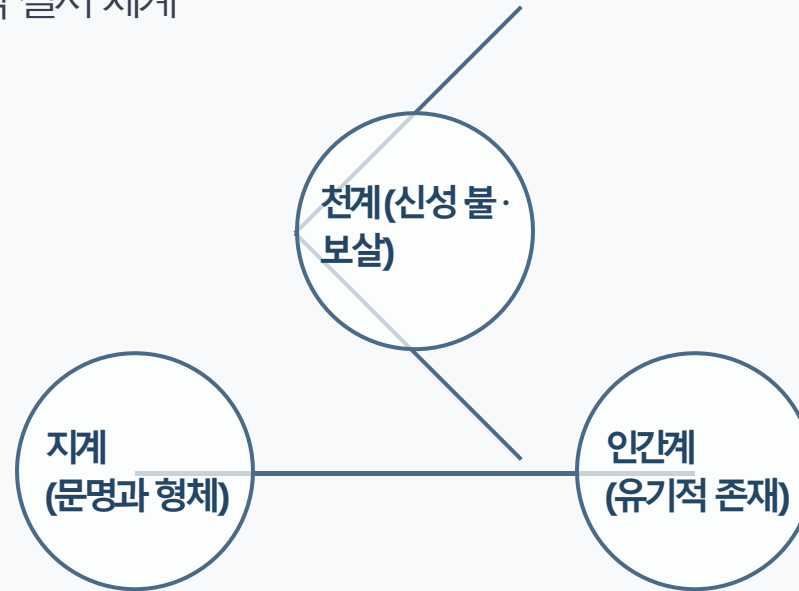
지계관의 근대성: 해원과 원시반본

| "이제 해원시대를 맞이하였으니 사람도 명색이 없던 사람이 기세를 얻고 땅도 버림을 받던 땅에 기운이 돌아오리라."

- 원시반본(原始返本)의 원리
강(姜)성의 재출현과 같이 원래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천지공사의 핵심 원리
- 해원(解冤)의 지계적 의미
무명의 악소민족과 삼신산 같은 지리적 성지(聖地)를 통한 해원공사의 실현
- 리미널리티(liminality)와 해원의 방법론
일본해원과 조선보은의 역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상극에서 상생으로의 전환
- 자생적 근대성의 전개
물질에 치우치지 않은 대안적 근대성의 발전과 한국에서 나타난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산업화, 문화적 선진화

천지성경신(天地誠敬信)과 삼계 시스템

- 천지신명(天地神明) 개념
천지를 운행하는 신명의 지극한 성경신(誠敬信)에 의해 세계가 운행됨
- 삼계(三界) 시스템 구조
천계, 지계, 인간계로 이루어진 우주적 질서 체계



"天地誠敬信"

천지의 운행은 천지신명의 지극한 성경신을 통해 이루어짐

유불선과 동서양 지관의 재활성화

- 유불선의 지계관 주요 원리
 - 儒 포태(胞胎) - 예(禮)와 질서의 형성 방식 양
 - 佛 생(養生) - 정신적 수행과 심신 정화의 공간
 - 仙 욕대(浴胎) - 자연과의 합일과 신선 사상의 지형적 토대
- 삼신산부모산 등 성지와 명당 개념
봉래산(蓬萊山)·영주산(瀛洲山)·방장산(方丈山)의 삼신산과 지기(地氣) 통일, 지맥(地脈)을 통한 에너지의 흐름과 성지의 풍수지리적 특성
- 풍수지리와 전통현대의 융합
동양의 풍수원리와 서양의 공간지리학 융합, 천지인 삼재의 조화로운 배치를 통한 해원의 공간 창출, 정음정양(正陰正陽)을 통한 지계질서 재편
- 재활성화의 현대적 의미
지역성과 보편성의 조화, 자연과 인간의 공존 모델 제시, 인간과 신명이 조화를 이루는 지계관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양 근대성과의 비교

- 서양 실체론적 지관(地觀)
물질적, 기계적 관점에서 바라본 땅의 이해 – 서양 지관은 주로 소유와 개발의 대상으로서 땅을 이해

서구의 근대성



과거를 폐기하고 미래만 지향 물
질적 발전과 기계적 효율성 추구
인간과 자연의 분리, 착취적 관계

대순사상의 자생적 근대성



해원(解冤)을 통한 과거와의 화해
물질과 정신의 조화로운 발전 천지
인(天地人) 삼재의 상생적 관계

- 서구 근대성에 대한 대순사상의 평가
"해원 없는 서구의 근대성은 과거의 원을 더 증폭시켜 인류를 돌아오지 못할 진멸지경에 닥치게 하였다"
- 신명(神明)과 기계 문명
서양의 기계문명은 신명을 박대(薄待)하여 물질적 성취에만 집중했으나, 대순사상은 신명을 우대(優待)하는 조선에서 천지공사가 시작되었다고 인식
- 동서문명의 균형과 통합
마테오 리치(利瑪竇)로 시작된 동서 문명교류를 천지공사를 통해 재조정하고 새로운 통합적 세계관 제시

결론: 동서융합과 지상천국론

대순사상의 지계관은 동서양의 사상을 아우르는 자생적 근대성의 중요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합니다

- 지상천국(地上天國)의 사상적 의미
해원과 보은을 통한 상생의 원리, 천지의 원한 해소를 통한 후천 선경의 실현
- 후천 질서와 인간신명의 역할
천지성경신을 통한 신인의도(神人依導), 신명과 인간의 상호보완적 관계 구축
- 동서양유불선의 통합적 전망
서양의 실체론과 동양의 기화론을 아우르는 통합적 사유체계 제시, 물질문명을 넘어선 정신문명 발전 방향 모색

향후 연구 방향

대순사상의 지계관을 기반으로 현대사회의 환경공간토지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 모색



■ 가 지계관(地界觀)으로서의 지관(地觀)

View of Earth as the Earthly Realm

연구 개요 및 목적

▣ 연구 배경

대순사상의 천관(天觀)과 지관(地觀)에 대한 현대적 의의 고찰
땅에 대한 관점으로서의 지계관이 가지는 사상적·철학적 중요성

▣ 연구 목적

대순사상의 지계관 분석 및 동학사상 등과의 비교 연구근대성해
원상생 등 주요 의제를 통한 지계관의 현대적 의의 도출인신강세
와 천지공사의 지계관적 측면 고찰



대순사상과 동학사상의 지관(地觀) 비교

대순사상의 지관

- 구체적 신명계(神明界) 포함
- 실체적 지계(地界)로 표현
- 구천 아래의 천지개념 포괄
- 땅은 신명으로 이루어진 형체를 가진 대표적 존재

동학사상의 지관

- 무위이화(無爲而化) 강조
- 기화(氣化), 조화 등 보이지 않는 실체로 표현
- 구천 아래의 천지개념 포괄
- 추상적 원리로 지관 설명

두 사상의 지계 포괄성과 차이점

두 사상 모두 다중적 지관을 가지나, 대순사상은 신명계를 포함한 지계로 구체화하여 표현하고, 동학사상은 보이지 않는 실체와 원리로 지관을 설명한다. 대순사상의 지관은 인신강세를 통해 속성과 실체의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가지게 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 『전경』 [공사] 3-5, 『행록』 4-17 등 관련 근거 참조

인신강세와 조선 선택의 배경

인신강세(人神降世)의 개념

- 구천(九天)의 상제가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강림하는 현상
- 속성과 실체의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가지게 됨
- 천지의 도수를 조정하고 만고의 신명을 조화하기 위한 강세
- 인간 세계에서 천지공사를 행하기 위한 필수적 전제 조건

조선이 선택된 이유

무명의 약소민족 해원

"참화 중에 문힌 무명의 약소 민족을 먼저 도와서 만고에 쌓인 원을 풀어 주려 함이노라"

『전경』 「원지」 1-11

신명 우대의 전통

"조선과 같이 신명을 잘 대접하는 곳이 이 세상에 없도다"

『전경』 「교법」 3-22

삼신산의 성지(聖地)

"봉래산영주산방장산의 세 산이 삼신산으로 불리어 오던 곳으로다"

『전경』 「행록」 1-2

인신강세로 시작된 대순사상의 지계관은 땅을 신명으로 구성된 실체로 보며, 조선의 선택은 역사적 배경과 함께 천지공사를 통한 세계 질서 재편의 시작점이 된다.

천지공사와 지계관의 성립

천지공사란

- 세계 질서 재편을 위한 신적 공사
- 해원으로써 만고의 신명을 조화
- 천지의 도수를 조정하여 선경 세움
- 신명을 통한 땅의 변화 시작

지계관 성립 과정

- 구천의 인신강세로부터 시작
- 구천이 동토에 그쳐 조선에 강세
- 삼신산(蓬萊山·瀛洲山·方丈山)의 성지적 의미
- 천계와 지계의 음양합덕 구현

원시반본(原始返本)의 원리

천지공사에서 지계관 성립의 핵심 원리로, 세계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姜)성이 일을 맡게 된 근거이자 조선에서 인신강세가 이루어진 원리적 배경입니다.

원시반본의 원리에 따라 땅의 중심인 삼신산이 있는 조선이 천지공사의 무대가 되었으며, 지계관은 천지공사를 통해 실질적인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이 세상에 성으로는 풍(風)성이 먼저 있었으나 전하여 오지 못하고... 그 다음은 강(姜)성이 나왔으니 곧 성의 원시가 되느니라. 그러므로 개벽시대를 당하여 원시반본이 되므로 강(姜)성이 일을 맡게 되었나니라"

- 『전경』 「행록」 4-17

* 『전경』 「공사」 3-5, 「예시」 29, 「행록」 1-2 등 관련 근거 참조

해원사상과 지계관의 관계

• 해원(解冤)의 의미

원과 한(恨)을 풀어 근본적 문제를 해소하는 대순사상의 핵심 원리

「이제 해원시대를 맞이하였으니 사람도 명색이 없던 사람이 기세를 얻고 땅도 버림을 받던 땅에 기운이 돌아오리라.」【전경】「교법」 1-67)

천지의 도수를 조정하고 만고의 신명을 조화하는 과정에서 해원은 필수적 과정

동학의 실패 원인

- 해원사상의 부재
-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 부족
- 개틀링(Gatling Gun) 등 서구 무기에 대한 인식 부재
- 전국적 규모의 봉기였으나 전략적 준비 미흡

대순사상의 참동학화

- 「나를 좇는 자는 영원한 복록을 얻어 불로불사하며 영원한 선경의 낙을 누릴 것이니 이것이 참 동학이니라.」【전경】「권지」 1-11)
- 해원사상의 도입으로 동학의 한계 극복
- 천지공사를 통한 실질적 변화 추구

지계관과 해원의 연계

땅의 해원은 천지공사 중 해원공사의 주요 취지로, 인신강세가 조선에서 이루어진 이유와 깊은 관련이 있다. 대순사상은 지계관을 통해 과거의 해원 없는 서구의 근대성을 극복하고, 진정한 자생적 근대성의 원리를 제시한다. 지계관은 천계관보다 상대적으로 원(冤)이 많은 영역으로, 인신강세를 통해 해원의 장(場)으로 작용한다.

* 『전경』 「공사」 3-5, 「교법」 1-67, 「권지」 1-11 등 관련 구절 참조

대순사상 지계관의 근대성

대안적 근대성: 해원과 상생의 원리

- 서구 근대성: 과거 폐기, 미래 지향적 전망 중심대순사
- 상 근대성: 과거의 해원을 통한 상생적 미래 구축지계관
- 에서 출발하는 자생적 근대성 모색

한국 근대화와의 연관성

- 천지공사 시작 시기 GNP 세계 최하위 수준이던 한국
- 식민지 경험국 중 유일하게 성취한 삼중 근대 화: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산업화

문화적
선진화

“진정한 근대성은 해원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대순사상에 나타난 자생적 근대성의 원리이고 이는 천계관보다 상대적으로 원이 많은 지계관으로부터 시작되며 인신강세 이후에야 가능한 것이었다.”

* 『전경』의 관련 구절을 참조한 해석임

결론 및 시사점

▲ 대순사상 지계관의 학술적·사회적 의의

인신강세를 통한 형이상학적 지계와 형이하학적 지계의 통합적 이해 원시

반본의 원리가 적용된 지계관의 특수성과 현대적 재해석

- 한국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지계관의 실질적 영향력 고찰
-

▲ 동아시아 사상의 지평 확대

- 천지공사를 통한 동아시아 지계관의 새로운 해석 제시
- 동학과 대순사상의 지관 비교를 통한 한국 종교사상의 특수성 재발견
- 서구 근대성에 대한 대안적 사유 체계로서의 가능성 모색

▲ 해원·상생의 현대적 가치 제언

지계관에 담긴 해원·상생의 원리는 현대 사회의 갈등 해소와 공존 방안으로서 재조명될 필요가 있으며, 과거의 원에 대한 해결 없이 미래로만 나아가는 서구 근대성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적 패러다임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전경』의 관련 구절들을 중심으로 정리된 해석임

나

천지성경신(天地誠敬信)의 지계관(地界觀)

View of Earthly Realm based on Cheonji-Seonggyeongsin

연구 개요 및 배경

- 동학과 대순진리회 등 동양사상에서의 땅[地]의 의미
- 천지성경신 및 삼계론이 등장한 학술적 배경
- 본 연구의 목적과 의의

符

동학사상의 지관(地觀) 개념

- 동학에서의 땅: **조화(造化)**, **무위이화(無爲而化)**, **기화(氣化)**
 - 땅에 대한 이해는 추상적이고 이법적인 개념으로 제시됨
- 이법적 · 추상적 땅 개념
 - 초월천이 동양사상에 다시 출현하는 계기이면서도 인격적 신명보다 추상적 형태로 나타난다
- 동학의 천지귀신과 대순사상 천지신명의 비교
 - 동학: **천지귀신** 개념으로 추상적 이해 대
 - 순: **천지신명** 개념으로 인격적 신명 출현

귀신

대순사상의 신명체계와 삼계론

- 대순사상에서의 땅: **천지신명** 개념

- 구천의 출현으로 땅은 인격적 **신명**의 모습으로 인간에게 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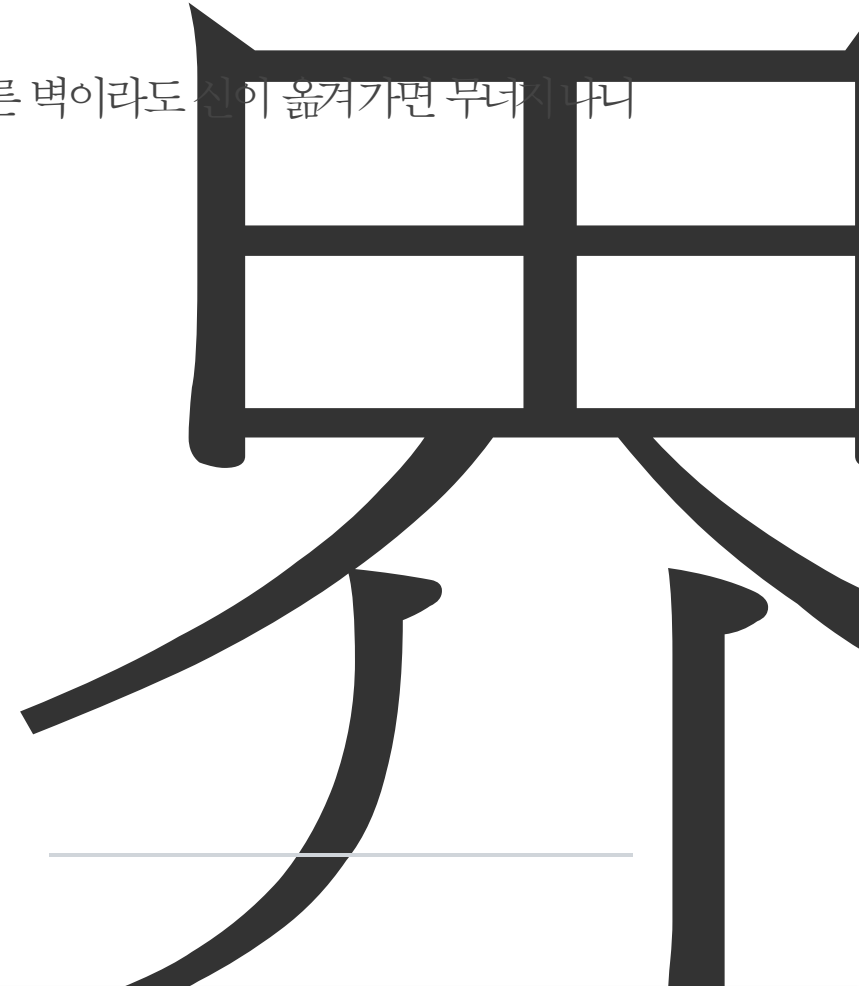
“천지에 신명이 가득 차 있으니 비록 풀잎 하나라도 신이 떠나면 마를 것이며 흙 바른 벽이라도 신이 옮겨가면 무너지나니
라.”

- **삼계(三界)**와 신명 시스템

- **천계**: 신성·불·보살이 모여 상제께 하소연하는 천상공정 자리
- **지계**: 문명과 형체의 세계, 지하 문명신이 천상에서 배워 인세에 베푸는 곳
- **인간계**: 인간의 시스템, 신명과 상호작용하는 세계

- 신명의 **특수성**과 인간과의 대비

- 신명: "진리에 지극"한 **기계적 전문가**, 특정 분야에 특화된 존재 인
- 간: 여러 분야에 **두루 통하는 유기적 존재**, 신명 간 조화 가능케 함



천지성경신(天地誠敬信)의 의미와 특징

- 성(誠) · 경(敬) · 신(信)의 통합적 개념
 - 일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의 총체를 의미
 - 자연의 원리이자 인간수도의 원리로 작용
- 신명과 인간의 **해원 · 보은** 관계
 - 인간과 신명이 성경신을 공유하며 상호작용
 - 성경신을 통한 **신인의도(神人依導)**의 실현
- 천지 화육의 원리로서의 성경신
 - 대순사상에서 신명의 **지극한 성경신**으로 표현
 - "天地誠敬信" - 천지의 운행이 성경신에 의해 이루어짐

誠敬

신인(神人) 의도(依導) 관계

- 신명과 인간의 상호의존적 보완관계

"神人以陰陽成造化..(중략) 神無人後無托而所依人無神前無導而所依"

- 신인으로써 음양의 조화를 이룬다. 신은 사람이 없으면 의탁할 바가 없고, 사람은 신 앞에 없으면 이끌어 의지할 바가 없다.

- 음양적 조화와 **의탁(依)**, **인도(導)**

- 신명: 한 분야에 특화된 **기계적 신명** (진리에 지극 함)
- 인간: 여러 분야에 두루 통하는 **유기적 존재** (책임자적 성격)

- 해원과 보은의 신인(神人) 시스템

- 신명과 인간은 **성경신(誠敬信)**을 공유하며 해원과 보은을 이룸
- 천지 운행에 핵심적인 **신인의도(神人依導)**의 상보적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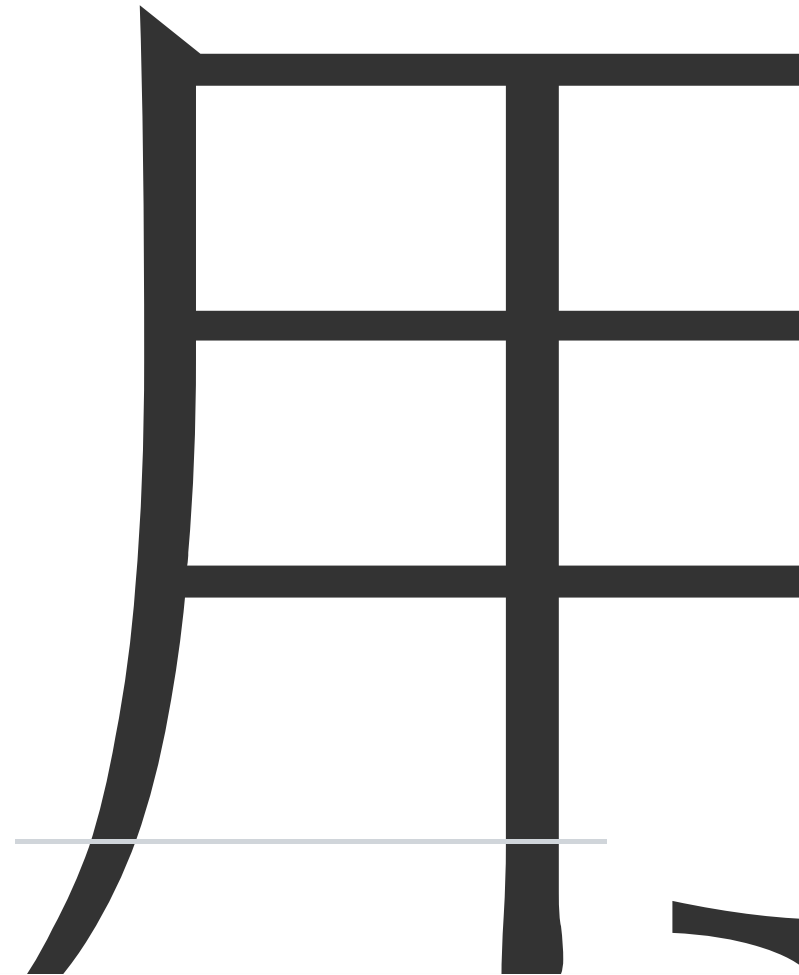
神

정음정양과 지상천국

- 선천 vs 후천: **정음정양(正陰正陽)**의 개념
 - 선천: 천지가 다중적 대응 관계였던 시대
 - 후천: 천지가 1대 1로 대응하는 정음정양의 시대
- 상생의 천지관계와 **지상천국**
 - 선천의 상극관계: **양존음비(陽尊陰卑)**, **억음존양(抑陰尊陽)**, **천존지비(天尊地卑)**
 - 후천의 상생관계: 하늘나라가 땅에서 이루어져 땅이 천국이 됨
- 대순사상의 천지관계 상생화 의미
 - "너는 정음 정양의 도수니 그 기운을 잘 견디어 받고 정심으로 수련하라" (『전경』 공사 2-16)
 - 천지 음양의 조화를 통한 천인합일(天人合一)의 실현

12운성과 천지지용(天地之用)

- 12운성(運星)의 체계
 - 포태(胞胎), 양생(養生), 욕대(浴帶), 관왕(冠旺), 쇠병(衰病), 사장(死葬)
 - | "天地之用 胞胎養生浴帶冠旺衰病死葬而已" - 『전경』 「제생」 43
- 원형이정(元亨利貞)과 체용(體用) 관계
 - 원형이정은 천지지도(天地之道)이고 12운성은 천지지용(天地之用)
 - 체(體)인 5운이 현실적으로는 6기(氣)라는 용(用)으로 나타남
- 천지화육(天地化育)과 삼덕(三德)의 관계
 - 12운성이 6용(用)으로 나뉘고 포태, 양생, 욕대는 천지인의 삼덕에 해당
 - | "六用三德 三德則天德地德人德也 統合謂之大德也" - 『전경』 「제생」 43



결론 및 의의

- 대순사상의 지계관의 철학적 · 근대적 의미 정립
 - 신명 시스템으로서의 지계를 통한 **천지지용**(天地之用)의 지계관 정립
 - 성-속의 재배치를 통한 근대성과 탈근대성으로의 전환
- 동서양 사유의 통합적 의의
 - 동양의 응축적 지관, 서양의 질료적 지관, 동학의 조화정적 지관을 통합한 새로운 지계관
 - 정음정양(正陰正陽)을 통한 천지관계의 상생화
- 현대적 의의와 후속 연구 제언
 - 리미널리티(liminality) 방식의 **해원**과 **상생** 개념의 현대적 적용
 - 12운성의 체용(體用) 원리와 현대 우주관의 철학적 연계성 연구





천지성경신(天地誠敬信) 지계관(地界觀)에 나타난 동서양 지관(地觀)의 재활성화

Revitalization of East-West Views in Cheonji-Seonggyeongsin

목차

- 1 천지성경신 및 지관 개념
하늘땅인간신의 상호작용 세계관과 그 철학적 의미
- 2 동양 지관의 특징과 사례
천지성경신 기반의 통합적 접근과 역사적 실천 사례
- 3 서양 지관의 특징과 사례
데카르트, 라이프니츠 등 철학적 공간관과 도시계획
- 4 동서양 지관의 비교
전체론적 관점과 개체론적 관점의 차이와 영향
- 5 현대적 재활성화 논점
도시계획, 환경정책에 전통 지관 개념의 융합과 복원
- 6 결론 및 시사점
기후위기 및 복합사회에서 지관의 미래적 의의

천지성경신 및 지관의 개념



천지성경신(天地聖敬神)

- 하늘(天)과 땅(地), 인간(聖), 신(神)의 유기적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동아시아 특유의 자연관
- 종교철학정치행정이 결합된 통합적 세계관으로 실천적 구현을 중시
- 인간과 자연, 신명(神明)이 상호 연결되어 조화를 이루는 전체론적 체계



지관(地觀)

-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닌, 세계의 질서공동체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장소 개념
- 하늘, 자연, 인간, 신이 만나는 접점으로서의 땅에 대한 인식 체계
- 국가행정, 제의, 종교, 생활세계에서 통합적으로 작동하는 사회문화적 실체

동양지관의 특징 및 사례

○ 천지성경신 기반의 통합적 접근

- 자연(天地)·인간신(神)의 조화를 중심으로 한 전체론적 세계관
- 장소와 공간에 내재된 신성(神性)과 기(氣)의 흐름을 중시

🏛️ 통치/제의/행정에 반영된 지관

- 국가의례, 도성 및 궁궐 배치에 반영된 천지관념 제
- 왕의 통치행위와 민간 의례에서 지관의 실천적 구현

🕒 고대 중국 삼황오제

우임금(禹任公)의 치수사업과 토지구획은 천지성경신 지관이 반영된 고대 통치의 대표적 사례

🏛️ 한반도 왕조 사례

삼국시대부터 조선까지 이어진 풍수지리와 명당론에 기반한 도시계획 및 왕실 의례

🔄 현대적 복원 시도

한국 전통공간의 현대적 재해석과 지관 개념을 접목한 도시계획 및 문화유산 복원 사업

서양자관의 특징 및 사례



철학적 기반과 세계관

- 데카르트의 이원론(Cogito ergo sum) - 정신과 물질의 분리에 기초한 주체-객체 중심
- 공간관 라이프니츠의 모나드론(單子論) - 개체의 독립성과 자족성에 기반한 실체론적
- 세계 인식 범신론(pantheism)과 아리스토텔레스의 4원소설 - 신/자연과 물질의 관계 설정



사례와 현대적 영향

- 고대 그리스·로마의 신전과 도시 설계 - 신성성과 기하학적 질서의 결합
- 근대 이후 도시계획 - 기능성과 효율성 중심의 공간 구성과 사면의 도구적 활용
- 현대 환경철학과 도시계획에서의 변화 - 지속가능성과 장소성 회복을 위한 노력

비교, 재활성화 논점 및 결론



동서양 지관의 비교

구분	동양 지관	서양 지관
철학적 기반	천지성경신, 음양오행, 전체론적 세계관	데카르트의 이원론, 라이프니츠의 개체론
공간 인식	내재적·응축적 지관, 관계적 장소	질료적 지관, 물질대상으로서의 공간



현대적 재활성화

- 도시계획: 생태적 도시공간, 공동체 활성화 지향 공간설계에 전통 지관 접목
- 환경정책: 자연과 인간의 공존, 상호작용 강조하는 생태적 관점 도입
- 동서양 지관의 융합: 서구적 효율성과 동양적 조화를 결합한 새로운 공간문화 모색



미래적 의의와 시사점

- 기후위기 대응: 천지성경신의 전체론적 세계관을 통한 기후변화 위기의식 함양
- 초연결 사회: 물리적·디지털 공간의 융합에 동서양 지관 통합 패러다임 제시
- 지소기능하 바저: 이가 지어 고가이 사생저 과게르 추그히는 새로운 지과 피오서

3

성사재인(成事在人) 인계관(人界觀)의 자생적 근대성

Indigenous Modernity of the View of Human Realm as Seongsajaein

목차

- 1 서론 - 인계관(人界觀)이란 무엇인가
- 2 구천(九天) 인신강세와 관계 변동
- 3 성사재인(成事在人) 사상: 권위의 이동
- 4 마음(心)의 철학적 의미
- 5 유불선(儒佛仙) 사상과의 비교
- 6 서양 근대성과의 차이
- 7 천지보은(天地報恩)과 인간윤리
- 8 삼계(天·地·人) 구조의 가변성
- 9 결론 및 자생적 근대성의 의의
- 10 참고문헌 및 문헌 출처

서론: 인계관(人界觀)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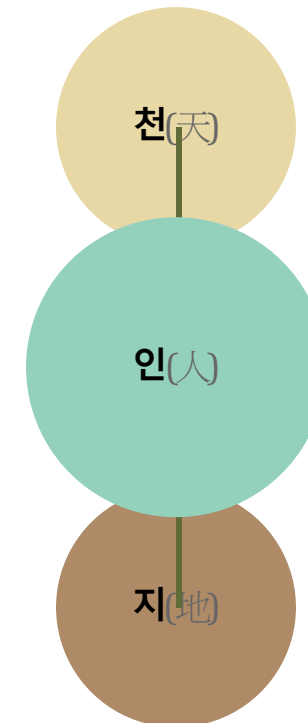
인계관의 정의와 의미

- 인계관은 대순사상에서 **인간 세계에 대한 관점**으로, 인간이 천지와 신명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담당
- **성사재인(成事在人)**: 모든 일의 성공은 인간에게 달려있다는 핵심 사상
- 구천상제의 **인신강세**로 인해 우주 질서가 재편성되고 인간의 지위가 상승
- 전통적 **천존지비인경**에서 **인존시대**로의 패러다임 전환

문제의식

- 인간-신명-천지의 관계 변동이 가져온 **새로운 우주론적 질서**
- 인간 중심 세계관이 동양 전통 및 서양 근대성과 어떻게 차별화되는가?

인계관의 삼차원적 구조



『대순진리회요람』 발췌:

"신인조화(神人調化)·해원상생(解冤相生)·도통진경(道通眞境)의 삼
대요체로 치천하(治天下)한다."

구천(九天) 인신강세와 관계 변동

구천의 인신강세란

- 구천(九天)의 상제께서 **인간의 몸(인신)으로 하강(강세)**하여 천지공사를 행함
- "구천대원조화주신이 인간 세상에 강림하여 삼계(天·地·人)를 구하는 구천상제의 대역사"
- **인계와 천계의 소통**: 신적 권위가 인간 세계에 직접 개입

신명·인간·천지의 관계 변동

- 전통적 **천존지비인경** 구도에서 **인간 중심**으로 권력 이동
- "천지는 일월이요 일월은 곧 일음 일양이라. 음양이 **합덕**하면 만물화생의 도가 있게 되느니라."
- **삼계개벽**: 천계, 지계, 인계의 구조적 변화를 통한 신질서 형성
- 신명(神明)의 위상 변화 — 상제의 **인간에게 권능 부여**

권위의 이동 도식



『전경』 발췌: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라. 마음을 부지런히 하라."

성사재인(成事在人) 사상: 권위의 이동·인존시대

인간중심적 세계관의 등장

- ◆ **성사재인**: "이제는 신도 인간을 통하지 않고는 천지 경영의 조화에 참여하기 어렵게 되었다"
- ◆ 전통적 **천존지비인경** 구도에서 **인존시대**로의 결정적 전환
- ◆ "천지의 이법을 쓰는 것은 사람이며, 천지의 조화를 이루는 것도 사람이다"

권한의 이양 과정

- ◆ 인간 주체성 확립: 천지 경영과 신도(神道)가 인사(人事)의 뜻에 맞추어짐
- ◆ 인간은 수동적 존재에서 우주의 **관리자경영자**로 위상 변화

"천하를 주재하는 것은 천존이나 지존이 아닌 인존이다... 이제부터 인존의 시대가 왔느니라"

- 『전경』

권위의 이동 흐름



과거 시대

하늘이 주재하는 세계



중간 시대

땅이 주재하는 세계



현재 시대

인간이 주재하는 세계

인존시대의 의미

인간이 천지 만물의 주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시대

마음(心)과 영대의 철학적 의미

대순사상의 마음 이해

- "마음은 신의 존재 형태이자, 인간의 본체이며, 천지의 중심"
- 영대(靈臺): 신명이 드나드는 통로이자 인간과 신명의 교류 공간
- 『전경』: "天地의 중심이 心이요 心也는 일신(一身)의 주재(主宰)이 나라"

인간의 자기변혁 가능성

- 마음을 통한 자기수행과 자기완성의 가능성
- 『전경』: "마음을 속이지 말고 일심(一心)으로 수도하면 천지신명이 모두 움직인다"
- 인간은 마음 수양을 통해 신과 인간이 하나 되는 경지(神人一體) 도달 가능



동서양 인간관 비교

동양 철학	서양 근대철학
마음(心) 중심	이성(理性) 중심
정신과 신체의 통합	영혼과 육체의 이원론
天人合一(천인합일)	인간과 자연의 분리
내면 수양을 통한 변화	이성을 통한 외부 세계 정복
감성과 이성의 조화	이성의 우위성
신인조화(神人調化)	인간중심 주의(人間中心主義)

대순사상의 차별성

인간의 내적 수양과 외적 실천의 균형.

유불선(儒佛仙) 사상과의 통합, 재해석

전통사상과 대순사상의 인간관

- 유교(儒敎): 오상(五常)과 의리(義理)를 통한 **인격 완성** → 대순사상에서 '인간 관리 권한 위임'으로 재해석
- 불교(佛敎): 적멸(寂滅)과 허무(虛無)의 경지 추구 → 대순사상에서 '인간 주체성 강화'로 확장
- 도교(道敎): 이조(離騷)와 자연합일 지향 → 대순사상에서 '인간과 신명의 조화'로 재구성

대순사상의 통합적 접근

- 『전경』 교법 3장 29절: "유불선(儒佛仙)의 도통신(道通神)을 이어 받아 도수를 정리하고 신정(神政)을 바로 잡아"
- 유불선 수행법의 내면화: **심경(心境) 구조**를 개인 수양에서 '공공선(公共善)'으로 확장
- 전통사상의 한계(초월성, 퇴행성)를 **능동적 자생적 근대성**으로 극복

주요 개념의 비교 및 통합

개념	유교	불교	도교	대순사상
인간의 본질	성선설 (性善說)	무아 (無我)	자연인 (自然人)	신인조화 (神人調化)
수행 방법	존양성찰 (存養省察)	선정 (禪定)	양생 (養生)	수도 (修道)
궁극 목표	성인 (聖人)	해탈 (解脫)	신선 (神仙)	도통진경 (道通眞境)
인간-신명 관계	경외 (敬畏)	초월 (超越)	소통 (疏通)	상호작용 (相互作用)
인세 구원관	수기치인 (修己治人)	보살행 (菩薩行)	제세 (濟世)	해원상생 (解冤相生)

대순사상은 유불선의 핵심 가치를 종합하면서 '인존(人尊)' 중심의 통합적 세계관을 구축

서양 근대성 비판과 대순 인계관

서양 근대적 관점의 한계

- 서양 계몽주의의 **인신분리**: 신의 위치가 축소되고 인간 이성 이 중심에 위치
- 서구적 **구성주의**의 한계: 인간 주체와 객체를 철저히 분리하는 이분법적 사고
- 이성 중심의 **합리성 추구**는 정신과 물질, 주관과 객관의 분열 초래

대순 인계관의 독창적 관점

- **조리(條理)**: 이치와 논리가 단순한 인간 사고의 산물이 아닌 우주적 원리로서 작동
- **기화(氣化)**: 물질과 정신의 구분 없이 기(氣)를 통한 변화와 소통의 원리
- **삼계 상호관계**: 서구의 인간중심주의와 달리 천·지·인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인간 위상 정립

서양 근대성과 대순사상 비교

구분	서양 근대성	대순 인계관
신과 인간	신 위상 감소, 이분법적 분리	신인조화(神人調化)
인간 역할	자연 정복, 대상화	천지공사 참여, 조정자
가치의 원천	인간 이성, 합리성	천지인 상생적 이치
인식론적 특징	주체/객체 분리	주객 합일, 몸·마음 통합
변화의 속성	직선적 진보, 발전	순환적, 상생적 변화

"대순사상은 서구 근대성의 인간중심주의와 본질적으로 다른 인간-자연의 유기적 관계성과 인간-신명의 조화를 통한 새로운 인계관을 보여준다."

천지보은(天地報恩), 해원상생의 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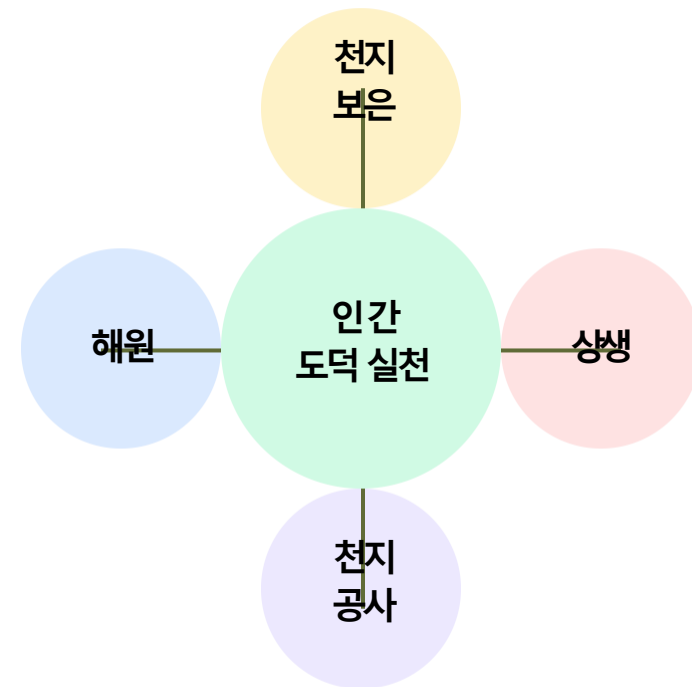
천지보은과 인간의 윤리적 책임

- **천지보은**: 천지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으로, 인간이 천지를 받들고 관리해야 하는 책임 의식
- 『전경』 교법 2장 55절: "천지는 만물의 부모이니라 故로 인사는 천지의 덕을 본받아야 하느니라."
- **해원상생**(解冤相生): 원한을 풀고 서로 살리는 상생적 윤리 체계

인계관과 윤리적 실천

- 인간이 **천지공사의 참여자**로서 세상 개벽에 동참하는 실천 윤리
- **인간 도덕**이 천지자연의 변화를 가져오는 인존시대의 윤리적 책임
- 상생의 도덕적 실천: **남을 잘 되게 하는 것이 나를 잘 되게 하는 원리**

해원상생 윤리 체계



“해원상생 · 보은상생은 상생의 원리이다. 즉 남을 잘 되게 하는 공사는 나도 잘 되게 하는 것이다.”

- 『대순진리회요람』 -

삼계(天·地·人)의 가변성, 지위상승, 호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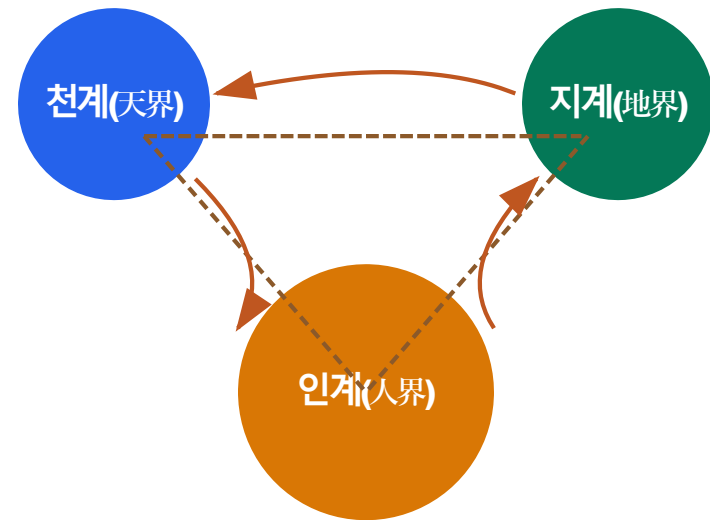
삼계 구조의 특성

- **가변성**: 기존 고정된 위계에서 벗어나 천계·지계·인계의 유동적 관계 형성
- **지위상승**: 인간의 위상이 신명과 더불어 천지 변화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위치로 격상
- **상호호환성**: 인간의 수행을 통해 신명의 지위 획득 가능, 삼계가 상호작용하는 관계로 변화

현대적 의미와 시사점

- 기존 동양 전통의 위계질서를 넘어서는 새로운 인간 중심 **자생적 근대성** 확립
- 신인조화(神人調化)를 통한 삼계의 **통합적 조화**와 상생의 구현
- 인간 주체성 강화와 동시에 **천지와의 공존** 강조—생태적 의의

삼계 상호호환 구조도



『전경』 발췌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라. 미륵을 장차 누구든지 닮아야 하리라.”

- 대순전경 3편 41장 -

결론 및 자생적 근대성의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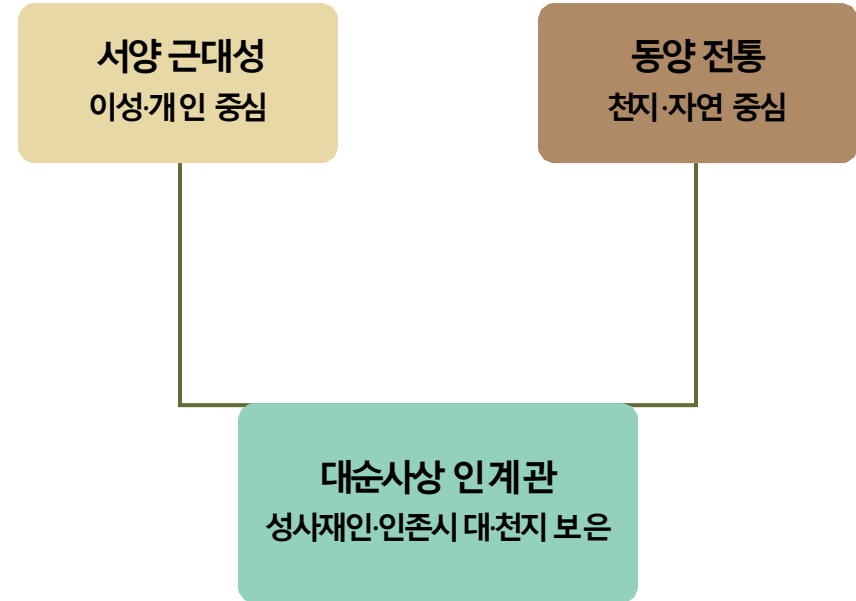
대순사상 인계관의 사상사적 의미

- 인간 중심성(人中心性)의 새로운 패러다임: 천지신명을 중재하는 주체로서의 인간 위상 정립
- 동양 전통 인간관(천존지 비인경)의 역전과 재구성: 인존시대의 철학적근거 제공
- 서양 근대성의 분절적 인간-자연 이분법과 달리, 통합적 조화로운 관계성 확보

자생적 근대성의 가능성과 전망

- 서구식 근대성 모델이 아닌 한국적 맥락에서 발생한 인간중심적 세계관의 현대적 의미
- 인계관의 삼계 상호호환가능성이 제시하는 미래지향적 인간-신명-자연 공존 모델
- 현대 환경·사회 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조화보은(報恩)의 실천적 가치

자생적 근대성의 위치



핵심 참고문헌

『대순진리회요람』, 대순진리회 교무부, 1969.

『전경』, 대순진리회 교무부, 1974.

차선근, 「대순진리회의 개혁과 지상선경」, 『신종교연구』 29, 2013.

■ 가 인계관(人界觀)으로서의 인간관(人間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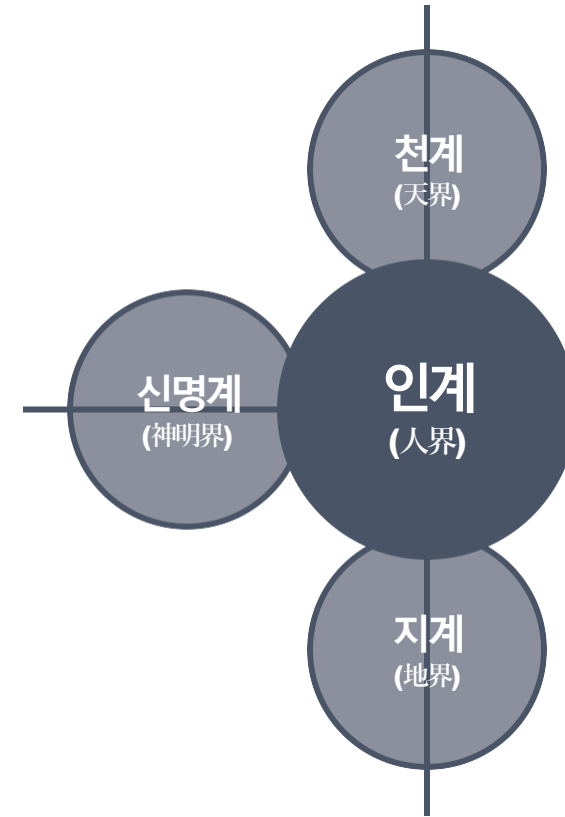
View of Humanity as View of Human Realm

목 차

- 1. 인계관의 개념
- 2. 구천의 인신강세와 의미
- 3. 신명과 인간의 관계
- 4. 수도와 정혼의 의미
- 5. 신인 음양론과 역할
- 6. 삼계 시스템과 인계관
- 7. 근대 동서문명과 인계관
- 8. 결론 및 현대적 의의

1. 인계관(人界觀)의 개념

- 인계관은 **인간세계를 하나의 유기적 시스템**으로 보는 대순사상의 핵심 관점입니다.
- 인간계는 **신명계, 천계, 지계**와 함께 연결되어 우주의 조화를 이룹니다.
- 대순사상에서 인계는 단순한 공간이 아닌, **신명으로 가득한 시스템**으로 여겨집니다.
- "천지에 신명이 가득 차 있으니 비록 풀잎 하나라도 신이 떠나면 마를 것이며 흙 바른 벽이라도 신이 옮겨가면 무너지나니라."(『전경』 『교법』 3-2)
- 인계관과 인간관의 차이는 **"계(界)"의 시스템적 성격**에 있으며, 사건들이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2. 구천의 인신강세와 인간관

- 대순사상의 인계관은 **구천의 인신강세**로부터 시작됩니다.
- 강성상제(姜聖上帝)라는 용어는 **인간계의 성(姜)**을 신위에 추가함으로써 구천이 인간의 몸으로 강세했음을 나타냅니다.
- 구천의 인신강세로 인해 **신명과 인간의 관계가 역전**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인간이 신명을 찾았으나, 이후에는 신명이 인간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제 천지신명이 운수자리를 찾아서 각 사람과 각 가정을 드나들면서 기국을 시험하리라.”(『전경』 「교법」 1-42)

- 이로써 인간은 **수동적 존재에서 능동적 존재**로 위상이 격상되었으며, 인계는 신계와 함께 천지공사의 주체로 부상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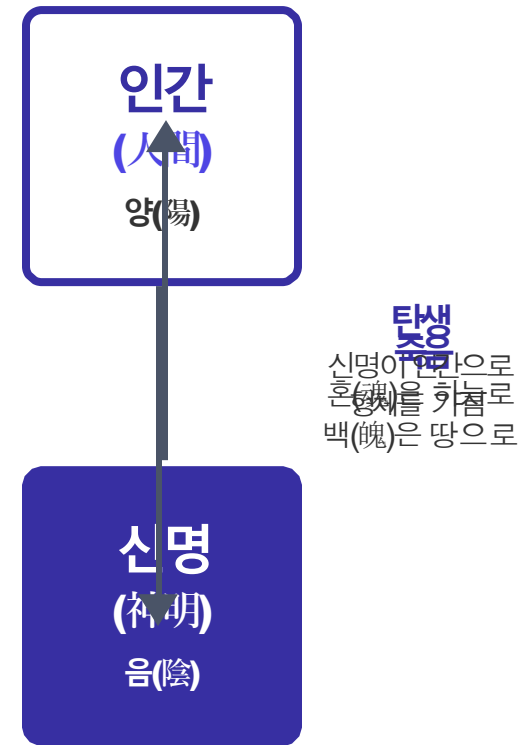


3. 신명(神明)과 인간의 관계

- 신명과 인간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구분되며, 상호 순환적 관계를 형성합니다.
- 인간은 죽으면 **신명(神明)**이 되고, 신명이 태어나면 **인간으로 되는** 순환 구조입니다.
- **혼(魂)과 백(魄)**의 개념을 통해 사후 세계와 현세를 연결하는 체계를 설명합니다.
- 인신강세 이전에는 **인간이 신명을 찾았으나**, 이후에는 **신명이 인간을 찾게** 되는 관계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에게 혼과 백이 있나니 사람이 죽으면 혼은 하늘에 올라가 신이 되어 후손들의 제사를 받다가 사대(四代)를 넘긴 후로 영도 되고 선도 되니라. 백은 땅으로 돌아가서 사대가 지나면 귀가 되니라"

- 『전경』 「교법」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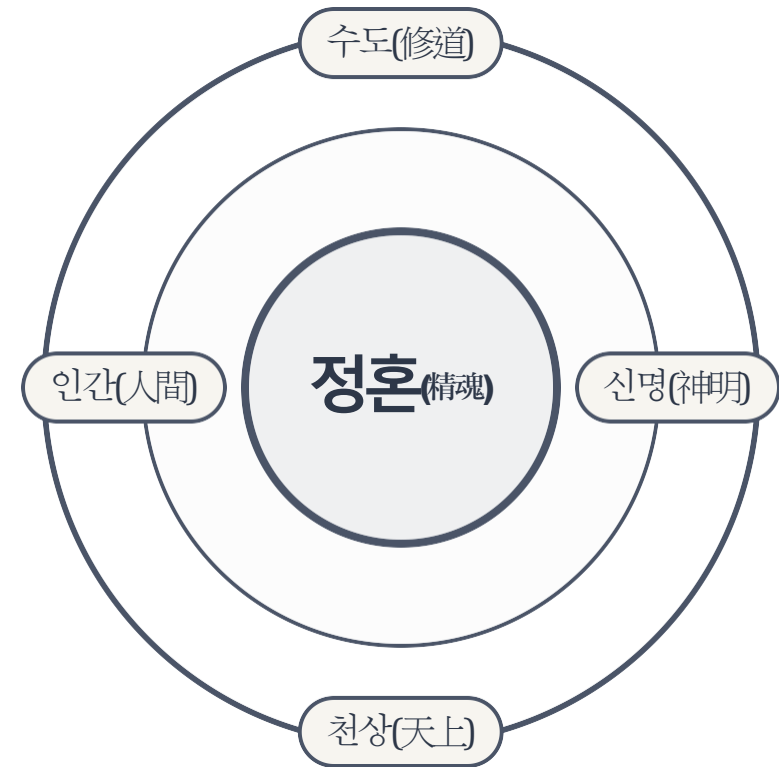


4. 수도(修道)와 정혼(精魂)의 의미

- 수도란 인간이 정신수련을 통해 정혼을 굳게 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 정혼은 신체의 정기신(精氣神) 중 물질인 정(精)과 정신인 혼(魂)이 결합한 것으로, 살아있을 때만 기질 수 있습니다.

“도를 닦은 자는 그 정혼이 굳게 뭉치기에 죽어도 흩어지지 않고 천상에 오르려니
와 그렇지 못한 자는 그 정혼이 희미하여 연기와 물거품이 삭듯 하리라.”(『전경』
「교법」 2-22)

- 수도를 통해 정혼이 굳게 뭉친 인간은 사후에도 혼이 흩어지지 않고 천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 반면 수도하지 않은 인간은 사후 정혼이 희미하여 연기나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 대순사상에서 수도는 영적 생명의 완성으로, 수련을 통한 정혼의 강화가 핵심입니다.



5. 삼계시스템(三界)과 신·인의 음양론

- 삼계는 천계(天界), 지계(地界), 인계(人界)로 구성된 대순사상의 우주론적 체계입니다.
- 대순사상에서는 신(神)은 음(陰)에, 인간(人)은 양(陽)에 속하는 음양 관계를 형성합니다.
- 신명은 보이지 않는 차원을 볼 수 있지만 지상에 변화를 일으킬 수 없고, 인간은 지상에 변화를 주지만 보이지 않는 차원을 볼 수 없습니다.

"神有人神陰人陽... 神人以陰陽成造化... 神人和而萬事成 神人合而百工成"
(『전경』 『교운』 2-42)

"신과 사람이 음양의 조화로써 만사가 이루어지고, 신과 사람이 협력해야백 가지 공이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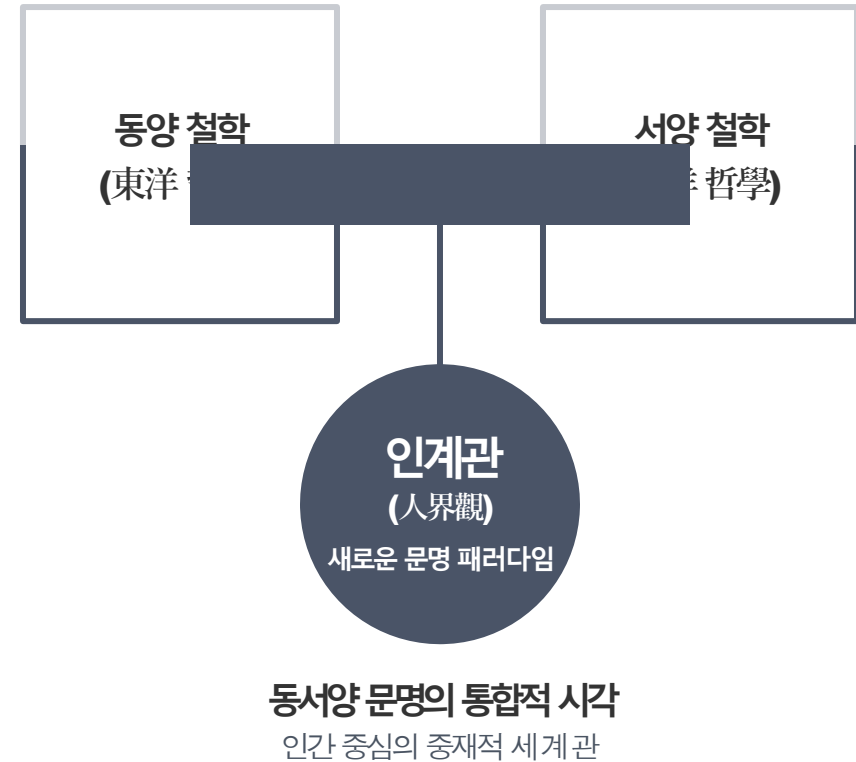
- 신인의도(神人依導)의 이법으로 신명과 인간이 서로 의지하고 소통하여 천지의 도가 완성됩니다.



6. 인계관의 현대적 의의와 결론

- 동양과 서양은 **오리엔탈리즘**과 **옥시덴탈리즘**이라는 양극적 감정을 통해 서로를 인식해왔습니다.
- 서양의 근대문명이 동양기원임을 망각한 100여년의 역사 속에서, **위기 상황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해졌습니다.
- 대순사상의 인계관은 **인간의 중재적 접화적 기능**을 조직적으로 강조합니다.
- **신인의도(神人依導)의 이법(理法)**은 신명과 인간이 서로 도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안적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신인의도(神人依導)의 이법(理法)으로 해원(解冤)을 위주(爲主)로 하여 천지공사(天地公事)를 보은(報恩)으로 종결(終結)하시니"- 『대순진리회 요람』, 「취지」.



■ 나

성사재인(成事在人) 인계관(人界觀)

View of Human Realm as Seongsajaein

목 차

- 1 성사재인(成事在人)이란?
- 2 인계관(人界觀)의 개념
- 3 성사재인과 인간의 역할
- 4 동양 철학에서의 인계관
- 5 서양 철학에서의 인간관
- 6 사례 및 근거
- 7 현대적 적용
- 8 결론 및 시사점



성사재인(成事在人)이란?

성사재인(成事在人)은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있다"라는 뜻으로, 천(天)과 대비되는 인간 중심 사상입니다.

- **고전적 기원:** 중국 고전에서 유래된 개념으로, 인간의 적극적 역할과 책임을 강조
- **철학적 의미:** 외부 환경이나 운명보다 개인의 노력과 의지가 성패를 좌우한다는 사상
- **현실적 적용:** 자연의 산물이라기보다 인간의 주체적 노력으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음
- **상호 연관성:** 개인의 노력이 집단적 성과로 이어지는 사회적 책임 의식 강조

"무릇 세상의 일은 사람이 하면 이루어지고,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는 사람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있음을 의미 한다."

成
事
在
人

성사재인(成事在人)의 한자 표현
- 성공과 실패는 인간의 노력에 달려있다-

인계관(人界觀)의 개념

인계(人界)란 인간이 살아가며 서로 관계를 맺고 사회를 이루는 세계를 의미합니다. 천계(天界), 지계(地界)와 함께 삼계(三界)를 구성하며 인간 활동의 영역을 지칭합니다.

- **관계 중심성:** 인간이 서로 맺는 관계가 세계의 기본 단위가 되는 관점
- ◀ **주체적 참여:** 자연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변화시키는 존재
- **사회적 구성:** 인간의 공동체 의식과 상호작용이 세계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
- **가치 창출:** 인간의 노력이 바탕이 되어 자연에서 문화와 문명으로 발전하는 과정

"인간이 도(道)를 이루는 것이지, 도가 인간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인계는 인간이 주체적으로 구성하고 발전시키는 세계이다."



삼계(三界)에서 인계(人界)의 위치와 역할
인간 활동과 관계가 중심이 되는 세계

>

4 / 8

성사제인과 인간의 역할

- **성취의 원리:**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없다면 어떠한 일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신념
- **인간의 노력과 주도적 판단이 사회와 세계의 방향을 결정짓는 근본 원리로서, 단순한 운명론이 아닌 적극적 실천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 **인간 중심 세계관:** "천(天)이 아닌 인(人)"에 중점을 두는 인간 주도적 사고방식 **주체적 행위자:** 인간은 수동적 관찰자가 아닌 세계의 적극적 행위자로서 역할 **사회적 책임:** 개인의 노력이 모여 공동체의 성패를 좌우하는 집단적 책임의식

"이름이 바르게 되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지 않고, 말이 순조롭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약이 일어나지 않으며, 예약이 일어나지 않으면 형벌이 공정하지 못하게 된다."



사회적 연대



실천적 행동



주도적 판단

인간 중심의 사회 발전 모형
- 인간의 주체적 활동이 사회와 세계를 형성한다 -



5 / 8

동양 철학에서의 인계관(人界觀)

동양 철학에서는 인간 관계와 사회적 연대를 중시하며, 인간이 천(天)과 지(地) 사이에서 조화로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유교적 관점:** 인간의 윤리적 실천과 예(禮)를 통한 사회 질서 수립 강조. 인(仁)과 의(義)의 실천으로 이상적 인간관계 구축
- **도가적 관점:** 자연과의 조화를 통한 인간 삶의 방향성 제시.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원리로 인간 본성 < 의 자유로운 발현 추구
- **불교적 관점:** 인간 내면의 깨달음과 연기(緣起)를 통한 상호 의존적 세계관 형성. 자비(慈悲)와 지혜(智慧)를 통한 인간 완성 지향
- **삼재론(三才論):** 천(天)·지(地)·인(人)의 세 가지 힘이 우주를 구성하며, 인간은 천지의 이치를 깨닫고 주체적으로 실천하는 존재

"하늘이 인간에게 능력을 주었으니, 그 능력으로 천지의 이치에 참여하고 만물의 화육에 동참한다. 이것이 인간이 지닌 천명(天命)이다."



삼재론(三才論)

천(天)·지(地)·인(人)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인간은 천지의 뜻을 알고 실천하는 주체적 존재로서 자연과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중심적 역할을 담당

서양 철학에서의 인간관

서양 철학은 고대 그리스부터 현대까지 인간의 본질과 자유의지, 사회적 책임에 관한 다양한 관점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 **고대 그리스:**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플라톤의 이데아론,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인간관 -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규정
- **중세:** 신 중심 세계관 속에서 인간은 신의 피조물로서 원죄를 가진 존재이지만, 동시에 신의 형상을 지닌 고귀한 존재
- **근대 계몽주의:** 칸트의 "자율적 이성", 루소의 "사회계약론" - 인간의 주체성과 자유의지 강조, 이성에 기반한 사회 구성
- **현대 실존주의:** 사르트르의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카뮈의 부조리 철학 - 인간 자신의 선택과 책임 강조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에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들보다 더 노예가 되어 있다." - 장 자크 루소

서양 철학의 인간관 변천사

고대 그리스 (BC 5세기~)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 덕의 실현을 통한 행복 추구

중세 기독교 철학 (5~15세기)

신앙과 이성의 조화, 신의 피조물로서의 인간

르네상스 (14~17세기)

인간 중심 사상, 개인의 가치와 존엄성 발견

계몽주의 (17~18세기)

이성의 승리, 자유와 평등의 가치 확립

현대 철학 (19~21세기)

실존주의, 포스트모더니즘 - 주체성과 자유의지 강조

현대적 적용 및 결론

성사재인(成事在人) 사상은 현대 사회 각 영역에서 여전히 유효하며, 인간 주도적 사고방식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 **조직 문화:** 자발적 참여와 주도적 책임감이 기업 혁신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 요소
- **사회 발전:**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책임 의식이 사회 문제 해결의 원동력으로 작용
- **개인적 차원:** 자기주도적 삶의 중요성과 능동적 태도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
- **교육 패러다임:** 타인 의존형에서 자기주도형 학습으로의 전환이 현대 교육의 중심축

결론:

"성사재인의 인계관은 인간의 의지와 책임을 중시하는 철학적 전통을 현대에 계승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인간 중심적 가치관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성사재인의 현대적 실현 영역



조직
혁신 문화와 주도성



사회
공동체 책임과 참여



개인
자기계발과 성취



국제 관계
협력과 상호 존중

성사재인(成事在人)은 동서양을 아우르는 보편적 인간 철학으로서 가치를 지닙니다



성사재인(成事在人) 인계관(人界觀)에 나타난 동서양 인간관(人間觀)의 재활성화

Revitalization of East-West Views in Seongsajaein

연구 배경 및 목적

- **왜 동서양 인간관의 재해석이 필요한가?**

- 서양의 구성주의적 인간관과 동양 전통 인간관의 한계 봉착
- 현대 문명의 위기와 새로운 통합적 인간관 요구

- **대순사상 인계관의 현대적 의의**

- 실체와 속성을 통합하는 인간관 제시
- 천지인 삼계의 역동적 재구성과 인간 역할 재정립

- **주요 연구질문 및 방법론**

- 유불선과 서구 구성주의 인간관의 체계적 비교 분석
- 대순사상 내 조리(調理)·기화(氣化) 개념을 통한 동서 통합 가능성 탐색

대순사상의 인계관 개념 소개

1 인계관(人界觀)의 정의와 철학적 배경

인계관은 인간세계에 대한 관점으로, 대순사상에서는 유불선 사상과의 연계를 통해 인간의 본질과 가치를 규정합니다. 「전교」에 나타나는 유불선은 인간 교육과 정의 일환으로 이해됩니다.

2 인간과 천지(天地)의 관계

대순사상에서 인간은 천지의 최령자로, 천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존재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천지보은(天地報恩)이라는 핵심 개념으로 표현되며, 인간은 천지에 보은함으로써 도통을 이룰 수 있습니다.

3 신명(神明) 중심성

대순사상은 기존 유불선과 달리 신명의 실체성을 강조합니다. 신(神)이 가진 속성뿐만 아니라 실질적 존재로서의 신명을 중시하며, 인간과 신명의 조화로운 관계를 통한 해원상생을 추구합니다.



동양 인간관 – 유불선 사상 분석

유교(儒) - 이조(以詔)

이중긍정의 논리: "X는 X이고 ?X는 -X" 친구(X)는 친구(X)고, 원수(-X)는 원수(-X) 내부적 초월과 범절(範節) 강조, 도덕 체계 확립

욕대(浴帶) 이조(以詔)

불교(佛) - 적멸(寂滅)

이중부정의 논리: "X는 X도 -X도 아님" 친구도 원수도 없는 일체 공(空) 추구
일체 대립의 초월, 중도(中道)와 지각(知覺) 강조

양생(養生) 적멸(寂滅)

도교(道) - 허무(虛無)

역설적 논리: "X는 -X이고, -X는 X" 원수(-X)는 친구(X), 친구(X)는 원수(-X)
대립 관계의 대칭성, 허령(虛靈)과 조화(調和) 강조

포태(胞胎) 허무(虛無)

12운성과 유불선의 연관성

구분	선(仙)	불(佛)	유(儒)
12운성	포태(胞胎)	양생(養生)	욕대(浴帶)
특성	조화(調和)	형체(形體)	범절(範節)
논리구조	X는 -X -X는 X	X는 X도 -X도 아님	X는 X -X는 -X
대표인물	노자	석가	공자
마음의 작용	허령(虛靈)	지각(知覺)	신명(神明)

대순사상에서는 유불선 각각의 속성과 더불어 **실체적인 신명 개념**을 강조하며, 유불선의 허무적멸이조는 12운성에서 포태양생욕대의 다음 단계인 **관왕(冠旺)**으로 통합됩니다. 대순사상은 관왕의 도(道)로서 삼교의 통합적 이해를 제시 합니다.

12운성과 유불선의 연관성

● 12운성과 유불선 사상의 대응 구조

대순사상에서 나타나는 12운성은 유(儒)·불(佛)·선(仙) 삼교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며, 특히 포태, 양생, 욕대는 선, 불, 유의 허무, 적멸, 이조와 대응됩니다.

● 허령(虛靈)·지각(知覺)·신명(神明) 구조

성리학의 마음 구조인 허령·지각·신명은 각각 천지인에 대응하며, 선불유의 허무·적멸·이조와 평행관계를 이룹니다. 이는 본체·작용·주체의 기능적 분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속성중심에서 실체중심으로

기존 동양 사상이 속성적 요소를 강조한 반면, 대순사상은 실체성을 강조하여 동서양 인간관의 새로운 통합을 제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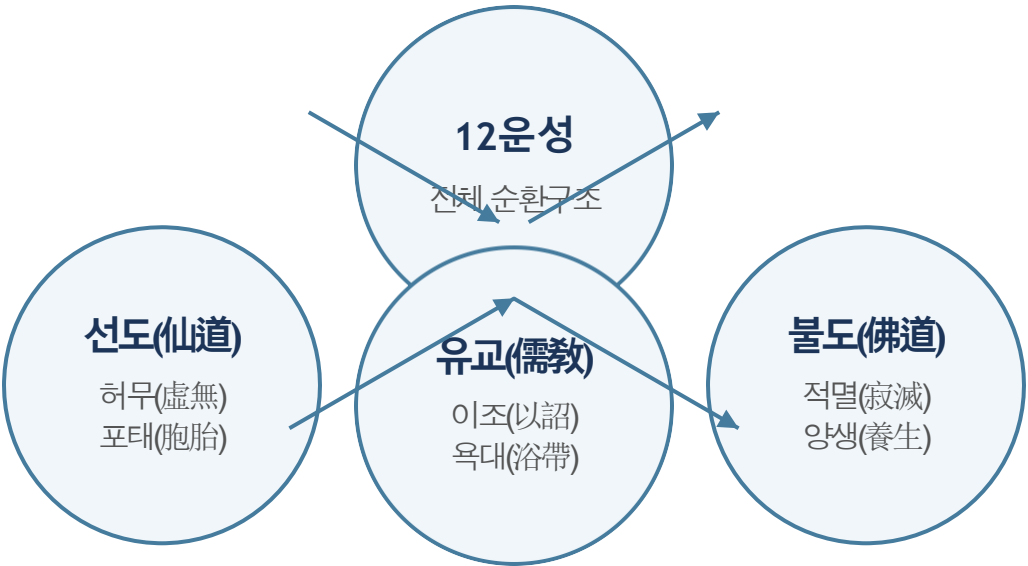
구분	선(仙)	불(佛)	유(儒)
12운성	포태	양생	욕대
특성	허무	적멸	이조
마음 구조	허령	지각	신명

● 천지의 기운과 유불선의 관계

선도의 허무, 불교의 적멸, 유교의 이조는 각각 천지의 포태, 양생, 욕대라는 기운을 받아 형성되었으며, 12운성 중 관왕 단계에서 통합됩니다.

● 『전경』의 핵심 구절

“受天地之虛無仙之胞胎
受天地之寂滅佛之養生
受天地之以詔儒之浴帶”



대순사상에서 12운성기 운봉서 사상이 사귀어지게 되시

서양 근대 인간관 – 구성주의 전개

1 데카르트~칸트의 구성주의 개념

근대 서양의 구성주의는 신중심에서 인간중심으로 세계관의 전환을 이루었습니다.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로 시작하여, 칸트의 "인간의 오감을 통해 세계를 구성한다"는 사상으로 발전했습니다.

2 신관에서 인간(감각)의 실체론적 전환

"신은 죽었다"라는 표현으로 대변되는 서양 근대는 유일신이 사리진 자리에 인간의 오감이라는 실체를 대체하였습니다. 세계는 각자 스스로 구성하는 것이라는 구성주의 세계관은 자연을 지배·조작하는 실체적 세계관으로 발전하였습니다.

1637년

데카르트 (René Descartes)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 인식론적 전환의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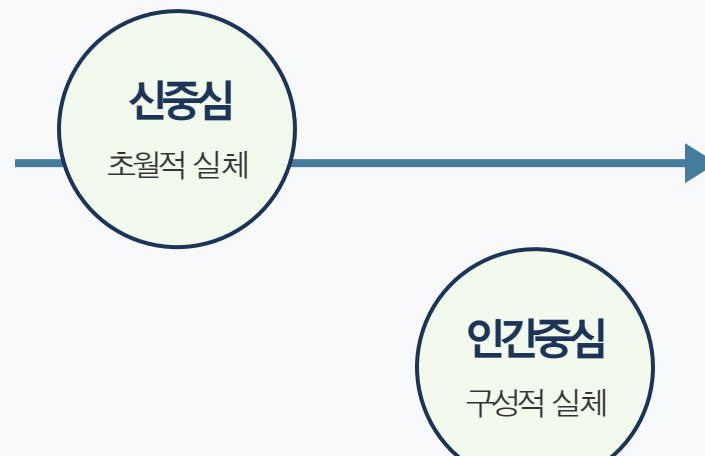
1710년

버클리 (George Berkeley)

"존재함은 지각됨이다" - 관념론의 전개

1791년

서양 인간관의 패러다임 전환



서양적 구성주의의 특징

- 세계를 계량화, 도구화하는 실천적 관점
- 감각과 이성에 기반한 지식 구성
- 자연을 인간의 인식 대상으로 객체화
- 실체 중심적 존재론 (vs. 동양의 속성 중심)

동서양 인간관 비교 분석

비교 항목	동양 인간관	서양 인간관	대순사상 인간관
인간의 본질	속성적, 관계적 (허무·적멸·이조)	실체적, 독립적 (자아 중심)	속성과 실체 통합 (신인조화)
신(神)과의 관계	내재적, 기화(氣化) (음양오행 원리)	초월적, 대립적 ("신은 죽었다")	실체적 신명과 공존 (천지보은)
사유 방식	상관적 사유 조리(調理)	구성주의적 사유 데카르트칸트	해원(解冤) 중심 실천적 수행
세계관	12운성, 천지인 (균형과 조화)	자연의 계량화 (도구화, 지배)	삼계의 재정립(가변성, 호환성)

동서양 인간관의 근본 차이

- 동양: 내재적관계적 접근, 인간·자연·신명 조화 강조
- 서양: 실체적·도구적 접근, 인간 중심 세계 인식
- 동양은 속성 치중, 서양은 실체 치중의 편중성 한계

대순사상의 융합적 인간관

- 천지인 상관성과 실체적 신명 개념 결합
- 조리·기화와, 실체·속성의 통합적 이해
- 천지보은과 해원상생을 통한 우주적 조화 실현

대순사상 인간관의 차별성

대순사상은 동양의 속성론적 관점과 서양의 실체론적 관점을 통합하여, 인간이 천지와와의 관계 속에서 보은과 해원을 통해 신인조화를 이루는 주체적 존재로 정립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현대 문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인간관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조리(調理)와 기화(氣化) 개념 해설

調 조리(調理) - 인간의 중재적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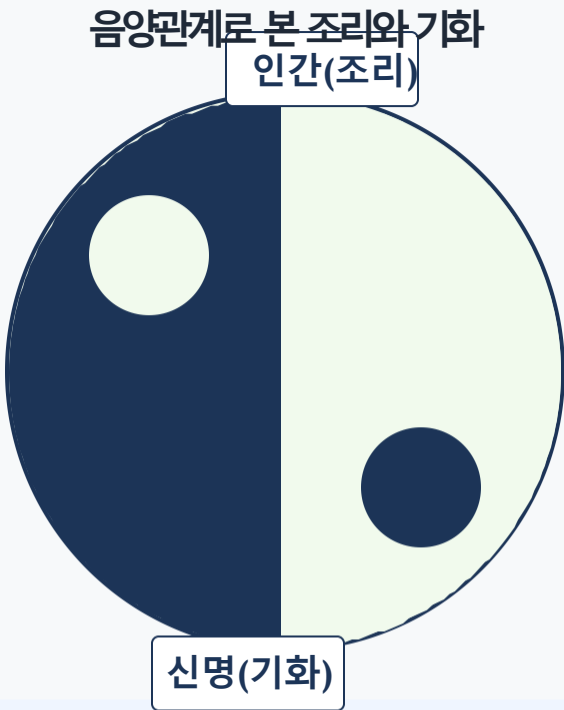
조리는 중심에서 건곤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인간이 토(土)의 위치에서 주변 사물을 중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이(理)를 가진 존재로서 정의와 공감으로 세계질서를 조절하는 역동적 역할을 강조합니다.

氣 기화(氣化) - 신명의 작용 원리

기화는 신명(神明)이 기(氣)를 통해 작용하는 원리로, 음양본적 합리성에 기초한 상반적 사유를 나타냅니다. 동양에서 신명은 인간과 대립적 존재가 아닌 음양본계로 인간과 결합 가능한 존재로 이해됩니다.

동서양 인간·신 관계 비교

구분	동양 조리·기화 관점	서양 구성주의 관점
인간과 세계의 관계	내재적·관계적 (인간이 중심에서 세계 중재)	객관적·도구적 (인간이 세계 외부에서 구성)



소강철의 신인관계 설명

소강철은 동양의 조리(調理)·기화(氣化) 관계를 중(中)과 토(土)로서의 인간과 사상(四象)과 주변으로서의 신의 배치로 설명했습니다. 이는 서양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데카르트적 구성주의와 근본적으로 다른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천지보은의 천인관계

1 천지보은(天地報恩)의 의미

대순사상에서 인간과 하늘의 관계는 천지보은으로 집약됩니다. 인간이 지상천국을 실현할 수 있는 근본 이유는 마음을 통해 천지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道通天地報恩”(도는 천지에 보은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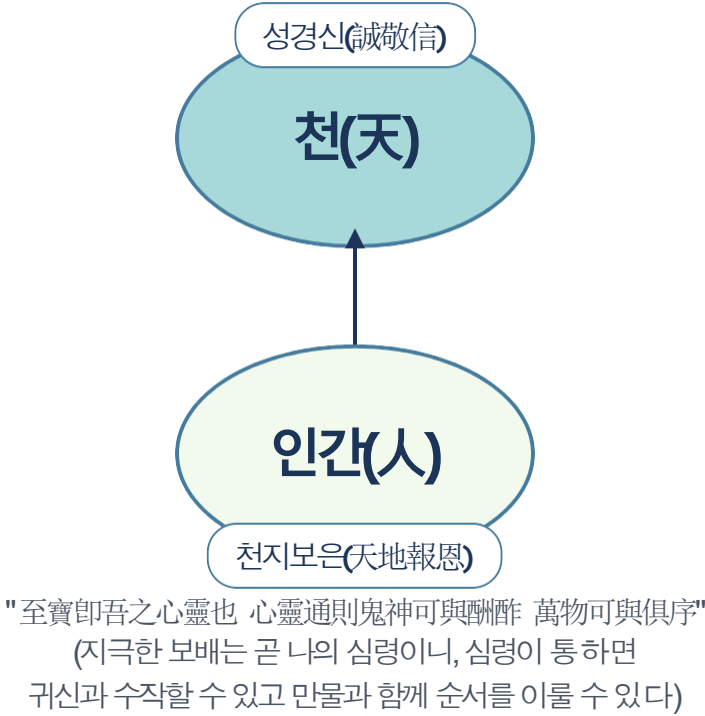
2 천지 성경신(誠敬信)과 인간의 보은

인간의 생명과 수명, 복록은 천지 신명의 성경신(誠敬信)에 의한 것입니다. 인간은 이에 대한 보은을 통해 도통을 이룰 수 있으며, 이것이 인간의 윤리적·우주적 과업이 됩니다.

“생(生)과 수명(壽命)과 복록(福祿)은 천지(天地)의 은혜(恩惠)이니 성(誠)·경(敬)·신(信)으로써 천지(天地) 보은(報恩)의 대의(大義)를 세워 인도(人道)를 다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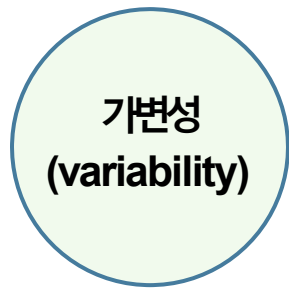
3 신인조화와 해원의 원리

천지보은을 통한 인간과 하늘의 관계 재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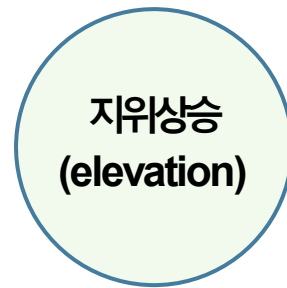
삼계관 재정립의 자생적 근대성

대순사상에서 삼계관(천·지·인)의 재정립은 한국 사유를 기반으로 한 자생적 근대성을 보여주며, 이는 기존 동서양 세계관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천계의 가변성

- 고정불변한 천(天)이 아닌 '높은 하늘'이라는 변화가능한 천계 개념
- 구천상제의 인신강세를 통한 천지공사로 천계가 재정립됨
- 서양의 "신은 죽었다"와 달리 "하늘이 늙었다"는 대안적 관점



지계의 지위상승

- 전통적으로 낮은 지위였던 지계(地界)가 천계와 동등한 위치로 격상
- 천존지비(天尊地卑)의 수직적 구조에서 천지공사로 수평적 관계로 전환
- 지상신선(地上神仙)의 실현과 지계의 적극적 가치 재발견



삼계의 호환성

- 천·지·인 삼계가 상호 소통하고 교류하는 열린 체계
- 인간의 조리(調理)와 신명의 기화(氣化)를 통한 계층 간 매개
- 천지인 삼계의 공통 구조와 원리가 해원상생으로 소통 회복

연구 결론 및 현대적 시사점

1 동서양 인간관의 통합적 가능성

대순사상은 동양의 속성론적 인간관(허무적멸이조)과 서양의 실체적 인간관(구성주의) 각각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간·신명·천지의 조화로운 관계를 지향하는 통합적 인간관을 제시합니다.

현대적 의미

- 기술 발전과 인간 정체성 확장에 대한 철학적 토대 제공
- 동서양 문화의 건설적 대화와 융합을 위한 접점 제시

2 포스트휴먼 시대의 인간 위상 재정립

대순사상의 삼계관 재정립을 통해 인간은 단순한 피조물이 아닌 천지와 호환 가능한 우주적 존재로 거듭납니다. 이는 구성주의 인간관의 한계와 환경위기를 초래한 기계론적 세계관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입니다.

현대적 의미

- 인간중심주의 넘어선 생태학적 사고의 확장 인공
- 지능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윤리적 토대 제공

대순사상이 제공하는 미래적 가치

삼계관 재정립의 자생적 근대성 측면

가변성

천계·지계·인계의 유
동적 변화 가능성

자위상승

인간과 지계의 우주
적 역할 확장

호환성

천지인 삼계의 상호
작용과 소통

최종 결론

대순사상의 인계관은 유불선과 서양 근대 인간론의 한계를 극복하며, 동양 철학의 자생적 근대성을 통해 실체와 속성을 통합한 새로운 인간·우주 관계의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참고문헌 및 질의응답

국내 문헌

- 대순진리회 교무부 (2010), 『전경』,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 김탁 (2006), 『증산 강일순: 한국 신종교의 성립과 발전』, 서울: 민속원.
- 차선근 (2018), 『대순사상의 신관과 인간관』, 대순사상논총, 30집, 1-34.

국외 문헌

- Taylor, C. (1989), *Sources of the Self: The Making of the Modern Identit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Spengler, O. (1918), *Der Untergang des Abendlandes*, Wien: Braumüller.
- Habermas, J. (1981),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Frankfurt: Suhrkamp.

고전 문헌

- 『황제내경(黃帝內經)』
- 『주역(周易)』
- 『심경(心經)』

질의응답



논문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researcher@university.ac.kr
연락처: 010-1234-5678

Chapter V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의 자생적 근대성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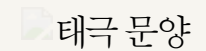
A Comparison of Autogenous Modernity in Donghak and Daesoon

목차

-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비교 방법론
 3. 천관(天觀) 비교 ①: 삼재 vs 삼계
 4. 천관(天觀) 비교 ②: 선천 vs 후천
 5. 지관(地觀) 비교 ①: 기화 vs 조리
 6. 지관(地觀) 비교 ②: 땅의 의미와 토(土)
 7. 인간관(人觀) 비교 ①: 인내천 vs 신인조화
 8. 인간관(人觀) 비교 ②: 해원·상생 및 인간 역할
 9. 개념 대조: 신도/인도, 도기장존/상생
 10. 음양오행과 세계관 재해석
 11. 각 사상의 사회적·종교적 실천
 12. 종합적 특징과 차이 요약
 13. 결론 및 시사점
 14. 참고문헌 및 질의응답

연구 배경 및 목적

-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의 자생적 근대성의 특징 비교
 - 동아시아 근대성 담론에서의 중요성
 - 사상적/사회적 수용과 변용의 맥락
- 리미널리티(Liminality)의 원리: 개체발생이 계통발생을 반복
- 동서양 근대성 담론의 접점과 한국적 근대성의 특징
- 세계관 구조의 비교를 통한 사상적 특징 연구



- 핵심 개념 **비교 분석**
 - 천관(天觀), 지관(地觀), 인간관(人觀)별 주요 용어 대조
 - 삼재(三才)와 삼계(三界), 선천과 후천, 기화와 조리 등
- 리미널리티(Liminality)의 원리를 통한 사상 발전 이해
 - 개체발생이 계통발생을 반복하는 원리로 두 사상 연계
- 교리적, 사회적 실천 양상 **병렬 비교**

동학사상

천외천·인내천
개벽·혁명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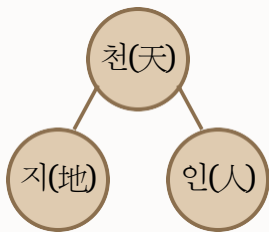
대순사상

삼계·신인조화
후천개벽·통합성

천관 비교 ①: 삼재(三才) vs 삼계(三界)

동학사상

삼재(三才): 천·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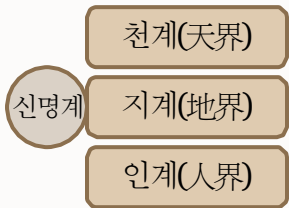
- 천외천 개념 강조
- 속성적 관점 중심
- 삼재 안에서 천지·인의 조화 강조
- 혁명적 평등사상의 기초

VS



대순사상

삼계(三界): 천계·지계·인계



- 신명계 도입 및 강조
- 실체적·시스템적 세계관 제시
- 속성과 실체의 통합적 관점
- 구천(九天)의 통찰(統察)과 조정

태극 문양

천관 비교 ②: 선천(先天) vs 후천(後天)

동학사상

도로선천(道路先天)



- 선천·후천 구분 불명확
- 도로선천 - 원점 회귀적 시간관
- "다시 개벽"은 요순시대로의 회귀 의미
- 유교적 세계관 중심의 시대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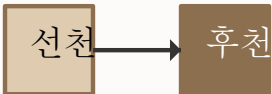
VS



대순사상

후천개벽(後天開闢)

구천 인신강



- 인신강세 기준으로 명확한 선후천 구분 대극 문양
- 후천개벽 - 총체적 세계관 전환의 계기
- 신명계와 인간계의 지위변화를 초래
- 동서양 천관 합덕과 미래지향적 근대성

지관 비교 ①: 기화(氣化) vs 조리(調理)

동학사상

기화(氣化): 기운의 변화



- 기운(氣)의 자연스러운 흐름 강조
- 땅의 본질적 속성과 변화 중시
- 유기적 세계관 바탕의 자연 변화
- 노이무공(勞而無功): 노력과 수행

VS

대순사상

조리(調理): 이치와 법칙

신명계	법칙(法則)	이치(理)
조화(調和)	질서(秩序)	균형(均衡)
和		衡

질서와 균형의 조성

- 이(理) 중심 법칙과 질서 강조
- 신명계와 연결된 구조적 세계관
- 천지(天地)의 조율과 균형 추구
- 천지 성공(天地成功): 성과 중심

태극 문양

지관(地觀) 비교 ②: 땅의 의미와 토(土)

- 음양오행(陰陽五行)에서 토(土)의 위상
 - 전통적으로 토(土)는 오행의 중심이며 안정성을 상징
 - 동학과 대순에서 모두 중요하게 다뤄지나 접근법 차이

동학사상



- 유기적 세계관 속에서 토의 역할
- 동학사상에서는 토가 순환의 일부로 인식

대순사상



- 토(土) 중심의 세계론 심화 발전
- 오행구비(五行具備)의 기준으로 토의 중심성 강조

- 대순사상의 토(土) 중심주의와 세계관 확장
 - 토(土)를 통한 천지인(天地人) 연결의 구체화
 - 음양한덕(陰陽二德)과 오행상생(相生)의 원리 강조

인간관 비교 ①: 인내천(人乃天) vs 신인조화(神人調和)

동학사상

인내천(人乃天): 사람이 곧 하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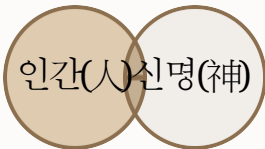
- 평등사상의 근간
- 모든 인간 내면에 한울님 존재
- 인간 주체성과 혁명성 강조
- 보국안민(輔國安民) 지향

VS



대순사상

신인조화(神人調和): 신과 인간의 조화



- 해원상생의 실천 원리
- 천지인 삼계의 조화 강조
- 인간과 신명의 상호작용
- 성사재인(成事在人): 결정은 인간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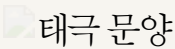
태극 문양

인간관 비교 ②: 해원·상생 및 인간 역할

- 인간 역할의 사회적 실천 비교

동학사상	대순사상
보국안민(輔國安民): 국가와 백성을 돕고 안전하게 함	해원상생(解冤相生): 원한을 풀고 더불어 사는 조화
평등사상: 모든 인간의 근본적 평등성 강조	공사(公事) 중심: 천지 공사를 통한 인간역할 격상
집단적 혁명 실천: 동학농민운동으로 표출	개인과 현실문제 해결: 실천을 통한 후천세계 건설

- 인간 주체성의 근대적 표현 방식 차이
 - 동학: 불연기연(不然其然, 그렇지 않은데 그러함) - 신비성, 수동적 측면 존재
 - 대순: 성사재인(成事在人, 일의 성공은 사람에게 달림) - 주체성, 실천성 강조
- 자생적 근대성의 실현 형태
 - 동학: 사회 혁명적 변혁을 통한 근대성 실현



개념 대조: 신도/인도, 도기장존/상생

동학사상

인도(人道) 중심, 도기장존(道器長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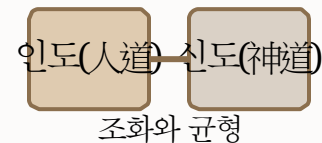
- 인도 중심의 관점 강조
- 신비성 대신 인간 평등에 주목
- 도기장존: 도는 그릇에 머무름
- 도(道)의 보존과 영속성 강조

VS



대순사상

신도 인도 조화, 상생(相生) 지향



- 신도와 인도의 조화 강조
- 신명계와 인간계의 통합적 역할
- 상생(相生): 서로 살리는 원리
- 공존과 조화를 통한 문제해결 방식

태극 문양

음양오행과 세계관 재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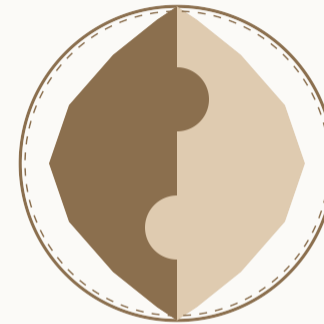
- 음양오행을 기반으로 한 세계관의 재구성
 - 동학과 대순에서 모두 음양오행의 전통적 해석을 현대적으로 재활성화

동학사상



- 천외천 개념을 통한 음양론의 확장
- 오행 요소의 상호 작용보다는 음양 중심 해석

대순사상



- 신명계를 포함한 음양합덕·오행구비 강조
- 음양 균형과 오행의 총체적 조화 중시

태극 문양

- 오행(五行)의 상생(相生)과 상극(相克)을 통한 세계관 해석

각 사상의 사회적·종교적 실천

동학사상

- 사회혁명 지향 - 갑오농민전쟁과 직접적인 사회변혁 운동
- 수련과 주문 중심의 종교적 실천 - 영부, 21자 주문
- 도인(道人) 중심의 공동체 운동 - 신분제 타파
- 민족·민중 중심의 평등사상 실행
- 신비성과 계시를 통한 종교적 권위 확립

대순사상

- 해원상생 실천 - 천지공사를 통한 근본적 세계 개조
 - 유불선 통합적 수행체계 - 시한부 공사(時限付公事)
 - 신명계와 인간계의 통합적 실천 - 천지인 합일
 - 포덕(布德)·교화(教化)·수도(修道) 방식의 실천
 - 후천 선경 건설을 위한 도통진경 지향
- 태극 문양

종합적 특징 및 결론

비교 관점	동학사상	대순사상
천관(天觀)	혁명적 평등사상, 천외천 중심 도로선천(道路先天) 지향	삼계(三界) 구축, 신명계 도입 후천개벽(後天開闢) 지향
지관(地觀)	기화(氣化) 중심, 유기적 세계관 노이무공(勞而無功)	조리(調理) 중심, 법칙적 세계관 천지 성공(天地成功)
인간관(人觀)	인내천(人乃天) 사상 집단적 혁명적 실천	신인조화(神人調和) 해원 상생(解冤相生) 실천
근대성 특징	초월천 사상, 사회혁명적 근대성 유교적 세계 내 개혁 지향	통합·구체적 세계관 구축 조 화와 상생의 창조적 근대성

태극문양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은 모두 동아시아의 전통 사상을 기반으로 서양의 근대성에 대응하여 **자생적 근대성**을 구현한 사상이지만, 동학이 초월적 천관과 평등사상을 통한 **혁명적·사회적 근대성**을 추구했다면, 대순사상은 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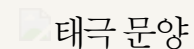
참고문헌 및 질의응답

참고문헌

- 김홍철 (1989). 「동학의 종교사상」. 서울: 한울아카데미.
- 박정규 (2003). 「대순사상의 이해」. 포천: 대순진리회 출판부.
- 이경원 (2010). 「대순종학원론」. 서울: 문사철.
- 이돈화 (1934). 「천도교창건사」. 서울: 천도교중앙총부출판부.
- 최준식 (2007). 「동학의 정신세계와 현대적 의의」. 서울: 모시는사람들.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한국종교사상사」.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원전자료

- 「東經大全」
- 「천도교경전」
- 「대순전경」
- 「전경」
- 「대순지침」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의 자생적 근대성 비교"에 대한
질문과 토론을 환영합니다

연구자 이메일: whchoi7@naver.com

1

천관(天觀)의 자생적 근대성 비교

Comparison of Autogenous Modernity in Views of Heaven

목 차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2 삼재(三才)와 삼계(三界) 개념 비교
- 3 대순사상에서 삼계의 특징 및 의의
- 4 동학과 대순사상의 세계관 비교
- 5 선천(先天)과 후천(後天) 개념의 차이
- 6 경전 및 주요 인용구
- 7 사상적 의의 및 근대성 비교
- 8 결론 및 시사점

연구 배경 및 목적

동아시아 사상 전통에서 '천관(天觀)'은 하늘·땅·인간 관계를 설명하는 핵심 축입니다. 이는 우주론적 세계관과 인간 존재의 의미를 규정하는 근본적 관점입니다.

연구 배경

- 동학과 대순사상은 19세기 말~20세기 초 자생적으로 발생한 한국 사상
- 두 사상 모두 전통 사상을 계승하면서도 독자적 천관 체계 구축
- 서양 근대성과 다른 방식으로 자생적 근대성의 토대 마련
- 기존 연구에서 천관 중심의 종합적 비교 연구 부족

연구 목적

- 삼재(三才)와 삼계(三界) 개념의 차이점과 발전 양상 조명
- 선천(先天)과 후천(後天) 개념의 사상적 연원과 의미 비교
- 두 사상의 자생적 근대성이 갖는 현대적 의의 재평가
- 한국 사상사에서 천관 연구의 학술적 의미 확장

구분	동학사상	대순사상
주요 경전	동경대전, 용담유사	전경, 대순진리회 요람
천관(天觀) 중심 개념	시천주(侍天主), 천주	삼계(三界), 신명계(神明界)
세계관 방향성	도로선천(복귀적)	후천개벽(진보적)

삼재(三才)와 삼계(三界) 개념 비교

동아시아 사상에서 '삼재'는 기본적인 우주론적 원리였으나, 대순사상에서는 '삼계'라는 보다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인 세계관으로 발전했습니다.

삼재(三才) 개념

- 천(天)·지(地)·인(人)의 세 가지 존재
- 동아시아 전통 철학의 기본 틀
- 주로 우주의 구성 요소로 언급 동학에
- 서는 초월적 천(天)의 역할 강조 속성
- 중심의 개념, 관계성 중시

삼계(三界) 개념

- 천계(天界)·지 계(地界)·인계(人界)의 세계
- 대순사상에서 정립된 개념 체계
- 시스템적·실체적 세계관으로 발전
- 신명계(神明界)와의 연결성 강조
- 계(界)로서의 독립성과 상호작용성 강조

구분	삼재(三才) 중심 세계관	삼계(三界) 중심 세계관
주요 사상적 원천	주역(周易), 동양 전통 사상	대순진리, 도교·불교 영향
세계 구성의 특징	상호 관계와 속성 강조	독립적 세계관과 시스템적 실체 강조
주요 원리	음양의 조화, 변화 원리	신명과의 상호작용, 천지공사
자생적 근대성	인간중심, 평등사상	신인협력(神人協力), 삼계의 조화

대순사상에서 삼계의 특징 및 의의

대순사상에서 삼계(三界)는 단순한 개념적 분류를 넘어 신명계(神明界)와 긴밀히 연결되어 신적 실체성과 시스템적 지속성을 갖춘 독자적 세계관을 구축합니다.

삼계의 특징

- 천·지·인계의 유기적 통합체계
- 각 계(界)는 독립적이면서도 상호 연결된 실체적 시스템
- 신명(神明)이 활동하는 장소이자 매개체
- 동양 속성론과 서양 실체론의 통합적 특성
- 삼계공사(三界公事)를 통한 변혁 가능성

『전경』 내 삼계 용례

- 삼계공사(三界公事): 천·지·인 삼계를 개벽시키는 공사
- 삼계지존(三界之尊): 삼계를 주재하는 지고존재
- 삼계대권(三界大權): 삼계를 주관하는 최고 권한
- 삼계복마(三界伏魔): 삼계의 무질서를 바로잡는 작용
- 삼계개벽(三界開闢): 삼계의 총체적 변혁

"삼계가 개벽되지 아니함은 선천에서 상극이 인간지사를 지배하였으므로 원한이 세상에 쌓이고 쌓여서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고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 『전경』 공사 1장 3절

신명계 연결

천·지·인계가 신명의 활동으로 유기적 연결

처과(處果)의 자생적 근대성 비교 · 동학과 대순사상

시스템적 지속성

각 계(界)는 독립적 실체이자 상호 관계적 총체

동서양 사상 융합

속성론적 관점과 실체론적 관점의 통합

동학과 대순사상의 세계관 비교

동학의 세계관

- 초월적 천관 - 천외천(天外天), 천주(天主) 개념 중시
- 지상천국 개념 - 이상적 지상세계 구현
- 보국안민(輔國安民)을 통한 인간 해방 추구
- 시천주(侍天主) 사상 - 사람 안의 하늘님 모심
- 도로선천(道路先天) - 원시반본적 세계관

대순사상의 세계관

- 삼계(천계·지계·인계) 체계화된 세계구조 신
- 명계(神明界)의 실존적 위상 확립
- 후천개벽(後天開闢) - 새로운 세계 질서 주창 신
- 인조화(神人調化) - 신과 인간의 조화로운 관계
- 해원상생(解冤相生) - 우주적 원한 해소와 공존

구분	동학사상	대순사상
천관 (天觀)	• 천주(天主)와 천외천(天外天) 강조 • 초월적 절대자로서의 하늘 • "하늘이 곧 마음이요, 마음이 곧 하늘"	• 천계(天界)와 신명계(神明界) • 구천상제(九天上帝) 개념 • 체계적 천지공사(天地公事)
지관 (地觀)	• 지상천국 실현 • 현세 중심의 사회개혁 • 농민운동적 실천성	• 지계(地界)의 독립적 존재성 • 명부공사(冥府公事) • 지상선경(地上仙境) 건설
인간관 (人間觀)	• 인내천(人乃天) - 사람이 곧 하늘 • 만민평등과 인간 존엄성 • 도덕적 실천주체	• 인계(人界)와 인존(人尊) • 신인조화(神人調化) • 도통진경(道通眞境)의 주체

동학이 초월적 천관과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강조했다면, 대순사상은 삼계의 유기적 통합과 신명계의 실존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우주론을

선천(先天)과 후천(後天) 개념의 차이

구분	동학	대순사상
핵심 개념	도로선천(道路先天) : 원시반본, 과거 지향적	후천개벽(後天開闢) : 새로운 질서의 창조, 미래 지향적
신관(神觀)	천주(天主), 상제(上帝) 시천주(侍天主) 중심	무극신(無極神), 태을천상원군(太乙天上元君) 신명계(神明界) 체계화
세계관	서학(西學) 영향을 받은 천주 개념과 전통 사상 결합	삼계(三界)와 신명계의 통합, 동서양 이치(理致)의 융합

동학의 선천 개념

동학은 선천으로의 회귀를 통한 사회 변혁 추구

-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주 조화정"
- 『동경대전』 주문
- 천주가 내 마음속에 있다는 시천주 사상 '
 - 도술천주 미륵'과 같은 불교적 개념과 접목
 - 서양 종교의 '신(God)' 개념과 유사한 '천주' 용어 사용

대순사상의 후천 개념

대순사상은 후천개벽을 통한 신천지(新天地) 창조 지향

-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에 원한이 쌓이고... 후천에서는 천하가 상생(相生)으로 돌아가... 평화로운 세계가 된다"
- 『전경』 예시 81절
- 천계(天界)의 재정비, 천문(天文)·명부(冥府)공사 개벽 음양
 - 합덕(陰陽合德)·삼재확립(三才確立)·오행구비(五行具備) 동서
 - 양 이치의 융합과 새로운 우주적 질서의 확립

사상적 의의 및 근대성 비교 / 결론

두 사상은 19세기 후반~20세기 초 서구 문물 유입과 전통 질서 변동 속에서 자생적 근대성을 구축하는 서로 다른 방식을 보여줍니다.

구분	동학	대순사상
근대성 특징	초월적 가치 강조 민중 구원 지향	삼계의 유연성과 통합성 신명계 체계화
역사적 방향성	도로선천(道路先天) 과거 회귀적 면모	후천개벽(後天開闢) 미래지향적 세계관
동서 사상 관계	동양적 초월성과 서학(천주교) 개념 혼용	동서양 가치 융합 독자적 삼계체계 구축

주요 사상적 의의

- 대순사상은 삼계(三界)의 실체성과 시스템적 특성 강조
- 신명계 도입으로 동서양 실체·속성 통합 체계 구현
- 동학은 민(民) 중심 혁명적 구원론, 대순은 성·경·신(誠敬信) 중심 천지공사
- 두 사상 모두 서양 근대성과 구별되는 독자적 경로 제시

주요 인용 경전

- 동학: 『동경대전』, 『용담유사』 - 시천주, 천주 개념
- 대순: 『전경』 - "천·지·인의 삼계가 서로 통하지 못하여"
- 대순: 『대순진리회 요람』 - 삼계공사, 삼계지존 개념 대
- 순: 『포덕교화 기본원리』 - 신명계 개념의 체계화

결론

동학과 대순사상은 각기 다른 천관(天觀)을 통해 자생적 근대성을 구축했습니다. 동학은 초월적 천주와 보국안민의 실천으로, 대순사상은 삼계와 신명계를 통한 새로운 세계 질서 구축으로 한국 근대 사상사에 독자적 인 흐름을 형성했습니다. 이러한 천관의 차이와 발전은 현대 동아시아 사상 연구에 있어 중요한 비교 지점을 제공합니다.

가 삼재(三才)와 삼계(三界)

Samjae and Samgye

목 차



- 1 삼재(三才)와 삼계(三界)란?
- 2 동학사상의 삼재(三才) 개념
- 3 대순사상의 삼계(三界) 개념
- 4 삼계 시스템 구조(천계·지계·인계)
- 5 삼계공사와 삼계지존의 역할
- 6 신명계와의 연결·의미
- 7 삼재와 삼계의 비교
- 8 결론 및 시사점

삼재(三才)와 삼계(三界)의 정의

삼재(三才)

동아시아전통 사상의 핵심 축으로, 우주를 구성하는 세 가지 근본 요소를 의미합니다.

- 천(天): 하늘, 우주적 원리와 질서
- 지(地): 땅, 물질세계의 근원
- 인(人): 인간, 천지의 기운을 받아 태어난 존재

주로 추상적·숙성적 개념으로, 상호 관계와 조화를 강조합니다.

삼계(三界)

대순사상에서 강조하는 세계 구조로, 실체적이고 시스템적인 우주 구성을 의미합니다.

- 천계(天界): 하늘의 세계, 신적 존재와 원리의 영역
- 지계(地界): 땅의 세계, 물질적 기반의 영역
- 인계(人界): 인간의 세계, 현실 세계의 영역

실체적·시스템적 구조로, 신명계와 연결되어 구체적인 작동 원리를 가집니다.



핵심 차이점: 삼재가 세계의 구성 원리와 조화에 초점을 맞춘다면, 삼계는 더 나아가 실체적 세계 시스템과 신명계를 포함한 구체적인 우주 구조를 설명합니다.

동학사상의 삼재(三才) 개념

"하늘도 내 마음이요, 땅도 내 마음이요, 사람도 내 마음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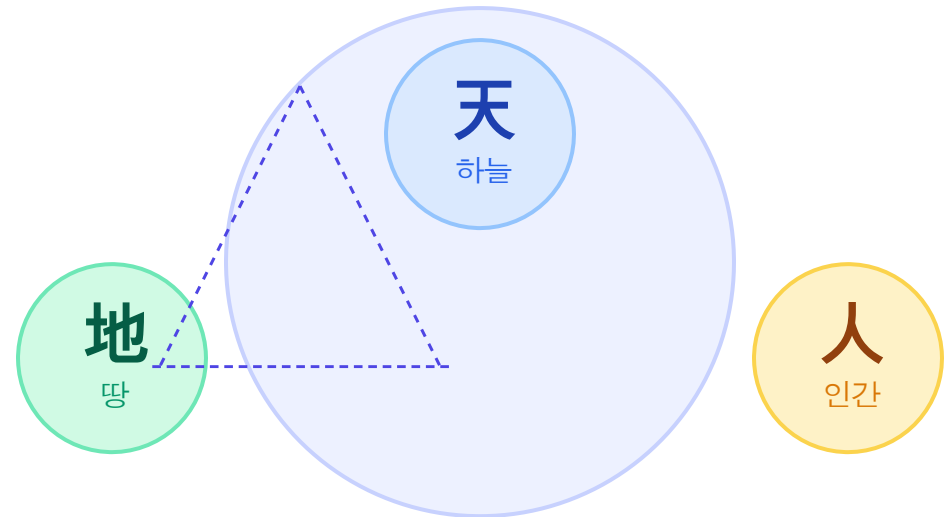
- 동학사상의 핵심 가르침

동학의 삼재 이해

- ◆ 천·지·인의 조화 - 하늘과 땅과 인간이 본질적으로 하나의 기운으로 연결됨
- ◆ 내재적 신관 - 하늘(신)이 인간 안에 내재한다는 사상적 혁신
- ◆ 실천적 사유 - 세계 질서와 균형을 위한 인간의 역할 강조

동양 사유의 보편적 틀

동학의 삼재 개념은 동아시아 전통사상의 맥락을 이어받으면서도, 인간 중심의 실천적 차원을 강조하여 서학(西學)에 대응하는 새로운 사상적 흐름을 형성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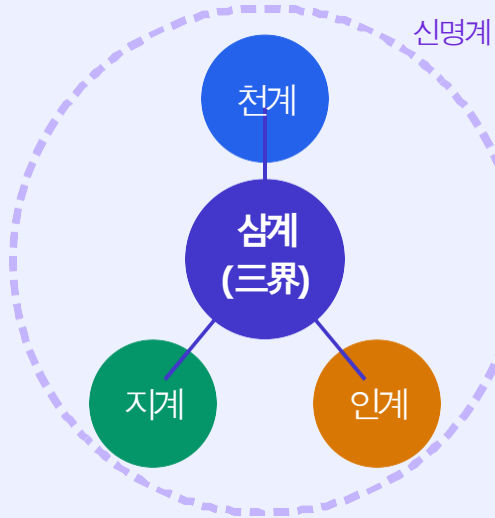


동학의 삼재(三才) 세계관

천·지·인의 통합적 조화를 통해 세계 질서의 기본 구조를 형성하며, 특히 인간의 주체적 실천을 통한 세계 변혁을 지향합니다.

핵심 의의: 동학의 삼재 개념은 기존 유교적 세계관에서 한 걸음 나아가 인간 내면에 천(天)이 내재한다는 혁신적 사상으로, 이후 대순사상의 삼계 개념 발전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대순사상의 삼계(三界) 개념과 특징



대순사상의 삼계는 신명계와 연결된 실체적 시스템

대순사상에서 삼계의 핵심 특징

실체적 세계 시스템

단순한 상징적 개념이 아닌 구체적인 구조와 실재성을 가진 세계 체계

신명계(神明界)와의 연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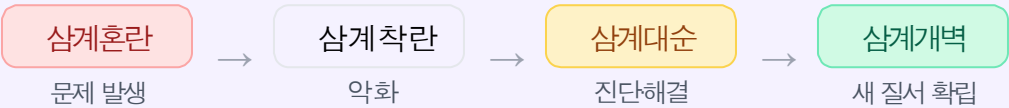
삼계는 신명(神明)들의 세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상호작용함

개벽(開闢)의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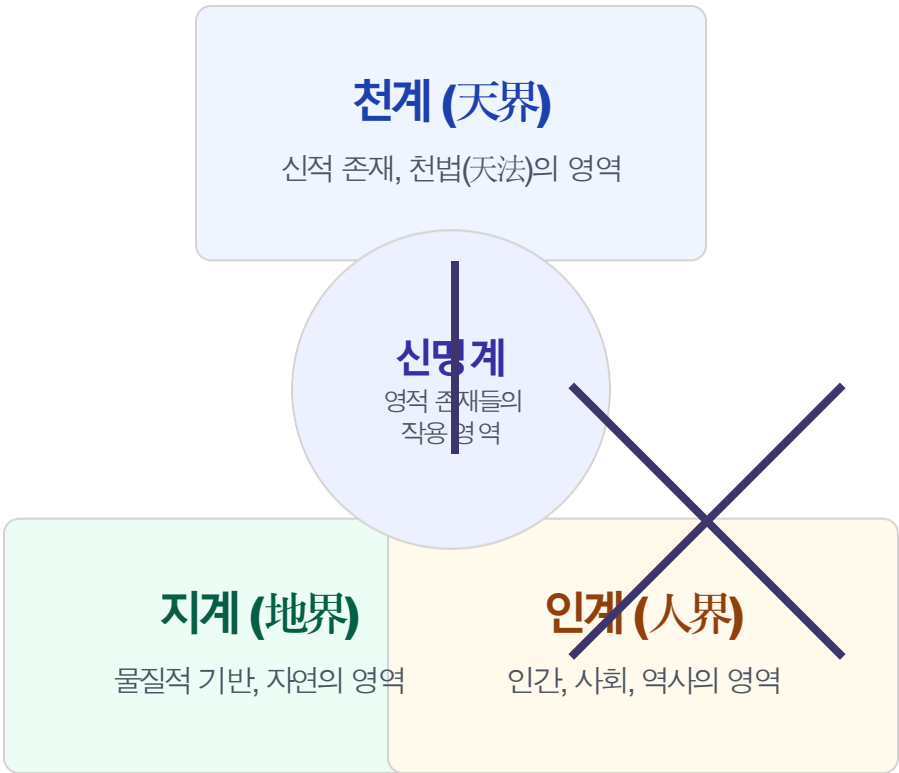
삼계는 '삼계공사'를 통해 새롭게 변혁되고 혁신되는 대상

“삼계는 대순사상의 특징을 드러내는 교리의 핵심어로 나타난다. 삼계는 천계지계인간계를 통틀어 말하고, 구천 대원조화주신은 삼계지존(三界至尊)으로 삼계를 통찰하며 삼계역사를 한다.”

삼계의 우주론적 구조와 발전 과정



삼계 시스템 구조: 천계·지계·인계



삼계의 구조와 상호작용

- 1 유기적 연결성: 삼계는 개별적 영역이면서도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 계는 독립적 체계이지만 동시에 전체 시스템의 일부로 작동 합니다.
- 2 신명계와의 상호작용: 삼계는 신명계와 상호작용하며, 신명(神明)은 삼계 각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조화와 질서를 유지 합니다.
- 3 시스템적 작동 원리: 천계의 법리(法理), 지계의 물질계 법칙, 인계의 사회적 질서가 서로 조응하며 작동하는 실체적 체계를 이룹니다.

대순사상에서 삼계는 단순한 구분이 아닌, **실제적 작동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신명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우주의 질서와 조화를 유지합니다. 이는 전통적 삼재 개념보다 구체적이고 시스템적인 세계관을 제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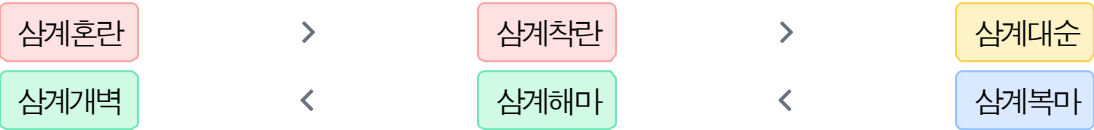
삼계 공사·삼계 지존과 신명계

삼계공사 (三界公事)

대순사상의 핵심 교리로, 천·지·인 삼계를 개혁(혁신)하는 신성한 사업을 의미합니다.

- ◆ 새로운 세계 질서의 창조 작업
- ◆ 상극에서 상생으로의 전환
- ◆ "이 개혁은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따라 하는 일이 아니고 새로 만들어지는 것"

삼계공사의 진행 과정



삼계지존 (三界至尊)

구천대원조화주신(九天大元造化主神)으로, 삼계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최고 존재입니다.

- ◆ 삼계를 통찰(大統察)하는 권능
- ◆ 삼계에서 역사(役使)하는 주체
- ◆ 삼계의 문제 진단과 해결 담당

신명계와의 연결

- ◆ 신명(神明)계와 삼계의 유기적 관계
- ◆ 신명들의 조화와 질서 회복 천지공
- ◆ 시를 통한 신명계 재편성

핵심: 삼계공사는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우주적 차원의 실재적 작용으로, 삼계지존의 주재 하에 신명계와 삼계가 상호작용하며 후천개혁을 향해 나아가는 총체적 프로세스입니다.

삼재와 삼계의 비교 및 결론

구분	삼재(三才)	삼계(三界)
개념 특성	속성적·추상적 개념	실체적·시스템적 체계
구조적 특징	천지인의 속성과 조화 강조	천계·지계·인계의 시스템 구조
신명관계	신명에 대한 언급 상대적 미약	신명계와의 직접적 융합과 작용
세계관 특성	동양 전통 사유 체계	동서양 사유체계의 통합

대순사상의 삼계론적 세계관

- 천계·지계·인계를 유기적·시스템적으로 연결
- 신명계를 통합적으로 포함하는 확장된 우주관 제시
- 서양의 실체성과 동양의 속성적 세계관 통합
- 삼계공사를 통한 세계 변혁과 개벽 강조

시사점 및 의의

- 동아시아 전통 사상의 창의적 계승과 발전
- 삼계의 세계관과 신명계의 유기적 결합
- 현대 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 동서양 통합적 시각으로 포괄적 세계 이해 가능



선천(先天)과 후천(後天)

Seoncheon and Hucheon

목차

- 1 선천과 후천의 개념
- 2 동학사상의 선천/후천 인식
- 3 대순사상의 선천/후천 인식
- 4 두 사상의 비교
- 5 결론 및 시사점

선천과 후천의 개념

先 선천(先天)

- ◆ 소강절에 의해 역학에 처음 도입된 개념
- ◆ 만물이 상극적으로 운행하기 **이전의 원리**
- ◆ 복희 8괘도와 하도(老子)의 우주 원리 관련
- ◆ 물질이 생성되기 전, 태초의 질서를 의미

後 후천(後天)

- ◆ 상제의 인신강세를 기점으로 한 새로운 시대
- ◆ 신명(神明)의 역할이 재규정되는 질적 전환점
- ◆ 동학에서는 '천주(天主)' 개념과 연결
- ◆ 새 하늘과 새 땅의 질서 확립 의미

선천과 후천은 단순한 시간적 구분이 아닌, **인간우주 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상징하는 개념입니다.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은 이 개념을 통해 우주와 인간사의 질서 재편을 설명하고, 새로운 근대성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선천(先天)과 후천(後天) -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의 천관 비교

동학사상이 보는 선천과 후천

開 '다시 개벽(도로선천)의 의미

동학사상에서 개벽은 '도로선천(回到先天)'이라는 의미를 가진 '다시 개벽'으로 해석됩니다.

표면적 의미

- ◆ 흔히 "후천개벽"으로 해석되어 왔음
- ◆ 새로운 세계의 도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
- ◆ 동학교의 근대적 개혁 사상으로 간주

실제 의미

- ◆ 동학관련 종단의 기록은 "도로선천"을 시사
- ◆ 유교적 이상 사회(요순시대)로 회귀 지향
- ◆ 원점회귀적 사상이 강하게 내재

"당시의 문제를 유교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당시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다시 요순 시대로 돌아가는 '다시 개벽'이 될 수 있다."

동학의 현실적 지향점

- ◆ "온 나라 양반되기" - 신분제도의 평등이 아닌 상층 신분으로의 동화
- ◆ "왕후장상의 꿈" - 새로운 체제보다는 기존 체제 내 지위 상승 희망
- ◆ 후천을 표방했으나 실제로는 선천 질서의 재현에 가까웠음

대순사상이 보는 선천과 후천

대순사상은 선천을 **지양해야 할 부정적 개념이 아닌**, 생장염장의 원칙에 따라 **후천으로 가기 위한 필수적 과정**으로 봅니다. 선천의 원한은 후천의 해원 동력이 됩니다.

후천의 특징

동서고금의 이치 융합

계통발생을 반복하는 개체발생처럼 동서고금의 이치 중 장점만 모아 구성된 세계

삼계(三界) 확립

천·지·인 삼계가 가변성, 항상성, 호환성을 가진 새로운 우주 질서 형성

상제 개념의 실체화

무극신, 태을천상원군을 통해 무극과 태극의 실체화

천계관의 재구성

- 상제로서의 천과 천지신명의 두 개념 확립
- 묵은 하늘과 새 하늘의 교체
- 천지 공사를 통한 명부공사 실현
- 천상분야열차지도의 천문 재정렬
- 음양합덕, 삼재확립, 오행구비의 질서

"후천은 동서고금의 시공간에 나타난 모든 이치의 융합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학사상의 조화에 나타난 동서양 천관지관인간관의 연결은 대순사상에 있어 삼계공사를 통해 융합으로까지 발전 한다."

두 사상의 비교와 결론

동학

동학사상의 후천관

- 후천을 지향하나 실제로는 '도로선천(선천회귀)' 추구
- '다시 개벽'을 요순시대로의 회귀로 해석
- 유교적 관점의 이상세계 추구
- "온 나라 양반 되기" → "왕후장상" 지향

대순

대순사상의 후천관

- 선천은 부정이 아닌 **후천으로 가는 과정**으로 인식
- '새 하늘 새 땅'의 창조적 개벽 추구
- 동서고금의 이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세계관
- 음양합덕, 삼계 확립, 신명 재배치

결론 및 시사점

- 1. 근대성 접근 차이:** 동학은 과거 지향적 근대성을, 대순은 융합적창조적 근대성을 제시했습니다.
- 2. 세계관 특징:** 대순사상은 기변성·항상성·호환성을 통해 우주와 인간의 새로운 관계를 제시합니다.

- 3. 현대적 의의:** 대순사상은 전통 천관으로 근대문명 문제를 해석하려는 독자적 접근으로 100여년 후인 현재까지도 유의미한 해석을 제공합니다.
- 4. 동서양 융합:** 동양의 속성적 천관과 서양의 실체적 천관의 합덕을 통해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2

지관(地觀)의 자생적 근대성 비교

Comparison of Autogenous Modernity in Views of Earth

연구 목적 및 개요

본 연구는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의 지관(地觀, 땅에 대한 관점)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국적 자생 근대성의 특징을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둔다.

주요 연구 질문:

- 각각의 사상에서 땅은 어떻게 해석되는가?
- 자생적 근대성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핵심 개념 정의

지관(地觀)

땅에 대한 철학적·종교적 관점으로, 천지(天地) 구조에서 땅이 갖는 위상과 역할에 대한 사유 체계

자생적 근대성

외래 근대와 구분되는, 내부 사상 체계에서 출발한 근대성으로, 물질문명에 대한 비판과 대안적 미래 전망 포함

동학사상 / 대순사상

- 동학사상: 최제우가 창시한 19세기 신종교 사상, '기화(氣化)' 개념 중심
- 대순사상: 강증산이 창시한 신종교 사상, '조리(調理)' 개념과 신명사상 중심

동학사상의 기화(氣化) 개념

동학은 땅을 천지에 속한 일부가 아닌 초월천에 대비되는 천지 개념으로 기화(氣化)로 표현합니다.

기화(氣化)의 의미: 우주를 구성하는 심오한 에너지이자, 만물의 변화원리

"내유신령 외유기화(內有神靈外有氣化)" - 안에 신령이 있고 밖에 기화가 있다

동학사상에서 기화는:

- 인간과 자연의 외부적 연결 원리로 작용
- 동서양을 연결하는 개념으로 활용
- 천인관계에서 기화로 드러나는 물질적 근대성의 토대

대순사상의 조리(調理) 개념

- 대순사상은 '기화'에 조리(調理, 조화의 이치)를 더해, 땅이 우주 질서의 중심적 조율자임을 강조

| "天用地用人用之調理綱紀統緒乾坤此之謂造化手段也"

- 이(理) 개념의 강조 - 땅은 이치의 중심이 되는 존재
- 리(理) 범주의 특징: 포용성·다양성·동태성

대순사상의 리(理)는 음양오행의 '토(土)' 개념에서 출발 - 동학사상의 '기화' 중심 사상과 차별화되는 지점

노이무공과 천지성공 비교

● 노이무공(勞而無功)

동학사상에서 나타나는 개념으로, '노력했으나 성공하지 못함'을 의미

천외천이 신명으로만 출현한 동학사상에서 자신의 업적을 설명한 용어

성공의 사례가 없었음을 함의

● 천지성공(天地成功)

대순사상에서 나타나는 개념으로, 땅과 하늘의 완전한 조화와 성취를 의미

천지가 역할을 분담하여 일을 이루는 개념

땅과 하늘이 음양합덕되는 지상천국의 구현

자생적 근대성에서의 의미:

- 동학사상: 불안한 미래와 한계를 인정하는 자기성찰적 근대성
- 대순사상: "지덕(地德)"을 강조함으로써 안심안신의 생활이 가능한 완성적 근대성
- 두 용어의 대비를 통해 한국적 근대성의 발전 방향 제시

자생적 근대성의 의미

한국의 신종교 사상이 제시하는 근대성은 서구의 외래 근대와 구별되는 자생적 특성을 보여줍니다.

동학사상	대순사상
기화(氣化) 중심의 내재적비판적 사유	조리(調理)와 신명, 음양오행 중심의 통섭적·포용적 발전론
물질적 근대문명에 대한 비판과 대안적 미래 전망	천지 성공(天地成功)을 통한 음양 합덕의 지상천국 실현
단기적, 외부적, 사회적 개혁 지향	장기적, 종교적, 신명에 의한 개혁 지향
두 사상 모두 한국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서구 중심의 근대 담론과 다른 방향을 제시하며, 생명 존중과 조화의 가치를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줍니다.	

결론 및 시사점

- 동학과 대순의 지관 비교를 통해 한국적 근대성의 다원적 의미 도출
- 기존 서구 중심의 근대 담론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 제안
- 정체성 담론, 생태 및 종교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 시사점 제공

본 연구는 기화(氣化)와 조리(調理)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 신종교 사상이 제시하는 자생적 근대성의 가치를 재조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 사상의 현대적 적용 가능성과 글로벌 문명 담론에서의 독자적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 기화(氣化)와 조리(調理)

Gihwa and Jori

목 차

1. 기화(氣化)와 조리(調理)란 무엇인가

2. 동학사상의 기화(氣化) 개념

3. 대순사상의 조리(調理) 개념

4. 이(理) 개념의 비교

5. 동서양 신인관계의 통합

6. 결론 및 의의

기화(氣化)와 조리(調理) 개념 소개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에서는 우주 만물의 생성과 변화, 질서와 조화를 설명하는 핵심 개념으로 기화와 조리를 제시합니다. 이 두 개념은 각 사상의 특징과 세계관을 이해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기화(氣化)

- 우주 만물의 생성과 변화의 원리
- 동학사상에서 천지의 생명력을 상징
- "내유신령 외유기화(內有神靈外有氣化)"
- 내면에는 신령이, 외부에는 기화가 있음
- 역동적 에너지와 창조적 원리를 강조
- 만물의 생성과 순환을 가능케 하는 근원적 생명력

조리(調理)

- 우주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원리
- 대순사상에서 중요한 통제와 중재의 원리
- "천용지 용 인용지 조리강기(天用地用人用之調理綱紀)"
- 하늘과 땅과 사람이 조화롭게 작용함
- 이치(理)와 법칙이 강조되며 질서를 부여
- 음양오행에서 '토(土)'의 중재 역할과 연관

기화와 조리는 각각 **역동성과 창조성**을 상징하는 기(氣)와 **질서와 조화**를 상징하는 이(理)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의 세계관 차이를 보여줍니다.

동학사상의 기화(氣化) 개념

수운 최제우가 창시한 동학사상은 기화(氣化)를 통해 천지 및 우주의 흐름을 설명하며, 이를 생명력의 근원적 에너지로 중시합니다. 동학은 전통적인 이기론(理氣論)에서 벗어나 기(氣)의 역동성과 실천성을 강조했습니다.

기화의 핵심 개념

- 천지의 흐름과 생명력의 근원적 에너지
- 전통적 이기론보다 기(氣)를 중심으로 사유
- 실질적 생명력과 역동성 중시
- "도기장존 사불입(道氣長存邪不入)"
 - 도의 기운이 오래 존재하면 사악함이 들어오지 않음
- 남성적 지기(至氣)의 개념으로 표현

내유신령 외유기화

- 내면에는 신령(神靈)이, 외부에는 기화(氣化)가 있음
- 인격적이면서 비인격적, 외재적이면서 내재적인 천주의 이중적 모습
- 내적 영성과 외적 에너지의 결합을 강조
- 사람과 사람, 나와 너를 매개하는 공유된 에너지
- 서양 종교와 달리 기화의 신령을 강조한 동양적 특성

"서교에는 기화의 신령이 없고 학문에는 천주의 가르침이 없다"

- 『논학문』에 나타난 수운의 서교 비판

동학사상은 기화(氣化) 개념을 통해 물질적 근대문명에 대한 비판과 대안적 미래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초기 동학은 단기적이고 외부적이며 사회적인 개혁을 지향했으며, 이는 이후 한국 신종교 사상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대순사상의 조리(調理) 개념

대순사상에서 조리(調理)는 우주 운행의 핵심적인 원리로, 초월천에 의한 중재와 질서, 조화를 의미합니다. 이는 동학사상의 기화(氣化)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天用地用 人用之 調理綱紀統制乾坤此之謂造化手段也

천용(天用)과 지용(地用)과 인용(人用)은 강기(綱紀)를 고르게 함이니 하늘과 땅을 통제한다. 이를 조화(造化)의 수단(手段)이라고 일컫는다.

신명계와의 조화

- 인신강세한 초월천에 의한 조리(調理)의 역할 강조
- 신명계에 의해 조화되는 지계관(地界觀) 형성
- 일월무사 치만물(日月無私治萬物) - 해와 달이 치우침 없이 만물을 다스림
- 천지의 진액(津液)으로서 오주(五呪)의 의미
- 신명을 통한 실질적 세계 질서 부여

토(土)의 중재 역할

- 음양오행에서 토(土)는 중앙에 위치하는 중재자
- 땅은 이치의 중심이 되는 존재로 강조
- "땅의 이치"는 천원지방(天圓地方)의 원리 반영
- 이(理)가 일용사물(日用事物)에 적용되는 실질성
- 리(理) 범주의 포용성·다양성·동태성을 토(土)의 특성과 연결

대순사상은 동학의 남성적 '기(氣)' 개념과 달리 **여성적인 마음과 이치에 따른 해원**을 강조합니다. "진심 견수 복선래(眞心堅守福先來)"를 통해 "도기장존(道氣長存)"보다 마음의 역할을 중시하는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理) 개념의 비교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은 '이(理)' 개념에 대한 이해와 강조점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 차이는 두 사상의 세계관과 근본적인 접근 방식을 잘 보여줍니다.

동학사상의 이(理)

기존 이기론에서 벗어나 기(氣)의 우선성을 강조

- "도기장존 사불입(道氣長存邪不入)"
- 도와 기가 함께 존재함을 중시
- '이(理)'의 실체성보다 역동성과 생명력을 중시
- 물질적 근대문명에 대한 비판과 대안 제시에 초점
- 단기적, 외부적, 사회적 개혁을 지향

「서교에는 기화의 신령이 없고 학문에는 천주의 가르침이 없다」

대순사상의 이(理)

무극태극(無極太極)에 근거한 이(理)의 실체성 강조

- "진심 견수 복선래(眞心堅守福先來)"
- 여성적 마음과 이치를 중시
- 이(理)는 일용사물에 적용되는 실질적인 법도
- "元亨利貞大經大法道正天地數定千法而理定心法"
- 토(土)와 마음의 관계 설명
- 장기적, 종교적, 신명에 의한 개혁 지향

「理雖高出於太極無極之表 不離乎日用事物之間」
(이가 비록 높다 하나 무극태극에서 출현한 것)

대순사상은 이(理) 개념을 음양오행의 '토(土)' 개념과 연결하여 재활성화함으로써 '기화(氣化)' 개념에 치우친 동학사상보다 더 구체적인 자생적 근대성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동학이 남성적 '지기'를 강조한다면, 대순은 여성적 마음과 이치에 따른 해원을 강조합니다.

동서양 신인관계의 통합

동학과 대순사상은 동양의 전통적 신관과 서양의 신관을 통합하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특히 해원상생을 통해 동서양의 신인관계가 융합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동양의 신명(神明)

- 음양오행의 원리로 이해되는 다양한 신적 존재
- 조상신과 자연신의 구분과 공존
- 무극태극 등 비인격적·이법적 원리 강조
- 인간과 신명의 상호작용적 관계
- "조상이 4대(代)가 지나면 영도 되고 선도 된다"
- 조상과 신명의 연결성

서양의 천사(天使)와 신

- 신명이 천사 개념으로 위상이 축소됨
- 인간과 천사의 분리된 존재론적 위계
- 절대자의 인격화 (예수의 "아버지" 표현)
- 지하신과의 친근성 (서양 전통의 특징)
- 선령신의 위상 약화와 복귀 가능성

통합적 관점

- 대순사상의 해원상생을 통한 동서양 신인관계의 통합 가능성
- 서양의 천사 개념이 동양의 신명 지위로 복귀하는 과정
- 무극신(無極神) 등 이법적 원리의 인격적 표현을 통한 동서 융합
- 인간과 신명의 관계가 서양에서도 복원되어 새로운 조화 창출

결론 및 의의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의 비교는 한국 고유 사상의 흐름과 자생적 근대성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기화와 조리라는 두 개념의 비교를 통해 볼 수 있는 핵심적인 결론과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결론

- ◆ **개념적 차이:** 동학의 '기화'는 역동적 생명력을 강조하는 반면, 대순의 '조리'는 질서와 통제를 강조
- ◆ **이(理) 개념 재해석:** 대순사상이 토(土) 개념으로서의 이(理)를 재활성화하여 신명 개념과 연결함
- ◆ **신명과 기화:** 대순사상은 동학의 '외유기화' 개념을 확장하여 신명계와의 조화로 구체화
- ◆ **해원(解冤)과 상생(相生):** '조리'를 통한 이치적 해원과 화해의 실현 방식 제시

학술적 의의

- ◆ **자생적 근대성:** 서양 근대화와 다른, 한국 고유의 근대성 형성 과정 조명
- ◆ **종교적 정체성:** 동학 이후 사상들이 민족 정체성 유지에 기여한 역할 확인
- ◆ **대안적 가치관:** 물질적 근대문명에 대한 비판과 대안적 미래 전망 제시
- ◆ **동서양 사상 융합:** 이법(理法)과 인격신 개념의 통합적 이해 가능성 확장

현대적 의미

학문적 측면

동학과 대순사상의 비교는 한국 사상사 연구에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며, 동아시아 전통 사상의 현대적 재해석과 활용 가능성을 보여줌

실천적 측면

기화와 조리 개념의 균형은 현대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역동성(기화) 속에서도 질서와 조화(조리)를 유지하는 지혜를 제시합니다.

나 노이무공(勞而無功)과 천지성공(天地成功)

Noiimugong and Cheonji-Seonggong

목차

- 1 연구 배경과 목적
- 2 핵심 개념 소개
- 3 동학사상의 노이무공
- 4 대순사상의 천지성공
- 5 전통 귀신 개념과 노이무공
- 6 동학과 대순 지계관의 차이
- 7 일본관의 대비
- 8 결론 및 시사점

연구 배경과 목적

-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은 한국 근대 사상의 토대를 이루는 대표적 사상으로, 이들의 '땅'에 대한 관점(地觀)은 중요한 차이점을 보임
- 노이무공(勞而無功)과 천지성공(天地成功)은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의 지관(地觀)에 있어 그 차이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핵심 용어
- 두 개념의 비교를 통해 한국 근대 사상의 지관 변화와 그 철학적·역사적 의미를 고찰하고 현대적 의의 탐색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의 차지관(地觀)에 있어 그 차이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용어가 노이무공(勞而無功)과 천지성공(天地成功)이다."

핵심 개념 소개: 노이무공과 천지성공

-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의 지관(地觀) 차이를 드러내는 핵심 용어

노이무공(勞而無功)

-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는 의미
- 천외천이 신명으로만 출현한 동학사상에서 사용
- 성공의 사례가 없었음을 의미
- 전통 음양오행 개념과 대비됨

천지성공(天地成功)

- 구천의 인신강세 이후 천지에 대한 표현
- 천지가 역할 분담하여 일을 이룸
- 땅과 하늘의 음양합덕으로 지상천국 실현
- 천주의 성공을 의미

"전통 음양오행에서 천지성공과 대비되는 용어는 천지화육이다. 천원지방, 천도지덕과 같은 이상적 삼재개념에서 천지는 가문의 성공을 위해 자식을 키우는 부모와 같이 인간을 화육하여 천지를 성공시키고자 한다."

동학사상의 노이무공(勞而無功)

- 노이무공(勞而無功):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천외천이 신명으로만 출현한 동학사상에서 자신의 업적을 설명한 용어
- 동학에서는 천주(天主)를 귀신(神明)으로 인식하고, 이러한 천주의 노력은 있었으나 성과는 없었다는 의미전통
- 음양오행에서 천지화육(天地化育)이나 천원지방(天圓地方)과 같은 이상적 개념과 대비됨
- 동학사상의 노이무공은 대순사상의 천지성공을 이해하는 관문이 되며, 천지성공은 땅과 하늘이 음양합덕되는 지상천국을 의미

“동양사상에서 천원지방과 같은 천지에 대한 많은 용어가 있음에도 천지성공에 대한 개념의 단초가 나오는 곳은 동학사상이 유일하다.”

대순사상의 천지성공

- 천지성공(天地成功): 구천의 인신강세 이후 천지가 역할을 분담하여 일을 이루는 개념
- 대순사상은 억음존양(抑陰尊陽)을 정음정양(正陰正陽)으로 바꾸는 천지공사를 통해 전통적인 지관을 실체화
- 삼신산에서 출발하여 부모산인 회문산과 모악산 정비, 산왕과 해왕의 혈자리 정렬
- 음양오행의 중심인 '토(土)'의 중요성 강조 - 구천의 역할이 천지성공에 중요

"천지 음양합덕의 결과인 지상천국은 삼계가 상관적으로 작용하는 대순사상의 지계관을 대표한다."

전통 귀신 개념과 노이무공의 의미

주자학적 귀신 개념

- 주자: "귀신과 관계되는 일은 본디 제이의적인 것이다. 형체도 없고 그림자도 없는 귀신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 송명리학에서 본체론적으로 '이(理)의 체(體)'가 무(無)이고 허(虛)로 인식
- 귀신론은 일상적 '사(事)'를 익히는 소학 단계가 아닌, 마음으로 '이(理)'를 궁구하는 대학단계의 담론

동학의 천외천과 노이무공

- 동학사상에서 귀신은 천외천(天外天)을 의미하며, 천지를 천주 즉 귀신으로 깨닫는 과정에서 노이무공 개념 등장
- 천외천이 신명으로만 출현한 동학사상에서 자신의 업적을 '노이무공(勞而無功)'으로 설명
- 노이무공은 성공의 사례가 없었다는 의미로, 이는 후에 대순사상의 천지성공을 이해하는 관문이 됨

"동학사상에서 노이무공은 천지를 천주, 곧 귀신으로 깨닫는 장면에서 나타나므로 노이무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 동양의 귀신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계관 및 일본관의 대비

지계관(地界觀) 비교

동학사상

- 땅의 생명사상 강조 형태로 이해됨
- 한국 유기농 농법과의 연관성
- 하늘 중심의 사상으로, 땅에 대한 강조는 상대적으로 미약

대순사상

- 삼신산과 부모산(회문산, 모악산)의 재정비
- 지계공사를 통한 지기(地氣) 조정
- 지상천국 실현을 위한 지기통일공사

일본관(日本觀) 비교

최수운(동학)

- 임진왜란 때 침략한 원수로 인식
- "개같은 왜적놈아"라고 표현할 정도로 적대적
- 조상 진립(震立)의 항일 무공에 대한 자부심

증산(대순사상)

- 일본에 대적하지 말고 순종할 것을 주장
- 조선을 일본에 맡기는 공사를 봄
- 일본의 패망과 "품삔도 못 받고 돌아갈 것" 예언

동학과 대순사상의 지계관 및 일본관은 각 사상의 시대적 배경과 철학적 기반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며, 이는 실천적 측면에서의 다른 접근으로 나타남

결론 및 시사점

- 노이무공과 천지성공은 동학과 대순사상의 세계관 및 실천의 차이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핵심 개념임
- 동학은 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는 '노이무공'으로, 대순은 구천의 인신강제 이후 천지가 함께 이루는 '천지성공'으로 지관을 표현
- 천지성공은 기존 동양사상의 천원지방, 천도지덕을 넘어 음양합덕과 삼계개벽을 통해 지상천국을 실현하는 개념으로 발전
- 현대 생태학적 위기와 물질문명의 한계 앞에서 지계(地界)의 재발견과 조화로운 지상천국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철학적 기반 제공

연구의 의의: 노이무공과 천지성공의 비교를 통해 한국 근대 종교사상의 지관(地觀) 변화를 추적하고, 현대 한국 사상에서 지계(地界)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 마련

3

인간관의 자생적 근대성 비교

Comparison of Autogenous Modernity in Views of Humanity

연구개요 및 문제제기

-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은 한국 근대 종교철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함
- 두 사상의 인간관은 평등, 신관, 근대성 등에서 상이함
- 본 발표에서는 인내천, 신인조화, 불연기연, 성사재인 등 주요 개념을 통해 인간-우주-신의 관계와 근대성의 차이를 고찰

동학사상의 인내천 개념

- **인내천(人乃天)**: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의미로 동학사상의 핵심
- 파격적인 **평등사상** - 백정과 여성, 어린이까지도 하늘이 될 수 있다는 주장
- 전근대 사회에서 "천자(天子)"만이 하늘이 될 수 있던 상황에서 **인간세계의 평등**을 주장
- **변혁적 근대성**을 추구 - 서구적 근대성에 부합하는 개념으로 평가됨

"인내천(人乃天)은 내유신령, 외유기화라는 동학사상의 천인지인 관계 중 초월적 측면을 배제하고 내재적 측면을 극대화하여 서구적 근대성에 부합되도록 한 개념"

대순사상의 신인조화개념

- **신인조화(神人調化)**: 신(상제, 신명)과 인간의 조화 및 상생 강조
- 인내천에 대한 비판: 인간은 하늘과 동등할 수 없으며, 천지의 은혜를 망각한 인간의 오만을 경계
- **해원(解冤)**과 **보은(報恩)**: 원한의 해소와 천지에 대한 은혜 갚음의 중요성
- **삼계관(三界觀)**: 천계·지계·인계가 신명에 의해 운행되며 상호작용함
- 인간의 지위는 변혁이 아닌 신명과의 조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상승

동학vs 대순 인간관 비교

구분	동학사상	대순사상
핵심 개념	인내천(人乃天) 사람이 곧 하늘	신인조화(神人調化) 신과 인간의 조화
평등 실현	즉각적, 혁명적 변혁 추구	해원과 상생을 통한 점진적 실현
인간·신 관계	인간 중심, 신명 개념 약함	신명과의 상호작용 중시, 신도(神道) 강조
우주관	삼계(三界) 개념 부족	삼계(천·지·인) 구조 명확
근대성 특징	변혁적, 서구적 근대성에 부합	자생적 근대성, 신인관계 재활성화

불연기연과 성사재인의 의미

불연기연(不然其然)

동학사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불연)**도 수행을 통해 **언젠가는 이해(기연)**할 수 있다는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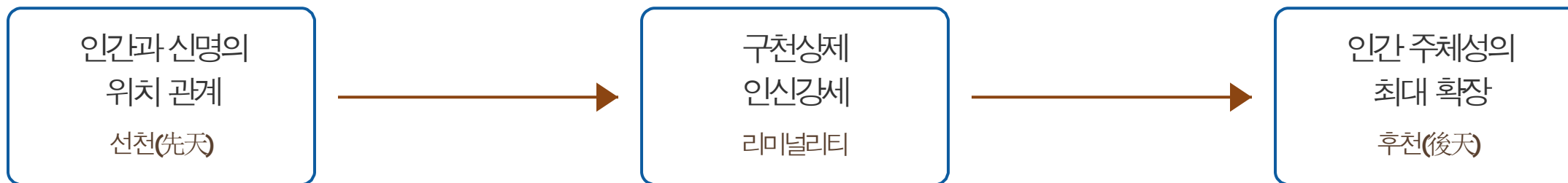
인간의 이해력과 도통을 통한 깨달음의 가능성을 제시

성사재인(成事在人)

대순사상에서 **성공은 인간에게 달려있다**는 의미

선천: "**모사재인(謀事在人)**, 성사재천(成事在天)" → 후천: "**모사재천(謀事在天)**, 성사**재인(成事在人)**"

구천상제의 인신강세 이후 인간 주체성의 획기적 변화를 시사



삼계론과 신명론

- 대순사상은 삼계(三界)를 중심으로 우주와 인간의 관계를 설명
- 신명(神明)은 "진리에 지극한" 존재로 천지의 운영을 담당함
- 동학사상과 달리 신명계와 인간계의 상호작용을 강조

천계(天界)

천상계, 명부 포함
천상문명 기획

인계(人界)

인간 세상성사
재인의 주체

지계(地界)

지하계 포함과
학문명의 기원

자생적 근대성의 차이점

동학사상의 근대성

- 즉각적·혁명적 평등 실현 추구
- 변혁적 근대성: 기존 질서의 급진적 개혁 지향
- 인간 중심의 사상으로 서구적 근대성과 접점

대순사상의 근대성

- 점진적 상생과 해원 중심의 변화
- 신인조화: 신명과 인간의 상호작용 강조
- 성사재인(成事在人): 인간 주체성의 확장

한국적 근대성의 다양성

두 사상 모두 서구 중심의 근대성과 다른 한국적 자생 근대성의 경로를 제시하며, 인간 주체와 세계관의 재구성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실현 방식과 우주론적 프레임에서 차별성을 보임

결론 및 의의

- 동학사상과 대순사상 모두 한국적 **자생적 근대성**의 중요한 사유 흐름을 제시함
- 동학은 **평등과 즉각적 변혁**을, 대순은 **해원과 점진적 상생**의 길을 제시
- 두 사상의 인간관은 서구적 근대성과 차별화된 **동서 사상의 접합점**을 보여줌

인내천과 신인조화는 단순한 종교적 개념이 아닌, 현대 한국사회에서 인간 주체성과 신-인 관계에 대한 새로운 사유 방식을 제공하는 철학적 토대가 됨

가 인내천(人乃天)과 신인조화(神人調化)

Innaecheon and Sinin-johwa

목차

- 1 인내천(人乃天) 사상과 의의
동학사상의 핵심 개념과 역사적 맥락
- 2 대순사상의 신인조화(神人調化)
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대순사상의 관점
- 3 두 사상의 철학적 비교
인내천과 신인조화의 사상적 차이와 공통점
- 4 삼계관과 인간관
천지인(天地人)에 대한 관점과 인간의 위치
- 5 결론 및 시사점
두 사상의 현대적 의미와 함의



인내천(人乃天) 사상과 의의

사람이 곧 하늘이다

초기동학에서 발원한 개념으로, 인간의 내재적 가치와 신성함을 강조하는 사상입니다. 천도교에서 수운의 사상을 해석하며 동학 근대성을 대표하는 개념으로 발전했습니다.

비록 수운이 직접 표현하지는 않았으나, 내유신령(內有神靈), 외유기화(外有氣化)라는 동학사상의 천인지인 관계 중 내재적 측면을 극대화한 개념입니다.

역사적 맥락

전통사회에서는 "천자(天子)"만이 하늘과 연결된 존재였으나, 인내천 사상은 모든 사람이 하늘과 같은 존엄성을 가질 수 있다는 혁명적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평등 사상의 선구적 표현

- **신분 초월의 평등:** 백정(白丁)과 같은 천민도 하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관점으로, 전통적 신분제도에 도전했습니다.
- **성별 평등:** 여성도 하늘로 존중받을 수 있다는 사상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진보적 관점이었습니다.
- **연령 평등:** 어린이도 하늘로 존중받는다는 개념은 전통적인 연령 위계질서에 도전했습니다.
- **근대적 함의:** 서구적 근대성에 부합하는 개념으로, 모든 인간의 평등한 존엄성을 강조합니다.

한계 및 대순사상의 관점

대순사상에서는 인내천 사상만으로는 평등 세상을 이루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진정한 평등은 변혁보다는 천지에 대한 보은과 해원(解冤)을 통해 점진적으로 실현된다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천자(天子)만이 하늘이 될 수 있던 전근대 사회에서, 신명세계를 제외한 인간세계에서 평등을 주장할 수 있는 사상으로서 매우 앞선 사상이었다."

대순사상의 신인조화(神人調化)

신과 인간의 조화

신인조화(神人調化)는 조화(調和)의 '조'와 조화(造化)의 '화'를 결합한 대순사상 고유의 개념으로, 신명과 인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중시합니다.

대순사상에서 인간은 하늘과 동등한 존재가 될 수 없으며, 천지의 은혜를 인식하고 그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事之當旺在於天地必不在人」(일의 성공은 천지에 있지 필연적으로 사람에게 있지 않다)

신인의도(神人依導)

인간이 하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과 인간이 서로 의지하고 인도하는 관계를 통해 조화로운 세계를 실현하는 사상입니다. 이는 인내천과 다른 대순사상의 인간관입니다.

신과 인간의 관계

- **천지의 은혜:** 대순사상은 천지의 은혜를 망각한 인간과 근대성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하며, 천지를 존중할 것을 강조합니다.
- **삼계관:** 천계·지계·인계로 구성된 삼계(三界)에서 신명과 인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통해 새로운 천지운행이 이루어 집니다.
- **해원과 상생:** 평등 세상은 변혁이 아닌 해원(解冤)과 상생(相生)을 통해 점진적으로 실현된다고 봅니다.
- **신명의 역할:** 대순사상에서 신명은 '진리에 지극한' 존재로서, 천지공사(天地公事)에 함께 참여합니다.

동학사상과의 차이

동학이 인간의 내재적 측면을 극대화한 반면, 대순사상은 인간과 신명 간의 상호작용과 조화를 강조합니다. 인간이 하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땅·인간이 각자의 역할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주장합니다.

“신인조화는 천지의 은혜를 알고 신명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통해 진정한 평등과 조화로운 세계를 실현하는 길이다.”

인내천 vs 신인조화: 철학적 비교

인내천(人乃天)
동학사상의 핵심 - 사람이 곧 하늘

- 인간 존엄성과 평등의 강조
- 내재적 측면 극대화(내유신령 개념)
- 인간 중심적 세계관
- 변혁적 접근 방식

신인조화(神人調化)
대순사상의 핵심 - 신과 인간의 조화

- 신명과 인간의 조화로운 관계 강조
- 천지의 은혜에 대한 보은과 해원
- 삼계(天·地·人)의 통합적 시야
- 점진적 성장과 조화의 방식

철학적 관점 비교

하늘과 인간의 관계	인간이 하늘과 동등한 존재가 될 수 있음
평등 실현 방식	혁명적 변화를 통한 즉각적 실현 지향
삼계관	신명계에 대한 언급 적음, 인간계 중심

인간은 천지와 다르며, 상호 조화를 이루어야 함
해원과 상생을 통한 점진적 실현
천·지·인계의 상호작용 강조

■ 나

불연기연(不然其然)과 성사재인(成事在人)

Buryeon-giyeon and Seongsajaein

연구개요 및 목적

- 연구 배경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은 한국 근대 종교사상 발전의 주요 축으로, 두 사상의 인간관 비교 연구는 한국 사상사 이해에 필수적입니다.

-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동학과 대순진리회 사상의 핵심인 인간관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각 사상의 현대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데 있습니다.

- 연구 방법

불연기연(不然其然)과 성사재인(成事在人) 개념을 중심으로 문헌 연구와 비교분석을 통해 두 사상의 인간관 특성과 차이점을 고찰합니다.

핵심 질문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에서 인간의 주체성과 자율성은 어떻게 다르게 표현되며, 이것이 현대 사회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가?

핵심 개념 소개: 불연기연·성사재인

○ 불연기연(不然其然)

현재 이해되지 않는 **불연(不然)**이 수도나 경험을 통해 **기연(其然)**으로 전환됨을 의미

- 동학사상에서 인간으로서 이해가 어려운 부분도 언젠가 수도를 통해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개념
- 신명계를 도입하지 못한 동학사상에서 신인조화를 표현하는 방식

☞ 성사재인(成事在人)

일의 성패 결정권이 **천(天)**에서 **인간(人)**으로 이양된 대순사상의 중심 개념

- 선천: "모사(謀事)가 재인(在人)하고 성사(成事)는 재천(在天)"
- 후천: "모시는 재천하고 성사는 재인" - 구천의 인신강세 이후 결정권의 위치 변화

💡 핵심 차이점

동학사상과 대순사상 인간관의 결정적 차이는 **성사재인**에 있으며, 이는 인간 중심의 세계관 확립을 의미합니다

동학사상의 인간관

▲ 천외천(天外天) 개념

인간을 우주의 중심이자 천(天)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존재로 봄

- 하늘 밖에 또 다른 하늘이 있다는 의미로 인간의 변화와 가능성 강조
- 인간 내부에 천성(天性)이 있어 스스로가 하늘임을 강조

☞ 기(氣) 중심 사상 체계

신명 개념보다 기(氣)와 기운을 중심으로 한 인간관 전개

- 동학사상에서는 "싸움이 결정되는 것은 기운"임을 강조
- 신명 개념이 나타나지 않는 독특한 인간 중심의 세계관 형성

“ 불연기연(不然其然)

“인간으로서 이해가 어려운 불연(不然)이란 부분도 언젠가는 수도를 통해 이해할 수 있는 기연(其然)이 된다”

- 신명계를 도입하지 못한 동학사상에서 신인조화를 표현하는 방식

대순사상의 인간관

👤 인간 중심의 세계관

구천 인신강세 이후 천지신명의 역할이 약화되고 **인간의 자율성과 주체성**이 강화됨

- 인간을 음양오행의 중심 **토(土)**로 자리매김하여 신인조화 체계의 핵심 역할 수행
- 몸속에 갇힌 신이기에 내부의 신을 깨워 외부의 신과 소통 가능

☁️ 구천 인신강세(九天人神降世)

최고신의 인간 몸으로의 강림이 인간과 신명의 위치를 바꿈

- "신명은 비겁(否劫)에 빠지고 인류는 재겁(災劫)에 빠졌기" 때문에 인간 중심의 세계관 확립
- 인간은 신명보다 몸이라는 실체를 가진 점에서 불완전하나 변화에 신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짐

👏 성사재인(成事在人)

일의 성패 결정이 이제 인간에 의해 이루어짐

- "모사는 재천하고 성사는 재인이니라" - 전경, 교법 3-35
- 인간을 통해 천지가 성공하는 개벽의 원리로서의 신인조화 확립

“천상 싸움이 끝난 뒤에 인간 싸움이 결정되나니라”(전경, 교법 1-54)에서 "이제는 모사는 재천하고 성사는 재인"으로 패러다임 전환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의 비교 분석

☼ 동학사상

신명 개념

신명 개념이 미약하고, 기(氣)와 기운 중심의 사상 체계

음양오행 운용

음양오행의 운용에서 토(土)가 신명의 역할을 함

핵심 표현

불연기연(不然其然) -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수도를 통해 이해 가능

인간관

천외천(天外天) 개념을 통해 인간의 변화와 가능성 강조

● 대순사상

신명 개념

신명과 인간의 위상 변화를 명확하게 제시

운용 구조

인간 중심의 재화/운용구조 확립, 신인조화 체계 강화

핵심 표현

성사재인(成事在人) - 일의 성패 결정권이 인간에게 있음

인간관

구천 인신강세 후 인간의 주체성과 자율성 강조

핵심 차이점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의 인간관의 결정적 차이는 **성사재인**에 있으며, 이는 인신강세 이후 천지신명이 아닌 인간이 천하사의 주체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신인조화와 음양오행 원리



신인조화의 원리

대순사상에서 인간(양)과 신명(음)은 음양합덕의 원리로 조화됨

- 인간은 몸을 가진 실체로서 변화에 신축적으로 적용 가능함
- 신명은 진리에 지극하나 한 방향만을 가지고 있음



음양오행의 작용

금화교역(金火交易): 상반된 기운(금과 화)의 교환을 통한 조화

- 토극수(土克水): 인간(토)이 신명계(수)를 제어하는 원리
- 인간은 음양오행에서 중심인 토(土)로서 신명의 기화(氣化)를 조리(調理)함



신인조화와 성사제인의 관계

대순사상에서 개벽은 천지가 성공하는 것으로, 이는 도통군자의 배출 이후에 가능한 인존의 도통진경 세계입니다. 신인조화는 인간을 통해 천지가 성공하는 개벽의 원리가 됩니다.

인간(토)의 조리(調理)와 신명의 기화(氣化)의 상호작용

인간(土)



신명

결론 및 의의

■ 연구 결과 요약

-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의 인간관은 불연기연에서 성사재인으로 발전
- 대순사상은 동학사상에 비해 상관적 사유의 확대와 프랙탈 사유가 강화됨
- 인간과 신명의 위치 변화는 구천의 인신강세를 통해 이루어짐

🏛️ 학술적 의의

- 한국 종교사상의 인간관 변화 과정 조명
- 신인조화(神人調和)의 철학적 의미 확장
- 근대 한국 종교사상의 자생적 특성 발견

💡 현대적 함의

- 인간 주체성과 책임의식 강화에 기여
- 현대 사회에서의 리미널리티 회복 방안
- 동양 전통사상의 현대적 재해석 가능성

▶▶ 향후 연구 제안

성사재인(成事在人)의 현대적 적용 방안과 신인조화(神人調和)의 실천적 의미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특히 한국 종교사상이 지닌 동서양 문화의 통합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V-4. 동학사상과 대순사상 천지관계의 자생적 근대성 비교

천지귀신(天地鬼神)과 천지성경신(天地誠敬信)
도기장존(道氣長存)과 상생(相生)

연구자: [발표자 이름]
[소속 기관]

발표일: 2025년 6월 21일

연구 개요 및 목차

본 연구는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의 천지관계를 중심으로 한국 사상사에 나타난 자생적 근대성의 특징을 비교·분석하는 연구입니다. 특히 천지귀신과 천지성경신, 도기장존과 상생이라는 핵심 개념의 비교를 통해 두 사상의 자생적 근대성의 특징과 의의를 고찰합니다.

주요 내용

1. 천지귀신과 천지성경신 개념 비교
2. 동학사상의 천지귀신론
3. 대순사상의 천지성경신론
4. 도기장존과 상생 개념 분석
5. 서양에 대한 인식 차이
6. 일본에 대한 관점 비교
7. 결론 및 자생적 근대성의 의의

4

동학사상과 대순사상 천지관계의 자생적 근대성 비교

Comparison of Heaven-Earth Relationships

동학사상의 천지귀신론

귀신(鬼神)의 재해석

동학사상에서 '귀신'은 신명(神明)이 아닌 초월천(天外天)을 의미

- 성리학의 음양작용으로서의 귀신 개념 초월
- 귀신을 초월천의 기화작용으로 재해석 천
- 지가귀신 = 천지는 초월천의 기화작용

"천지역시(天地亦是) 귀신(鬼神)이오 귀신역시(鬼神亦是) 음양(陰陽)인줄 이같이 몰랐으니 경전(經傳)살펴 무엇하며 도(道)와 덕(德)을 몰랐으니 현인군자(賢人君子) 어찌알리"

- 『용담유사』, 「도덕가」

초월천과 기화작용

- 기화작용(氣化作用): 초월천의 지기(至氣)가 천지를 만드는 원리
- 성리학과 차이: 성리학은 음양 작용의 실체적 설명으로서의 귀신을 논했으나, 동학은 초월천을 강조
- 근대성의 시도: 초월천을 통해 성리학을 뛰어넘는 근대성 추구
- 한계점: 신명 개념 미수용으로 유교의 전환을 넘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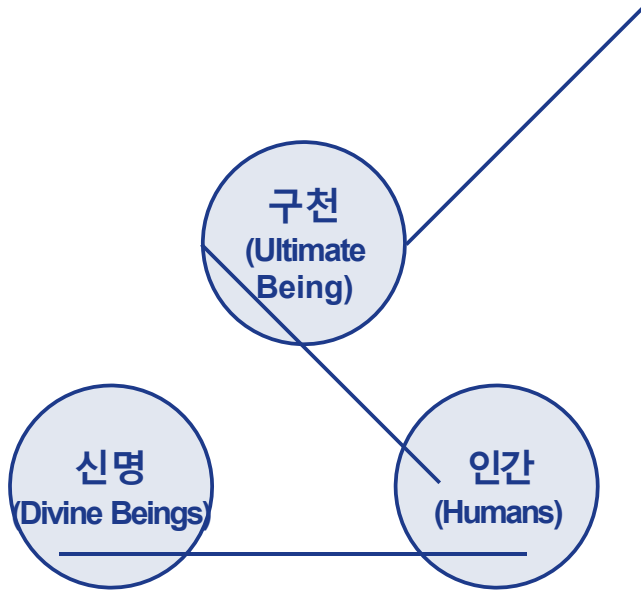
성(誠) 사상의 강조

동학사상은 성경신 사상을 강조하였으나, 유교와 달리 천지의 천이 아닌 천지를 만든 초월천에 대한 성(誠)을 강조

"吾道專而約不用多言義別無他道豈豈成敬信三字"

동학사상은 초월천을 통한 근대성을 추구했으나, 신명 개념을 수용하지 못해 완전한 자생적 근대성에는 도달하지 못함

| 대순사상의 천지성경신론



삼각구도의의의

- ◆ 구천-신명-인간의 소통 강조
- ◆ 동학사상과 달리 신명 개념 적극 수용
- ◆ 신명을 매개로 한 천지간 조화와 질서 확립

성경신(誠敬信)의 의미

성(誠)

창조성, 하늘과 인간을 연결하는 통로

경(敬)

공경과 존중, 천지에 대한 예의

신(信)

신뢰와 믿음, 천지운행의 기반

"생(生)과 수명(壽命)과 복록(福祿)은 천지(天地)의 은혜(恩惠)이니 성(誠)·경(敬)·신(信)으로써 천지(天地) 보은(報恩)의 대의(大義)를 세워 인도(人道)를 다하고..."

성경신의 차별성

유교사상	하늘-인간 관계에서의 성(誠) 강조
동학사상	초월천에 대한 성(誠) 강조
대순사상	구천-신명-인간 삼각구도에서의 성경신

도기장존과 상생 개념 분석

동학사상: 도기장존(道氣長存)

- 의미: 도의 기운이 길이 보존됨(사특한 것이 들어오지 못함)
- 특성: 힘에 대해 힘으로 대항하는 의미 강조
- 강조점: 상극(相克)의 힘, 척왜(斥倭) 중시
- 한계: 진심견수(眞心堅守)의 가치 미흡
"道氣長存邪不入, 世間衆人不可歸" (입춘시)

대순사상: 상생(相生)

- 의미: 해원상생(解怨相生), 만물의 조화로운 생성
- 특성: 구천의 음양오행 운행원리로서 조화 추구
- 강조점: 진심견수(眞心堅守) "福先來"의 원리
- 발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상생 원리 구현
"진심견수 복선래(眞心堅守福先來)"

상생

음양오행의 원리
구천(九天)에 의한 오행의 조리(調理)

상극

동학사상: 상극의 힘 추구, 기화(氣化)와 척왜 강조 vs 대순사상: 해원상생의 조화, 음양오행의 균형 추구

서양에 대한 인식 차이

동학사상: 서학에 대한 대립적 태도

- 명칭: '동학'이라는 명칭 자체가 '서학'에 대한
- 성격: 서학에 반대하는 자생적 근대성 추구
- 영향: 서양 근대성의 동양적 기원을 주장
- 특징: 성리학을 넘어서려는 자생적 근대화

동학은 서학과 함께 동양에 재수입되고 중국 근세 도교와 성리학이 종합되며 천사문답이라는 상제의 계시 형태로 성립

대순사상: 포용적 동서양 세계관

- 명칭: '대순'이라는 용어에서 포용의 의미 강조
- 성격: 동서양 상생관계 추구
- 영향: 서양 근대성의 동양적 수용과 발전
- 특징: 음양합덕의 관점에서 동서양 조화 모색

'동유대성인왕동학 서유대성인왕서학'(동쪽에 대성인이 있어 가로되 동학이요, 서쪽에 대성인이 있어 가로되 서학이라 한다)

동학사상: 서양에 대한 경계와 대립 중심 → **대순사상:** 동서양의 음양합덕적 상생 추구

실학과 서학의 관계에서도 드러나듯, 조선 후기 서양문명에 대한 인식은 복합적이었으나, 대순사상은 마테오 리치 같은 서양 인물을 "천상의 문명을 땅에 전한 인물"로 평가하는 등 더 포용적 관점 제시

| 일본에 대한 관점 비교 및 결론

동학사상의 일본관

- ◆ 적대적 인식: "개같은 왜적놈"
- ◆ 태도: 서양과 일본에 대한 경계심
- ◆ 특징: 척왜(斥倭)를 강조하는 상극의 힘 추구
- ◆ 도기장존(道氣長存): 힘에 대해 힘으로 대항하는 의미
"도기장존 사불입(道氣長存邪不入)"

대순사상의 일본관

- ◆ 해원(解怨): 임진란 이후 도술신명 사이의 척(慼)을 푸는 관점
- ◆ 상생관점: "일본은 일본 사람이니 말대접이라도 후하게 하라"
- ◆ 특징: 일본해원(日本解冤)은 증산 화천 후 최초 실현된 천지공사
- ◆ 진심견수(眞心堅守): 상극을 상생으로 풀어야 함을 강조
"진심견수 복선래(眞心堅守福先來)"

결론: 자생적 근대성의 의의

개념적 의의

- ◆ 초월천과 천지신명 관계의 재정립
- ◆ 자생적 근대성의 다양한 경로 제시
- ◆ 조선 후기 사상과의 연속성과 단절

실천적 의의

- ◆ 동학: 척왜척양 중심의 저항적 근대성
- ◆ 대순: 해원상생 중심의 포용적 근대성
- ◆ 상극과 상생의 균형과 조화 모색

현대적 시사점

- ◆ 동아시아 사상사의 독자적 근대화 가능성
- ◆ 전통 사상의 현대적 재해석 방향성 동서
- ◆ 양 문명 교류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안

양 사상은 한국의 자생적 근대성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제시하며
한국 사상사의 독창적 발전 경로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가 천지귀신(天地鬼神)과 천지성경신(天地誠敬信)

Cheonji-Gwisin and Cheonji-Seonggyeongsin

~~목차~~

- 1 서론
- 2 동학사상의 천지귀신
- 3 대순사상의 천지성경신
- 4 두 사상의 비교 분석
- 5 성경신 개념의 차이
- 6 결론

서론

본 발표에서는 **천지귀신(天地鬼神)**과 **천지성경신(天地誠敬信)** 개념을 중심으로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의 비교 연구를 진행합니다.

- 두 개념은 각각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에서 처음 출현하는 **천지 관계를 대표하는 용어**로, 각 사상의 핵심 차이를 반영합니다.

- **천지귀신** - 동학사상에서 **천외천의 출현**을 강

조천지성경신 - 대순사상에서 **구천의 인신강**

세를 강조

두 사상 모두 전통적인 동양사상의 음양 천지 개념을 넘어 **초월천**의 존재를 중시하며, 이러한 관점이 한국 종교사상의 독특한 특성을 형성합니다.

동학사상의 천지귀신

동학사상에서 **천지귀신(天地鬼神)**은 **초월천(超越天)의 음양이치**로 만들어진 천지를 의미합니다.

천외천(天外天)과 귀신의 의미

동학사상에서 '귀신'은 신명을 의미하지 않고, 천지를 만든 **초월적 존재**인 천외천을 가리킴

기화작용(氣化作用)

천지귀신은 초월천의 지기(至氣)가 변화하여 현실세계를 형성하는 **기화작용**을 강조

"천지역시(天地亦是) 귀신(鬼神)이오 귀신역시(鬼神亦是) 음양(陰陽)인줄
이같이 몰랐으니 경전(經傳)살펴 무엇하며
도(道)와 덕(德)을 몰랐으니 현인군자(賢人君子) 어찌 알리"

- 『용담유사』, 「도덕가」

동학사상은 성리학의 천지 개념을 넘어 **초월천**을 강조함으로써 근대적 전기를 마련했으나, **신명 개념의 부재**로 인해 성공적인 근대성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성리학: 천지가 귀신이란 것은 **음양 작용의 실체적 설명**동

• 학사상: 천지가 귀신이란 것은 **초월천의 기화작용**을 의미귀

• 신기개념이 신명개념으로 대체되지 못한 한계 존재

대순사상의 천지성경신

대순사상에서는 **구천의 인신강제**와 **신명의 성경신**에 의해 천지가 운행된다고 봅니다.

"생(生)과 수명(壽命)과 복록(福祿)은 천지(天地)의 은혜(恩惠)이니 성(誠)·경(敬)·신(信)으로써 천지(天地) 보은(報恩)의 대의(大義)를 세워 인도(人道)를 다하고"

- 대순진리회 요람 「훈회」

대순사상의 특징: 천지를 귀신이라고 표현한 동학사상에 대하여 대순사상은 **천지를 성경신**으로 표현합니다.

대순사상에서 인간의 생과 수명과 복록은 천지를 운행하는 **여러 신명들의 성경신(誠敬信)**에 의해 베풀어진 은혜이므로, 인간 또한 천지를 본받아 성경신으로 보은해야 합니다.

개념	의미	대순사상적 특징
삼요체	성(誠)·경(敬)·신(信)	대순진리회 신조의 핵심
삼각구도	구천·신명·인간	성(誠) 개념의 실천적 의미

두 사상의 천지관계 비교 분석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은 모두 초월천을 강조하지만, 그 해석과 적용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비교 항목	동학사상	대순사상
핵심 개념	천지귀신(天地鬼神) 초월천의 출현 강조	천지성경신(天地誠敬信) 구천의 인신강세 강조
귀신 개념	'귀신'은 초월천(天外天)을 의미 신명 개념 결여	천지신명과 그들의 성경신 강조 신명 개념 적극 수용
서양에 대한 인식	"동학"이란 이름에서 보듯 서학에 대립 서양에 대한 대항적 성격	"대순"이란 용어에서 보듯 포용적 입장 서양 근대성의 동양적 기원 제시
천지 해석	천지는 초월천의 기화작용(氣化作用) 성리학의 음양작용을 넘어선 해석	천지는 신명의 성경신으로 운행됨 구천, 신명, 인간의 삼각구도
한계점	신명 개념의 부재로 완 전한 근대성 달성 실패	신명 개념을 수용하여 체계를 보완 발전

* 두 사상 모두 기존 성리학을 넘어서는 근대적 사유를 지향하였으나, 그 방식과 강조점에서 차이를 보임

나

도기장존(道氣長存)과 상생(相生)

Dogi-jangjon and Sangsaeng

결론

천지귀신과 천지성경신 개념의 의의

두 개념은 동학과 대순사상의 다른 천지 해석 방식을 보여주며, **초월천에서 신명으로** 이어지는 한국 근대 종교사상의 발전과정을 반영합니다.

한국 근대 종교사상에서의 위치

- **동학사상**: 초월천의 기화작용 강조, 성리학을 넘어선 근대적 전환 시도 **대순사상**
- **상**: 신명 개념의 수용으로 동학이 이루지 못한 종교적 근대성 완성 두 사상은
- 모두 **자생적 근대성**을 추구하며 한국 고유의 근대 종교사상 형성

향후 연구 방향

- 성경신 개념의 실천적 의미 탐구와 현대적 적용 가능성서
- 양 근대성의 동양적 기원과 자생적 근대성 비교 연구
- 천지관계와 초월천 개념의 동아시아 종교사상사적 발전 고찰

V4나. 도기장존 (道氣長存)과 과상생 (相生)

대순사상과 동학사상에서 나타나는 도기장존(道氣長存)과 상생(相生) 개념의 비교 분석

목차

- 1 상생 개념의 정의와 특징
- 2 음양오행과 상생의 관계
- 3 도기장존의 의미와 배경
- 4 대순사상과 동학사상의 상극상생 관점 차이
- 5 서양과 일본에 대한 두 사상의 관점 비교
- 6 결론 및 시사점

상생 개념의 정의와 특징

- 상생(相生)은 대순사상과 동학사상에서 핵심적으로 논의되는 개념
- 대순사상에서 해원상생의 추상적 개념 등장- 조리와 기화, 토(土)에 따른 중재적 역할
- 동학사상에서는 상생이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음

도기장존과 상생 - 대순사상과 동학사상 비교

음양오행과 상생의 관계

- 음양오행 (陰陽五行)은 동양 사상의 핵심 원리
- 대순사상: 음양합덕, 삼재확립 등 오행 이론 발전, 상생상극원리에 주목
- 전통적 해석: 음양오행은 토(土)를 중심으로 변하지 않는 이(理), 외적 변화는 기(氣)로 설명

도기장존과 상생 - 대순사상과 동학사상 비교

도기장존의 의미와 배경

- 도기장존(道氣長存)은 동학의 수운 최제우의 입춘시 구절에서 유래
- 원문: "道氣長存邪不入, 世間衆人不同歸"

"도의 기운이 오래도록 보존되면 사악함이 들어오지 못하고, 세간의 뒤턓사람과 같이 돌아가지 않으리라."

- 『전경』에서는 수운의 '도기장존'을 증산의 '진심견수(眞心堅守)'와 대비
- 힘(상극)에 대해 힘으로 대항하는 의미가 강조된 개념

대순사상과 동학사상의 상극-상생 관점 차이

- 대순사상: 상극(相克)과 상생(相生)을 심리민상의 핵심 원리로 격상
- 동학사상: 척왜(斥倭)와 같이 상극(相克)의 힘 강조, 그러나 궁극적으로 상생으로 해결방안 제시
- 상극과 상생의 균형과 조화가 중요하다고 명시
- 『전경』에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피로 피를 씻는 것과 같으니라"

도기장존과 상생 - 대순사상과 동학사상 비교

서양과 일본에 대한 두 사상의 관점 비교

- **대순사상**: 동양과 서양을 상생관계로 이해, 서학동학 모두 대성인으로 평가
"東有大聖人曰東學 西有大聖人曰西學" (동유대성인왈동학 서유대성인왈서학)
- **동학사상**: 서양에 대한 경계심 강함, 일본에 대해서도 상극적 태도 강조
"개같은 왜적놈" 등의 표현에서 드러나는 상극적 관점
- **일본 해원**: 대순사상은 임진란 이후 맺힌 척을 풀고 일본과의 역사적 해원을 통한 상생 방향 제시
말대접이나 후덕하게 하라 - 상생으로 가는 길

도기장준과 상생 - 대순사상과 동학사상 비교

결론 및 시사점

- 도기장존(道氣長存)과 상생(相生) 개념을 통해 본 동학
과 대순의 사상적 발전 과정
- 대순사상의 상생 철학은 대립보다 조화와 화해를 통
한 문제 해결 방식을 제시
- 동학사상의 도기장존은 외세에 대한 민족적 저항의
식을 반영하나, 대순사상은 상생적 세계관으로 발전
- 두 사상의 비교를 통해 본 한국 전통 사상의 해원상생
(解冤相生) 철학의 현대적 의미와 가치

5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의 천인·지인 관계의 자생적 근대성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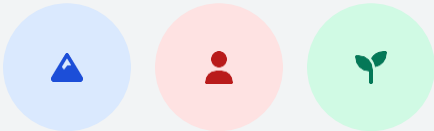
Comparison of Heaven-Human and Earth-Human Relationships

사상의 천인·지인 관계의 자생적 근대성 비교



목차

발표 내용 개요



- 1 문제 제기 및 연구 의의
- 2 인도와 신도의 천인관계
- 3 삼계관의 심화와 재정립
- 4 사회적 실천과 도통군자
- 5 음양오행과 상생·조화
- 6 비교표: 동학과 대순의 근대성
- 7 결론: 자생적 근대성의 함의

문제 제기 및 연구 의의



연구 배경과
학술적 중요성

천인·지인 관계의 자생적 근대성 비교

연구 목적과 의의

- 자생적 근대성 관점에서의 비교:
서양과 다른 경로로 발전한 동아시아 고유의 근대성을 동학과 대순사상을 통해 조명합니다.
- 천인·지인 관계의 철학적 깊이:
하늘-인간, 땅-인간 관계에 대한 동학과 대순의 차이점을 분석하여 한국 종교철학 사상의 독특한 세계관을 파악합니다.
- 사회변혁 사상으로서의 의의:
두 사상이 근대 한국사회 형성 과정에 미친 영향과 변혁적 특성을 비교 분석합니다.
- 사상적 연속성과 발전:
대순사상이 동학의 '참동학'으로서 계승발전시킨 부분과 차별화된 지점을 명확히 합니다.

"동학과 대순의 천인·지인 관계 비교는 한국 고유의 철학적·종교적 전통이 근대화 과정에서 어떻게 자생적 발전을 이루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연구입니다."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의 천인·지인 관계의 자생적 근대성 비교

인도와 신도의 천인관계



인도(人道)



신도(神道)

동학사상

- "천외천(天外天)" 개념 도입
기존 유교적 하늘 개념을 넘어선 초월적 존재 강조
- 인도(人道) 중심의 실천 사상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실천을 통해 천외천과 소통
- 신명에 대한 언급 부족
신도(神道)에 대한 충분한 이해 부족

"동학사상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함으로써 천외천과 소통하는 인도(人道)의 길을 택했다."

대순사상

- 신명(神明)의 실질적 역할 강조
천지신명을 통한 신도(神道) 소통과 구조적 변화
- 천지 구조의 개벽적 변화
신도를 통한 우주적 질서와 구조 변혁
- 해원(解冤)과 천지 구조 변화
원한 해소를 통한 천·지·인 삼계의 원리 재정립

"대순사상은 동학사상이 천명과 신교라는 신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신명을 가위 언급하지 않고 인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음을 아쉬워한다."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의 천인·지인 관계의 자생적 근대성 비교

삼계관(三界觀)의 심화와 재정립



천(天)·지(地)·인(人)
삼계의 조화와 관계

대순사상의 삼계관

- 천지인(天地人) 삼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조화 강조
- 인간을 천지 매개자로 중시 - 신인조화(神人調化)
- 인간이 신명의 조화에 중개자 역할
- 천지의 성공 여부는 인간에게 달려있음 - 인간 중심적 구도

동학사상의 삼계관

- 삼계관 체계가 상대적으로 약화됨
- 천외천(天外天) 개념에 집중, 신명 역할 언급 부족
- 인간 중심의 실천 윤리에 집중
- 인도(人道)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체계

"대순사상은 인간이 천지와 호환될 수 있어 인간이 있어야 천지가 성공할 수 있다는 천지 매개의 인간 중심성을 신인조화라고 명확하게 언급한다."



대순사상: 삼계의 조화와 인간 매개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의 천인·지인 관계의 자생적 근대성 비교

사회적 실천과 도통군자



지인관계의
사회적 실현

"지인관계(地人關係)는 사회적 실천을 통해 구현되며, 이상 사회의 실현 방식에서 두 사상의 차이점이 드러난다."

🔥 동학사상

- 심급도유(心急道儒): 마음이 급한 유학자로서 현실적 변화 추구
- 온 나라 양반 만들기: 백성들도 양반 평등의 실현
- 실천 중심: 현실에서의 능동적 실천과 사회 변혁

"동학은 인간 실천 중심의 사회적 개혁을 위해 평등과 균분의 가치를 강조했다."

▲ 대순사상

- 도통군자(道通君子): 도를 통달한 성인 배출 중시
- 금강산 개벽: 신선세계로의 전환 과정
- 지상신선(地上神仙): 현세에서 천국 실현

"대순은 신도(神道)와 인도(人道)의 통합을 통해 도통군자가 주도하는 후천 선경을 지향했다."

지인관계 실천의 핵심 차이점

동학: 사회적 평등의 외적 실현 중심

대순: 도통을 통한 내외적 통합 지향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의 천인·지인 관계의 자생적 근대성 비교

음양오행과 상생·조화



木

火

土

金

水

음양오행과 상생·조화의 근대적 의의

대순사상

- 음양오행 원리를 천지공사와 연결하여 **우주 변화의 법칙**으로 승화
- 상극에서 **상생으로의 전환**을 통한 후천개벽 실현
- 조화와 균형을 통한 **천지인 삼계의 변화** 촉진

동학사상

- 음양오행과 같은 **자연법칙에 대한 언급 미흡**
- 신명과 자연법칙보다는 **인간 실천(인도)에 중점**
- 사회적 변화는 강조했으나 **우주적 차원의 변혁 확장은 제한적**

“대순사상은 음양오행의 조화로운 순환원리를 도입하여 인간과 자연, 우주를 통합하는 상생의 세계관을 제시했다.”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의 천인·지인 관계의 자생적 근대성 비교

동학과 대순의 자생적 근대성 비교 및 결론

 두 사상의
비교와 함의

 현대적
의의

구분	동학사상	대순사상
중심 사상	인간중심, 인도(人道)	신인조화, 신도(神道)
천인관계	천외천, 시천주	신명과의 상생·조화, 삼계관
사회적 실천	심급도유, 온나라양반	도통군자, 지상신선
근대성 특징	평등운동의 원형	변증법적 구조, 참동학

종합적 결론

- ✓ 자생적 근대성의 두 경로: 동학은 인간 중심 평등사상으로, 대순은 포괄적 삼계관과 변혁적 신도 이해를 통해 독자적 근대성 구현
- ✓ 보완적 발전: 대순사상은 동학이 불완전하게 다룬 신명신도음양오행을 체계화하여 참동학으로서 발전
- ✓ 현대적 의의: 서구 중심 근대화와 다른, 동아시아적 세계관에 기반한 자생 근대성의 대안적 모델 제시

“동학과 대순사상은 서구 중심 근대성과는 다른 경로로, 한국의 고유한 문화적·종교적 토양에서 발생한 자생적 근대성의 두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현대 사회에 다원적 발전 방향을 시사한다.”

가 인도(人道)와 신도(神道)의 천인관계

Heaven-Human Relationship of Indo and Sindo

대순사상의 천명과 신교

- 대순사상에서는 '천명'과 '신교'를 통해 인도(人道)와 신도(神道)를 구분
- 상제께서 천명과 신교를 내려 대도를 세우게 하셨다가 갑자년에 천명과 신교를 거두심
- 신미년에 스스로 세상에 내리기로 정하신 인신강세의 의의

『전경』 『예시』 1. 참조

신도와 인도의 핵심적 차이

- 인도(人道)는 인간 중심의 인위적인 도, 신도(神道)는 신명에 의한 자연법칙적 도
- 신명은 천지를 구성하는 요소이므로 신도는 구조적 변화를 수반
- 천지공사와 병행되는 신도는 천인관계 재정립의 형태로 나타남

"신도(神道)로써 크고 작은 일을 다스리면 현묘 불측한공이 이룩되나니... 운수가 돌아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

『전경』 『예시』 73. 참조

동학사상과의 비교

동학사상

- 천외천(天外天)의 출현을 강조하나 인도(人道)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함
- 신명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함
-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천외천과 소통하는 인도(人道)의 길 택함
- 프랑스대혁명보다 진정한 원조의 근대 사상운동으로 평가됨

대순사상

- 구천의 인신강세(人神降世)를 강조하며 신도(神道)를 중시
- 천지신명과의 소통을 통한 천인관계 재정립 추구
- 인간과 신명의 조화: "인위양 신위음"(人爲陽 神爲陰)
- 동학사상의 한계를 넘어 신도(神道)와 인도(人道)의 병행 강조

천인관계의 재정립

- 대순사상: 천지공사와 신도의 조화로 천인관계를 재정립
 - 천지를 구성하는 신명과의 소통을 통한 구조적 변화 추구
- 인도(人道)에서 벗어나 신명과의 소통 강조
 - 천인합일의 새로운 방식으로 인간과 신명의 조화 추구
- 유교와의 차별성
 - 유교: **경이원지(敬而遠之)** - 신명을 인정하되(敬) 가까이 하지 않음(遠之)
 - 대순사상: 신명과의 적극적 소통과 조화를 통한 변화 추구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 먼저 도수를 굳건히 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될 것이니라."

『전경』 『공서』 1-3. 참조

음양 조화와 신명의 역할

- 인간은 양(陽), 신명은 음(陰)이라는 관계 설정
人爲陽神爲陰(『전경』 제생 43)
- 음양을 쓸 줄 알아야 비로소 인간이라 할 수 있음
人可用陰陽然後方可謂人生也
- 신명과 소통(感通)하여야 변화의 길을 열 수 있음

“음양이 서로 화합한다음이라야 변화의 길이 있다”
(陰陽相合然後有變化之道也)



삼계공사와 해원상생

- 상제의 삼계공사: 상극에서 상생으로,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 해소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 신도를 통한 해원 강조 -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
- 동학사상과 서구적 근대성의 한계: 신명과 원한이라는 부분을 이해하지 못해 결국 성공 불가
- 천인관계와 신인관계의 재정립을 통한 사회 변혁의 가능성

『전경』 『공사』 1-3. 참조

결론 및 현대적 의의

천인관계 재정립의 의의

- 대순사상은 인간 중심의 인도(人道)를 넘어 신명과의 조화를 강조하는 신도(神道)를 통해 천인관계를 재정립
- 상극에서 상생으로의 전환을 통한 사회적 변혁 가능성 제시
- 천지신명과의 소통을 통한 인간 존재의 근본적 재해석

전통 사상의 계승과 확장

- 유교·불교·도교 전통을 수용하면서도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 동학사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도(神道)를 통한 근본적 해원 강조
- 현대사회에서 인간과 자연, 신명 간의 조화로운 관계 모색 가능성

■ 나 심급도유(心急道儒)와 도통군자(道通君子)의 지인관계

Earth-Human Relationship of Simgeub-doyu and Dotong-gunja

연구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한국 전통 철학에서 심급도유(心急道儒)와 도통군자(道通君子)의 사상 및 이들의 지인관계를 고찰하고, 그 시대별, 사상별 의의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심급도유(心急道儒)란 도학(道學)에 매진하며 마음의 급한 깨달음을 구하는 유학자를 뜻합니다
- 도통군자(道通君子)는 도통(道通), 즉 진리를 통달하고 체화하여 구현하는 군자를 일컫습니다. 도학의 전통과 학문적 계보를 이어 받아 실천하는 인물들입니다.
- 이들의 관계성 연구를 통해 유학과 도학이 한국 사상사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발전해 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전통 유학의 관계망과 지식 전수 체계를 고찰함으로써 한국 전통 사상의 특징과 현대적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나 역시 큰 스승을 만나지 못하여 배우고 익힘에 있어 척도가 있지 못하였다. 그러나 책을 읽으면서 의리가 있는 곳을 분별하여 스스로 깨달아 얻은 것이 많다.』

도통군자(道統君子)의 의미

도통군자(道統君子)는 **도통(道通)**, 즉 진리를 통달하고 체화하여 구현하는 군자를 일컫습니다.

- 도통군자는 **도통(道統)**, 즉 도학의 전통과 학문적 계보를 이어받아 실천하는 인물입니다.
- 심급도유와 달리 조급함보다는 **도를 체화하고 조화롭게 실천**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 **학문과 수양의 완성**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는 이상적 인격을 의미합니다.

『도통(道統)에 대하여 치지(致知)와 함양(涵養)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떨어질 수 없음은, 성학(聖學)이 순발과 같이 서로 보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급도유와 도통군자의 차이는 수행방식과 가치 지향에서 드러나며, 본질적으로는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합니다. 도통군자는 유가(儒家)의 핵심적인 도덕적·학문적 가치를 구현하는 이상적 인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도학에서는 도통군자의 역할을 **학문의 계승과 전파**에 중요하게 여깁니다.
- 역사적으로 **유교의 도통 계보**를 잇는 중요 인물들을 지칭했습니다.
- 개인적 수양뿐 아니라 **사회와 국가에 대한 책임**을 중시합니다.



Chapter VI

결론

Conclusion

연구 개요

연구 개요

- **연구 목적:** '동학(東學)' 개념을 중심으로 두 사상이 천관지관인간관의 재구성을 통해 동아시아의 자생적 근대성을 구축하였음을 입증
- **연구 배경:** 동학농민운동은 프랑스 대혁명에 버금가는 근대적 운동으로 재평가되고 있으며, 대순사상은 동양의 전통적 사유체계로 근대 이후의 세계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사상으로 주목받음
- **연구 질문:**
 - 1) 두 사상은 어떻게 동아시아의 자생적 근대성을 구축하였는가?
 - 2) 천관지관인간관은 두 사상에서 어떻게 재구성되었는가?
 - 3) 상관적 사유와 리미널리티 관점에서 두 사상의 특성은 무엇인가?

핵심 논의 요약

핵심 논의 요약

- 동학농민운동의 재평가: 프랑스 대혁명에 버금가는 근대적 운동으로서의 가치
 -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이 구축한 동아시아 자생적 근대성의 역사적 의의
- 위기에 처한 서양 근대성의 대안: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의 천관·지관·인간관
 - 만물의 변화를 실체로 보는 서양의 내재성 vs. 속성으로 설명하는 동양의 상관적 사유
- 상관적 사유의 리미널리티: 두 사상의 핵심 특성
 - 리미널리티(경계성): 대립하는 두 요소를 포함하여 조화하는 동양사유의 카오스적 동태성
 - 상관적 사유: 만물이 상호 연결된 프랙탈적 정태성
- 천지인 삼계관: 동서양 근대성을 통합하는 자생적 근대성의 구축
 -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의 천관지관인간관을 통한 상관적 사유의 재활성화

상관적 사유와 리미널리티

- 상관적 사유 (Correlative Thinking): 프랙탈적(Fractal) 정태적 특성
 - 만물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관계성 중심의 사유 체계
 - 서양의 실체(substance) 중심 사유와 달리 속성(attribute) 중심의 설명
 - 천지인(天地人)의 유기적 연결성과 상호 영향 관계 강조
- 리미널리티 (Liminality): 카오스적(Chaos) 동태적 특성
 - 문지방, 경계의 뜻으로 통과 의례에서 경계를 통과하는 과정
 - 상호 대립하는 두 요소를 모두 포함하여 대립을 조화시키는 특성
 - 음양의 조화를 추구하는 동양 사유의 변화와 생성에 초점
- 동서양 사유의 차이와 통합
 - 서양: 분석적이분법적 사유 → 주체-객체, 정신-물질의 분리
 - 동양: 종합적순환적 사유 → 천지인의 상호 관계성 강조
 - 상관적 사유의 리미널리티를 통해 동서양 천지인 사유의 통합 가능
- 두 사상의 핵심 방법론: 상관적 사유의 재활성화
 - 동학사상: 작란(作亂)과 포태(胞胎)의 리미널리티로 자생적 근대성 진입
 - 대순사상: 치란(治亂)과 관왕(官旺)의 리미널리티로 자생적 근대성 재활성화

상관적 사유와 리미널리티

동학사상의 특성

동학사상의 특성

- 천사문답(天使問答)과天外천(天外天): 초월적 천(天)의 개념 도입
 - 천지인 삼계에 상관적 사유의 리미널리티를 재활성화하는 계기
 - 서양의 인격신과 동양의 이법천을 통합하는 새로운 천관(天觀) 제시
- 삼계관의 재구성: 새로운 천관지관인간관 제시
 - 시천주(侍天主): 하늘을 모시는 인격적 천관
 - 조화정(造化定): 조화로운 땅의 질서 확립
 - 영세불망(永世不忘): 영원히 잊지 않는 인간의 도리
- 자생적 근대성의 한계: 유교의 전헌(前獻)을 넘지 못함
 - 귀신론적 천지관계, 기화론적(氣化論的) 천인관계, 왕후장상의 지인관계
 - 현실 변혁의 논리로서 한계를 드러내며 농민운동으로 귀결
- 리미널리티의 특성: 작란(作亂)과 포태(胞胎)
 - 작란(作亂): 기존 질서에 대한 저항과 혼란의 리미널리티
 - 포태(胞胎): 새로운 시대를 잉태하는 태동기적 특성
 - 자생적 근대성 진입 단계로서의 상관적 사유 재활성화 시도

대순사상의 특성

- 구천의 인신강세: 대순사상의 천계관 확립
 - 동학사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신인의도적(神人依導的) 삼계관 구축
 - 무극태극을 정립하여 이법천(理法天)과 인격천의 음양합덕 실현
- 신명과 원한개념 도입: 상관적 사유의 확장
 - 신명계를 통한 천지인 삼계의 유기적 연결
 - 해원상생·보은상생의 종교적 법리 확립
- 삼계관의 재구성: 천지인계의 통합적 관점
 - 인신강세의 천계관, 천지성경신의 지계관, 성사재인의 인계관
 - 여천지동(與天地同)의 원리로 삼계의 상호 교류 실현
 - 지상천국의 천지관계, 천지보은의 천인관계, 지상신선의 지인관계 구축
- 치란(治亂)과 관왕(官旺)의 재활성화: 자생적 근대성의 실현
 - 동학사상의 작란(作亂)과 포태(胞胎) 리미널리티를 극복
 - 천지공사와 수도를 통한 자생적 근대성의 실천적 구현
 - 참동학의 제시: 동학사상을 재활성화한 장기적 리미널리티 실현

대순사상의 특성

두 사상의 비교 분석

두 사상의 비교 분석

- 상관적 사유의 재활성화 과정
 - 동학사상: 단기적 리미널리티에 치중, 재활성화의 진입 기어
 - 대순사상: 동학사상을 재활성화하여 참동학제시, 재활성화의 완성
- 천관지관인간관의 구체적 비교

구분	동학사상	대순사상
천관(天觀)	시천주(侍天主)의 천관	인신강세(人身降世)의 천계관
지관(地觀)	조화정(造化定)의 지관	천지성경신(天地誠敬信)의 지계관
인간관(人間觀)	영세불망(永世不忘)의 인간관	성사재인(成事在人)의 인계관

- 자생적 근대성 구현 방식의 차이점
 - 동학사상: 직란(作亂)과 포태(胞胎)의 리미널리티, 유교의 전현을 완전히 넘지 못함
 - 대순사상: 치란(治亂)과 관왕(官旺)의 리미널리티, 신명과 원한 개념 도입
 - 대순사상은 음양합덕, 삼재확립, 오행구비의 상관적 사유로 동서양 근대성 통합

연구의 의의와 가치

연구의 의의와 가치

- 서구 근대성 위기에 대한 대안 제시
 -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의 자생적 근대성: 소수 담론이나 동아시아 상관적 사유의 유일한 근대성 담론
 - 기후위기, 핵위협 등 근대성의 총체적 위기에 대응하는 대안적 근대성 제시
 - 동서고금의 천관지관인간관의 장점을 상관적 사유의 리미널리티로 통합
- 동아시아 근대성의 성장 해결방안 제시
 - 한중일 삼국 중 유일하게 상관적 사유 기반의 자생적 근대성 모델 제공
 - 새로운 성장을 위한 모델로서 잃어버린 동아시아 근대성 회복
 - 개인과 공동체 차원에서 적용 가능한 새로운 생존 전략 제시
- 비교사상적 이해 증진에 기여
 - 천관지관인간관을 중심으로 한 비교를 통해 두 사상의 의의와 가치를 융이하게 이해
 - 동서양 사상 및 현대 과학사상과의 비교를 통한 특성 파악
 - 학문적 가치를 넘어 실천적 적용 가능성 제시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 기존 근대성 연구 수용 한계
 - 상관적 사유의 천관지관인간관에만 치중하여 기존 근대성 연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 향후 과제: 생태학 등 다양한 분야의 근대성 연구 성과 반영 필요
- 세부적 논의 부족
 - 천관지관인간관이라는 광범위한 연구 영역으로 인한 세부 논의 한계
 - 향후 과제: 학제간 연구를 통한 더욱 심도 있는 비교 분석 필요
- 구체적 사례 제시 부족
 - 상관적 사유의 자생적 근대성이 성공적으로 구현된 구체적 사례 소개 부족
 - 향후 과제: 다양한 적용 사례와 구체적 연구모델 개발로 대안적 근대성 실현 방안 제시
- 후속 연구 방향
 -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의 현대적 적용 가능성 모색
 - 기후위기, 핵위협 등 근대성의 총체적 위기에 대응하는 대안적 근대성 모델로서의 실천 방안 연구